

| 연구보고 CR 2017-01 |

교과서의 표기·표현 개선 방향 연구

|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2016년 동아출판(주)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대안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려 합니다.

교과서의 표기·표현 개선 방향 연구

|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책임자	민현식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자	조진수 (서울대학교)
	강효경 (서울대학교)
	박진희 (서울대학교)
	김자영 (서울대학교)
	소지영 (서울대학교)
	김기훈 (덕성여자고등학교)
	박인규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이주영 (광남중학교)
	김미나 (남동초등학교)
	변자정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박 원 (동아출판(주))

교과서의 표기·표현 개선 방향 연구

본 연구는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표기 및 표현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표기 및 표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표기 및 표현 검토를 위한 분석 틀을 개발하여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 편수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정 및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교과별 계열성을 고려할 때 인정 도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 도서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어, 사회, 역사/한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통합 교과 교과서 총 209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확성 영역은 표기와 표현 측면으로 구분하여 표기의 정확성 차원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표현의 정확성 차원에서는 어휘 의미, 문장 어법 관련 문제를 분석하였다. 소통성 영역은 단어의 소통성, 문장의 소통성, 텍스트의 소통성으로 구분하여 단어 차원에서는 어휘 선택,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 어휘 사용의 일관성 문제를 다루었고, 문장 차원에서는 문법 요소, 문장 구조, 문장 내 의미 구성, 번역투 표현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텍스트의 소통성 차원에서는 문단 내 표면 결속, 문단 내 의미 결속, 문단 간 연결 문제를 다루었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객관성, 비차별성, 품위성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09권의 교과서에서 1,516건의 표현 및 표기 관련 문제를 확인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확성 영역은 1,039건(68.54%), 소통성 영역은 446건(29.42%), 공공성 영역은 31건(2.04%)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영역에서는 띄어쓰기 문제가 60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와 어미 사용 문제와 문장 성분 호응 문제도 각각 111건, 89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의 소통성 39건, 문장의 소통성 383건, 텍스트 소통성 24건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기술이 9건, 차별 표현이 20건으로 나타났고, 교과서의 품위성과 관련하여 저속한 표현이 2건 확인되었다.

교과서 표기 및 표현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확성 영역의 경우 국어 문법, 어문 규범, 표준국어대사전, 편수 자료 차원에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어 문법의 측면에서는 언어 사용자들의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가, 어문 규범의 측면에서는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규범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 편수 자료의 문제, 표준국어대사전과 편수 자료의 상충 문제 등이 나타났다.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로 인하여 독자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 이중 사동을 남용하는 문제,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필수 성분의 생략,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수식 구조 사용, 대등하지 않은 문법 층위의 접속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과 번역투의 사용 문제가 나타났고,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으로 인하여 문단 내 부적절한 표면 결속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공성 영역의 경우 객관성, 비차별성, 품위성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원인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고정관념을, 인종·성별·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교과서 집필진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품위성 차원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교육용 텍스트라는 교과서 언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 공공성 영역의 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아 문제의 전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교과서 개발이 교과서 편수 자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수 자료의 적절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자료 체계 및 구성 차원에서 편찬 시기, 편찬 체계, 편찬 형식을 검토하였고, 자료 내용 차원에서는 편수 지침의 내적 일관성, 편수 자료 내 교과 간 용어 불일치 문제,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 간의 내용 불일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표기 및 표현 문제의 원인 진단과 교과서 편수 자료의 체계 및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표기, 표현 지침을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서 표기 및 표현 지침은 교과서 및 편수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교과서 표기 및 표현, 교과서 편수 자료,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교과서 표기 및 표현 지침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thographies and Expressions in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rthographies and expressions in textbooks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ed curricula in 2007 and 2009, and to find the ways of improvement of orthographies and expressions in textbooks based on the analysis. To this end, the study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orthographies and expressions in textbooks, analyzed them in terms of accuracy, communication, and publicness, and also analyzed the data of editing textbooks that is the basis of textbook writing.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selected mainly among statutory and authorized textbooks, based on “the No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f Statutory, Authorized, and Approved Textbook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selected among approved textbooks as well when necessary to include them considering the sequentiality of each subject. Based on these criteria, a total of 209 textbook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mong textbooks of Korean, social studies, history/Korean history, ethics, mathematics, scienc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music, art, physical education, and integrated subjects.

The area of accuracy is divided into orthography and expression; in terms of the accuracy of the orthographies, we analyzed Korean language spelling rules, standard language regulations, foreign word orthographies, and Romanization of Korean words, and in terms of the accuracy of expressions, lexical meanings and sentence patterns. In the area of communication, we divided the area into word communication, sentence communication, and text communication; in word communication, we dealt with selections of vocabulary, abuse of loanwords and foreign words, and problems of consistency of vocabulary use, and in sentence communication, grammatical elements, sentence structures, semantic compositions in sentences, and problems of translationese-like expressions, while in text communication, issues such as surface unity in paragraphs, semantic unity in paragraphs, and inter-paragraph connections were covered. In the area of publicnes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erms of objectivity, non-discrimination, and dignity.

As the result of analysis, we identified 1,516 problems of expressions and orthographies in the 209 textbooks. By area, 1,039 cases (68.54%) were in the accuracy area, 446 cases (29.42%) in the communication area, and 31 cases (2.04%) in the publicness area. In the accuracy area, word spacing problems were the most frequent with 602 cases, and incorrect usages of postpositions or endings and mismatches among constituents of sentences were also relatively high with 111 and 89 cases, respectively. In the communication area, there were 39 cases of word communication, 383 cases of sentence communication, and 24 cases of text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publicness area, there were 9 subjective or biased descriptions, 20 discriminative expressions, and 2 vulgar expressions related to the dignity of textbook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uses of orthography and expression problems in textbooks by a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area of accuracy, the causes can be found in Korean grammar, language norms,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nd the data of editing. In the aspect of Korean gramma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the problem of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grammar by the language users, and the problems of the lack of recognition of language norms and the norms themselves in the aspect of language norms. In addition, there are the problems of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of the data of editing, and of conflicts between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and the data of editing.

In the area of communication,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xact recognition of word meaning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sentence structure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consideration of Korean expressions, and the lack of sensitivity to sentence connection were confirmed. Due to the lack of clear recognition of meanings of words, there were problems of using vocabulary that does not fit readers' levels, using double passiveness, abusing double causative verbs, and using unnecessary semantic redundant expressions.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sentence structures caused problems such as use of inadequate passive expressions, omission of essential elements, use of unnatural or ambiguous modifying structures, and linking of unequal grammatical levels. In addition,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Korean expressions led to the problems of abusing loanwords and foreign words and using translationese-like expressions, and the problem of inadequate surface unity in paragraphs were caused by the lack of sensitivity to sentence connections.

In the area of publicness, we identified the causes of the problems in terms of objectivity, non-discrimination, and dignity. Subjective and biased expressions were used because of the

underlying stereotypes in our society and culture,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discriminative expressions by the textbook writers caused discriminative expressions about race, gender, and religion.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blem of dignity is that a characteristic of textbook language, i.e. educational text, was not considered sufficiently. However, the problems in the publicness area were less frequent than in the other areas,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whole account.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is influenced by the data of editing textbooks, we also examined the adequacy of this data. The publishing date, system, and form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data system and composition. And in terms of the data content,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editing guides,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terms in the editing data and in textbooks, and the content discrepancy between the editing data and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extbook orthography and expression guidelines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by textbook developers are divided into accuracy, communication, and publicness based on the cause diagnosis of textbook orthography and expression problems, and the system and content analysis results of the editing data of textbooks. It is expected that the textbook orthography and expression guideline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authors and editors of textbooks as they are inductively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extbooks and editing data. In the future, discussions on how to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Orthography and expression in textbooks, Data of editing textbooks, Accuracy, Communication, Publicness, Guidelines of orthography and expression in textbooks

■ 차례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2.1. 연구 범위 및 대상	2
2.2. 연구 방법과 절차	10
3. 기존 연구 동향	14
II. 교과서 표기·표현 문제 양상	19
1.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 틀	19
1.1. 분석 틀 개발 과정	19
1.2.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 틀	22
2. 분석 결과 개요	25
3. 영역별 분석 결과	31
3.1.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31
3.1.1. 표기의 정확성	31
1) 한글 맞춤법 규정	31
2) 표준어 규정	65
3) 외래어 표기법	69
4) 로마자 표기법	75
3.1.2. 표현의 정확성	76
1) 어휘 의미	76
2) 문장 어법	87
3.2.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	105
3.2.1. 단어의 소통성	105
1) 어휘 선택	105
2)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	109
3) 어휘 사용의 일관성	111

3.2.2. 문장의 소통성	113
1) 문법 요소	113
2) 문장 구조	120
3) 문장 내 의미 구성	128
4) 번역투 표현	135
3.2.3. 텍스트의 소통성	139
1) 문단 내 표면 결속(응결성)	139
2) 문단 내 의미 결속(응집성)	142
3) 문단 간 연결	148
3.3.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150
3.3.1. 객관성	150
3.3.2. 비차별성	154
3.3.3. 품위성	163
Ⅲ. 교과서 표기 · 표현 문제의 원인 및 편수 자료 분석	164
1. 분석 영역별 원인	164
1.1. ‘정확성’ 영역 원인 분석	164
1.1.1.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	165
1.1.2.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195
1.1.3. 어문 규범상의 문제	201
1.1.4.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209
1.1.5.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	215
1.1.6. 편수 자료의 문제	223
1.1.7. 표준국어대사전과 편수 자료의 상충 문제	227
1.2. ‘소통성’ 영역 원인 분석	232
1.2.1.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재	232
1.2.2.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238
1.2.3.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	245
1.2.4.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	248

1.3. ‘공공성’ 영역 원인 분석	250
1.3.1. 사회·문화적 고정관념 작용	250
1.3.2.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	253
1.3.3. 교과서 언어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255
2. 교과서 편수 자료의 문제점 분석	257
2.1. 교과서 편수 체계 및 구성의 문제	258
2.1.1. 편찬 시기의 문제	258
2.1.2. 편찬 체계의 문제	262
2.1.3. 편찬 형식의 문제	270
2.2. 교과서 편수 자료의 내용 문제	272
2.2.1. 지침의 구체성 문제	272
2.2.2. 정보의 정확성 문제	276
2.2.3. 표준국어대사전과 내용 불일치 문제	277
IV. 교과서 표기·표현 개선 방향	281
1. 교과서 표기·표현 지침	281
1.1. ‘정확성’ 영역의 표기·표현 지침	281
1.2. ‘소통성’ 영역의 표기·표현 지침	302
1.3. ‘공공성’ 영역의 표기·표현 지침	313
2. 교과서 편수 자료 개선 방향	316
2.1.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향	316
2.2. 내용적 차원의 개선 방향	317
V. 결론 및 제언	320
1. 결론	320
2. 제언	322
참고 문헌	324
[부록] 교과서의 교과별 표기·표현 개선 목록	329

■ 표 목차

〈표 Ⅰ-1〉 교과별 분석 대상 교과서 수	3
〈표 Ⅰ-2〉 단계별 연구 내용	10
〈표 Ⅰ-3〉 1단계 연구 절차	11
〈표 Ⅰ-4〉 3단계 연구 절차	12
〈표 Ⅱ-1〉 영역별 분석 결과	25
〈표 Ⅱ-2〉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26
〈표 Ⅱ-3〉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단어, 문장)	27
〈표 Ⅱ-4〉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텍스트)	28
〈표 Ⅱ-5〉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29
〈표 Ⅲ-1〉 빈도·내용의 긍정성 정도에 따른 분류	252
〈표 Ⅲ-2〉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차별적·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	254
〈표 Ⅲ-3〉 유형별 대표적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	254
〈표 Ⅲ-4〉 교과서 표기·표현 및 편집 관련 평가(심사) 기준	255
〈표 Ⅲ-5〉 교과서 편수 자료의 발간 역사	260
〈표 Ⅲ-6〉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체계	263
〈표 Ⅲ-7〉 2011년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수 자료 체계	263
〈표 Ⅲ-8〉 2012년 발간된 한국창의과학재단의 편수 자료 체계	263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수행 체계	13
[그림 Ⅱ-1] 영역별 분석 결과	25
[그림 Ⅱ-2]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26
[그림 Ⅱ-3]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단어, 문장)	27
[그림 Ⅱ-4]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텍스트)	28
[그림 Ⅱ-5]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29
[그림 Ⅱ-6] 2007-고-상-국어 교과서의 친족 호칭과 관련된 그림	158
[그림 Ⅲ-1]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 일부	264
[그림 Ⅲ-2]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 일부	264
[그림 Ⅲ-3]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음악 교과의 목차와 내용 일부	266
[그림 Ⅲ-4]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체육 교과의 내용 일부	267
[그림 Ⅲ-5]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세계사 교과의 내용 일부	268
[그림 Ⅲ-6]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부록3. 표기 사례’의 일부	273
[그림 Ⅲ-7]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부록3. 표현 사례’의 일부	273
[그림 Ⅲ-8]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지리 교과의 내용 일부	277

I. 서론

1. 연구 목적

교과서는 교사의 교수 활동과 학생의 학습 활동을 매개하는 교수·학습의 매개물로서 교수·학습에 효과적 내용과 체재로 개발되고 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교과서 연구를 통해 해당 교육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교과서가 교실 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활용되는 교재이지만, 동시에 표기와 표현 차원에서 설명 언어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교과서는 다른 도서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표기와 표현 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서 표기와 표현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새로 개발된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의 표기·표현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가 주로 어법 준수나 국어 순화 측면의 분석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교과서가 공교육에서 활용되는 모범적 성격을 지닌 교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토의 범위를 어법 준수나 국어 순화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사용된 표현 중 차별성을 지닌 것은 없는지, 편파적인 태도가 전제된 것은 없는지 내용의 객관성 측면의 검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후속으로 이루어진 2011 개정 교육과정 포함)에 따른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검토하되, 어법 차원뿐 아니라 소통성 차원과 공공성 차원을 포함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교과서뿐 아니라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도 검토 대상으로 삼아 편수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특정 교과서의 표기·표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후 교과서 개발 시 표기·표현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표기·표현 문제를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차원에서 분석해 양상과 원인을 확인하고, 편수 자료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도 함께 고려해 교과서 편찬자들이 표기·표현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하여 연구 결과가 실용성을 떨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7, 2009(2011 포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표기·표현 문제를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한다.
-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 교과서 및 편수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표기·표현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및 대상

1장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범위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정 및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교과별 계열성을 고려할 때 인정 도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 도서도 선정하였다. 예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과학 교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인정 도서라 인정 교과서를 제외할 경우 수학, 과학 교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전부 누락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 도서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고등학교 보통교과 검정도서의 경우 선택 과목은 일부 과목만 선정하였고, 국어 표기·표현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어, 한문 교과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정 학년의 교과서만을 선정할 경우, 학년 및 학년군 간 위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표성이 떨어지므로, 전 학년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교과별, 학년별 검토 대상 교과서 선정 시 특정 출판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¹⁾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국어, 사회(사회과부도 포함), 역사/한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통합 교과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국정 교과서 123권, 검정 교과서 71권, 인정 교과서 15권, 총 209권의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 표기를 분석하였다.²⁾

〈표 1-1〉 교과별 분석 대상 교과서 수

교과	교육과정	학교급	분석 대상 교과서 수	계
국어	2007 개정	초등학교	14	19
		중학교	3	
		고등학교	2	
	2009 개정	초등학교	12	20
		중학교	6	
		고등학교	2	
사회	2007 개정	초등학교	8	11
		중학교	2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8	11
		중학교	2	
		고등학교	1	

1)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학년별로 검정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학교 1, 2, 3학년 모두 검정 심의를 통과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209권의 교과서 발행 기관은 '교육부'를 비롯하여 '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대교, 더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동아출판, 동화사, 두배의느낌, 두산동아, 디딤돌, 리베르스쿨, 미래엔, 미진사, 박영사, 비상교과서, 비상교육, 삼양미디어, 삼화출판사, 상상아카데미, 성림출판사, 성안당, 성지문화사, 아침나라, 유웨이중앙교육, 좋은책신사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 창비, 천재교과서, 천재문화, 천재교육, 해냄에듀'의 33개 출판사에 이른다.

교과	교육과정	학교급	분석 대상 교과서 수	계
(사회과부도)	2007 개정	초등학교	-	1
		중학교	1	
		고등학교	-	
	2009 개정	초등학교	-	1
		중학교	1	
		고등학교	-	
역사/한국사	2007 개정	초등학교	-	3
		중학교	2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	3
		중학교	2	
		고등학교	1	
도덕/윤리	2007 개정	초등학교	6	9
		중학교	3	
		고등학교	-	
	2009 개정	초등학교	4	7
		중학교	2	
		고등학교	1	
수학	2007 개정	초등학교	12	16
		중학교	3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12	17
		중학교	3	
		고등학교	2	
과학	2007 개정	초등학교	8	11
		중학교	3	
		고등학교	-	
	2009 개정	초등학교	8	12
		중학교	3	
		고등학교	1	

교과	교육과정	학교급	분석 대상 교과서 수	계
기술·가정	2007 개정	초등학교	2	6
		중학교	3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2	5
		중학교	2	
		고등학교	1	
음악	2007 개정	초등학교	3	7
		중학교	3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2	3
		중학교	1	
		고등학교	-	
미술	2007 개정	초등학교	2	4
		중학교	1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2	3
		중학교	1	
		고등학교	-	
체육	2007 개정	초등학교	3	7
		중학교	3	
		고등학교	1	
	2009 개정	초등학교	4	5
		중학교	1	
		고등학교	-	
통합 교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2007 개정	초등학교	12	12
		중학교	-	
		고등학교	-	
	2009 개정	초등학교	16	16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209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3〉

■ 국어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국어	[국정] 듣기·말하기 1-2, 2-2 읽기 1-1, 2-1, 3-1, 4-1, 5-1, 6-1 쓰기 1-2, 2-2 듣기·말하기·쓰기 3-2, 4-2, 5-2, 6-2
	중	국어	[검정] 국어 1-1, 국어 2-1, 국어 3-1
	고	국어	[검정] 국어(상), 국어(하)
2009 개정	초	국어	[국정] 국어 1~2 ①-가 ②-가 ③-나 ④-가 국어 3~4 ①-나 ②-가 ③-가 ④-나 국어 5~6 ①-가 ②-나 ③-가 ④-가
	중	국어	[검정] 국어 ①, 국어 ②, 국어 ③, 국어 ④, 국어 ⑤, 국어 ⑥
	고	국어	[검정] 국어 I, 국어 II

■ 사회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사회	[국정] 사회 3-1, 3-2, 4-1, 4-2, 5-1, 5-2, 6-1, 6-2
	중	사회	[검정] 사회 ①, 사회 ③
	고	사회	[검정] 사회
2009 개정	초	사회	[국정] 사회 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 5~6학년군 5-1, 5-2, 6-1, 6-2
	중	사회	[검정] 사회 ①, 사회 ②
	고	사회	[검정] 사회

■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중	역사	[검정] 역사(상), 역사(하)
	고	한국사	[검정] 한국사
2009 개정	중	역사	[검정] 역사 ①, 역사 ②
	고	한국사	[검정] 한국사

- 3) 본 연구의 목적이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표기와 표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교과서를 발행한 출판사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 사회과부도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중	사회과 부도	[검정] 사회과부도
2009 개정	중	사회과 부도	[검정] 사회과부도

■ 도덕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도덕	[국정] 도덕 3-1, 3-2, 4-1, 4-2, 5, 6
	중	도덕	[검정] 도덕 ①, 도덕 ②, 도덕 ③
2009 개정	초	도덕	[국정] 도덕 3~4학년군 3, 4 도덕 5~6학년군 5, 6
	중	도덕	[검정] 도덕 ①, 도덕 ②
	고	생활과 윤리	[검정] 생활과 윤리

■ 수학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수학	[국정] 수학 1-가, 수학 1-나, 수학 2-가, 수학 2-나, 수학 3-가, 수학 3-나, 수학 4-가, 수학 4-나, 수학 5-가, 수학 5-나, 수학 6-가, 수학 6-나
	중	수학	[검정] 수학 ①, 수학 ②, 수학 ③
	고	수학	[검정] 수학I
2009 개정	초	수학	[국정] 1-2학년군 수학 ①, ②, ③, ④ 3-4학년군 수학 ①, ②, ③, ④ 5-6학년군 수학 ①, ②, ③, ④
	중	수학	[인정] 수학 ①, 수학 ②, 수학 ③
	고	수학	[인정] 수학 I, 수학 II

■ 과학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과학	[국정] 과학 3-1, 3-2, 4-1, 4-2, 5-1, 5-2, 6-1, 6-2
	중	과학	[검정] 과학 ①, 과학 ②, 과학 ③
2009 개정	초	과학	[국정] 3-4학년군 과학 ①, ②, ③, ④ 5-6학년군 과학 ①, ②, ③, ④
	중	과학	[인정] 과학 ①, 과학 ②, 과학 ③
	고	과학	[인정] 과학

■ 기술·가정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실과	[검정] 실과 5학년/6학년
	중	기술·가정	[검정] 기술·가정 1학년 / 2학년 / 3학년
	고	기술·가정	[검정] 기술·가정
2009 개정	초	실과	[검정] 5-6학년군 ①, ②
	중	기술·가정	[인정] 기술·가정 ①, ②
	고	기술·가정	[인정] 기술·가정

■ 음악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음악	[국정] 음악 3, 4학년 [검정] 음악 5학년 / 6학년
	중	음악	[검정] 음악 1학년 / 2학년 / 3학년
	고	음악	[검정] 음악
2009 개정	초	음악	[검정] 음악 3~4 / 5~6
	중	음악	[인정] 음악

■ 미술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미술	[국정] 미술 3~4학년(합본) [검정] 미술 5~6학년(합본)
	중	미술	[검정] 미술
	고	미술	[검정] 미술
2009 개정	초	미술	[검정] 미술 3~4 / 미술 5~6
	중	미술	[인정] 미술

■ 체육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체육	[국정] 체육 3, 4학년 [검정] 체육 5학년 / 6학년
	중	체육	[검정] 체육 1학년 / 2학년 / 3학년
	고	체육	[검정] 체육
2009 개정	초	체육	[검정] 체육 3~4 ①, ② 체육 5~6 ①, ②
	중	체육	[인정] 체육

■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통합교과

교육과정	학교급	교과명	분석 대상 교과서
2007 개정	초	바른 생활	[국정] 바른 생활 1-1, 1-2 / 2-1, 2-2
		슬기로운 생활	[국정] 슬기로운 생활 1-1, 1-2 / 2-1, 2-2
		즐거운 생활	[국정] 즐거운 생활 1-1, 1-2 / 2-1, 2-2
2009 개정	초	통합교과 1~2학년군	[국정] 봄 1-1, 2-1 / 여름 1-1, 2-1 / 가을 1, 2-2 / 겨울 1, 겨울 2 / 학교 1-1 / 가족 1-1, 2-1 / 이웃 1-2, 2-2 / 나 2-1 / 우리나라 1, 2-2

2.2. 연구 방법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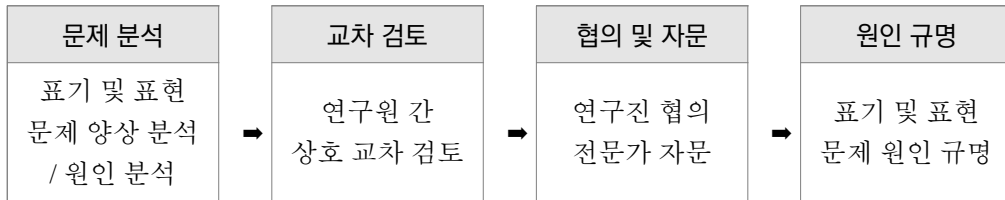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와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교과서와 편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표기·표현 개선 지침을 개발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단계별 연구 내용

① 단계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표기·표현 적절성 및 원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표기·표현 적절성 검토 ▪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영역별 분석 / 교과별 분석 ▪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표현 및 표기 문제의 원인 분석
↓	
② 단계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절성 검토 ▪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③ 단계	교과서 표기 및 표현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과서 표기·표현 지침 및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 개선 방향 제시

1단계에서는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영역별 하위 평가 요소가 포함된 분석틀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표기·표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표기 및 표현 사례에는 분석틀에 명시된 하위 유형별 분류 번호를 부여한다. 연구원 간 상호 교차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후 연구진 간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영역별로 확인된 문제 사례의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과별 표기·표현 문제의 특성도 확인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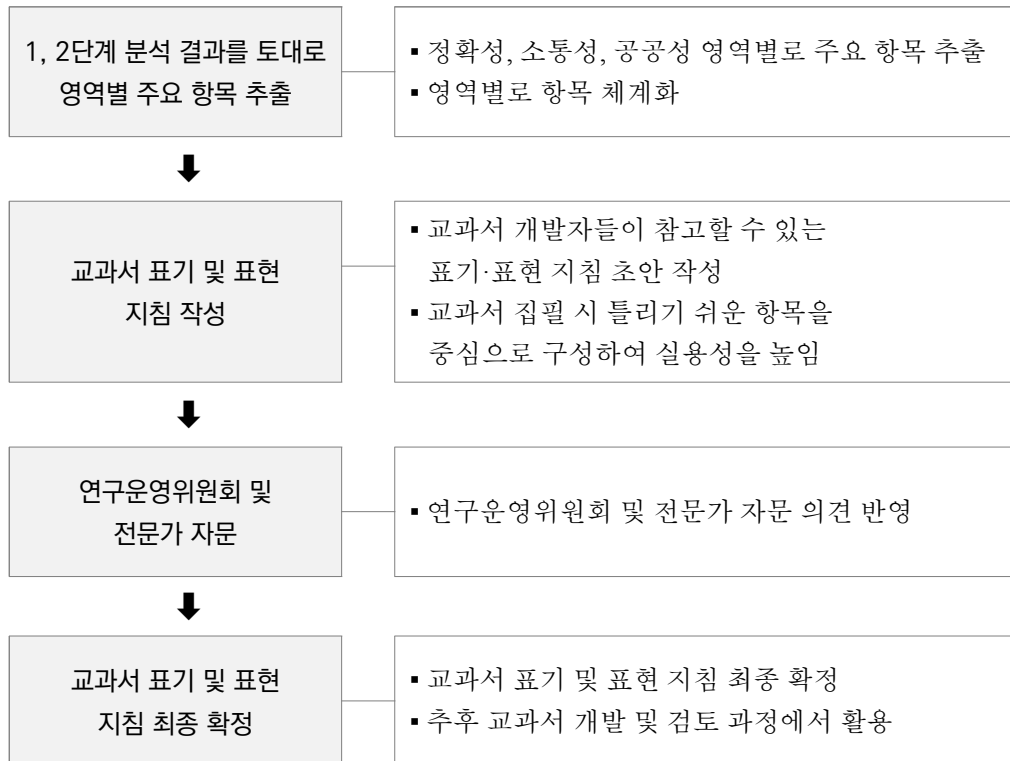
〈표 1-3〉 1단계 연구 절차



2단계에서는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를 대상으로 기술 방식의 문제, 활용상의 제한점 등을 분석한다. 편수 자료는 교과서 집필 시 활용되는 것이므로, 편수 자료에 대한 검토는 1단계에서 이루어진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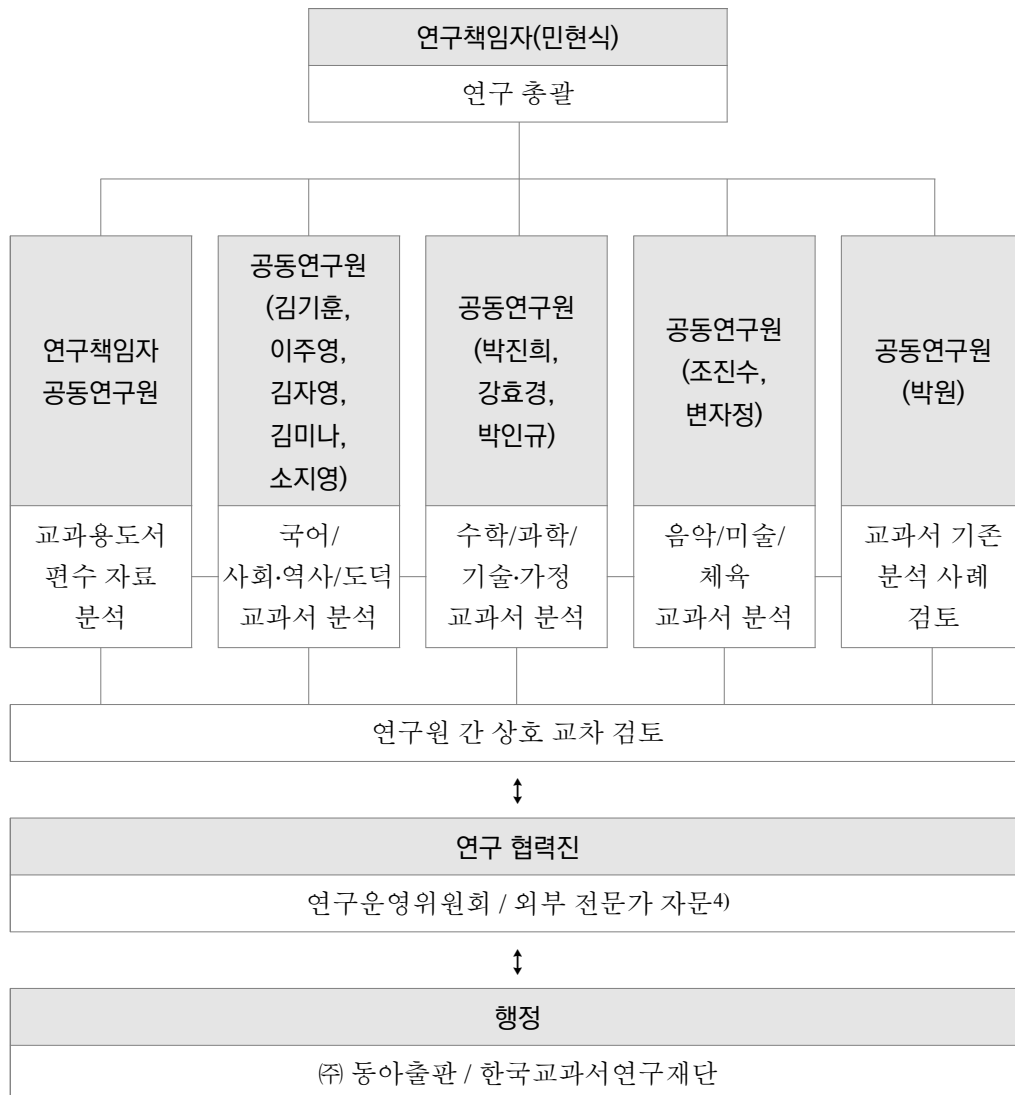
3단계에서는 교과서 및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표기·표현 지침을 작성하고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 의견, 교과서연구재단 연구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 교과서 표기·표현 지침은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들이 교과서 개발 및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성격을 띌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 대상이 국정 혹은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개발 시 표기 및 표현 차원에서 틀리기 쉬운 실제적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3단계의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3단계 연구 절차



이러한 3단계의 연구 절차는 연구진 간, 연구진과 연구 협력진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각 연구원들이 교과를 분담하여 1차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원 간 상호 교차 검토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의 경우 모든 연구원이 각자 맡은 교과를 대상으로 1차 분석 후 지속적인 상호 교차 검토를 실시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외부 전문가 및 연구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다시 연구진이 반영하는 방식의 환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수행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4) 외부 전문가로 도움을 준 분들은 다음과 같다: 박삼서(교육부 전 편수관, 현 교과서재단 교과서 상담센터장), 박성익(서울대 교육과 명예교수), 최용기(국립국어원 연구관)

3. 기존 연구 동향

교과서의 문장 표기·표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초창기 연구는 이수열(1996)에서 시작된다. 이수열(1996, 1997a, 1997b, 1997c, 1997d, 1998a, 1998b, 1998c, 1998d, 1999a, 1999b, 1999c)은 1996년 3월 1일에 발행된 《고등학교 국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를 드러낸 일련의 논의들이다. 이 논의들은 ‘영어 직역체(1), (2)’, ‘일어 직역투(3), (4)’, ‘變態서술어로 표현한 기형문(5), (6)’, ‘그 밖의 잡다한 拙文(7), (8)’, ‘상식을 벗어난 부사 용법(9)’, ‘서로 구별해 써야 할 말들(10), (11)’, ‘그 밖의 잡다한 기현상(12)’과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국어답지 못한 표현’을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가장 국어다워야 할 국어 교과서의 문장이 사실상 국어답지 못한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어 교과서가 《고등학교 국어(상)》 한 권인 만큼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빠짐없이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 잘못된 표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의 문장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수정하고 있는 것은 정확성이라는 잣대를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교과서의 문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이현우(1999)에서는 교과서가 모범이 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6차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 《국어》, 《사회》, 《국사》, 《도덕》, 《환경》, 《컴퓨터》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국사》, 《문법》, 《정치》, 《경제》 교과서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드러내었다. 이 논의에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어휘의 사용’ 면에서는 필수 성분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성분이 더 들어간 경우, 의미상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여 의도하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하였다. 또한, ‘나열 및 접속’ 면에서는 내용이나 구조가 동질적이지 않은 단어를 나열하

거나 접속하여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예’에서는 불필요한 단어의 반복, 복합어의 띄어쓰기, 어색한 명사구의 사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는 ‘단어 및 구 차원’에서 해당 단어가 의미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된 경우를 실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문장 및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하여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임동훈(1999), 양명희(2000), 양명희 외(2000)는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장 실태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임동훈(1999)은 중학교 국정 교과서 6종 16권(《국어》, 《국사》, 《사회》, 《도덕》, 《환경》, 《컴퓨터》)을, 양명희(2000)는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7종 9권(《국어》, 《문법》, 《국사》, 《공통사회》, 《윤리》, 《경제》, 《정치》)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명희 외(2000)는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전 교과서 9종 36권과, 6차 교육과정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 3종 9권(《음악》, 《미술》, 《체육》)을 다루었다. 이들 세 보고서는 표기, 어휘, 문장, 문단의 측면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주요 세부 항목들은 표기(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휘(어휘의 부정확한 사용, 한자가 잘못된 단어 등), 문장(호응, 접속 관계, 내포 관계 등), 문단(문단 형식 등)과 같이 주로 정확성의 관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 등 교과서로서의 소통을 고려한 항목 역시 존재한다. 예컨대 어휘의 세부 항목(난이도의 문제, 한자 표기가 필요한 어휘, 교육 효과가 없는 어휘 등)은 용인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문단의 세부 항목(빈약한 문단, 통일성, 정합성, 문단 배열)은 응집성 등 주로 텍스트의 적절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학교급의 여러 교과서 실태를 조사하여 세부 사례를 제시한 점, 학교급이나 교과에 따라 지니는 표현상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전문 용어 띄어쓰기와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 점 등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검토의 거시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언어 단위 차원에서 항목을 설정한 점은, 연구의 교육적 효과를 정련할 때 체계성이나 방향성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인제 외(1999)는 국립국어연구원 보고서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에

서 지정한 11권의 교과서(《국어》, 《사회》, 《환경》, 《컴퓨터》) 809개 항목에 대해 검토·분석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이다. 809개 항목을 크게 표기, 어휘 선택과 사용, 문장 구조와 표현, 문단(구조와 구성)으로 분류한 뒤, 지적의 적절성, 합리성,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양립 가능’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교과서 문장 개선을 위한 제도 차원의 대책을 여섯 가지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도상의 미비점 외에도, 교열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교열자의 주관적 판단 가능성, 교과 전문성에 대한 존중 부족 등)을 이야기하고 있어, 다양한 교과를 검토할 본 연구에서도 참조할 만하다.

7차 교육과정 시기에 개발된 국정 국어 교과서 41권(초등학교 30권, 중학교 8권, 고등학교 3권)을 대상으로 국어 표기, 어휘 사용, 문장 구성, 문단 구성 차원에서 문장 실태를 조사 분석한 국립국어원 보고서인 최용기 외(2003)에서는 이전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 비하여 문장의 응결성·응집성과 관련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문법적 응결 장치 분석에서는 부적절한 접속, 부적절한 대응, 지나친 생략, 문장 성분 간 비호응, 부적절한 높임의 문제를 다루었고, 어휘적 응결 장치 분석에서는 동의 반복, 동의 반복의 문제를 다루었다. 응집성과 관련하여서는 부적절한 어휘 사용, 부적절한 비교, 부적절한 문장 부호, 부적절한 제시문의 내용, 부적절한 설명, 속된 내용, 어휘 및 구조적 중의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전의 논의에 비하여 텍스트 차원을 풍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 표기·표현 문제의 개선 방안 및 지침 마련에 좀 더 초점을 둔 연구로는 박재현 외(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6) 등이 있다. 박재현 외(2007)는 국립국어원 보고서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감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표기 감수 지침서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띄어쓰기는 품사별로 배열하고 문장 부호는 항목별로 배열하여 감수자가 찾고자 하는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예시와 문법적 설명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은 교과서 언어 표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박진용(2012)에서

는 정확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교과서 언어 표현의 분석 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확성의 분석 틀로는 규범성과 문법성을, 적절성의 분석 틀로는 응집성과 용인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분석의 중점 내용까지 상세히 예시함으로써 본 연구에 큰 참조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만, 교과서의 언어 표현을 분석하는 틀로 정확성과 적절성 외에 더 고려해야 할 기준은 없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그러한 기준이 교과서 언어 표현의 분석 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황선엽(2012)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정확성의 기준에 따라 국어와 도덕 교과서의 언어 표현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규범에 있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및 지침이 정확한 판별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준(2012)과 손예희(2012)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적절성의 분석 틀을 기준으로 각각 도덕 및 국어 교과서 언어 표현의 적절성을 진단하였다. 특히, 이들 논의는 학생과 교사 집단의 면담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언어 표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6)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 도서 윤문진을 위한 연수 자료집으로서, ‘교과용도서 표기·표현 감수 유의 사항(최혜원)’과 ‘편수 자료 편찬 목적 및 활용 방안 안내(윤천탁)’를 담고 있다. ‘교과용도서 표기·표현 감수 유의 사항’은 순화어에 대한 지침과 로마자 표기의 노출 문제 등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편수 자료 편찬 목적 및 활용 방안 안내’는 최근 개정된 편수 자료 수정·보완의 방향과 편수 자료의 활용 방안 등 교과서 표기·표현의 지침과 교과용 도서 편수 자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 참조할 만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박재현 외(2007) 이외에도 교과서 내 문장 부호 실태와 지침 및 개선안에 대하여 다룬 윤구희(2011), 윤천탁(2012)은 문장 부호가 ‘문장의 문법적(또는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문장을 바

로 읽도록 돕는(이익섭, 1996:19)’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장 부호에 대한 어문 규범은 다른 어문 규범에 비하여 복잡하지 않으나 계속해서 오용 사례가 드러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어문 규범에서 다루는 용례 및 항목의 제한 때문이라는 두 연구의 결과는, 문장 부호 어문 규범의 개선 방안 및 교과서 내 정확한 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에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문장을 모두 옳은 문장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나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과서에 있는 문장에 젖어 글을 쓸 때 이런 교과서 문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최용기(2001)의 지적과 같이, 교과서 문장은 국민 모두에게 모범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앞서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분석 틀과 세부 항목들은 정확성의 측면에서부터 용인성과 응집성의 항목을 포함한 적절성의 측면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어와 문장 차원 중심에서 점차 단락과 텍스트 차원의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틀 및 세부 항목 마련에 큰 참조점을 제시해 준다. 다만, 문장 차원의 논의와 단락 및 텍스트 차원의 논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과, 국가 차원의 교육에서 다루는 언어이기에 공공 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양식으로서 교과서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II. 교과서 표기·표현 문제 양상

1.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 틀

1.1. 분석 틀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의 기준 영역으로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을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기준 영역의 설정 근거와 실제 분석 단위로 활용된 하위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정확성’은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다루는 그간의 연구들(임동훈, 1999 ; 양명희, 2000 ; 양명희 외, 2000 ; 이인제 외, 1999 ; 최용기 외, 2003)에서 빠지지 않고 활용되는 분석 기준이다. 이는 교과서가 어문 규정을 충실히 따르는 모범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본적인 전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확성’을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의 일차적인 기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정확성’ 영역의 세부 평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근거하여 어떠한 측면의 정확성을 진단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양명희 외(2000)에서는 ‘표기’, ‘어휘’, ‘문장’, ‘문단’ 단위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문장 실태를 검토한 바 있으며, 최용기 외(2003)에서는 ‘표기와 단어 사용 실태’, ‘문장 실태’, ‘표현의 적격성 실태’,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한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를 검토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단어-문장-문단(텍스트)’이라는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한 후, 단어 및 어휘 차원에서는 어문 규정에 근거하여 표기의 정확성을, 문장 차원에서는 어법에 근거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문단 차원에서는 문장 간 혹은 문단 간 의미 전달의 적절성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최용기(2001)에서도 교과서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국어 표기의 문제’와 ‘국어 표현의 문제’로 대별하여 살펴본 바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어원(2009)에서도 ‘표기’와 ‘표현’ 부문으로

나누어 교과서 검정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확성’의 영역을 ‘표기’와 ‘표현’ 차원으로 세분화하되, 문단 이상의 단위는 정확성 차원이 아니라 적절성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성 영역에서는 문장 단위까지를 검토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표기의 정확성’ 차원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표현의 정확성’ 차원에서는 어휘가 사전적 의미에 맞게 선택되었는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졌는지, 조사와 어미가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에서는 교과서 언어 표현에 관한 연구가 정확성 측면에서 문법적 오류를 지적하는 데 치중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정확성’과 더불어 ‘적절성’을 교과서 언어 표현의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민현식 외(2010)에서는 공공언어의 장르성이 언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보고 ‘적절성’ 대신 ‘소통성’이라는 영역을 설정하였고, 이후 국립국어원이 만든 공공언어 진단의 기준으로 ‘소통성’ 영역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교과서 언어 표현의 분석 시 ‘정확성’뿐 아니라 ‘적절성’ 혹은 ‘소통성’에 해당하는 분석 영역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언어가 교사 및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소통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민현식 외(2010)를 참고하여 ‘소통성’을 분석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단, 본 연구는 민현식 외(2010)와 달리 공공언어 전체가 아닌 ‘교과서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등과 같이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한 하위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 ‘문장’, ‘텍스트(=담화)’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별로 하위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단어 차원에서는 독자(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외래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지 않았는지, 어휘 사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진단한다. 문장 차원에서는 문법 요소의 사용과 문장 구조의 선택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지, 문장 내 부적절한 생략이나 의미 중복으로 인해

학습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번역투⁵⁾의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를 진단한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문단 내 결속과 문단 간 연결이 적절한지를 진단하는데 문단 내의 결속의 경우 표면 결속과 의미 결속을 진단하고 문단 간 연결에서는 문단 간의 연결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지,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문단이 적절하게 구분되었는지를 진단한다.

교과서의 표기·표현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정확성’과 ‘적절성’ 차원의 분석 영역을 설정하여 교과서 언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가 공적 성격을 지닌 교재라는 점을 ‘정확성’과 ‘적절성’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성’이라는 평가 기준을 추가하였다. ‘공공성’이라는 평가 기준은 공공언어 진단에 관한 연구인 민현식 외(2011), 구분관 외(2012)에서도 설정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하위 범주를 ‘객관성’, ‘비차별성’, ‘품위성’으로 설정하고 각각을 교과서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최종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예컨대, ‘객관성’에서는 교과서가 객관적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⁶⁾ ‘비차별성’에서는 교과서 표현 중 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품위성’에서는 교과서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위 항목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교과서 표기·표현의 분석 틀’로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의 세 영역을 설정하고, 이 세 영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 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 5) 현재 ‘투’는 의존 명사로 등재되어 있어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비슷한 계열의 ‘말투’, ‘어투’, ‘문투’, ‘글투’, ‘편지투’ 등이 모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투’도 합성어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번역투’를 붙여 쓰기로 한다.
 - 6) 공공성 영역의 객관성 기준에서는 이 이외에도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해당하는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헌법, 법률상의 기준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사항을 훼손한 부분은 없는지의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 차원에서뿐 아니라 표현 차원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공공성 영역의 범주 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1.2.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 틀

〈평가 영역 및 요소〉

영역	요소	상위 항목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1.1.2. 표준어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1.1.3. 외래어 표기법을 지켰는가?
		1.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의 성분이 바르게 호응하고 조사와 어미가 바르게 사용되었는가?
2. 소통성	2.1. 단어의 소통성	2.1.1. 소통이 쉽도록 쉽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2.2. 문장의 소통성	2.2.1. 소통이 쉽도록 문법 요소가 적절히 쓰이고 문장 구조가 자연스러운가?
		2.2.2. 문장 내 의미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2.2.3.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투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2.3. 텍스트의 소통성	2.3.1. 문단 내 표면 결속(응결성, cohesion)은 적절한가?
		2.3.2. 문단 내 의미 결속(응집성, coherence)은 적절한가?
		2.3.3. 문단 간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3. 공공성	3.1. 객관성	3.1.1. 교과서가 객관적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가?
	3.2. 비차별성	3.2.1. 인종·지역·세대(연령)·성별·장애·직업·종교 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3.3. 품위성	3.3.1. 교과서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었는가?

〈하위 평가 항목〉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1.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띄어쓰기, 문장 부호 제외)
	(2) 띄어쓰기가 규정에 맞고 일관성 있게 되었는가?
	(3) 규정에 맞게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는가?
1.1.2. 표준어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1) 표준어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1.1.3. 외래어 표기법을 지켰는가?	(1) 외래어 표기법을 지켰는가?
1.1.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의 성분이 바르게 호응하고 조사와 어미가 바르게 사용되었는가?	(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등)이 잘 이루어졌는가?
	(2) 조사 및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2.1.1. 소통이 쉽도록 쉽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1) 독자(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2) 외래어 및 외국어를 남용하여 국어 순화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3) 어휘 사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2.2.1. 소통이 쉽도록 문법 요소가 적절히 쓰이고 문장 구조가 자연스러운가?	(1) 피동·사동·시제·높임·부정·인용 표현을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2) 명사화 구성이 적절한가?
	(3) 문장 내의 수식 구조(관형 구조)가 적절한가?
	(4) 문장 내의 접속 구조가 적절한가?
2.2.2. 문장 내 의미 구성이 자연스러운가?	(1) 문장 내에 성분이나 정보의 부적절한 중복이 있는가?
	(2) 문장 내에 성분이나 정보의 부적절한 생략이 있는가? (필요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생략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3) 문장 내에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가?
2.2.3. 우리말답지 않은 번역투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1) 일어식, 영어식 번역투 표현은 없는가?
	(2) 그 외 언어의 번역투 표현은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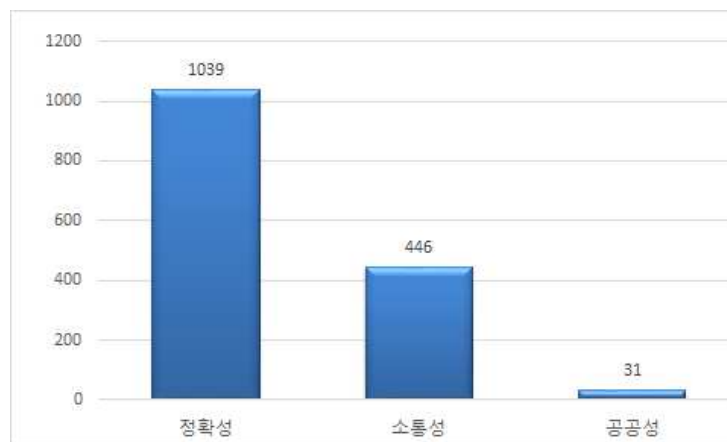
상위 항목	하위 항목
2.3.1. 문단 내 표면 결속(응결성, cohesion)은 적절한가?	(1)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접속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지시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2.3.2. 문단 내 의미 결속(응집성, coherence)은 적절한가?	(1) 문단 내에서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2) 문단 내 과도한 생략은 없는가?
2.3.3. 문단 간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1) 문단 간 연결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 (2)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문단이 적절히 구분되었는가?
3.1.1. 교과서가 객관적 기술을 유지하고 있는가?	(1) 헌법·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는가? (2)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3.2.1. 인종·지역·세대(연령)·성별·장애·직업·종교 등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1) 인종·지역·세대(연령)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2) 성별·장애·직업·종교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3.3.1. 교과서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었는가?	(1)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2) 교수·학습과 무관한 유행어, 신조어 등이 남용되지 않았는가?

2. 분석 결과 개요

분석 결과 총 209권의 교과서에서 1,516건의 표기 및 표현 관련 문제를 확인하였다.⁷⁾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확성 영역은 1,039건(68.54%), 소통성 영역은 446건(29.42%), 공공성 영역은 31건(2.04%)으로 나타났다.

〈표 II-1〉 영역별 분석 결과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계
1,039 (68.54%)	446 (29.42%)	31 (2.04%)	1,51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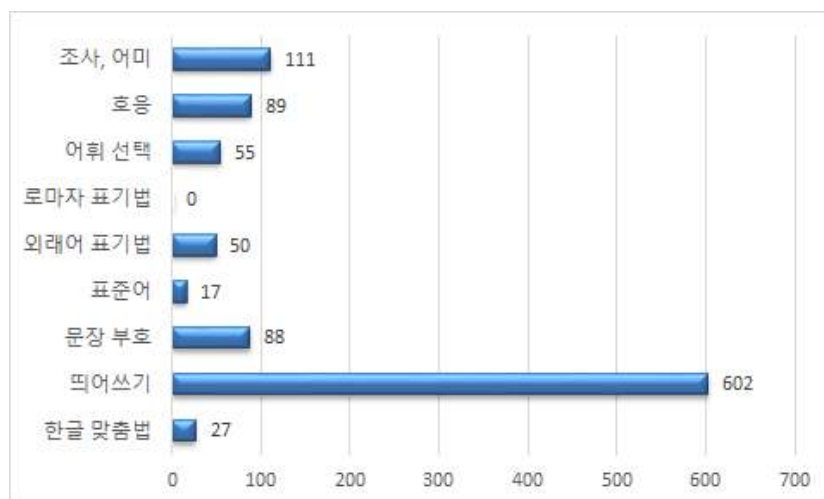
[그림 II-1] 영역별 분석 결과

7) 1,516건의 사례들 중 어문 규범이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그 원칙을 위반하여 명백하게 오류로 판명된 경우는 '원문'란에 해당 내용을 밝히고, '개선안'에 바른 표기와 바람직한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는 현행 규범이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수 자료가 미비하여 문제가 된 경우도 포함되었는데, 이 중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선안'과 '근거'란에 '-' 표시를 하고 본문에서 해당 논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규범이나 사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근거'란을 통해 그러한 필요성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합성어로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들은 '원문'란에 **+**와 같은 별도의 표시를 하여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단어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 후술하게 될 '앞발가락', '뒷발가락', '양념통', '유사색', '전지판', '종이책', '지구상', '후추통'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정확성 영역 중 한글 맞춤법 규정 관련 항목에서는 띄어쓰기 602건(57.9%), 문장 부호 88건(8.5%),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제외한 한글 맞춤법 규정 27건(2.6%)으로 나타났고, 그 외 표준어 규정 17건(1.6%), 외래어 표기법 50건(4.8%)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띄어쓰기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문장 부호와 외래어 표기법 관련 사항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현의 정확성 영역에서는 의미에 맞는 어휘 선택 문제 55건(5.3%), 문장 성분 호응 문제 89건(8.6%), 조사와 어미 사용 문제 111건(10.7%)으로 나타났다.

〈표 II-2〉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의미에 맞는 어휘 선택	문장 성분 호응	조사 어미
한글 맞춤법 규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제외)	띄어 쓰기	문장 부호						
27 (2.6%)	602 (57.9%)	88 (8.5%)	17 (1.6%)	50 (4.8%)	0 (0.0%)	55 (5.3%)	89 (8.6%)	111 (10.7%)



[그림 II-2]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의 소통성 39건(8.7%), 문장의 소통성 383건(85.9%), 텍스트 소통성 24건(5.4%)으로 나타났다. 단어의 소통성에서는 외래어 및 외국어 문제 16건(3.6%), 독자 수준 고려 문제 13건(2.9%), 어휘 사용의 일관성 문제 10건(2.2%)으로 나타났다. 문장의 소통성에서는 피·사동, 시제·높임·부정·인용 표현 문제가 102건(22.9%), 일어식·영어식 번역투 표현이 95건(21.3%), 부적절한 생략 문제가 84건(18.8%)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수식 구조의 문제 27건(6.1%), 접속 구조의 문제 24건(5.4%), 중복 문제 25건(5.6%), 의미 모호의 문제 23건(5.2%), 지나친 명사화 3건(0.7%)으로 나타났다.

〈표 II-3〉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단어, 문장)

단어의 소통성			문장의 소통성								
			문법 요소 및 문장 구조				문장 내 의미 구성			번역투	
독자 수준 고려	외래어 및 외국어	어휘 사용의 일관성	피동 사동시제 높임 부정인용 표현	지나친 명사화	수식 구조	접속 구조	중복	생략	의미 모호	일어식 영어식	그 외 언어
13 (2.9%)	16 (3.6%)	10 (2.2%)	102 (22.9%)	3 (0.7%)	27 (6.1%)	24 (5.4%)	25 (5.6%)	84 (18.8%)	23 (5.2%)	95 (21.3%)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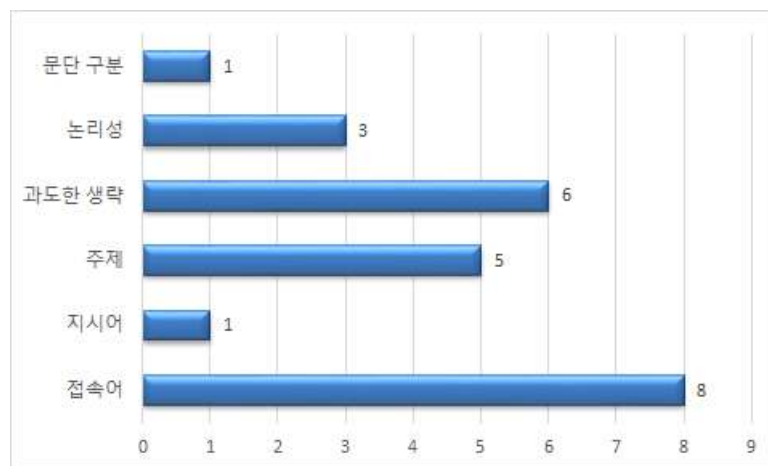


[그림 II-3]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단어, 문장)

텍스트의 소통성에서는 문단 내 표면 결속과 관련하여 접속어 문제가 8건(1.8%), 지시어 문제가 1건(0.2%)으로 나타났고, 문단 내 의미 결속과 관련하여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5건(1.1%), 과도한 생략 6건(1.3%)으로 나타났다. 문단 간 연결과 관련하여서는 문단 간 연결의 논리성 문제가 3건(0.7%), 문단 구분 문제가 1건(0.2%)으로 나타났다.

〈표 II -4〉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텍스트)

텍스트 소통성					
문단 내 표면 결속		문단 내 의미 결속		문단 간 연결	
접속어	지시어	주제	과도한 생략	논리성	문단 구분
8 (1.8%)	1 (0.2%)	5 (1.1%)	6 (1.3%)	3 (0.7%)	1 (0.2%)



[그림 II -4]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텍스트)

공공성 영역에서는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기술이 9건(29.0%), 차별 표현이 20건(64.5%)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의 품위성과 관련하여 저속한 표현이 2건(6.5%) 확인되었다.

〈표 Ⅱ-5〉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객관성		비차별성		품위성	
주관적이거나 편파적 기술	헌법·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기술	인종, 지역, 세대와 관련된 차별 표현	성별, 장애, 직업, 종교와 관련된 차별 표현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	교수·학습과 무관한 유행어, 신조어 남용
9 (29.0%)	0 (0.0%)	8 (25.8%)	12 (38.7%)	2 (6.5%)	0 (0.0%)



[그림 Ⅱ-5]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이상의 209권의 교과서에서 발견된 1,516건의 표기·표현 관련 문제 항목과 개선 사항의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 3절에서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의 평가 항목별로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영역별로 오류의 원인을 분석 제시하였다. 이들 1,516개의 교과별 원문의 분석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부록]은 각 교과별 오류의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과목별, 학교급별, 학년별, 평가영역, 평가항목, 오류 원문, 개선안,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동일한 원문에서 오류 항목이 여럿 나타난 것은 해당 오류 단어나 문장 앞에 1), 2), 3)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 ‘근거’에 오류의 이유와 개선안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3. 영역별 분석 결과

3.1. '정확성' 영역 분석 결과

3.1.1. 표기의 정확성

1) 한글 맞춤법 규정

[1.1.1.(1)]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띄어쓰기, 문장 부호 제외)

[하위 유형]

- 단순 오타자
- 소리에 관한 것
 - 된소리
 - 두음 법칙
- 형태에 관한 것
 - 어간과 어미
 - 용언의 활용
 - 사이시옷

■ 단순 오타자

편집상의 오류를 보인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 자음자를 빠뜨려 다른 의미의 어미로 제시(‘-으면’이 아닌 ‘-으며’)된 경우, 다른 자음자로 기재해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옳기다’, ‘*수수께끼’, ‘*침입’), 다른 자음자로 기재해 자음자의 순서(‘ㅈ’이 아닌 ‘ㅊ’)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1	국어(쓰기)	가 나 다 라 머 버 서 야 자 저 커 티 피 히	가 나 다 라 머 버 서 야 자 쳐 커 티 피 히	바른 모양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위해 제시된 글자들이 맞춤법의 자음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ㅈ을 활용한 글자가 누락되고 ㅊ을 활용한 글자가 중복되었다. ‘저’를 ‘쳐’로 수정한다.
07	초	6	국어(듣말쓰)	바른 글씨로 옳겨 써 보고	바른 글씨로 옳겨 써 보고	‘옳기다’를 ‘옳기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옳겨’로 수정한다.
07	중	1	도덕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외적의 침입 이 있을 때 국민을 보살피고 지켜 주는 것은 국가이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외적의 침입 이 있을 때 국민을 보살피고 지켜 주는 것은 국가이다.	‘침입’의 맞춤법이 잘못되었다. ‘침입’을 ‘침입’으로 바르게 수정한다.
09	초	4	도덕	서로가 도움이 되 었으며 좋겠습 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 었으면 좋겠습 니다.	‘되었으면’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단순 오타자로 판단된다. ‘되었으며’를 ‘되었으면’으로 수정한다.
07	중	1	도덕	아들이 어머니에 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 드리자,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 께끼 를 풀었다.	아들이 어머니에 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드리자, 어 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 께끼 를 풀었다.	2) ‘수수께끼’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수수께끼’로 바르게 수정한다. 1)→부록 643번 참고

■ 소리에 관한 것

• 된소리

한글 맞춤법 제3장 제1절 된소리 규정에서 밝히고 있듯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다만 ‘국수’에서 알 수 있듯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런데 ‘짜꿍’의 경우 ‘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된소리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가 ‘짜꿍’이기 때문에 ‘짜꿍’으로 적어야 함에도 ‘*짜궁’으로 잘못 기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도덕	예를 들어, ‘기원이 이가 짜궁 을 때린 것은 나쁘다.’는 개별적인 도덕 판 단에 해당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는 일반적인 도덕 판 단, 즉 도덕 원리 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원 이가 짜꿍 을 때린 것은 나쁘다.’는 개별적인 도덕 판 단에 해당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는 일반적인 도덕 판 단, 즉 도덕 원리 에 해당한다.	‘짜꿍’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짜 궁’이 아닌 ‘짜꿍’으로 수정한다.

• 두음 법칙

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에서는 두음 법칙에 관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12항을 참고하면 한자음 '라, 루'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누'로 적어야 하지만,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과 달리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 단어 첫머리의 'ㄹ'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루)와, 두음 법칙을 과도하게 적용해 단어 첫머리 이외의 'ㄹ'을 'ㄴ'으로 기재한 경우(*밀납)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수학	각 루 사이의 거리	각 누 사이의 거리	'루(壘)'는 두음법칙에 따라 '누'로 발음하고 적어야 한다.
07	중	1	기가	밀납	밀랍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을 뜻하는 말은 '밀랍'이다.

■ 형태에 관한 것

• 어간과 어미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를 잘못 파악하여 오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공식적으로 ‘저버리-’의 형태를 취하는 어간을 잘못 파악한 경우, 어미 ‘-에요’를 ‘예요’로 잘못 파악한 경우, 서술격 조사와 어미 ‘-에요’의 결합형인 ‘예요(이에요)’를 어미 ‘-에요’와 혼동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도덕	약속을 <u>저버리지</u> 않고 지키면 우정 도 더 커지고 행 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약속을 <u>저버리지</u> 않고 지키면 우정 도 더 커지고 행 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버리다’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리를 잊거나 어기다’는 ‘저버리다’가 아 닌 ‘저버리다’이므로, ‘저버리다’로 수정한다.
07	중	1	도덕	그러자 민호 엄마 는 “당신이 <u>웬일 이에요?</u> 내가 그 렇게 끊으라고 할 때는 안 끊더니.” 하고 말했다.	그러자 민호 엄마 는 “당신이 <u>웬일 이에요?</u> 내가 그 렇게 끊으라고 할 때는 안 끊더니.” 하고 말했다.	‘예요’는 ‘이에요’의 준말이므로 ‘이에요’와 같이 쓰지 않는다. ‘이 예요’로 수정한다.
07	중	1	도덕	왜 <u>아니예요?</u>	왜 <u>아니예요?</u>	‘아니예요’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아니예요’를 ‘아니예요’로 수정한 다. ‘아니-’에 어미 ‘-에요’가 결 합한 것이므로, ‘아니예요’로 쓰거 나 그 준말 ‘아네요’로 쓴다.
07	중	1	기가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u>거에 요.</u>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u>거에 요.</u>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 에요’가 결합된 구조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에요’ 의 결합형인 ‘이에요’는 앞말이 모 음으로 끝나면 ‘예요’로 줄여 쓴다. 따라서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가 바른 표기이다.

• 용언의 활용

한글 맞춤법 제4장 제2절 제18항에서는 활용 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다루고 있다.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으며(갈다: 가니, 간), 어간의 끝 ‘ㅡ’가 줄어질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답그다: 답가, 답갔다). 또한 제4장 제5절에서는 준말의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제35항 붙임에서는 ‘니’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달리 ‘ㄹ’ 탈락을 적용하지 않거나, 기본형을 잘못 파악해 ‘ㅡ’ 탈락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어간과 어미의 준말 형태를 적지 않고 어간 형태로만 적은 경우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⑥	국어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넓고 <u>혈은</u>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넓고 <u>현</u>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다’의 활용형이 ‘혈은’으로 잘못 사용되어 있다. ‘혈은’을 올바른 활용형인 ‘현’으로 수정한다.
07	초	4	도덕	시험은 자신의 실력대로 <u>치뤄야</u>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자신의 실력대로 <u>치려야</u>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루다’는 ‘치르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해당 문장에서 ‘치르다’는 ‘치르--+어’로 활용되므로 ‘치뤄’가 아닌 ‘치려’로 수정한다.
07	중	2	도덕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u>되요</u> .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u>돼요</u> .	‘돼요’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되-’는 ‘되다’의 어간으로 바로 조사 ‘요’와 결합할 수 없다. ‘되--+어’의 형태인 ‘돼’로 수정하여 ‘돼요’로 표기하여야 한다.

• 사이시옷

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를 밝히고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이시옷을 과잉 표기하거나, 그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는, ‘* 후춧통’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아니라 거센소리인데도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6개 한자어가 아님에도 ‘* 소숫점’, ‘* 갯수’와 같이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 합성어임에도 ‘* 나무가지’와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 후춧통 을 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후춧통을 흔들여 후춧가루를 뿌린다.	‘후춧통’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로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다. ‘후춧통’이 사전 미등재어이지만 ‘후춧 통’으로 띄어 써 구로 보게 함도 문제이므로 ‘휴지통, 가스통, 물통’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춧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07	중	3	과학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소숫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이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의거하여 ‘소수점’으로 표기한다.
07	중	1	기과	나무가지	나뭇가지	‘나무가지’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어긋난 표기이다.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 나는 가지’를 뜻하는 말은 ‘나뭇가지’와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07	초	6	음악	구성음의 갯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구성음의 개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개수’를 ‘갯수’로 잘못 표기하였다. ‘개수(個數)’는 [개:수]와 같이 발음되지만,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1.1.1.(2)] 띄어쓰기가 규정에 맞고 일관성 있게 되었는가?

[하위 유형]

-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
 - 복수의 단어
 - 의존 명사, 단위 명사 및 열거하는 말
 - 보조 용언
 -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
 - 합성어
 - 일부 보조 용언
 - 접사
 - 조사
 - 어미

■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

• 복수의 단어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1장 총칙 제2항에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복합어가 아닌 구나 절 구성에서, 복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을 붙여 쓴 사례들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는, ‘축구 시합’과 같은 ‘명사+명사’ 구성, ‘한 가족’과 같은 ‘관형사+명사’ 구성, ‘뜯어 먹다’와 같은 ‘동사+동사’ 구성, ‘안 됨’과 같은 ‘부사+동사’ 구성 등을 붙여 쓰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특히 조사 ‘같이’와 형용사 활용형 ‘같은’을 혼동하거나, 조사 ‘밖에’와 ‘명사+조사’ 구성인 ‘밖에’를 혼동하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①	국어	함께 축구시합 을 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축구 시합 을 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한 단어가 아닌 ‘축구시합’을 붙여 썼다. 두 단어로 띄어 쓴다.
07	초	3	도덕	철조망 양편에 있는 이들이 다시 한가족 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해 봅시다.	철조망 양편에 있는 이들이 다시 한 가족 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해 봅시다.	‘한 가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같은’의 뜻을 지닌 관형사 ‘한’은 체언과 띄어 쓴다.
07	중	1	도덕	예를 들어,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품성같은 내면적인 모습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품성 같은 내면적인 모습을 중시한다.	형용사 ‘같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체언 뒤에서 ‘같은’ 꼴로 쓰이는 형용사 ‘같다’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는 뜻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09	중	1	역사	그들 내부에서 왕위다툼 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들 내부에서 왕 위 다툼 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왕위 다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왕위 다툼’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09	중	3	수학	세 종류의 사각형 모양의 수막대 가 모두 6개 있다.	세 종류의 사각형 모양의 수 막대 가 모두 6개 있다.	합성어로 보면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하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구로 보아 띄어 쓴다.
09	중	1	과학	기린이 긴 혀를 이용해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다.	기린이 긴 혀를 이용해 나뭇잎을 뜯어 먹고 있다.	‘뜯어먹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원문의 맥락은 합성어 ‘뜯어 먹다’와 의미가 다르며, ‘뜯어 먹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과학	이러한 기능은 소화계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밖 에도 다른 기관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소화계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 밖 에도 다른 기관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있다.	‘그밖’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밖’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09	중	2	기가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2) 인용 시에 사용하는 ‘하다’는 동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1)→부록 1260번 참고
07	고		기가	여건이 못돼 차선택으로	여건이 못 돼 차선택으로	‘되다’의 부정 즉, ‘되지 못하다’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부사 ‘못’과 동사 ‘되다’이므로 단어별로 각각 띄어 쓴다.
09	중		음악	3화음: 어떤 음을 밑음으로 하여 그 위에 3도와 5도의 음을 쌔아울린 화음을 말한다.	3화음: 어떤 음을 밑음으로 하여 그 위에 3도와 5도의 음을 쌔아 울린 화음을 말한다.	‘쌔아울리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쌔다’와 ‘울리다’는 각각 한 단어이고, ‘쌔아울리다’라는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쌔아 울리다’와 같이 띄어 쓴다.
09	초	3, 4	미술	책표지	책 표지	‘책표지’를 구로 보아 띄어 쓴다. 만일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쓴다면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07	중	2	체육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됨 .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 됨 .	‘안되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에는 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과 ‘됨’을 띄어 써야 한다.

• 의존 명사, 단위 명사 및 열거하는 말

한글 맞춤법 제5장 제2절에서는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즉 이들 의존 명사류 역시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씀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을 앞말과 붙여 적는 오류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는 ‘데’, ‘수’, ‘것’, ‘씨’, ‘시’, ‘지’, ‘터’, ‘대로’ 등의 의존 명사와, ‘대’와 같이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말의 띄어쓰기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2	국어	선정한 주제로 발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마련해 보자.	선정한 주제로 발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마련해 보자.	의존 명사로 쓰인 ‘데’를 앞말과 붙여 썼다. 앞말과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07	중	1	사회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이나 극지방, 고산 지역, 밀림 지역 등에서도 사람들이 살수 있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이나 극지방, 고산 지역, 밀림 지역 등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07	초	5	도덕	누가 그랬는지 알게 뭐야	누가 그랬는지 알 게 뭐야	‘알 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알게’에서의 ‘게’는 ‘것이’의 준말로, 의존 명사인 ‘것’의 띄어쓰기를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07	중	1	도덕	정씨 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정 씨 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정 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씨’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7	초	5	수학	2할5푼	2할 5푼	‘할’과 ‘푼’이 각각 의존 명사이므로 ‘2할’과 ‘5푼’은 띄어 쓴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매우 위험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 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매우 위험하다.	‘충돌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時)’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이때의 ‘시(時)’를 시간 기능 접미사로 보면 붙일 수도 있다.
09	중	3	과학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북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북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발명한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09	중	2	기가	115대1	115 대 1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대’와 같은 말들을 띄어 쓴다고 언급하고, 그 해설에서 ‘5 대 3’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15 대 1’로 수정한다.
09	중	1	기가	이 어명을 잘 전해야 할텐데.	이 어명을 잘 전해야 할 텐데.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다. ‘터인데’에서 ‘터’는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09	초	3, 4	음악	연습은 한거냐?	연습은 한 거냐?	‘한거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한’과 띄어 써야 한다.
09	초	5, 6	미술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대로 잘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 대로 잘 움직이나요?	‘계획한대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보조 용언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의 제3절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쓸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도 허용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과서의 경우 원칙에 따라 표기하거나 적어도 일관성 있게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변해버리다’, ‘넘쳐나다’, ‘물어주다’, ‘말아오다’, ‘세워보다’, ‘볼만하다’ 등과 같이 일관성 없이 붙여 적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사회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버렸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섬에서는 2)더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 버렸고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자 섬에서는 2)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1) ‘변해 버리다’는 ‘변하다’라는 본용언에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 용언 ‘버리다’가 더해진 표현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도 띄어 쓸 수도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두의 ‘베어 버려’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문의 수정이 필요하다. 2)→부록 304번 참고
09	중	1	도덕	당시 인도의 빈민가에는 가난한 사람, 집을 잃은 어린이, 병에 걸린 환자, 굶주린 사람이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 인도의 빈민가에는 가난한 사람, 집을 잃은 어린이, 병에 걸린 환자, 굶주린 사람이 넘쳐 나고 있었다.	‘넘쳐 나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넘쳐 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성이므로 ‘넘쳐 나다’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넘쳐 나고’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생활과 윤리	가수 겸 제작자 □ □은 최근 표절을 했다가 2,000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가수 겸 제작자 □ □은 최근 표절을 했다가 2,000여만 원을 물어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물어 주라는’의 띄어쓰기가 잘못 되었다. 이때의 ‘주다’는 보조 동 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 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 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 하여 ‘물어 주라는’으로 수정한다. 다른 예) 담론 윤리는 현대 다원주 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합리 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43쪽 8행)
07	중	상	역사	한편,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일을 말아오던 향 리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에게 예속되어 전보다 권한이 제한되었 다.	한편,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일을 말아 오던 향리들은 중앙에 서 파견된 수령에 게 예속되어 전보 다 권한이 제한되 었다.	‘말아 오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 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 적으로 띄어 쓴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과서 내 통일 성을 고려하여 ‘말아 오던’으로 수 정한다.
07	중	3	과학	유전 개발 과정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 을 2)세워본다 .	유전 개발 과정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2)세워 본다 .	2) ‘세워본다’와 같이 본용언과 보 조 용언의 띄어쓰기가 일관성 있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이므로 ‘세워 본다’와 같이 수정한 다. 1)→부록 1014번 참고
09	고		기가	생각해 불만한 글 귀를 제시하였으 며	생각해 불 만한 글귀를 제시하였 으며	용언 뒤에서 ‘-을 만하다’ 구성으 로 쓰여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 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동사 ‘보다’의 관형형 ‘불’과 보조 형용사 ‘만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한글 맞춤법 제5장 제4절에서는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49항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50항에서는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를 단어별이나 단위별로 띄어 쓰지 않고 모두 붙여 쓴 경우, 편수 자료 등과 일관성 없이 허용 표기를 취한 경우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국어 (듣말쓰)	<u>독도의용수비대</u>	1안) <u>독도 의용수비대</u> 2안) <u>독도 의용 수비대</u>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2안)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쓴다.
07	고		한국사	본래는 1)백운동서원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서원이라 불리었다.	본래는 1)백운동 서원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 서원이라 불리었다.	1) '백운동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서 '백운동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2)→부록 465번 참고
09	고	2	수학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항, 둘째항, 셋째항2), ..., n째항,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2), ... n째 항,	1) '첫째항'은 '첫째'항'과 같이 띄어 씀이 원칙으로 사전 등재어이며 그 이후의 항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띄어 쓴다. 2)→부록 925번 참고

■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경우

• 합성어

합성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하는데, 이를 구 구성으로 보아 띄어 쓰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로는, ‘입속’, ‘한곳’ 등의 명사나 ‘주고받다’, ‘신나다’ 등의 동사를 띄어 쓴 오류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국어	엄청나게 커다란 해가 해치의 입 속 으로 쑥 들어갔지.	엄청나게 커다란 해가 해치의 입속 으로 쑥 들어갔지.	‘입속’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 등재되어 있는데 ‘입’과 ‘속’을 띄어 썼다. ‘입’과 ‘속’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한다.
07	초	4	도덕	골고루 공을 주고 받으며 모든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골고루 공을 주고받으며 모든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고받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주고받다’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09	고		과학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 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한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하는 ‘한곳’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중	2	기타	가족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성적이었는지 되돌아 본다.	가족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성적이었는지 되돌아본다.	‘되돌아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다’의 의미를 지닌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07	초	5	음악	1) 숲 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 노랫 소리 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 숲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 노랫소리 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 ‘노랫 소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노랫소리’는 한 단어이므로 ‘노랫소리’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1)→부록 1389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체육	<u>신 나게</u> 주먹 야구형 게임을 해 봅시다.	<u>신나게</u> 주먹 야구형 게임을 해 봅시다.	‘신 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게’로 붙여 써야 한다.

• 일부 보조 용언

‘-어하다’, ‘-어지다’를 띄어 쓰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한글 맞춤법 제5장 제3절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씀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으나, 그 해설에서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지다’의 경우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허용 규정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하다’가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인다고 밝혀, 보조 용언 띄어쓰기의 일반 원칙과 달리 붙여 적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도덕	자기 주변에 낙심하고 <u>힘들어 하는</u>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할지 표현해 보자.	자기 주변에 낙심하고 <u>힘들어하는</u>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할지 표현해 보자.	‘힘들어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힘들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09	중	2	기	관계는 더욱 <u>돈독해 질</u> 수 있다.	관계는 더욱 <u>돈독해질</u> 수 있다.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낼 때의 ‘지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 접사

접사는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근에 붙여 적어야 한다. 그런데 ‘-여’, ‘-받다’, ‘-드리다’, ‘-별’, ‘-총’ 등의 접미사를 띄어 쓰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u>5만 여</u> 마리	<u>5만여</u> 마리	‘-여’는 접사인 데 앞 단어와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07	중	1	도덕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u>말씀 드리고</u> 싶어요.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u>말씀드리고</u> 싶어요.	‘말씀드리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드리다’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09	고		생활	이건 게임이라 그렇고, 난 <u>캐릭터 별로</u>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건 게임이라 그렇고, 난 <u>캐릭터별로</u>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캐릭터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별’은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07	중	상	역사	<u>크로마농 인</u>	<u>크로마농인</u>	‘크로마농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칙)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크로마농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며, 교육과정 편수 자료에서도 붙여 쓰고 있다.
09	중	2	과학	모세 혈관의 혈관 벽은 한 겹의 <u>세포 총</u>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모세 혈관의 혈관 벽은 한 겹의 <u>세포총</u>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세포 총’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총’은 ‘켜켜이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고		기타	각 국가가 <u>부여 받은</u>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각 국가가 <u>부여받은</u>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밑줄 친 부분의 ‘-받다’는 서술성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조사

한글 맞춤법 제5장 제1절 제4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사는 한 단어이지만 독립성이 없기에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런데 ‘을’, ‘뿐’, ‘만’, ‘까지’, ‘밖에’, ‘마다’ 등의 격 조사나 보조사를 띄어 적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도덕	<u>그 뿐만</u> 아니라 북한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u>그뿐만</u> 아니라 북한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뿐’에서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뜻하는 보조사로 앞에 오는 체언 또는 부사어에 붙여 쓴다.
07	중	3	과학	주변에 다른 육식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지 좌우, 심지어 <u>후방으로 까지</u>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변에 다른 육식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지 좌우, 심지어 <u>후방으로까지</u>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후방으로까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09	중	2	기가	<u>조금 만</u> 더 하면 내일 오빠시대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어.	<u>조금만</u> 더 하면 내일 오빠시대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어.	밑줄 친 부분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07	고		음악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u>1)10% 밖에</u> 살지 않는 <u>2)미지의 땅 아프리카</u>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u>1)10%밖에</u> 살지 않는 <u>2)아프리카</u>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1) ‘10% 밖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밖에’는 조사이므로 ‘10%밖에’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2)→부록 1429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미술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물 등 을 포함한 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물 등을 포함한 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등 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을'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09	중		미술	이탈리아 어로 ' 2년 마다 '라는 뜻으로, 2년 주기로 열리는 미술 관련 국제 전시회.	이탈리아 어로 ' 2년마다 '라는 뜻으로, 2년 주기로 열리는 미술 관련 국제 전시회.	'2년 마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마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어미

어미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어간에 붙여 적어야 하며, 한 어미 내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그런데 '-르게', '-니 걸/-는 걸', '-르 걸', '-는 군', '-니 데' 등 하나의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의존 명사' 구성과 혼동하여, 한 어미의 일부분을 띄어 적는 오류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사회	특히,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 데 , 현재 지구 환경의 파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데 , 현재 지구 환경의 파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문의 ‘-ㄴ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07	중	1	도덕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엄마 아با께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 게요 .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엄마 아با께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	‘살게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ㄴ게’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09	초	3	도덕	이렇게 물을 아껴 쓰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는 걸요?	이렇게 물을 아껴 쓰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는걸요?	‘되는걸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는걸’은 현재의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되는걸’로 수정한다.
07	중	1	과학	딱 들어 맞는 군 .	딱 들어맞는군 .	‘들어 맞는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정확히 맞다"라는 뜻의 ‘들어맞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또한 ‘-는군’은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7	고		기가	좀 더 잘해 드릴 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쳐서	좀 더 잘해 드릴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쳐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 ‘드리다’에, 훈жат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걸’이 결합된 것이므로 ‘드릴걸’과 같이 붙여 쓴다.
07	중	2	체육	철수는 비만이고 체력도 너무 약한 걸 .	철수는 비만이고 체력도 너무 약한걸 .	‘-ㄴ걸’은 어미이므로 ‘약한 걸’과 같이 띄어 쓰지 않는다. ‘약한걸’과 같이 붙여 쓴다.

[1.1.1.(3)] 규정에 맞게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는가?

[하위 유형]

■ 필요한 경우

- 마침표
- 느낌표
- 쉼표
- 가운뎃점
-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불필요한 경우

- 마침표
- 쉼표
- 가운뎃점
- 작은따옴표
- 붙임표

■ 잘못 사용한 경우

- 마침표
- 쉼표
- 작은따옴표
- 드러냄표

■ 필요한 경우

• 마침표

문장의 끝에서 마침표를 누락한 경우가 몇 차례 발견되었고, 줄임표 뒤에 문장 부호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쓰는 줄임표 뒤에는 마침표나 물음표 또는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도덕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마침표(.)를 추가한다.
09	고		과학	처음에는 이 별이 신성(nova)인 줄 알았다가 변광성(variable)인 것을 알고 수정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 별이 신성(nova)인 줄 알았다가 변광성(variable)인 것을 알고 수정을 하였다.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느낌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느낌표를 쓰고,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쉼표를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르는 말 뒤에서 느낌표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④	국어	<u>박현민 하지 마.</u>	<u>박현민!! 하지 마.</u>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느낌표를 사용하는데, 부르는 말 뒤에 느낌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느낌표를 첨가한다.

• 쉼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쉼표가 사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내거나,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앞말을 ‘곧’, ‘즉’,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도덕	<u>여러분</u> 진선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u>여러분</u> , 진선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여러분’은 문장에서 여러 듣는 이를 일러 부르는 말이므로 뒤에 쉼표를 쓴다.
09	고		생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u>삶</u> <u>즉</u>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u>삶</u> , <u>즉</u>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즉’ 등의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쓰도록 하므로, 그 부분에 쉼표(.)를 추가한다.

• 가운뎃점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금·은·동메달’과 같이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가운뎃점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장년’과 ‘노년’이라는 두 단어의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에는 가운뎃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생활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장노년 , 농어민 등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약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장·노년 , 농어민 등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약자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공통 성분을 줄여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을 추가한다.

• 큰따옴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큰따옴표를 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문장 앞뒤의 따옴표 중 한쪽을 누락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보건 복지 가족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의료적 판단이 아닌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건 복지 가족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의료적 판단이 아닌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용문의 끝부분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였으나, 시작 부분에서 따옴표를 빠뜨렸다. 큰따옴표를 추가한다.
09	중	②	국어	그 이유로는 낮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가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 낮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가 가장 많았고,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큰따옴표를 추가한다.

● 작은따옴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생각을 인용할 때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문장 앞뒤의 따옴표 중 한쪽을 누락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도덕	스스로 책임을 다해 정리하는 네 모습을 보면, <u>나도 도서 정리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u>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책임을 다해 정리하는 네 모습을 보면, <u>‘나도 도서 정리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u> 하는 생각이 들어.	알맞은 문장 부호가 누락되었다. 해당 문장은 말하는 내용 중에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내므로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추가한다.
09	고		생활	<u>일주일 중 하루는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한다.</u>	<u>‘일주일 중 하루는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한다.’</u>	적절한 문장 부호가 누락되었다.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 불필요한 경우

● 마침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괄호와 마침표의 위치에 대해 해설하며, 일반적으로 마침표를 괄호 앞에 쓰되, 괄호 안의 내용이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괄호 뒤에 쓰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장 뒤에 이어지는 괄호 안의 내용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괄호 안에도 마침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괄호 뒤에 마침표를 쓰는 경우 괄호를 사이에 두고 같은 부호가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괄호 안에서는 생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괄호 앞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괄호 뒤에 마침표를 찍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과학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u>있다.</u> <u>(그림 1-1).</u>	1안)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u>있다.(그림 1-1)</u> 2안)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u>있다(그림 1-1).</u>	마침표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소괄호 다음의 마침표는 해당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마침표가 두 개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1안)과 같이 괄호 앞에 마침표를 찍거나, 2안)과 같이 괄호 안의 내용이 문장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 괄호 뒤에 찍도록 수정한다.

• 쉼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의 해설에서는 쉼표가 반드시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며, 쉼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쓰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굳이 쉼을 두어 읽을 만한 자리가 아니거나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히는 경우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인데, 과도하게 쉼표를 사용하거나 쉼표로 인해 잘못 끊어 읽게 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줄임표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면, 할 말을 줄였을 때에는 줄임표 뒤에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에는 줄임표의 앞뒤에 쉼표나 마침표 따위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생략을 위해 줄임표를 사용한 상황에서 줄임표 앞뒤에 불필요하게 쉼표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교조적(敎條的):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 계없이 어떠한 상 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인 듯 믿고 따르 는. <u>또는, 그런 것.</u>	교조적(敎條的):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 계없이 어떠한 상 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인 듯 믿고 따르 는. <u>또는 그런 것.</u>	불필요하게 쉼표를 사용하였다. 사전에서도 개선안과 동일하게 쉼 표 없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쉼표 를 삭제한다.
09	중	④	국어	‘애완동물’에 대 한 상대의 <u>관심이</u> <u>나</u> , 태도 등을 고 려하여 대화의 주 제와 말하기 방식 등을 생각해 본 다.	‘애완동물’에 대 한 상대의 <u>관심이</u> <u>나</u> , 태도 등을 고 려하여 대화의 주 제와 말하기 방식 등을 생각해 본 다.	쉼표가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사 용되었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사용된 쉼표를 삭제한다.
09	고	2	수학	앞에서부터 차례 로 <u>1)첫째항, 둘 째항, 셋째항2),</u> <u>..., n째항,</u>	앞에서부터 차례 로 <u>1)첫째 항, 둘 째 항, 셋째 항2)</u> <u>... n째 항,</u>	2)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의 줄임표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면, 할 말을 줄였을 때에는 줄임표 뒤 에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를 쓰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이 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에는 줄 임표의 앞뒤에 쉼표나 마침표 따 위를 쓰지 않는다. 관련 사례로 제 시하고 있는 "육십갑자: 갑자, 을 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 신유, 임술, 계해"를 참 고하면, 원문의 줄임표 앞뒤에 있 는 쉼표를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1)→부록 924번 참고

- 가운뎃점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한 단어로 굳어진 말에는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장단점’과 같은 한 단어 안에서 가운뎃점을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생활	분배적 정의의 여러 기준이 지니는 장·단점 을 비교·분석한다.	분배적 정의의 여러 기준이 지니는 장단점 을 비교·분석한다.	‘장단점’에 불필요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었다. ‘장단점’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아울러 이르는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이 불필요하다.

- 작은따옴표

간접 인용문에서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⁸⁾ ‘-ㄴ다는’은 ‘-ㄴ다고 하는’이 줄어든 말이며 ‘-ㄴ다고’는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말임을 고려할 때, ‘-ㄴ다는’ 역시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ㄴ다는’을 마침표로 다시 나눌 수 없으며 작은따옴표 역시 불필요한데,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8) 다만 주위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으므로, 간접 인용문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국어	‘아빠와 나’라는 옆의 만화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색깔도 구분 못 한다.’는 아버지의 편견은,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려는 아버지의 그릇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있다.	‘아빠와 나’라는 옆의 만화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색깔도 구분 못 한다는 아버지의 편 견은,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려는 아버지의 그릇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있다.	간접 인용절의 형식에 맞지 않게 표현되었다. “아빠는 나한테 색깔도 구분 못하냐고 화냈다.”라는 만화의 서술 부분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므로,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삭제한다.

• 붙임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붙임표가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한 단어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단어 내 구성 요소를 구별할 때 붙임표를 사용하기도 하나, 언어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맥락이 아님에도 한 단어 안에서 붙임표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기가	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	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	‘형제자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굳이 붙임표를 붙여 쓸 필요가 없다. 붙임표를 삭제한다.

■ 잘못 사용한 경우

• 마침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느낌표를 쓰고,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쉼표를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마침표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도덕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1안)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2안)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문장 부호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 ‘친구야’는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므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나 느낌표를 쓴다.

• 쉼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서술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마침표를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쉼표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4	미술	이와 함께 아름다운 원리와 빛과 색을 탐구하여 미술의 즐거움을 한층 더 익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른 나라의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원리와 빛과 색을 탐구하여 미술의 즐거움을 한층 더 익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른 나라의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로 한 문장이 종결되므로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작은따옴표

한글 맞춤법 부록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큰따옴표를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하	국어	당시는 ‘죽었다.’, ‘월북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1안) 당시는 1) <u>“죽었다.”</u> , “ <u>월북했다.”</u> 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2안) 당시는 1) <u>“죽었다.”</u> , “ <u>월북했다.”</u> 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3안) 당시는 1)죽었다거나 월북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4안) 당시는 1) <u>‘죽었다’</u> 거나 <u>‘월북했다’</u> 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직접 인용문으로 보아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하되, 2안)과 같이 간결한 표현을 위해 마침표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혹은 3안)과 같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어 따옴표와 마침표를 삭제할 수 있으며, 간접 인용문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4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를 추가할 수 있다. 2)→부록 196번 참고
09	중	2	기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따옴표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여기에서는 속담을 인용한 경우이므로,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큰따옴표를 쓴다.

- 드러냄표

드러냄표는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사용하는 문장 부호이다. 그런데 편집상의 오류로 드러냄표를 잘못된 위치에 사용한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u>모두 사개</u> 가 물려 나서	<u>모두 사개</u> 가 물려 나서	뜻풀이 제시 단어는 ‘사개’인데 드러냄표를 ‘모두’ 위에 잘못 표시하였다. ‘사개’ 위로 수정한다.

2) 표준어 규정

[1.1.2.(1)] 표준어 규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

[하위 유형]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어휘
- 방언 및 구어 어휘
- 표준어 혼동 어휘

■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어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활용한 경우이다. ‘큐빅(루빅큐브)’, ‘발앞꿈치(발끝)’ 등 해당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식의주(의식주)’ 등 등재된 단어와 개념이 유사하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하교(등교, 하교)’ 등 해당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수학	재미있는 장난감 큐빅	재미있는 장난감 루빅큐브	'큐빅'이 아니라 '루빅큐브(← Rubik's Cube)'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다.
07	중	3	과학	이때 발앞꿈치 쪽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이때 발끝 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발앞꿈치'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다. '발꿈치'는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볼록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발의 앞끝'을 의미하는 '발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09	중	2	기가	조부모와 손자녀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1안)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2안) 조부모와 손주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손자녀'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1안과 같이 '손자, 손녀'로 분리하거나, 2안과 같이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손주'로 수정한다.
09	고		기가	건강한 식의주 문화 등이 필요하다.	건강한 의식주 문화 등이 필요하다.	'식의주'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사전에 등재된 '의식주'라는 단어로 대체하거나, 단어의 구성 차례에 맞추어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가운뎃점을 활용하여 '식·의·주'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초	5	체육	등하교할 때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봅시다.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봅시다.	'등하교', '등하교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하교'를 '등·하교'로 수정하거나, '등하교할 때'를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와 같이 풀어서 쓴다.

■ 방언 및 구어 어휘

방언형이나 구어형을 표기한 경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니’를 경상 방언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김세중(2004)에서는 대명사 ‘니’가 서울말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준어가 아니므로 ‘너’에 주격(보격) 조사가 붙을 때나 관형격 조사가 붙어 줄어든 때에는 ‘네’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표준어가 아닌 ‘니’를 활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안의정(2005)에서는 ‘-라구’를 ‘-라고’의 구어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라구’가 아닌 ‘-라고’로 표기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라구’로 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니가 말하는 억양 도 조금 웃긴다.	네가 말하는 억양 도 조금 웃긴다.	‘니’는 이인칭 대명사 ‘너’의 방언 (경상)이며, [니]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너’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을 때는 ‘네’로 써야 하므로 ‘네’로 수 정한다.
07	중	2	도덕	혜교가 1)니 운동 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 군.	혜교가 1)네 운동 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 고.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 여 알려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고’를 등재하고 있으며, ‘-라구’를 ‘-라고’의 잘못된 표기 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고’ 로 수정한다. 1)→부록 763번 참고

■ 표준어 혼동 어휘

표준어의 형태를 혼동하거나 다른 의미의 표준어와 혼동하여 잘못 표기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외골수(의미가 다른 ‘외골’과 혼동하거나 ‘외골’에 이끌려 ‘* 외골수’로 표기함)’, ‘아니요(감탄사 ‘아니요’를 형용사 ‘아니다’의 하오체 활용형인 ‘아니오’와 혼동함)’, ‘피우다(의미가 다른 ‘피다’와 혼동함)’, ‘파이다(‘* 패이다’와 혼동함)’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너는 지나치게 외골수 라는 게 문제야.	너는 지나치게 외골수 라는 게 문제야.	‘외골’이 ‘외골수’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외골’을 표준어로 삼되,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외골수’는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즉 ‘외골수’는 ‘외골’과 별개의 단어이므로, 의미에 맞는 표기인 ‘외골수’로 수정한다.
07	중	1	과학	예 아니오	예 아니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예’에 대한 상대어가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임을 밝히고 있다. 주어진 문맥에서는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인 ‘아니’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된 감탄사 ‘아니요’를 써야 한다.
09	중	2	과학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우면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라는 뜻의 동사는 ‘피우다’이며, ‘피다’는 ‘피우다’의 준말이 아니다. ‘피면’을 ‘피우면’으로 수정한다.
07	중	1	기가	오래 사용하면 바퀴가 움푹 패이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	오래 사용하면 바퀴가 움푹 파이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	동사 ‘파다’의 피동사는 ‘파이다’이며 이를 줄인 말이 ‘패다’이다. ‘패이다’는 ‘패다’의 잘못이다.

3) 외래어 표기법

[1.1.3.(1)] 외래어 표기법을 지켰는가?

[하위 유형]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인명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지명
 - 국가
 - 주
 - 수도
 - 도시
 - 섬과 제도
 - 산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사물의 명칭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일상생활 용어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인명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인명 표기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영어 ‘마틴 루서 킹’, 일본어 ‘사카토 겐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사회	<u>마틴 루터 킹</u> 목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u>마틴 루서 킹</u> 목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외래어 표기에 따르면 ‘마틴 루서 킹’이 옳은 표기이므로 수정한다.
07	중	1	기가	사카토 <u>겐지</u>	사카토 <u>겐지</u>	외래어 표기법 일본어 표기 규정에 의하면 ‘ヶ’의 경우 어중에서는 ‘게’로, 어두에서는 ‘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지명

지명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영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폴란드어 등 여러 언어의 표기법에 어긋나는 도시명이 나타났다고, 수도권 주의 표기 외에도 국가명의 표기나 단어 배열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영어, 노르웨이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의 표기법에 어긋나는 섬이나 제도, 산의 표기가 발견되었다.

• 국가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벨로루시</u> (Belorus)	<u>벨라루스</u> (Belarus)	유럽 동쪽에 위치하며 폴란드와 인접한 공화국 'Belarus'의 우리말 표기는 '벨라루스'이다. 동일 교과서 내 다른 부분에서는 '벨라루스'로 바르게 표기하였다.
07	중		사회과 부도	<u>볼리바르 베네수엘라</u>	<u>베네수엘라 볼리바르</u>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베네수엘라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이다. 따라서 줄여 쓸 때에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또는 '베네수엘라'로 써야 한다. 동일한 교과서 내 45쪽, 46쪽, 49쪽, 55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 주(州)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트렌티노</u>	<u>트렌티노알토아 디제</u>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주(州)인 'Trentino-Alto Adige'의 우리말 표기는 '트렌티노알토아디제'이다. 이탈리아어 표기법에 따라 제 44차 외래어 심의회(2002)에서 규정하였고, 이탈리아어 표기법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수도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사회과 부도	<u>스리자야와르데 네푸라</u>	<u>스리자야와르데 네푸라코테</u>	스리랑카 입법 수도인 도시 'Sri Jayawardenepura Kotte'의 우리말 표기는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26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 도시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1945년 8월 6일 과 9일 히로시마 와 <u>나가사끼</u> 에 원 자 폭탄이 투하되 면서 일본의 패망 이 기정사실화되 었다.	1945년 8월 6일 과 9일 히로시마 와 <u>나가사키</u> 에 원 자 폭탄이 투하되 면서 일본의 패망 이 기정사실화되 었다.	'나가사키'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일본어의 '끼'는 '끼'가 아닌 '키'로 표기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아라모스</u>	<u>알라모스</u>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도시 'Alamos'의 바른 우리말 표기는 '알라모스'이다. 이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에스파냐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9	중		사회과 부도	<u>다우가브필스</u>	<u>다우가프필스</u>	라트비아 동남부의 도시 'Daugavpils'의 우리말 표기는 '다우가프필스'이다. 이는 기타 언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9	중		사회과 부도	<u>바우브자흐</u>	<u>바우브지흐</u>	폴란드 서남부 도시 'Wałbrzych'의 우리말 표기는 '바우브지흐'이다. 이는 폴란드어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9	중		사회과 부도	<u>프로비덴스</u>	<u>프로비던스</u>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州)의 도시 'Providence'의 우리말 표기는 '프로비던스'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영어 표기법에 따라 영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섬과 제도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아키미스키 섬</u>	<u>애키미스키 섬</u>	캐나다 허드슨 만에 위치한 'Akimiski Island'의 우리말 표기는 '애키미스키 섬'이다. 이는 영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7	중		사회과 부도	<u>스피트스베르겐 섬</u>	<u>스피츠베르겐 섬</u>	노르웨이 북부의 스피츠베르겐 제도에 속하는 섬 'Spitsbergen'의 우리말 표기는 '스피츠베르겐'이다. 이는 노르웨이어 표기법을 따른 것이며, 노르웨이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9	중		사회과 부도	<u>노보시비르스크 제도</u>	<u>노보시비르스키 제도</u>	북극해의 라프테프 해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해 사이에 출지어 있는 무인도 무리인 'Novosibirskiye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노보시비르스키 제도'이다. 이는 동일한 교과서 내 27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러시아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09	중		사회과 부도	<u>게르겔렌 제도</u>	<u>케르겔렌 제도</u>	남인도양 남부에 있는 프랑스령 제도 'Kerguelen'의 우리말 표기는 '케르겔렌'이다. 이는 프랑스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프랑스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산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과학	다음 그림은 지난 2010 년 4 월에 폭발한 에이아프 알라요쿨 화산의 모습과 화산재의 이동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10 년 4 월에 폭발한 에이아파 들라이외퀴들 화산의 모습과 화산재의 이동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에이아프알라요쿨’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에이아파들라이외퀴들’로 적어야 한다.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사물의 명칭

배와 같은 사물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게 적은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사회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침몰에서 30%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 덕분이였다. 타이타닉호 에 타고 있던 기술자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SOS를 쳤고, 근처에 있던 배가 그 신호를 듣고 사고 현장에 재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태닉호 침몰에서 30%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 덕분이였다. 타이태닉호 에 타고 있던 기술자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SOS를 쳤고, 근처에 있던 배가 그 신호를 듣고 사고 현장에 재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 따르면 타이태닉호가 정확한 표기이므로 타이태닉호로 수정한다.

■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일상생활 용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활용하는 대상이나 개념의 명칭을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게 표기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기가	무선 메쉬 네트워크	무선 메시 네트워크	'Mesh Network'에서 'mesh'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메시'로 표기한다. 또한 이는 '그물망' 정도로 순화하여 쓸 수도 있다.
09	중	1	기가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례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application'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과서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혼동하여 쓰고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
07	고		미술	전통적으로 모란이 상징했던 부귀영화에 대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물질 만능에 대한 각성의 메세지 를 전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모란이 상징했던 부귀영화에 대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물질 만능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다.	'message'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메세지'가 아니라 '메시지'로 표기한다.

4) 로마자 표기법

[1.1.4.(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하위 유형]

■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

위 기준에 벗어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교과서 검정 시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1.2. 표현의 정확성

1) 어휘 의미

[1.2.1.(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하위 유형]

- 의미가 다른 단어 선택
- 의미의 범위가 맞지 않는 단어 선택
- 내용의 오류
- 통합 관계에 맞지 않는 단어 선택
- 불명확하거나 중의적인 단어 선택

■ 의미가 다른 단어 선택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지니는 단어를 선택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한자를 잘못 제시하거나, ‘틀리다/다르다’, ‘그리고/그러고’ 등 의미의 유사성이나 형태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1	국어 (듣말)	그림 2~4의 말주머니 안에 적어 봅시다.	그림 2~4의 말풍선 안에 적어 봅시다.	사전에 등재된 ‘말주머니’는 ‘말풍선’이 아닌 비유적 의미를 가리키므로, 의미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말풍선으로 수정한다.
09	고	2	국어	성례(成禮)	성례(成禮)	‘성례’의 ‘성’이 한자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한자로 수정한다.
07	중	3	사회	그러나 1969년부터 양쪽 국가는 과학, 예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결과 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9년부터 양쪽 국가는 과학, 예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배경 이기도 하다.	민간 교류는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배경이지 결과가 아니므로 수정한다.
07	중	3	도덕	차비가 없어 왕복 26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2주에 거쳐 걸어야 했던 고흐는 보리나주의 숙소로 되돌아왔을 때 발가락이 빠져나오고 누더기가 된 신발을 발견한다.	차비가 없어 왕복 26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2주에 걸쳐 걸어야 했던 고흐는 보리나주의 숙소로 되돌아왔을 때 발가락이 빠져나오고 누더기가 된 신발을 발견한다.	적절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문맥에서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라는 뜻의 ‘걸치다’가 적절하므로 ‘거쳐’를 ‘걸쳐’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그리스 세계 에서 는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통 일된 국가가 나타 나지 못하였다.	그리스 지역 에서 는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통 일된 국가가 나타 나지 못하였다.	'세계'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였다. 해당 단원의 주제가 그리스 지역 에서 발생한 사실들에 관련된 것 이기는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 '그 리스 세계'가 의미하는 바는 '계 통', '사회'이기보다는 지형, 국경 과 같은 물리적인 범주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등으로 수 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07	초	5	수학	메시지의 암호를 푸는 방법은 문장 앞뒤에 있는 나눗 셈의 몫을 구해 몫의 소수 끝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 인 경우, 그 사이 에 있는 문장 을 연결하여 쓰는 것 입니다. 메시지 일부 예 시: (16.24÷7) 인라 인스케이트를 타 고 (1.44÷24) 빠르게 뛰어서 (하락)	메시지의 암호를 푸는 방법은 구절 앞뒤에 있는 나눗 셈의 몫을 구해 몫의 소수 끝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 인 경우, 그 사이 에 있는 구절 을 연결하여 쓰는 것 입니다. 메시지 일부 예 시: (16.24÷7) 인라 인스케이트를 타 고 (1.44÷24) 빠르게 뛰어서 (하락)	내용이 한 문장을 구분한 '구절'의 앞뒤에 있는 나눗셈을 풀이하는 것이므로 '문장'이라는 표현은 옳 지 않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 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는 뜻 이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수분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이 알맞게 되면 종자는 싹이 트게 된다. 그리고 나서 , 배는 배젖이나 떡잎에 저장된 양분을 이용하여 잎, 줄기, 뿌리를 가지는 어린 식물체로 자란다.	수분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이 알맞게 되면 종자는 싹이 트게 된다. 그러고 나서 , 배는 배젖이나 떡잎에 저장된 양분을 이용하여 잎, 줄기, 뿌리를 가지는 어린 식물체로 자란다.	‘-고 나다’에 결합하는 어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고 나다’는 ‘그리다’의 어간 ‘그리-’가 아닌 ‘그러다’의 어간 ‘그러-’가 결합해야 한다.
07	중	2	음악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틀려 .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달라 .	‘틀리다’를 ‘같지 않다’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틀려’를 ‘달라’로 수정한다.
09	중		체육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의 뜻을 지닌 ‘필수적’보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의 뜻을 가진 ‘필연적’이 더 적절하다.

■ 의미의 범위가 맞지 않는 단어 선택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선택한 단어의 의미 범위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작품’ 대신 ‘책’을 선택하는 등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보다 하위어를 선택 하거나, ‘일반 국도’ 대신 ‘국도’를 선택하는 등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보다 상위어를 선택한 경우가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국어	책 이름(지은이)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작품 이름(저자/ 감독)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책과 영화의 제목을 통칭하는 용어로 ‘책 이름’이, 저자와 감독을 통칭하는 용어로 ‘지은이’가 사용되어, 어휘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책’을 ‘작품’으로, ‘지은이’를 ‘저자/감독’으로 수정한다.
07	중	2	수학	어느 화물 트럭이 A 도시에서 320km 떨어진 B 도시까지 가는 데 국도 를 3시간, 고속국도 를 2시 간 달렸다.	어느 화물 트럭이 A 도시에서 320km 떨어진 B 도시까지 가는 데 일반 국도 를 3 시간, 고속 국도 를 2시간 달렸다.	국도는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로 나뉘므로 후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도’로 표기해야 한다.

■ 내용의 오류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 전달하는 내용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한자’와 ‘한자음’을 혼동한 경우, ‘서술의 주체’와 ‘문장(서술어)의 주체(주어)’를 혼동한 경우, ‘동사’와 ‘형용사’를 혼동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하	국어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음 은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당시 한자음을 새롭게 고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규정한 음이다. 원문은 ‘한자’의 표기가 달라진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자음’으로 수정한다.
07	초	1	국어 (듣말)	3. <ㄱ>와 <ㅋ> 소리가 들어 있는 다음 낱말을 정확히 발음 하여 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1) 네모 (2) 제주도 (3) 계절 (4) 예술	3. <ㄱ>와 <ㅋ> 소리가 들어 있는 다음 낱말을 정확히 발음 하여 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1) 네모 (2) 제주도 (3) 차레 (4) 예술	표준 발음법에 따라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하는데, ‘ㄱ’과 ‘ㅋ’ 소리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한 사례로 ‘계절[계:-/계:-]’이 제시되었다. ‘예, 레’가 들어간 단어(예절, 차례 등)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⑤	국어	주체 높임법에는 서술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서술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결합시키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서술의 주체 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신체의 부분인 머리를 ‘세다’가 아닌 ‘세시다’라고 표현하였다.	주체 높임법에는 문장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문장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결합시키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다음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체 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신체의 부분인 머리를 ‘세다’가 아닌 ‘세시다’라고 표현하였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서술자)가 아닌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인데도 ‘서술의 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술의 주체’를 ‘문장의 주체’로 수정한다.
07	중	2	도덕	이들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동사 affluent 와 독감을 뜻하는 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형용사 affluent 와 독감을 뜻하는 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affluent’의 품사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바르게 수정한다.

■ 통합 관계에 맞지 않는 단어 선택

‘기술이 향상되다’, ‘기회가 주어지다’, ‘무엇과 무엇을 혼합하다’ 등 밀접한 통합 관계를 갖는 표현의 일부분을 다른 단어로 나타내어 어색함을 주는 경우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③	국어	국가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높아짐 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술을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향상됨 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술을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높아짐"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기술이 향상됨'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고	상	국어	그래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 사회의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친구 역할을 한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내면의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 사회의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친구 역할을 한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내면의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목적어가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이므로 서술어로 '듣다'는 적절하지 않다. '들으면서'를 후행절과 동일하게 '통해'로 수정한다.
07	고		사회	첫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주어지다'로 서술어를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기가	떡 케이크: 시루 에 찌는 떡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 한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서양 음식인 케이크의 모양으로 혼합한 퓨전 음식	떡 케이크: 시루 에 찌는 떡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 한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서양 음식인 케이크의 모양으로 만든 퓨 전 음식	‘혼합하다’는 ‘무엇과 무엇을 혼합 하다’와 같이 사용되므로, “우리 전통과 서양식 방법을 혼합한 퓨 전 음식”과 같은 문장은 성립하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무엇과 무엇 으로 혼합하다’로 쓰이는 것은 어 색하다. 여기에서는 ‘만들다’ 동사 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나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07	중	1	체육	따라서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 고 , 술을 권유하 면 거절하는 태도 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 다.	따라서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 고 , 술을 권유하 면 거절하는 태도 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 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 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 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하므로 ‘지식을 알고’는 부자연스럽다. ‘지식을 갖고’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 불명확하거나 중의적인 단어 선택

해당 단어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거나, 표현하려는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경우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2	국어 (쓰기)	1)친구들과 함께 2)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1),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로 인해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것인지, '친구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후행 문장 및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썼던 선행 활동을 고려하면 '친구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전시회로 추정되므로, '내가'를 '자기가'로 수정한다. 1)→부록 15번 참고
07	고	상	국어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그러나 2)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또한 2)같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2)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은 집단 외의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직업어가 집단 내 친밀감을 높인다는 특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사회'를 '집단'으로 수정한다. 1)→부록 181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6	수학	야영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고 반가웠지만 그 사진은 처음 사진의 각 변의 길이를 <u>3/4으로</u> 축소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야영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고 반가웠지만 그 사진은 처음 사진의 각 변의 길이를 <u>3/4배로</u> 축소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3/4'은 수의 개념이므로 '3/4'배로 축소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09	고	1	수학	특히, 경사도가 45도인 물매를 되물매, 경사도가 <u>그 이상인</u> 물매를 되물매라고 한다.	특히, 경사도가 45도인 물매를 되물매, 경사도가 <u>그것을 넘는</u> 물매를 되물매라고 한다.	'이상'은 그 수량을 포함하므로 되물매와 되물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07	고		기가	<u>회전 날개를 경사 시킴</u> 으로써 양력과 동시에 비행 방향으로의 분력(分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진은 물론 후퇴나 좌우 비행 또는 공중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u>(의미에 맞는 단어로 표현)</u>	'경사시키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혹, '비스듬히 기울게 하다'의 의미로 '경사시키다'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어색한 표현이므로, '회전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게 하여' 또는 '회전 날개를 경사지게 하여'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문장 어법

[1.2.2.(1)]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 이루어졌는가?

[하위 유형]

- 주어-서술어의 호응
- 목적어-서술어의 호응
- 부사어-서술어의 호응
- 주어-보어-서술어의 호응

■ 주어-서술어의 호응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안은문장의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제시하지 않고 안긴문장의 서술어만 제시한 경우, 동작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문장에서 사물을 화제로 삼았는데 서술어를 능동형으로 제시한 경우, 서술어의 의미에 맞지 않는 주어를 설정한 경우, 주어와 서술어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데 그 주어에 맞지 않는 서술어를 한쪽 절에서 제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3	국어 (듣말 쓰)	<u>‘5-3=2’</u> 는 오해 에서 세 걸음만 물러서면 <u>이해가 되고</u> , ‘2+2=4’는 이해에 이해를 더 하면 <u>사랑이 됩니 다</u> .	1안) <u>‘5-3=2’</u> 는 오해에서 세 걸음 만 물러서면 <u>이해 가 된다는 것을 보 여 주고</u> , ‘2+2=4’ 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u>사랑이 된 다는 것을 보여 줄 니다</u> . 2안) <u>‘5-3=2’</u> 처 럼 오해에서 세 걸 음만 물러서면 <u>이 해가 되고</u> , <u>‘2+2=4’</u> 처럼 이 해에 이해를 더하 면 <u>사랑이 됩니다</u>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다. 1안)과 같이 서술어를 수정하 거나, 2안)과 같이 수식을 부사어 로 바꾼다.
07	고		사회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u>나누 어</u>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 기에 휴경지가 복 합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경 작 단위로 <u>나뉘는 데</u> ,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 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기에 휴 경지가 복합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단위로 나뉘는 대 상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의 의미로 수정한다.
07	초	6	도덕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u>만들 기</u> 시작했습니다.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u>만들 어지기</u> 시작했습 니다.	문장의 화제인 ‘고려청자’와 서술 어 ‘만들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해당 문장에서는 고려청자를 만든 주체를 뚜렷하게 밝히기 애매하므 로 서술어를 ‘만들어지기’로 수정 한다.
07	고		한국사	<u>이는</u> 합격 인원 에 비해 관직의 수가 적어 출신 가문이 관직 임용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	<u>이를 통해</u> 합격 인원에 비해 관직 의 수가 적어 출 신 가문이 관직 임용에 크게 작용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은 ‘짐작할 수 있다’ 와 어울리기에 다소 어색하므로, ‘이를 통해~짐작할 수 있다’와 같 이 수정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을 짐작할 수 있다.	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7	중	3	수학	통계학이 학문으로 확립된 것은 17세기에 영국의 정치 산술학, 독일의 국세학으로 보고 있다.	통계학이 학문으로 확립된 시기는 영국의 정치 산술학, 독일의 국세학이 발달한 17세기로 보고 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새롭게 쓸 필요가 있으며, 주된 원인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07	고		기가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1)역할 분담은, 가족 구성원 간의 2)위계 질서 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분담하기보다는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1)역할은, 가족 구성원 간의 2)위계질서 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분담하기보다는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1) ‘분담하기보다는’,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의 주어가 ‘역할 분담’으로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를 서술어에 맞게 ‘역할’로 수정한다. 2)→부록 1327번 참고
09	중	2	기가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중 지해야 한다는 입장 양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중 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양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주어가 ‘개발이’이고 선행절의 서술어는 ‘계속되다’이므로, 후행절에서도 주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앞선 주어와 동일할 터이니 서술어 역시 ‘중지하다’보다는 ‘중지되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09	초	5	체육	체중이 뒤에 있다 가 앞으로 오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 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이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체중이~오면서’보다는 ‘체중을~옮기면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목적어-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어를 열거하며 후행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만을 제시해 의미가 맞지 않는 경우, 자동사와 목적어를 함께 사용해 문장 구조가 어색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③	국어	각종 연구와 저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언어문화와 언론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와 저술 활동을 벌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언어문화와 언론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와 저술’을 ‘개최’한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연구와 저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를 ‘각종 연구와 저술 활동을 벌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로 수정한다.
07	초	6	사회	고유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한다.	고유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원문의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해를 가지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해하다’를 서술어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기가	<u>개인을 성장하고</u>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u>개인을 성장시키고</u>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동사 '성장하다'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다'의 뜻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어로 쓰인 '개인'이 사실은 동사 '성장하다'의 주어여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개인'을 목적어로 두고 문장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명사 '성장'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시키다'를 붙여 '개인을 성장시키고'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적절하다.
09	중		음악	타악기를 주된 악기로 사용하며 <u>춤과 노래를 동시에 연주하는</u> 음악이 많다.	타악기를 주된 악기로 사용하며 <u>춤을 추고 동시에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는</u> 음악이 많다.	'연주하다'는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다'의 의미로 '악기를 연주하다', '음악을 연주하다'와 같이 사용된다. '춤을 연주하다'는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춤을 추다'로 수정한다.
09	초	5, 6	미술	<u>제품의 보호와 운반의 편리함을 살려</u>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u>제품을 보호하고 운반을 편리하게 하여</u>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목적어인 '제품의 보호'와 서술어인 '살려'가 호응하지 않아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문제가 없도록 '제품을 보호하고' 정도로 수정한다.
07	중	1	체육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라인 롤러보 다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u>충분한 연습과 자기 수준에 맞는 장애물을 선택해야 한다.</u>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라인 롤러보 다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u>자기 수준에 맞는 장애물을 선택하여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u>	'충분한 연습'과 '선택해야 한다'가 호응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와 같이 수정한다.

■ 부사어-서술어의 호응

부사어가 전제하는 시제나 상에 어긋나는 서술어를 활용하거나, 주어-부사어-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사회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숲이나 논, 밭 등이 사라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내려 저지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숲이나 논, 밭 등이 사라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내려 저지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부사어 '최근'은 '얼마 되지 않은 지나간 날부터 현재 또는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의 의미이다. 따라서 원문의 서술어 '발생한다'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진행의 의미가 담기도록 서술어를 수정한다.
09	고		사회	1)전자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1)전자 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이 실시간으로 나타내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2) 부사어 '전자 지도에는'과 호응하고 후행절과 대등한 문법 구조가 되도록 문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1)→부록 341번 참고

■ 주어-보어-서술어의 호응

부정 표현을 ‘보어+아니다’로 나타내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생활	정보가 <u>창의적이 아니다</u> .	정보가 <u>창의적이지 않다</u> .	주어와 보어, 서술어 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창의적’은 ‘정보’가 지닌 속성이되 그 자체로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색하므로 ‘창의적이지 않다’와 같이 수정한다.

[1.2.2.(2)] 조사 및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였는가?

[하위 유형]

■ 조사

- 격 조사 오용
- 격 조사 남용
- 격 조사 부재
- 보조사 오용
- 접속 조사 남용

■ 어미

- 종결 어미 오용
- 연결 어미 오용
- 전성 어미 오용

■ 조사

• 격 조사 오용

선행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가’, ‘을/를’을 잘못 선택한 표기상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에서’와 ‘에’, ‘로써’와 ‘로서’, ‘에’와 ‘의’, ‘에서’와 ‘에게’, ‘에게’와 ‘이’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직접 인용 구문에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나 ‘라는’이 아닌, 간접 인용 표지인 ‘고’나 ‘는’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각 방송사 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각 방송사 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에 붙는 조사인데,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있다’로 형용사이다. ‘에서’를 처소의 부사어 뒤에 붙는 ‘에’로 수정한다.
09	고	1	국어	대화 내용을 공감적 듣기가 이루어지도록 옆 친구와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자.	대화 내용에 대해 공감적 듣기가 이루어지도록 옆 친구와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자.	문맥상 ‘대화 내용을’에서 조사 ‘을’이 비문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을’을 ‘~에 대해’로 수정한다.
07	중	3	사회	또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방어 기지로써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방어 기지로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 및 방어 기지라는 것이 지위나 신분, 자격을 의미하므로 조사 ‘로써’로 수정하여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사회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고, 호족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고, 호족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호족이 세금을 거두는 주체이므로 '에게는'을 주격 조사 '이'로 수정하여야 한다.
07	중	2	도덕	그리고 1990년대 부터는 '휘파람'과 같이 남녀 간 에 애정을 표현한 가요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부터는 '휘파람'과 같이 남녀 간 의 애정을 표현한 가요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읽는 것은 허용되나, 표기 시에는 '의'로 적어야 한다. '남녀 간에 애정'을 '남녀 간의 애정'으로 수정한다.
09	중	1	수학	"나에게 고정된 한 지점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나에게 고정된 한 지점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 라 말했다고 한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한다.
07	중	3	과학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이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가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 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1) '뇌줄기'에 결합하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뇌줄기'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조사 '가'가 결합하므로, '이'를 '가'로 수정한다. 2)→부록 994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과학	흔히 뇌사와 식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여 “뇌사 상태의 환자가 10년 만에 깨어났다.”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뇌사와 식물인간은 큰 차이가 있다.	흔히 뇌사와 식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하여 “뇌사 상태의 환자가 10년 만에 깨어났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뇌사와 식물인간은 큰 차이가 있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는’의 준말은 ‘는’이 아닌 ‘-라는’이다.
09	고		기가	현재 우리 가족에 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 가족에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쓰여, ‘가족’이라는 사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명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다. 이때는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며 유정 명사에 쓰이는 ‘에게’가 자연스럽다.
09	중	2	기가	또한, 근린 지역의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과 동시에 지역 사회 이웃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근린 지역 에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과 동시에 지역 사회 이웃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처소가 ‘근린 지역’이므로, ‘근린 지역’ 뒤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초	5	체육	부록에 있는 벽불 이사진 을 활용해 봅시다.	부록에 있는 벽불 이사진 을 활용해 봅시다.	조사 ‘를’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인다. 따라서 ‘벽불이사진’ 뒤에는 ‘를’이 아니라 ‘을’을 써야 한다.

• 격 조사 남용

특정 격 조사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격 조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어색함을 주는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체육	깃털의 가벼운 움직임과 곰의 무거운 움직임처럼 움직임에도 힘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깃털의 가벼운 움직임과 곰의 무거운 움직임처럼 움직임도 힘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은 주어이지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가 삭제되어야 한다. ‘움직임에도’를 ‘움직임도’로 수정한다.
09	초	3, 4	미술	우리는 미술을 공부 를 통하여 사물을 잘 관찰하고, 생각과 느낌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공부 를 통하여 사물을 잘 관찰하고, 생각과 느낌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공부를 통하여’에서 ‘를’이 중복 사용되었다. ‘미술을’의 ‘을’을 삭제하면 ‘공부를’의 ‘를’이 ‘미술 공부’와 결합한 것이 되어 자연스럽다.
07	고		체육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 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 위치 에 있어야 한다.	‘정규의 위치’는 ‘정규 위치’를 뜻하는데,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워졌다. 사전에서도 ‘정규 방송, 정규 직원’ 등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정규 위치’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 격 조사 부재

의존 명사 ‘등’의 다음에서, 의미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격 조사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수학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나의 다짐’ 또는 ‘나의 계획’ 등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적고 규칙에 따라 붙여 보시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나의 다짐’ 또는 ‘나의 계획’ 등을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적고 규칙에 따라 붙여 보시오.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어 ‘나의 다짐’ 또는 ‘나의 계획’이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패널의 명칭으로 보인다.
09	중	2	사회	이 중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중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과 ‘번식지’ 사이에 조사 ‘의’가 생략되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조사를 삽입하여야 한다.

• 보조사 오용

주격 조사가 더 자연스러운 자리에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거나, 보조사 ‘만’을 한정하고자 하는 대상 뒤가 아닌 다른 곳에 제시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수학	이후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u>데카르트</u> 는 음수를 수로 처음 인정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음수는 수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u>데카르트가</u> 음수를 수로 처음 인정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음수는 수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 등장하는 ‘데카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는’보다는 격 조사 ‘가’가 더 자연스럽다.
07	고	상	국어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u>냉장고는 물건만 저장하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u>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u>이러한 냉장고는 식품을 저장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u>	‘냉장고는 물건만’에서 보조사 ‘만’이 ‘물건’을 한정하기에 후행 문장에서 냉장고가 물건 외의 것을 저장함을 다룰 것을 기대케 하나, 실제로는 ‘저장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갖춤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보조사 ‘만’을 그 뒤에 붙이도록 수정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사회	그러나 나우루의 인광석 은 2003년 경에 거의 고갈되어 더는 인광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자 나우루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우루의 인광석이 2003년 경에 거의 고갈되어 더는 인광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자 나우루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원문에서 '인광석'은 주제가 아닌 주어로 기능해야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워지므로 보조사 '은' 대신 '주격 조사 '이'로 수정하여야 한다.

• 접속 조사 남용

‘중국과 서역과’와 같이 접속 조사 ‘과’와 격 조사 ‘과’가 연달아 사용되어 어색함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음악	1)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로 고구려는 2)중국과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고구려는 1)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2)중국 및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2) ‘중국과 서역과’와 같이 ‘과’를 두 번 사용하기보다는 ‘및’을 사용하여 ‘중국 및 서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부록 1423번 참고

■ 어미

• 종결 어미 오용

현재 사건을 서술할 때 쓰이는 종결 어미 ‘-니다’나 ‘-는다’는 동사 어간 뒤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형용사 뒤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동사 뒤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아’가 아닌 ‘-애’로 기재하는 등 종결 어미의 형태를 잘못 표기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1	국어(쓰기)	이 내용은 내 생각과 <u>맞지 않다고</u> 생각했구나.	이 내용은 내 생각과 <u>맞지 않는다</u> 고 생각했구나.	'맞다'는 동사인데, 보조 동사인 '않다'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누락되었다. ‘-는-’을 추가한다.
09	초	2	국어	“똑같구나, <u>똑같애.</u> ”	“똑같구나, <u>똑같아.</u> ”	‘-애’는 맞춤법에 맞는 어미가 아닌데 사용되었다. ‘똑같애’를 ‘똑같아’로 수정한다.
07	고		기타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생활의 기본 집단이며, 인간의 삶의 의미이기도 <u>한다</u> .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생활의 기본 집단이며, 인간의 삶의 의미이기도 <u>하다</u> .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인 ‘하다’의 경우, ‘-기는, -기도, -기나’에서 ‘-기’ 앞에 형용사가 쓰이면 보조 형용사, ‘-기’ 앞에 동사가 쓰이면 보조 동사가 된다. ‘이다’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분류되나, 학자에 따라서는 ‘형용사’로 분류하는 등 그 성격이 형용사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도 보조 형용사 ‘하다’와 같이, 현재 시제일 경우 ‘명사+이기도 하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니다’는 동사 어간에 붙는 현재 시제 어미이다.

• 연결 어미 오용

연결 어미(혹은 보조사) ‘-든’을 사용할 자리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을 사용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잘 때 <u>던</u> 깨어 있을 때 <u>던</u> , 일을 하 <u>던</u> 식사를 하 <u>던</u> , 집 안에서 <u>던</u> 밖에서 <u>던</u> , 목욕할 때 <u>던</u> 침대에 누워 있을 때 <u>던</u> 상관없었다.	잘 때 <u>든</u> 깨어 있을 때 <u>든</u> , 일을 하 <u>든</u> 식사를 하 <u>든</u> , 집 안에서 <u>든</u> 밖에서 <u>든</u> , 목욕할 때 <u>든</u> 침대에 누워 있을 때 <u>든</u> 상관없었다.	잘못된 어미가 사용되었다. ‘-던’은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뜻하는 어미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든’으로 수정한다.
07	중	3	국어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u>1)삼층석탑</u>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u>1)불국사 삼층석탑</u>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u>1)석가탑</u> 과 마주 보고 <u>2)있으</u>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u>1)삼층 석탑</u>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u>1)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u> 은 국보 제 21 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 미 터 이 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 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 미터에 이르며, <u>1)삼층 석탑</u> 과 마주 보고 <u>2)있습니다. 3)이</u>	2)에서 ‘-면서’라는 어미를 사용한 것은, 다보탑이 석가탑과 마주 보고 있다는 정보와 다보탑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동시에 겹치고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연결 어미를 종결 어미로 수정하여 후행절을 새로운 문장으로 독립시킨다. 1)~3)→부록 113~116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면서 3)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두 탑은 각각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 전성 어미 오용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 주로 동사 어간의 뒤에 붙어 사용된다.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다. 그런데 보조 형용사 뒤에서 ‘-는’을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기가	자신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벼룩 시장에 파는데, 벼룩시장은 중고품을 파는 프랑스의 노천 시장이다.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벼룩 시장에 파는데, 벼룩시장은 중고품을 파는 프랑스의 노천 시장이다.	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않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로 ‘-는’이 아닌 ‘-은’을 쓴다.

3.2. ‘소통성’ 영역 분석 결과

3.2.1. 단어의 소통성

1) 어휘 선택

[2.1.1.(1)] 독자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하였는가?

[하위 유형]

- 사전 미등재어의 사용
-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의 사용
 - 높은 수준의 어휘 사용
 -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의 사용

■ 사전 미등재어의 사용

매우 일부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해당 과목의 모든 전문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의미로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이면서 동시에 사전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단어라면,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교과서 맥락을 고려하여 독자의 수준에 알맞은 단어나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대문 : 도로에서 부터 현관까지 불 필요한 단차 는 없 는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수정 해야 함.)	해당 내용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 내 점검 사항을 그림으로 제 시하여 '대문'과 관련한 점검 사항 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는 '단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 게 이해하거나 추론할 수 없을뿐 더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해당 문맥에 맞는 '단차'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다. 고등학생이 독자이므 로, 독자의 이해 수준에 알맞은 용 어나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다.
07	초	6	체육	나의 협응성 을 측 정해 보고, 협응 성 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평가해 봅시다.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협응 성'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치거 나, 이에 대한 설 명을 제시할 필요 가 있음.)	'협응성'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로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

■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의 사용

• 높은 수준의 어휘 사용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 경우이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많은데, 학습자들이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한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단어의 뜻을 추론하기 어려울뿐더러 한자 또한 병기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상	역사	명주 장군 김순식이 귀부해 오자 ,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명주 장군 김순식이 스스로 복종해 오자 ,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중학교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명사 ‘귀부(歸附)’란 스스로 와서 복종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학교 수준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내에서 추가 뜻풀이나 한자어 병기가 없어 난도는 더욱 높게 느껴진다. 중학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 써야 한다.
09	중	3	과학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기작 을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작용 원리 를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기작’은 독자 수준에 적합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 도움말을 통해 ‘기작’의 의미를 설명(뜻풀이)해주거나, 개선안과 같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한다.
07	초	3, 4	미술	자연에서 질감, 양감, 동세 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느껴 봅시다.	1안) 뜻풀이 제시 2안) 괄호에 ‘운동감’ 병기	‘동세(動勢)’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운동감’을 뜻하는 말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단어이다. 2007개정 초등학교 미술 5~6학년 교과서(천재교육, 6쪽)에서는 학습 용어로 ‘동세’를 제시하면서 괄호에 ‘운동감’을 병기했다. 따라서 ‘운동감’을 병기하거나 ‘동세’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고		체육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를 조사하고 가검물 을 채취하며, 설문 조사도 실시한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를 조사하고 검사물 을 채취하며, 설문 조사도 실시한다.	‘가검물(可檢物)’은 ‘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두는 물질’을 뜻하는 단어로, 고등학교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검사물’로 수정한다.

•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의 사용

일부 과목의 경우, 해당 영역에서만 쓰이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어휘가 쓰여, 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이 도움말 없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사물을 가리키는 어휘도 이해에 어려움이 따른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수학	보경이는 빗집 을 꾸미기 위하여 한지를 접고 오려서 선대칭도형이 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빗집’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함.)	‘빗집’은 빗, 빗솔, 빗치개와 같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물건을 넣어 두는 도구인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움말이 필요하다.
09	초	5, 6	음악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취구에 서 를 꽂아 연주합니다.	(‘서’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서’는 음악 분야 전문어로 ‘관악기의 발음원이 되는 얇은 진동판’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므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

[2.1.1.(2)] 외래어와 외국어

[하위 유형]

-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 불필요한 로마자 표기

■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각 영역의 전문어로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외래어 및 외국어를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이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로 표현 가능한 외래어 및 외국어는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2.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팸플릿 을 만들어 보자.	2.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책자 를 만들어 보자.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팸플릿'은 '책자' 등으로 순화하여 수정한다.
09	초	5, 6	미술	페이스 페인팅 으로 또 다른 나의 얼굴을 만들어 보시다.	얼굴 그림 으로 또 다른 나의 얼굴을 만들어 보시다.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외국어의 남용에 해당한다. '페이스 페인팅' 대신 '얼굴 그림'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한다.(국어순화자료집, 2002 참조.)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체육	과격한 신체 접촉을 줄인 <u>뉴스포츠</u> 종목 세 가지를 찾아서 소개해 보자.	과격한 신체 접촉을 줄인 <u>새로운 스포츠</u> 종목 세 가지를 찾아서 소개해 보자.	‘뉴 스포츠’는 ‘새로운 스포츠/새 스포츠’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 불필요한 로마자 표기

학습자들이 로마자를 학습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로마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굳이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로마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TV, PC 등을 ‘티브이, 피시’라고 표기하고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등으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기에 불필요한 로마자 표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음악	영화나 드라마, <u>TV</u> 광고 등을 녹화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면을 골라 동영상 파일을 만든다.	영화나 드라마, <u>텔레비전</u> 광고 등을 녹화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면을 골라 동영상 파일을 만든다.	‘텔레비전’이라는 외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TV’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09	초	4	수학	<u>TV, PC</u>	<u>텔레비전, 컴퓨터</u>	‘텔레비전’이라는 외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TV’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3) 어휘 사용의 일관성

[2.1.1.(3)] 어휘 사용 일관성

하나의 글이나 문단 안에서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른 용어로 지칭할 때, 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경우 두 용어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물론 하나의 개념을 가리키는 두 개의 용어가 통용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대상은 하나의 용어로 칭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p>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삼층석탑,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p> <p>불국사 삼층석탑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석가탑과 마주 보고 있으면서</p>	<p>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삼층 석탑,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p> <p>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삼층 석탑과 마주 보고</p>	<p>밑줄 친 부분과 같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삼층 석탑’, ‘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이 한 문단 안에서 혼용되었다. 뒤쪽 문장의 석가탑을 삼층 석탑으로 수정하고, 불국사 삼층 석탑이 석가탑임을 괄호에 넣어 병기한다.</p>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있으면서 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09	고	1	국어	정부는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어 에 대한 편하를 없애고 지역 언어 를 통해 표준어를 풍성히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어 를 어문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공식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식 언어의 필요성이 지역 언어 의 불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언어 의 다양성이 문화의 풍부함을 말해 준다고 할 때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어 에 대한 편하를 없애고 지역어 를 통해 표준어를 풍성히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어 를 어문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공식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식 언어의 필요성이 지역어 의 불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어 의 다양성이 문화의 풍부함을 말해 준다고 할 때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지역어'와 '지역 언어'라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역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수정한다.
07	중	하	역사	중국 화북 지방은	중국 화베이 지방은	'화북'과 '화베이' 모두 올바른 표기이나 동일 교과서에서 중국의 특정 지역의 지명을 '화베이'로 표기해 왔으므로,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화베이'로 수정한다.

3.2.2. 문장의 소통성

1) 문법 요소

[2.2.1.(1)]

피동·사동·시제·높임·부정·인용 표현을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하위 유형]

- 피동 표현의 오·남용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의 사용
 - 잘못된 형식의 피동 표현 사용
- 사동 표현의 남용
- 시제의 불일치
- 높임 표현의 오용
- 인용 표현의 오용

■ 피동 표현의 오용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의 사용

국어는 행동의 주체가 주어로 오는 문장이 일반적이며 자연스럽다. 다만, 주체를 생략하고 행동의 대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잘 살펴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일부 교과서에서 주어가 제 힘으로 서술어의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도 피동 표현을 쓴 경우가 있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⑤	국어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목적어 다음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피동형 ‘회복되시는’을 능동형 ‘회복하시는’으로 수정한다.
07	중	2	수학	전체 물의 높이 y cm는 $y=2x+40$ 과 같이 x에 관한 일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전체 물의 높이 y cm는 $y=2x+40$ 과 같이 x에 관한 일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물의 높이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초	5	사회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원문의 주어는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에서 신분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능동의 서술어로 수정하여야 한다.
09	중		체육	그 후 이들에게 사사받은 진수방, 김민자, 장추화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부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이들에게 사사한 진수방, 김민자, 장추화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부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사사(師事)하다’는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사받은’이 아니라 ‘사사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 잘못된 형식의 피동 표현 사용

국어에서는 능동사에 피동의 접사 ‘-이/히/리/기-’ 등을 붙이거나 ‘-되다’나 ‘-어지다’를 덧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다. ‘쓰여지다, 보여지다’ 등과 같이 이미 접사를 통해 형성된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형태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이 중복된 것으로 지양해야 할 표현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혀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힌/묻어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묻혀진’은 ‘묻다’의 피동사 ‘묻히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묻힌’ 또는 ‘묻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묻어진’으로 수정한다.
09	중	2	수학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사이므로 불필요하게 ‘-어지다’를 더 결합하지 않는다.

■ 사동 표현의 남용

사동 표현은 사동사나 접사 ‘-시키다’의 결합, 또는 ‘-게 하다’ 구성에 의해 실현된다. 이 중 ‘-시키다’는 명사 뒤에 붙어서 사동을 표현하는 접사인테 ‘-하다’의 자리에 대신하여 널리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동사는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접사 ‘-시키다’를 통한 사동 표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을 고정시키다’ 대신에 ‘~을 고정하다’라고 쓰는 것이 더욱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과학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시킵니 다.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합니다.	'고정하다'가 "한곳에 꼭 붙어 있거 나 붙어 있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시키다' 를 수정한다.
09	중	2	기가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 으로 학습할 내용 을 연계시켜 소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 으로 학습할 내용 을 연계하여 소개 하였다.	동사 '연계하다'는 '잇따라 매다'의 의미이기에 굳이 접사 '-시키다' 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상 무리가 없다.
09	고		기가	세탁 후 완전히 건조시켜 비닐봉 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 며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하여 비닐봉 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 며	'건조'는 "물기나 습기가 말라서 없어짐. 또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 서 없앴."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접 사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든다. 실제로 동사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의 의미이 다.
07	고		체육	스포츠 클라이밍 에 도전한다면 자 신이 몇 달 후에 어느 수준의 코스 를 정복한다는 명 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스포츠 클라이밍 에 도전한다면 자 신이 몇 달 후에 어느 수준의 코스 를 정복한다는 명 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동주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여 준다'와 같은 사동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높여 준다'를 '높아진다'로 수정한다.

■ 시제의 불일치

현재 학습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을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사회	세계적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49차 유엔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고,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정해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세계적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49차 유엔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였고,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정해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한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사막화 방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선행절의 서술어를 과거 시제로 수정하여야 한다.
09	중	1	과학	위에서 정리한 화산 폭발의 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과거 화산 폭발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위에서 정리한 화산 폭발의 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과거 화산 폭발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시제 표현이 맥락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주어진 맥락에서 가리키는 화산 폭발은 ‘조선 시대 백두산 폭발’이며, 발문에서도 ‘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있는지’를 ‘있었는지’로 수정하여 과거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09	초	6	사회	<u>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u> 수용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황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에 앞서 ‘제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절의 서술어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높임 표현의 오용

국어의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이는 표현이고, 상대 높임은 어말 어미를 통해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높임 표현이다. 객체 높임은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인물을 특수 어휘나 조사를 통해 높이는 표현이다. 주체를 높여야 할 상황에서 ‘-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듣는 이에 적절하지 않게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보인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국어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 삶의 의미를 찾아 준 소박하지 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께서 살아 가는 원동력이 되 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 삶의 의미를 찾아 준 소박하지 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께서 살아 가시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께서’를 사용하였으나 서술어에서는 ‘-시-’ 를 사용하지 않아 어색함을 준 다. 서술어에 ‘-시-’를 추가한다.
07	중	3	사회	귀찮은데 선생님 께서 알아서 결정 하였으면 좋겠다.	귀찮은데 선생님 께서 알아서 결정 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로 주체를 높였기 때 문에 서술어에도 선어말 어미 ‘-시-’ 를 써야 한다.
09	초	6	사회	우리 삼촌은 소를 키우는데, 요즘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고민이 많 아요.	우리 삼촌은 소를 키우는데, 요즘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고민이 많 으세요.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후행절 서술 어에도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
07	고	상	국어	어렸을 때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 자연 스럽게 호칭이 바 뀌며, 출가를 하 게 되면 ‘어머님’ 이나 ‘아버님’으 로 다시 호칭이 변한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 자연 스럽게 호칭이 바 뀐다.	편지글의 경우를 제외하면, 살아 계신 자기 부모를 부를 때 ‘-님’ 자 를 붙이지 않는 것이 표준 화법이 므로 설명이 잘못되었다. 해당 절 을 삭제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 아 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 아 니.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요’체 높임법이 쓰이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이다. ‘해’체로 수정한다.

■ 인용 표현의 오용

인용 표현은 주로 인용격 조사나 문장 부호 차원의 오류(‘정확성’ 영역)만이 발견되었으나, 대명사 ‘나’가 인용절 안에서 재귀칭 대명사인 ‘자기’로 바뀌지 않고 쓰인 경우가 있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하	국어	“금이가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금이의 삶은 파란만장했다.(후략)”	“금이가 자기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금이의 삶은 파란만장했다.(후략)”	간접 인용된 문장에서 화자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내’가 사용되었다. ‘자기’로 수정한다.

2) 문장 구조

[2.2.1.(2)] 명사화 구성이 적절한가?

‘지구의 표면 근처의 공기’에서처럼 지나치게 명사가 나열될 경우 문장이 어색해진다. 명사가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의 경우 관형어(구)가 수식하는 구조로 조정하는 등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국어 (듣말쓰)	지구 온난화는 <u>지구의 표면 근처의 공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u> 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u>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u> 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명사를 지나치게 나열하여 조사 ‘의’가 남용되었다. 문맥에 따라 ‘의’를 삭제하고 서술어를 추가하여 구를 절로 바꾼다.

[2.2.1.(3)] 문장 내의 수식 구조(관형 구조)가 적절한가?

[하위 유형]

- 불분명한 수식으로 인한 모호한 표현
- 수식 구조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형성
- ‘의’의 과도한 사용

■ 불분명한 수식으로 인한 모호한 표현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인 표현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은 ‘아름다운’이 ‘고향’을 꾸미는지, ‘하늘’을 꾸미는지 모호하다. 이런 경우, 쉼표(,)를 사용하거나 어순을 조절하여 수식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수식 구조를 조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2	국어 (듣말)	<u>보기와 같이</u> 인물이 등장할 때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어 봅시다.	인물이 등장할 때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u>보기와 같이</u> 적어 봅시다.	'보기와 같이'가 '등장할'과 '나타내는', '적어 봅시다' 중 어떤 것을 수식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적어 봅시다' 앞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07	초	2	국어 (쓰기)	<u>친구들과 함께</u>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 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u>친구들과 함께</u>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수식하는 대상이 '꾸며'인지, '열어 봅시다'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진을 꾸미는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집단 활동인지 알기 어렵다. '친구들과 함께'를 후행절 앞으로 옮긴다.
09	초	3	국어	<u>자신이 민주가 되어</u> 응원하여 준 반 친구들에게 쪽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u>자신이 민주가 되어</u> , 응원하여 준 반 친구들에게 쪽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자신이 민주가 되어"라는 구절이 수식하는 말이 모호하다. "자신이 민주가 되어"라는 구절 다음에 심표를 찍어 중의성을 해소한다.
07	중	1	수학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이나 첨성대는 그 아름다운 물론 기하학적 구조가 너무나 영묘한 <u>세계적인 우리의 자랑거리</u> 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이나 첨성대는 그 아름다운 물론 기하학적 구조가 너무나 영묘한 <u>우리의 세계적인 자랑거리</u> 이다.	'세계적인'이 수식하는 대상이 '우리'와 '자랑거리' 모두이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한다.
07	중	3	체육	게임 중에 공이 네트나 모서리에 맞았을 때 <u>미안하다는 예의를 표시했는가?</u>	게임 중에 공이 네트나 모서리에 맞았을 때 <u>미안함을 표시했는가?</u>	'미안하다는 예의'는 '미안하다는'이 '예의'를 수식하는 구조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미안함을 표시했는가' 정도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임을 설명한다.

■ 수식 구조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형성

수식어는 피수식어와 가까이 위치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한, 관형형 전성 어미의 구성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에 알맞게 짜여야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사회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빈번한 부족 간의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부족 간의 빈번한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부적절한 어순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09	초	3, 4	음악	함박눈 내리는 모습과 여기저기 쌓여 있는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곡입니다.	함박눈 내리는 모습과 여기저기 눈이 쌓여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곡입니다.	'여기저기 쌓여 있는'이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수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눈이 쌓인 것이지 풍경이 쌓인 것은 아니므로 수식 구조 상에 문제가 있다. 풍경이 쌓인 것이 아니라 눈이 쌓인 풍경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수식 구조를 조정한다.
07	초	5, 6	미술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라는 표현은 수식 구조의 문제로 부자연스럽다. 표현 의도에 따라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혹은 '급격한 산업화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정도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음악	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로 고구려는 중국과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고구려는 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중국 및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고		미술	20세기 현대 미술의 하나인 추상화는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 과 주관적인 감흥을 우연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현대 미술의 하나인 추상화는 대상을 기하학적 입체로 환원하여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 과 주관적인 감흥을 우연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은 수식 구조가 부자연스럽다.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를 '기하학적 입체로 환원하여' 정도로 수정한다.

■ ‘의’의 과도한 사용

‘의’는 관형격 조사로 앞말이 뒷말을 꾸며 주는 관형어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국어에서 ‘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세 자루의 연필’보다는 ‘연필 세 자루’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며, ‘의’가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 쉽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4	음악	청어는 등은 푸르고 배는 은백색의 물고기입니다.	청어는 등은 푸르고 배는 은백색인 물고기입니다.	‘은백색의 물고기’는 자연스럽지만, ‘~배는 은백색의 물고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사용하여 ‘~배는 은백색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초	5, 6	미술	‘고’와 ‘가’의 ‘ㄱ’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생각하며 쓴다.	‘고’와 ‘가’에서 ‘ㄱ’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생각하며 쓴다.	“‘고’와 ‘가’의 ‘ㄱ’의 모양과 크기의”에서 ‘의’가 반복되면서 수식 구조가 중층적이 되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 되었다. 첫 번째 ‘의’를 ‘에서’로 고치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

[2.2.1.(4)] 문장 내의 접속 구조가 적절한가?

[하위 유형]

- 대등하지 않은 문법 단위의 병렬 접속
- 잘못된 연결 어미의 사용

■ 대등하지 않은 문법 단위의 병렬 접속

접속 조사나 접속 부사, 또는 연결 어미 등에 의해서 의미 단위가 접속될 때에는 접속되는 두 의미 단위의 문법적인 층위가 대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은 ‘자원의 절약’이라는 명사구와 ‘환경을 보전하는’이라는 관형형 구성의 동사구가 접속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의 보전] 방법’과 같이 명사구와 명사구가 접속되거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과 같이 동사구와 동사구가 접속되는 형식으로 접속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사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판매 등 과거와는 다른 유통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유통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판매'라는 명사구를 동사구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선행절과 후행절이 명사구로 대등하게 이어지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선·후행절을 모두 명사구의 형식으로 만들어 접속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09	고		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밑줄 친 부분은 "자원의 절약"이라는 명사구와 "환경을 보존하는"이라는 동사의 관형형이 대등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서로 대등한 문법적 지위를 지닌 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중		미술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뒷부분을 앞부분과 문법적으로 대등한 명사구인 '앞으로의 발달 방향' 정도로 수정하고 '에 대해'를 붙인다.

■ 잘못된 연결 어미의 사용

이어진문장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 관계에 따라 적절한 연결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연결 어미가 잘못 사용될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문장 전체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기 어렵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하	역사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며 ,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조적인 평가임에도 단순 나열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였다. 명확한 의미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행절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미 ‘-으나’로 수정한다.
09	초	5	체육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많이’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부드럽고’를 ‘부드럽게’로 수정하여 접속 구조가 아니라 수식 구조가 되게 한다.
07	초	5, 6	미술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 계기, 이유이므로, ‘느끼고’를 ‘느껴’로 수정한다.

3) 문장 내 의미 구성

[2.2.2.(1)] 문장 내에 성분이나 정보의 부적절한 중복이 있는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크게 증폭한다’에서 ‘증폭하다’는 ‘크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미 ‘크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크게’는 잉여적인 표현이 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국어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 숲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밀림’과 ‘숲’이 연이어짐으로써 의미의 중복이 발생했다. ‘밀림’이 ‘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므로 ‘밀림 숲’을 ‘밀림’으로 수정한다.
09	고		생활과 윤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가 필요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필요해.	‘청정하다’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형용사로 바로 앞의 ‘깨끗하다’와 의미가 일부 중복된다. 문맥을 고려하여 ‘청정한’을 ‘안전한’으로 수정한다.
09	초	6	실과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한다 .	전기 신호를 증폭한다 .	동사 ‘증폭하다’는 ‘사물의 범위를 넓혀 크게 하다’의 뜻을 지녔다. 따라서 밑줄 친 ‘크게 증폭하다’는 ‘역전 앞’과 같이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증폭하다’ 하나만으로도 ‘크게 하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앞의 ‘크게’라는 부사어는 삭제한다.

[2.2.2.(2)] 문장 내에 성분이나 정보의 부적절한 생략이 있는가? (필요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생략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하위 유형]

- 필수적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
-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족

■ 필수적 문장 성분의 부적절한 생략

이어진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에 공통적인 문장 성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부당하게 생략할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문법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④	국어	<u>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글을</u>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u>대상에 대한 관점 이 서로 다른 글</u> 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문장 성분(주어)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관점'이라는 주어를 첨가하도록 수정한다.
07	중	1	수학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 집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u>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u>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 집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u>기차가</u>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해당 문장 내에 '지나가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고, 이는 선행절의 주어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기차'라는 주어를 삽입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이 단원을 공부하 기 전과 마친 후 에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각 각 써 보고, 어떻 게 달라졌는지 비 교해 보자.	1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과 마 친 후에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각각 써 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 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 2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과 마 친 후에 물음에 대한 답을 각각 써 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 라졌는지 비교해 보자.	'달라지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 략되었다. 생략된 주어 '생각이'를 추가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07	중	3	국어	좋은 질문은 전문 가가 자신의 견해 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문제 해 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질문은 전문 가가 자신의 견해 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면담자 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내포절 중 후행절의 주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선행절의 주어인 '전문가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후행절의 주어로 '면담자 가'를 추가한다.
07	초	6	국어 (읽기)	1) + 종이책은 2)더 오랫동안 음 미하고 자기 나 름대로 상상력을 발 휘하게 해 준다.	1)종이책은 2)사 람들이 더 오랫동 안 내용을 음미하 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 게 해 준다.	2) 부사절 내의 선행절에서 주어 와 목적어가, 후행절에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선행절에 '사람들이' 와 같은 주어, '내용을'과 같은 목 적어를 추가한다. 1)→부록 52번 참고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사회	<u>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남북통일 문제, 다양한 집단 갈등 문제를 이미 겪고 있으며,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u>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남북통일 문제, 다양한 집단 갈등 문제를 이미 겪고 있으며, <u>이 문제들은</u>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후행절에 주어가 생략되었다.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주어를 삽입하여야 한다.
07	중	1	도덕	<u>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u>	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u>국가가</u>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되었다. 서술어 '침해하다'의 주체인 '국가'를 주어로 명시한다.
09	고		생활과 윤리	<u>사람들의</u> 투표가 자신을 비롯한 개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를 알지 못한다.	<u>사람들은</u> 투표가 자신을 비롯한 개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를 알지 못한다.	문장 전체의 주어가 생략되어 의미가 불분명하다. 해당 문장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메타적인 서술이 아니며 '본인들이 하는 투표'라는 의미이므로 '사람들의'를 '사람들은'으로 수정하여 주어를 명시해 준다.
07	고		기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u>헌신하려는</u>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u>서로에게 헌신하려는</u>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동사 '헌신하다'의 경우 '에/에게' 또는 '을 위하여'와 같은 부사어를 논항으로 갖는다. 따라서 앞선 목적어 '서로를'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헌신하려는'과 같이 '헌신하다'에 알맞은 논항을 갖추어 쓸 필요가 있다.

■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부족

문장의 필수 성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의미 전달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 제시되지 않아 의미가 불분명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의 이름을 쓴다.”라는 문장은 표면적으로 올바른 문장 구조로 보이나, 그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몸의 ‘각 부분의’ 이름을 쓴다.”라고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1	수학	19세기에 노르웨이에 아벨과 프랑스의 갈루아는 사칙연산과 근호만을 사용한 일반적인 해법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19세기에 노르웨이에 아벨과 프랑스의 갈루아는 사칙연산과 근호만을 사용한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방정식 해법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교과서의 전후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삽입해 주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해법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5차 이상의 방정식'과 관련한 해법임을 명시하여 수정한다.
07	초	6	국어(읽기)	1950년대에 비하여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1950년대에 비하여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후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벼농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벼농사의 가치나 소중함이 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벌어지는 것이므로 생략된 내용을 추가한다.
07	고		사회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어디로부터 독립한 것인지를 제시해야 함.)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디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기가	<p>•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u>개인 정보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u>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u>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u>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p>	<p>‘개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등장할 맥락이 아니어서,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색하다. 문맥상 ‘개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p>
09	초	2	통합	<p><u>몸의 이름</u>을 써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요.</p>	<p><u>몸의 각 부분의 이름</u>을 써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요.</p>	<p>제시된 활동이 몸의 각 부분의 이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각 부분’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수정해야 한다.</p>

[2.2.2.(3)] 문장 내에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가?

문장의 모호성은 앞에서 서술한 ‘중의성’ 외에도 ‘애매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애매성은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인데, 두 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성과 달리, 사람마다의 인지적 기준이 달라 발생한다. 이렇듯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표현들은 여러 의미로 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저 읍서예.”, “퍼뜩 온나.” 이 말들은 표준어로 “어서 오세요.” 에 해당하는 말로, 앞의 것은 제주도 방언이고 뒤의 것은 경상도 방언이다.	“□저 읍서예.”, “퍼뜩 온나.” 이 말들은 표준어로 “어서 오세요.”와 “빨리 오너라.” 에 해당하는 말로, 앞의 것은 제주도 방언이고 뒤의 것은 경상도 방언이다.	‘어서’의 중의성으로 인해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어서’는 반갑게 맞아들일 때 쓰이기도 하고, ‘빨리’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제주도 방언은 두 의미 모두로 해석 가능하나 경상도 방언은 ‘빨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상도 방언의 어미 ‘-나’는 ‘-너라’의 방언으로 해라체이므로, ‘오세요’와 높임의 등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의미를 따로 제시한다.
07	초	1	국어(쓰기)	오늘 학교에서 글자를 썼던 것을 떠올려 보고, 바른 자세로 썼는지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오늘 학교에서 글자를 쓰던 나의 자세를 떠올려 보고, 바른 자세로 썼는지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선행절은 본인이 글자를 쓰는 자세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쓴 글자를 떠올리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본인의 자세를 떠올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수정한다.
07	고		음악	또 이 음악을 연주한 후 느낌을 모아 제목을 붙여 보자.	또 이 음악을 연주한 후 연주 시의 느낌을 고려하여 제목을 붙여 보자.	"연주한 후 느낌을 모아"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연주할 때의 느낌을 고려하라는 뜻일 경우 ‘연주 시의 느낌을 고려하여’ 정도로 수정한다.

4) 번역투 표현

[2.2.3.(1)] 일어식, 영어식 번역투 표현은 없는가?

[하위 유형]

- 일본어식이나 영어식 문장 표현의 직접 번역
- 일본어 접사 및 단어의 차용

■ 일본어식이나 영어식 문장 표현의 직접 번역

일본어나 영어식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において’가 그대로 ‘~에 있어’로 번역되어 쓰이는 것이 일본어 번역투의 대표적인 예이고, 불필요한 위치에 ‘~에 대한, ~로부터, ~함으로써’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 또한 영어나 일본어식 번역투를 무의식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례다. 이 외에도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활동의 큰 방향을 안내합니다.”와 같이 주어에 사물이 등장하는 문장은 국어에서는 흔하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영어식 표현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하	역사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 <u>로의</u>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 <u>로</u>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조사 '로'와 '의'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to'와 결합하는 영어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への'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짐을 나타내는 경우 격 조사 '의'를 쓸 수 있으나, 조사 '의'를 삭제하여야 헌법 개정의 방향성이 더 잘 드러나므로 '로의'를 '로'로 수정한다.
07	중	3	수학	현재와 같은 이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에 <u>의한</u> 것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이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u>고안한</u> 것이라고 한다.	'~에 의하다'는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며, 해당 부분은 의미도 모호하다. 동사 '고안하다'를 사용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07	중	3	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u>있어서</u>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u>에서</u>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에 있어서'는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게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중	2	도덕	위의 왼쪽 사진은 <u>신탁 통치에 대해</u>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u>신탁 통치에 대해</u> 반대하는 사진이다.	위의 왼쪽 사진은 <u>신탁 통치에</u>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u>신탁 통치에</u> 반대하는 사진이다.	'~에 대하여'는 번역투 표현이다. 자연스럽게 간결한 국어 문장 표현으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체육	건강 활동: 건강과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	건강 활동: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알고 ,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	'~에 대한 중요성'에서 '~에 대한'은 불필요한 번역투 표현이다. '의'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07	고		사회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서구에 의한 식민지 경험,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도시의 발전 과정이 서구의 도시들과는 다르며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과정들이 도시 경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서구에 의한 식민지 경험,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도시의 발전 과정이 서구의 도시들과는 다르며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과정들이 도시 경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에 의해'는 번역투 표현이므로 좀 더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초	6	음악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활동의 큰 방향을 안내합니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통해 활동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안내의 주체인 것처럼 기술된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목적으로 수정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 일본어 접사 및 단어의 차용

대표적인 관형사 파생 접사인 ‘~적(的)’은 우리말에서도 널리 쓰이는 접사이지만 이 접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되는 것은 일어식 표현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적 토지 이용’이라는 말은 ‘농업용 토지 이용’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한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사용하던 고유어나 한자어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사회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 적 수입이다.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 수입 이다.	‘~적(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수정한다.
07	중	1	기가	굴삭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착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삭기’는 ‘굴착기(掘鑿機)’의 ‘뚫을 착(鑿)’이라는 한자가 어려워서 일본 사람들이 ‘깎을 삭(索)’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일본식 어투이므로 원래의 ‘굴착기’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권고되는 바이다.
09	중	2	기가	현재 전국적으로 360 개소 이상의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60 군데 이상의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개소(個所)’는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군데’로 순화하여 쓴다.

[2.2.3.(2)] 그 외 언어의 번역투 표현은 없는가?

[하위 유형]

■ 그 외 언어의 직접 번역식 표현

위 기준에 벗어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교과서 검정 시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2.3. 텍스트의 소통성

1) 문단 내 표면 결속(응결성)

[2.3.1.(1)]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접속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접속어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의미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대체로 문장 간의 관계는 맥락을 통해 결정되어 있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접속어가 사용되므로 접속어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접속어가 쓰이지 않아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접속어를 잘못 사용하여 나열 관계가 역접 관계로 제시된 문장이 있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업어의 특성으로서 '특수 용어로 전문성 띠'와 '집단 내 친밀감 고양, 업무 이해 증진'은 역접 관계가 아닌데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특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아 '또한'으로 수정한다.
07	초	6	사회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	선행 문장은 천연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행 문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므로 역접의 접속어가 삽입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오른 다.	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07	중	하	역사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선행 문장의 내용 뒤에 긍정적인 판단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순접의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접의 접속 부사로 수정한다.
07	중	2	도덕	화는 자연스런 인간 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화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접속어가 생략되어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상 흐름을 고려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정도를 추가한다.

[2.3.1.(2)]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지시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글에서는 ‘이, 그’ 계열의 지시어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지시어의 사용은 글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게 하고, 글의 응결성을 높인다. 실제 담화에서는 ‘이, 그, 저’ 세 계열의 쓰임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에, 글에서는 ‘이, 그’ 계열이 모두 사용 가능하여 오용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특정 대상 앞에 ‘이러한’이라는 말을 넣어 대상이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냉장고 는 물건만 저장하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이러한 냉장고 는 식품을 저장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주어로 ‘냉장고’가 사용되어 현재의 일반적 냉장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맥락상 주어는 선행문장들에서 다루고 있는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이다. ‘냉장고’ 앞에 ‘이러한’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추가한다.

2) 문단 내 의미 결속(응집성)

[2.3.2.(1)] 문단 내에서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한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한 문단 안에 서로 다른 소주제가 들어 있는 경우, 문단을 구분해 주는 것이 문단 구성의 원리에도 알맞고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도 유익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디지털 치매를 막으려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와 중요한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외우고, 신문이나 책을 매일 한두 시간씩 정독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u>메모, 일기 쓰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달을 탄식한 적이 있다. 머리에 생각을 담아 두는 대신 기록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u> 이젠 디지털 기기가 기억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디지털 치매를 막으려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와 중요한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외우고, 신문이나 책을 매일 한두 시간씩 정독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u>소크라테스는 글쓰기의 발달을 탄식한 적이 있다. 머리에 생각을 담아 두는 대신 기록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할 것이란 우려에서다.</u> 이젠 디지털 기기가 기억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메모와 일기 쓰기도 글쓰기의 일종인데, 선행 문장에서는 이를 권하고 후행 문장에서는 글쓰기(기록) 발달에 따른 우려를 다루어 응집성이 부족하다. 또한 해당 문단의 앞부분은 디지털 치매 예방법을, 뒷부분은 기록이 기억을 대신하는 현실을 다루어 응집성이 부족하다. 메모와 일기 쓰기를 권하는 문장을 삭제하고, 뒷부분은 결론으로서 새로운 문단으로 독립시킨 후 보조사를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p>2. 독서 신문에 들어갈 내용</p> <p>(3)바뀌, 바뀌: 소설에서 대화 장면 하나를 선택 해서 상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뒤, 태도를 바꿔 희곡으로 각색한다.</p> <p>각색하는 순서</p> <p>소설의 원래 장면 제시</p> <p>① 상대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 분석</p> <p>② 어떤 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중략)</p> <p>③ 다른 태도가 드러나게 희곡으로 각색</p> <p>④ 톡톡공익광고(중략)</p> <p>⑤출동, 취재 현장(중략)</p> <p>⑥성격으로본오늘의날씨(오늘의 운세)(중략)</p> <p>⑦굿모닝레터(중략)</p> <p>⑧그림마당(하략)</p>	<p>2. 독서 신문에 들어갈 내용</p> <p>(3) 바뀌, 바뀌: 작품을 선택하여 다음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각색한다.</p> <p>다양한 각색 방법</p> <p>① 소설의 원래 장면 제시 후 인물의 태도를 바꾸어 희곡으로 각색하기</p> <p>② 톡톡 공익 광고(중략)</p> <p>③ 출동, 취재 현장(중략)</p> <p>④ 성격으로 본 오늘의 날씨(오늘의 운세)(중략)</p> <p>⑤ 굿모닝 레터(중략)</p> <p>⑥ 그림 마당(하략)</p>	<p>‘(3) 바뀌, 바뀌’의 ①~③은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것이고, ④~⑥은 희곡 외의 여러 독후 활동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문두의 지시문 및 ‘각색하는 순서’라는 안내 표현은 희곡 각색만을 의미하므로 ①~⑥을 대표하지 못한다. 지시문과 안내 표현을 수정하고, ①~③을 하나의 항목으로 요약하여 다른 항목과 동등하게 수정한다.</p>
07	초	2	국어 (읽기)	<p>(제목)동물들은 어떻게 잘까요?</p> <p>황새는 부리를 깃털 사이에 파묻고 한쪽 다리로 서서 잡니다. 이때, 다른 한쪽 다리는 접어서 깃털 사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p> <p>우리나라에서는 황새를 천연기념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p> <p>기린도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하략)</p>	<p>(제목)동물들은 어떻게 잘까요?</p> <p>황새는 부리를 깃털 사이에 파묻고 한쪽 다리로 서서 잡니다. 이때, 다른 한쪽 다리는 접어서 깃털 사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p> <p>기린도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하략)</p>	<p>동물들이 자는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 황새와 기린이 자는 방법을 각각 한 문단으로 설명한 글인데,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추가되었다. 삭제하도록 한다.</p>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체육	이처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달리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스포츠이지만 함께 경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되는 스포츠이다. 서비스를 하라고 상대방에게 공이나 물체를 네트 너머로 넘겨줄 때에도 정중하게 넘겨주어야 하며,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들어가 점수를 얻게 되면 예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할 때에는 같은 팀 동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함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감과 팀워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달리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스포츠이지만 함께 경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되는 스포츠이다. 서비스를 하라고 상대방에게 공이나 물체를 네트 너머로 넘겨줄 때에도 정중하게 넘겨주어야 하며,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들어가 점수를 얻게 되면 예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할 때에는 같은 팀 동료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u>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감과 팀워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u>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된다는 점이 문단의 주제이다. 문단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효과는 문단을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다.

[2.3.2.(2)] 문단 내 과도한 생략은 없는가?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생략되어 정확한 이해가 어렵거나, 논리적 비약이 보이는 구성이 있었다.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생략을 해도 이해에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는 학습자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정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p>정재환: (상략) 주말에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p> <p>학생 3: 왜요?</p> <p>정재환 : <u>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u>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말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p>	<p>정재환: (상략) 주말에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p> <p>학생 3: 왜요?</p> <p>1안) 정재환: <u>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요.</u>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말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p> <p>2안) 정재환: <u>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시청률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거절한 이유 추가)</u>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말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p>	<p>1안) 프로그램 거절 이유를 언급한 문장의 서술어는 '많아요'로, '-아요'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기에 후행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것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유를 다루는 것은 해당 문장뿐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인 '-아서'를 활용해 해당 문장에서 "왜요?"에 대한 답변이 완결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p> <p>2안) 해당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것을 거절한 이유로 충분치 않다. 시청률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거절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p>
07	중	3	국어	<p>(‘먹는다’, ‘만머느리’, ‘잡는다’ 발음 제시됨.) 또 ‘담력’을 [담녁]으로,</p>	<p>(‘먹는다’, ‘만머느리’, ‘잡는다’ 발음 제시됨.) 또 ‘담력’을 [담녁]으로,</p>	<p>“(자음 동화는) 콧소리인 ‘ㄹ, ㄴ’이 콧리가 아닌 자음을 콧</p>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종로’를 [종노]라고 할 때는 ‘ㄹ’이 ‘ㄱ,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콧소리인 ‘ <u>ㄹ, ㄴ</u> ’이 콧소리가 아닌 자음을 콧소리로 만든 것이다.	‘종로’를 [종노]라고 할 때는 ‘ㄹ’이 ‘ㄱ,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콧소리인 <u>자음</u> 이 콧소리가 아닌 자음을 콧소리로 만든 것이다.	소리로 만든 것이다.”란 설명 자체는 오류가 없으나, 이는 앞 문장에서 예로 든 ‘종로’를 설명하지 못한다. 콧소리인 ‘ㄹ, ㄴ’이란 표현을 콧소리인 ‘자음’으로 수정한다.
07	고	상	국어	그러면 음절의 끝에 놓인 자음은 항상 한 가지 음으로만 발음될까? 다음 <u>두 학생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자.</u> 질문: 화려한 <u>겉옷</u> 은 <u>겉으로만</u> (중략) 진호: 받침소리는 7개만 발음한다고 했으니 ‘[거돋]’, ‘[거드로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 경숙: 아니야, 이럴 때에는 제 음가대로 ‘[거돋]’, ‘[거트로만]’으로 발음해야 해. 자음이 음절의 끝에 놓여어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뒤 음절의 첫소리	그러면 음절의 끝에 놓인 자음은 항상 한 가지 음으로만 발음될까? 다음 <u>학생들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자.</u> 질문: 화려한 <u>겉옷</u> 은 <u>겉으로만</u> (중략) 진호: 받침소리는 7개만 발음한다고 했으니 ‘[거돋]’, ‘[거드로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 경숙: 아니야, 이럴 때에는 제 음가대로 ‘[거돋]’, ‘[거트로만]’으로 발음해야 해. <u>([‘거돋], ‘[거트로만]’이라는 학생 발언 추가.)</u> 자음이 음절의 끝에 놓여어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	본문에서 두 학생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라 하였으나, 제시된 두 의견은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문항의 답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후행하는 문단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따른 발음 차이를 설명하였으나, ‘겉옷’의 발음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른 발음을 다룬 학생 의견을 추가 제시하고, 설명에 따른 사례로 ‘겉옷’과 ‘겉으로만’의 경우를 모두 다루도록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겉옷’은 ‘[겉옷]→[거뿔]’으로 발음한다.	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겉으로만’은 ‘[거트로만]’으로 발음하고, ‘겉옷’은 ‘[겉옷]→[거뿔]’으로 발음한다.	
07	초	6	국어 (듣말쓰)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2) 몸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말투와 몸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2) '말투'와 '표정, 몸짓'을 '등장인물'과 연결하는 활동인데, 원문의 지시문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몸짓만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단원이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하는 단원이므로, '말투'를 추가한다. 1)→부록 32번 참고
09	고		과학	태초의 바다에서 일어난 최초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탄산수의 발명은 광합성과 산소의 발견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어진 문맥에 맞게 문장을 끝맺어야 함.)	문단 내의 마지막 문장이 끝맺어지지 않아 문단 내 의미 결속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3) 문단 간 연결

[2.3.3.(1)] 문단 간 연결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

문단은 문장과 마찬가지로 앞뒤 문단 간의 논리적 의미 관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학습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1. 효과적으로 자기소개하기 개인정보 성격, 습관과 취향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면? 잊지 못할 기억, 잊고 싶은 기억 휴대 전화 관련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끔 하는 일 지금 현재 상황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생각 이런 친구가 있다, 없다 <u>예, 아니요.</u>	1. 효과적으로 자기소개하기: 소개 내용의 예 개인정보 성격, 습관과 취향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면? 잊지 못할 기억, 잊고 싶은 기억 휴대 전화 관련(삭제하거나 설명 추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끔 하는 일 지금 현재 상황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생각 이런 친구가 있다, 없다 <u>예, 아니요.(설명 추가)</u>	‘단원 마무리’로서 “말하기(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와 관련된 소단원 1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단원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목과 하위 항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예, 아니요’나 ‘휴대 전화 관련’ 등과 같은 항목들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성격이 균질하지 않아 보인다. 하위 항목들은 자기소개 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예를 제시하는 듯하므로 제목에 이를 반영하고, 균질하지 않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설명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p>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진다. 성호르몬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 친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남자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p> <p><u>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u></p> <p><u>성적 욕망이란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성과 사귀고 싶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강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타난다.</u> 다음을 읽고 생각해 보자.</p>	<p>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진다. 성호르몬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 친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남자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p> <p><u>성적 욕망이란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성과 사귀고 싶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강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타난다.</u></p> <p><u>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u> 다음을 읽고 생각해 보자.</p>	<p>세 문단 간의 논리적 흐름이 부자연스럽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청소년기에 느끼는 성적인 욕망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욕망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성적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서술하고 있다. 이 세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p>

3.3. ‘공공성’ 영역 분석 결과

3.3.1. 객관성

[3.1.1.(1)]

헌법·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았는가?

[하위 유형]

- 헌법·법률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경우

위 기준에 벗어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교과서 검정 시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1.1.(2)]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하위 유형]

- 특정 관점이나 입장이 반영된 경우
- 학습자의 다양한 답변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 특정 관점이나 입장이 반영된 경우

교과서 내용 기술에 특정 관점이나 입장이 작용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입장에서 기술한 예, 특정 국가를 ‘선진국’으로 기술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이분법적 입장을 나타낸 예, ‘테레사 수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종교 단체(가톨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종교(개신교)의 용어를 사용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교	6	사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도와주다’라고 기술하여 시혜적인 인상을 준다. 이를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07	중	3	사회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지열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지열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나라의 수준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설명·분류하는 학습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열 발전소가 최초로 건설된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명시하여, 지열 발전소가 늦게 건설된 나라들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유도한다.
07	중	2	도덕	" 1)문둥병 환자를 2)씻어 줄 때 나는 3)하나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 1)나병 환자를 2)씻겨 줄 때 나는 3)하느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3) 테레사 수녀가 속한 가톨릭에서 신봉하는 유일신의 명칭은 ‘하느님’이다. 1), 2)→부록 32번 참고
07	고		기가	이성 교제: 1)‘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이성 교제: 1)‘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을 높이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1) 해당 문장은 ‘이성 교제’와 관련한 소단원의 본문 낱개에서 ‘이성 교제’의 뜻을 풀이를 제시한 문장이다. 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지만 ‘이성 교제’가 ‘청소년기에 이성을 사귀는 일’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에 뜻풀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이성 교제는 가족, 친구, 중매인의 소개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 학교, 직장, 종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게 사귀거나'와 같은 내용도 다루고 있는 등 일반적인 모든 시기에 해당하는 '이성 교제'를 다루고 있기에 현 문장과 같이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로 '이성 교제'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내용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에서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어 '청소년기에'는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9	중	2	도덕	먼 옛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u>순한 노예였다.</u>	먼 옛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u>자연에 순응하는 존재였다.</u>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하여 '노예'라는 다소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교과서 언어에 걸맞은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초	3	수학	<u>마을별 다문화 가정의 수</u> 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편파성이 없는 다른 용례로 수정 필요)	조사가 가능한 여러 분야 가운데 굳이 다문화 가정의 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낼 필요가 없을뿐더러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편파성을 띠고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다.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해당 학습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안경 낀 사람들의 수'와 같이 다른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 학습자의 다양한 답변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교과서에서 제시된 활동 등의 구성에서, 내용상 학습자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답변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 조손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 가족 구성의 형태가 학습자마다 다양할 수 있음에도 양친의 존재를 전제로 활동하도록 기술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1	국어(쓰기)	3. 우리 가족과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와 닮은 점 (1) 아빠 → (2) 엄마 → (3) →	3. 우리 가족과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누군 나와 닮은 점 (1) → (2) → (3) →	가족 구성원이 다를 수 있음(한 부모 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제시된 아빠, 엄마라는 표현과 삽화를 삭제하고, '누구'라는 항목명을 제시한다.
07	초	1	국어(듣말)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1~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0~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모두 '아니요'라고 표시할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의 수를 0~3개로 수정한다.

3.3.2. 비차별성

[3.2.1.(1)] 인종 · 지역 · 세대(연령)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하위 유형]

- 인종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적 인식
 - 특정 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지역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인종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적 인식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을 ‘하얀 피부에 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거나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라고 기술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국어 (읽기)	<p>(상략) “야, 재 좀 봐!” 모두 놀란 표정 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 기에서 들렸다. (중략) 담임 선생 님께서 새 친구를 소개하여 주실 때 까지 우리는 흥분 을 감출 수 없었 다. 하얀 피부에 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가 칠판 앞에 서 있 었기 때문이다. (중략) 제니는 금 세 친구들에게 돌 려싸였다. 인기 만점이었다. (하 략)</p>	(불필요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	<p>출처 정보가 따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높임법을 지도하기 위해 교과서 제작 시 만든 글로 보 이는 제재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 불필요하게 제시되었다. 우선 외 국인 전학생을 보고 '수군거리는' 행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니를 묘사한 부분 은, 외국인이란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를 가진 서양인이라는 고정관 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기대감에 차 서 소곤대는 소리' 등과 같이, 전학 생에 대한 기대를 담은 행동임을 보여 주도록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 설정한 '높임말이 서툰 외국인 전학생'이 꼭 서양인일 필 요는 없으므로, 불필요한 묘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p>
09	초	4	사회	<p>우리 사회에는 어 린이, 노인, 장애 인에서부터 우리 와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 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p>	<p>우리 사회에는 어 린이, 노인, 장애 인에서부터 우리 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 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p>	<p>외국인은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적이 다른 사람이므로 수정한다.</p>

● 특정 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정 인종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지배 계층’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원주민’을 들고 있어, ‘원주민’이 곧 빈곤층이라는 편견을 드러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사회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도심에 거주하는 지배 계층은 저밀도, 원주민 은 고밀도의 토지 이용 경관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도심에 거주하는 지배 계층은 저밀도, 피지배 계층 은 고밀도의 토지 이용 경관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원문에서 ‘지배 계층’과 상반되는 의미로 ‘원주민’이 쓰였다. 설사 원주민이 빈곤층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기술은 차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지역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미지의 땅’이라고 표현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음악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 밖에 살지 않는 2)미지의 땅 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밖에 살지 않는 2)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2)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0%밖에 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아프리카를 ‘미지의 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지의 땅’이라는 표현은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부록 1428번 참고

[3.2.1.(2)]

성별 · 장애 · 직업 · 종교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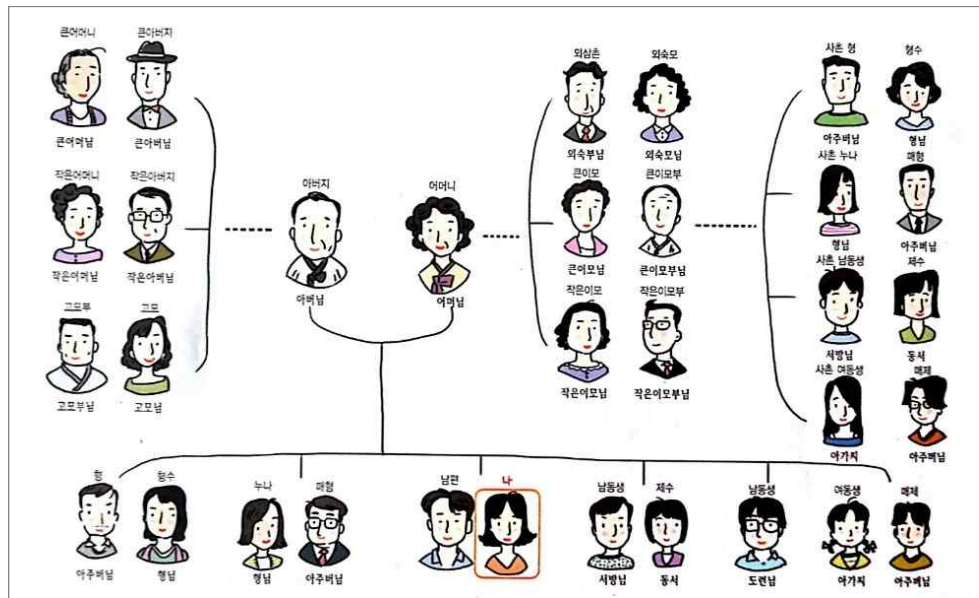
[하위 유형]

- 성별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남성 중심적 표현의 사용
 - 여성에 대한 고정적 인식
-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특정 병명이나 장애로 인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

■ 성별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남성 중심적 표현의 사용

교과서 내용 기술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남성이 사용하는 호칭어만 제시된 예, 남성을 부르는 호칭어만 제시된 예,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일컫는 결혼에 대해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 ‘여성이 시집을 온다’라고 표현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 친족 호칭어를 다루고 있는 사례([그림 II-1] 및 표 참조)는 ‘나’를 여성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형’과 같은 남성의 호칭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확성 측면에서도 불완전하지만, ‘며느리로서의 여성’과 ‘아들로서의 남성’만을 제시하여 전통적 성 역할을 고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고정적 인식

교과서 내용 기술에 여성과 관련된 고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외모에 대한 묘사를 ‘예쁜 얼굴’이라고 하여 마치 여성만이 외모에 신경 쓴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예, ‘분홍색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은 자연스럽지만 그러한 옷차림이 성인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기술하여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예, 성매매 문제를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기술한 예,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기술 등도 이에 포함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예쁜 얼굴, 뛰어난 재능 , 엄청난 경제력 등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집착한다.	뛰어난 외모와 재능 , 엄청난 경제력 등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집착한다.	'예쁘다'는 보통 '잘생기다'에 대응하여 여성과 관련하여 쓰이는 어휘이다. '예쁜 얼굴'이라는 표현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여성만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중	2	도덕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담배를 피워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흡연을 당연시하면서도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흡연을 하는 여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담배를 피워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흡연을 당연시하면서도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흡연을 하는 여학생들 역시 점점 늘고 있다.	여학생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남녀평등'으로 설명하기 부적절하다. 학습자에게 잘못된 평등의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남녀평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다.
07	중	2	체육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삭제)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의 노출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
07	고		체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 여성: 남자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삭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의미로 오해될 우려가 있고,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기가	<p>다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에 v표를 해 보고, 다른 가족원의 생각과 비교해 보자. (중략) v표가 많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요. (중략)</p> <p>〈사회〉</p> <p>0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찬성한다.</p> <p>0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늘려야 한다.</p> <p>0 남자가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여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 데 찬성한다.</p>	(시대에 맞게 수정 필요)	<p>해당 활동은 가정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학교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사회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중 2개가 밑줄 친 문장이다. 여자들의 정치 참여권 인정은 100년이 지난 일이며, 자녀를 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재 사회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양성평등 의식' 확인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쳐져 있을뿐더러,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남성 중심으로 보인다.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미술	분홍색 옷차림을 한 여자아이를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분홍색 정장과 구두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성인 남성을 거리에서 만난다면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수정 필요)	남성이 분홍색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09	고		생활과 윤리	성매매는 여성 이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는 당사자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쪽 성을 부각시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09	고		생활과 윤리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들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 결정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 결정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쪽 성을 부각시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

• 특정 병명이나 장애로 인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

특정 병명이나 장애로 인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나병’을 ‘문둥병’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난쟁이’로 기술하거나, ‘바보 공기놀이’와 같이 특정 유형의 놀이를 장애에 빗대어 표현하여 장애 차별적 인식을 심어 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1)문둥병 환자를 2)씻어 줄 때 나 는 3)하나님을 간 호하고 있다고 느 킨다. 너무나 아 름다운 경험이 아 닌가?"	"1)나병 환자를 2)씻겨 줄 때 나 는 3)하느님을 간 호하고 있다고 느 킨다. 너무나 아 름다운 경험이 아 닌가?"	1)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인 표현 이 사용되었다. ‘문둥병’은 나병균 (癩病菌)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인 ‘나병’의 차별적 표현이 므로 ‘나병’으로 수정한다. 2), 3)→부록 669, 670번 참고
07	고	1	수학	나노는 1/109을 나타내는 접두어 로 난쟁이를 뜻하 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스에서 유래하였다.	나노는 1/109을 나타내는 접두어 로 키가 작은 사 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 스에서 유래하였 다.	‘난쟁이’의 뜻이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므로 순화가 필요하다.
09	초	1	통합	던져 올린 공깃돌 을 받는 게 어려 우니까 바보 공기 놀이 하자.	(장애 차별적 표 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수정 필 요)	‘바보 공기놀이’는 특정 유형의 놀 이를 ‘장애’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 문에 장애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 다. 차별성을 담고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3.3.3. 품위성

[3.3.1.(1)]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하위 유형]

■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

교과서 언어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대변’을 저속하게 이르는 말인 ‘똥’이 사용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부정적 언어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부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어 순화가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과학	먹은 음식물과 똥 을 비교해 보면 색깔이 다르고 그 양도 차이가 난다.	먹은 음식물과 대변 을 비교해 보면 색깔이 다르고 그 양도 차이가 난다.	교과서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똥’을 점잖게 이르는 말인 ‘대변’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09	고	1	국어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열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술까말 청소하는 거 개쩔 지 않습니까?	-	부정적 언어 표현(품위를 갖추지 못한 언어 표현)의 예를 든 것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저속한 표현이 쓰였다. 교과서 언어임을 고려하여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한다.

[3.3.1.(2)] 교수·학습과 무관한 유행어, 신조어 등이 남용되지 않았는가?

[하위 유형]

■ 교수·학습의 예시로 부적합한 언어의 사용

위 기준에 벗어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교과서 검정 시 정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Ⅲ. 교과서 표기 · 표현 문제의 원인 및 편수 자료 분석

1. 분석 영역별 원인

1.1. ‘정확성’ 영역 원인 분석

‘정확성’ 영역의 문제는 크게 국어 문법, 어문 규범, 표준국어대사전, 편수 자료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어 문법의 측면에서는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를, 어문 규범의 측면에서는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규범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측면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전 자체의 문제를, 편수 자료의 측면에서는 편수 자료 자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할 때 표준국어대사전과 편수 자료의 상충 문제를 들 수 있다.



1.1.1.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

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초래된 문제들은 ‘1) 어미에 대한 인식 부족’, ‘2) 용언의 활용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3) 합성어에 대한 인식 부족’, ‘4)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에 대한 인식 부족’, ‘5) 어휘 선택의 민감성 부족’, ‘6) 의존명사와 어미/조사/접사 간의 혼동’, ‘7) 명사와 접사 간의 혼동’, ‘8) 동사와 접사 간의 혼동’, ‘9) 명사와 조사 간의 혼동’, ‘10) 단어와 구의 의미 혼동’의 열 가지로 유형화된다.

1) 어미에 대한 인식 부족

어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띄어쓰기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는군’, ‘-ㄴ게’, ‘-ㄴ걸’이 있다. ‘-는군’은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ㄴ게’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며, ‘-ㄴ걸’은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들은 ‘-는군’, ‘-ㄴ게’, ‘-ㄴ걸’이 붙여 쓰는 하나의 어미라는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딱 들어 맞는 군.	딱 들어맞는군.	‘들어 맞는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정확히 맞다"라는 뜻의 ‘들어맞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또한 ‘-는군’은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7	중	1	도덕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엄마 아با께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 게요.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엄마 아با께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살게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ㄴ게’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좀 더 잘해 드릴 걸 하는 후회가 가슴 을 쳐서	좀 더 잘해 드릴걸 하는 후회가 가슴 을 쳐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 ‘드리다’에, 훈жат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 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벼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르걸’이 결 합된 것이므로 ‘드릴걸’과 같이 붙 여 쓴다.

한편, 알맞은 어미의 형태를 알지 못하여 표기의 오류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요’와 ‘예요’를 들 수 있다.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설명,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고, ‘예요’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 뒤에 어미 ‘-에요’가 붙은 ‘이에요’가 줄어든 형태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사례에서는 ‘친구이에요/친구예요’, ‘될 거예요’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예요’, ‘될 거예요’와 같은 표기가 나타난 것은 주어진 맥락에 알맞은 어미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실과	모습은 달라도 우 리는 친구 예요!	모습은 달라도 우 리는 친구 예요!	‘이에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어 미 ‘에요’가 붙은 표현으로, 앞의 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에요’를 줄 여 ‘예요’로 쓴다. 어미 ‘-에요’가 곧장 체언 뒤에 붙는 경우는 없다.
07	중	1	기가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에 요.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예 요.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 에요’가 결합된 구조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에요’ 의 결합형인 ‘이에요’는 앞말이 모 음으로 끝나면 ‘예요’로 줄여 쓴다. 따라서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가 바른 표기이다.

2) 용언의 활용 형태에 대한 인식 부족

용언의 활용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표기형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맞다’와 ‘헐다’, ‘거칠다’, ‘자연스럽다’가 있다. 먼저,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아, 맞으니, 맞는’ 등으로 활용하는데, ‘-지 않다’가 결합하여 ‘맞지 않다’가 될 경우 활용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 않다’의 구성으로 쓰이는 ‘않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지 않는다’로 활용한다. 따라서 ‘맞지 않는다’가 규범에 맞는 표기이다.⁹⁾ 또한 ‘헐다’와 ‘거칠다’는 ‘헐어, 허니, 허오’, ‘거칠어, 거치니, 거치오’와 같이 활용하는데, 어간 ‘헐-’과 ‘거칠-’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할 경우 ‘헐은’, ‘거칠은’이 아니라 ‘헨’, ‘거친’과 같이 활용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¹⁰⁾ 마지막으로 ‘자연스럽다’는 ‘자연스러운’과 같이 불규칙 활용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스런’과 같이 적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1	국어(쓰기)	이 내용은 내 생 각과 맞지 않다 고 생각했구나.	이 내용은 내 생 각과 맞지 않는다 고 생각했구나.	'맞다'는 동사인 데, 보조 동사인 '않다'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누락되었다. '-는-'을 추가한다. 단지 구어에서 '맞지 않다'가 잘 쓰임을 인정할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09	초	6	국어	자신은 비록 귀퉁 이가 낡고 헐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비록 귀퉁 이가 낡고 헨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헐다'의 활용형이 '헐은'으로 잘못 사용되어 있다. '헐은'을 올바른 활용형인 '헨'으로 수정한다.

9) 다만, ‘맞다’의 활용형에 대해서는 사전상의 규정이 언중의 언어 현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전의 용례에 제시된 “네 답이 맞는다.”와 같은 표현이 “네 답이 맞다.”에 비해 활용 빈도상 우위를 차지하는지 실제 언중의 사용 양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맞는다’, ‘맞지 않는다’에 비해 ‘맞다’, ‘맞지 않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다수의 언중이 사용하는 형태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10)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는 ‘갈다, 놀다, 불다, 등글다, 어질다’와 같이 어간 끝에 ‘ㄹ’을 포함하는 단어가 활용할 경우 ‘간, 논, 분, 등근, 어진’과 같이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헐다’의 경우도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헨’으로 적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실과	사포에는 곱고 거칠은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포에는 곱고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형용사 '거칠다'는 어간 '거칠-'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거친'으로 활용된다. '거칠은'은 잘못된 표기이다.
07	중	2	도덕	화는 1)자연스런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화는 1)자연스러 운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1) '자연스럽다'는 '자연스러운'으로 활용되는 불규칙 용언이다. 2) → 부록 767번 참고

3) 합성어에 대한 인식 부족

합성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는 다시 ‘합성어인지 알지 못한 경우’와 ‘합성어로 잘못 안 경우’로 대별된다.

먼저, 합성어인지 알지 못한 경우는 ‘물어보다’, ‘빌려주다’, ‘털어놓다’와 같은 동사 계열과 ‘숲속’, ‘그중’, ‘이곳’, ‘한쪽’, ‘아무것’, ‘끝부분’, ‘밑부분’, ‘한 곳’의 명사 계열로 다시 유형화된다. 동사 계열의 경우 이들 사례를 띄어 썼다는 사실은 이들을 합성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물어보다’, ‘빌려주다’, ‘털어놓다’가 붙여 쓰는 한 단어라는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도덕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묻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는 ‘물어보다’이다.
07	초	6	도덕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빌려 준다.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빌려준다.	‘빌려준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내어 주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빌려주다’로 붙여 쓴다.
09	초	6	도덕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서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서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세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뜻의 ‘털어놓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또한 ‘숲속’, ‘그중’, ‘이곳’, ‘한쪽’, ‘아무것’, ‘밑부분’, ‘한곳’과 같은 사례들 역시 합성어임을 알지 못하여 띄어 쓴 경우이다. ‘이곳’은 ‘그곳’, ‘저곳’과 함께 어울려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 선택되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하며, ‘밑부분’ 역시 ‘윗부분’, ‘아랫부분’과 함께 전체 가운데 특정한 범위를 가리키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한쪽’, ‘한곳’은 ‘일정한 방향’ 또는 ‘일정한 공간’을 뜻하는 명사이며,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아무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의 일체’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앞엿것’, ‘뒤엿것’과 같은 말도 각각 ‘전자’, ‘후자’를 가리키는 명사로서 붙여 써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2	국어 (듣말)	숲속 나라	숲속 나라	‘숲속’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07	중	1	수학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그중 한 명이 10층에서 내렸고, 12층만큼 더 올라가서 남은 한 명이 내렸다.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그중 한 명이 10층에서 내렸고, 12층만큼 더 올라가서 남은 한 명이 내렸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7	중	1	과학	이 곳 에서 8명의 지원자가 생활하였다.	이곳 에서 8명의 지원자가 생활하였다.	‘이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이곳’은 붙여 써야 한다.
07	중	2	과학	반투막 튜브 2개를 준비하여 한 쪽 끝을 실로 묶자.	반투막 튜브 2개를 준비하여 한쪽 끝을 실로 묶자.	‘한 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뜻하는 ‘한쪽’은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07	중	3	과학	뮤지컬 공연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된다.	뮤지컬 공연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아무 것’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를 가리키는 ‘아무것’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과학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 밑 부분 에서 약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 밑부분 에서 약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진다.	‘밑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전체 가운데 밑에 해당되는 범위’를 뜻하는 ‘밑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고		과학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 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한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하는 ‘한곳’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다음, 합성어라고 잘못 인식하여 붙여 쓴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리 짓다’, ‘방 안’, ‘그 후’가 있다. 먼저, ‘무리 짓다’를 붙여 써야 하는 하나의 단어로 잘못 인식한 것은 ‘결론짓다’, ‘결정짓다’, ‘관련짓다’와 같이 합성어로 등재된 모종의 사례를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무리 짓다’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므로 ‘무리를 짓다’ 혹은 ‘무리 짓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 후’ 역시 ‘이후’와 같이 합성어로 등재된 사례를 의식하여 붙여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며, ‘방의 안쪽’을 뜻하는 ‘방 안’ 역시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다양한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리짓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	다양한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리 짓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	‘무리짓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데 모여 줄이나 대열 따위를 이루다"라는 뜻의 ‘짓다’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7	중	1	도덕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대화나 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며, 방안에 만 틀어박혀 혼자 생활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대화나 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며, 방 안 에만 틀어박혀 혼자 생활한다.	‘방 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방’과 ‘안’은 각각 독립적인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07	중	3	과학	그후 1800년대 초,	그 후 1800년대 초,	‘그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뒤나 다음을 뜻하는 ‘후(後)’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4)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에 대한 인식 부족

문장 성분이 바르게 호응하지 못한 문장이 생산된 것은 대체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과서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누다’, ‘성장하다’가 있다. ‘나누다’는 ‘무엇을 무엇으로’, ‘무엇을 무엇에게’, ‘무엇과 무엇을’과 같이 목적어와 부사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경지를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누어’는 각각의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만, 교과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누어’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성장하다’는 ‘민족의식이 성장하다’, ‘강대국으로 성장하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아니므로, 교과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개인을 성장하고 발전시켜’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각각의 성분이 바르게 호응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정보는 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과서 집필 시 사전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사회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누어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기에 휴경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뉘는데 ,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기에 휴경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단위로 나뉘는 대상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의 의미로 수정한다.
09	중	2	기	개인을 성장하고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개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동사 '성장하다'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다'의 뜻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어로 쓰인 '개인'이 사실은 동사 '성장하다'의 주어여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개인'을 목적어로 두고 문장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명사 '성장'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시키다'를 붙여 '개인을 성장시키고'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적절하다.

5) 어휘 선택의 민감성 부족

주어진 맥락에 알맞은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사례에 제시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예의(例義)’를 본문에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 글로 “한자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따랐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의’에 제시된 동국정운식 표기는 ‘𪎮’, ‘𪎮’, ‘𪎮’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𪎮’, ‘洪’, ‘戊’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설명은 학습자에게 오개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간접 높임법의 개념을 “서술의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사례는 ‘서술의 주체’라는 표현이 ‘문장의 주체’가 아닌 ‘서술자’를 환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주어진 맥락에 알맞은 정확한 어휘의 선택은 해당 교과와 내용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하	국어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 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음 은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당시 한자음을 새롭게 고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규정한 음이다. 원문은 ‘한자’의 표기가 달라진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자음’으로 수정한다.
09	중	5	국어	주체 높임법에는 서술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서술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법에는 문장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문장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서술자)가 아닌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인데도 ‘서술의 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술의 주체’를 ‘문장의 주체’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 를 결합시키는 것 을 간접 높임이라 고 한다.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 를 결합시키는 것 을 간접 높임이라 고 한다.	

한편, 교과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선택된 단어의 의미가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하는 의미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먼저, ‘꺾질’과 ‘꺾데기’는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인데, 전자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의 표면을, 후자는 ‘단단한 물질의 표면’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교과서의 주어진 맥락은 병아리가 알의 표면을 깨고 나옴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꺾질’이 아닌 ‘꺾데기’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상 정확하다.

또한 ‘아니하다/않다’와 ‘말다’는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문장의 유형에 따라 선택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경우에는 ‘말다’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주어진 맥락에서는 “어항에 금붕어를 많이 넣지 마세요.”와 같이 ‘말다’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르다’와 ‘틀리다’ 역시 비슷하면서도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맥락에 알맞게 써야 한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 ‘다르다’를,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 ‘틀리다’를 써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교과서에서 주어진 맥락은 연주 방법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를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실과	삐악삐악, 우리들은 부화기 안에서 21일 정도 지나면 껍질 을 깨고 나옵니다.	삐악삐악, 우리들은 부화기 안에서 21일 정도 지나면 껍데기 를 깨고 나옵니다.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은 ‘껍질’로,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은 ‘껍데기’로 쓴다. 여기에서는 달걀의 겉 부분을 의미하므로 ‘껍데기’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초	6	실과	어항에 금붕어를 너무 많이 넣지 않아요 .	어항에 금붕어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경우 ‘안’ 부정문 대신 ‘않다’의 보충법 형태인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않다’가 아닌 ‘말다’가 쓰여 “많이 넣지 마세요.”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중	2	음악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틀려 .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달라 .	‘틀리다’를 ‘갈지 않다’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틀려’를 ‘달라’로 수정한다.

6) 의존 명사와 어미/조사/접사 간의 혼동

의존 명사와 어미를 혼동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와 ‘-ㄴ지’, ‘데’와 ‘-ㄴ데’를 들 수 있으며, 의존 명사와 조사를 혼동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뿐’과 ‘만’, ‘대로’를, 의존 명사와 접사를 혼동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간(間)’과 ‘-간(間)’을 들 수 있다.

먼저, 의존 명사와 어미를 혼동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존 명사 ‘지’를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한 지 8년 만인’의 ‘지’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처럼 ‘발명한지’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지’를 어미로 파악하여 붙여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의존 명사 ‘데’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데01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의지할 데 없는 사람.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3]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위의 내용에 따르면 ‘만드는 데’의 ‘데’는 주어진 맥락상 ‘일’이나 ‘경우’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처럼 ‘만드는데’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앞선 ‘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데’를 어미로 파악하여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3	과학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북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북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발명한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09	고		과학	DNA의 골격을 만드는데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에 지구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DNA의 골격을 만드는 데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에 지구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드는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의존 명사 ‘데’에 대한 인식이 과잉 적용된 다음과 같은 사례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맥락상 어미 ‘-ㄴ 데’가 쓰여야 함에도 의존 명사 ‘데’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동일한 형태에 이끌려 의존 명사와 어미의 의미 기능을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되는 형태가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를 변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과학	물만 주는 데도 쓱쓱 자라는 잔디 인형을 본 적 있는가?	물만 주는데도 쓱쓱 자라는 잔디 인형을 본 적 있는가?	‘주는 데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두 번째로 의존 명사와 조사를 혼동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뿐’은 체언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인증 뿐만 아니라’에서처럼 띄어 쓰는 현상이 발견된다. 또한 ‘만’ 역시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거나,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크기 만으로’에서의 ‘만’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이들 ‘뿐’과 ‘만’을 띄어 쓰는 것은 동일한 형태의 의존 명사가 존재하여 그 의미 기능을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존 명사 ‘뿐’과 ‘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뿐01	[1]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2]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만01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 십 년 만의 귀국.
만02	[1]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2]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 그냥 모르는 척 살 만도 한데 말이야.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으면 거인 증 뿐만 아니라 신체의 말단 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고,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난다.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으면 거인 증뿐만 아니라 신체의 말단 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고,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난다.	‘거인증 뿐만 아니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뿐’은 ‘그것만이 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7	중	2	과학	이러한 사실로 보아 눈에 보이는 크기 만 으로 물체의 실제 크기를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눈에 보이는 크기만 으로 물체의 실제 크기를 알 수는 없다.	‘크기 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대로’ 역시 ‘뿐’, ‘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와 조사의 형태가 동일하여 그 의미 기능을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다만, 앞서 교과서에 나타난 ‘뿐’과 ‘만’은 붙여 써야 할 것을 띄어 쓴 경우들이 주로 발견된 반면, ‘대로’의 경우는 띄어 써야 할 것을 붙여 쓴 경우가 발견되었다. 의존 명사로 쓰이는 ‘대로01’ 및 조사로 쓰이는 ‘대로10’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로01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본 대로/느낀 대로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 기회 있는 대로 정리하는 메모						
[4]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용언이 반복되어, ‘-을 대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지칠 대로 지친 마음						
[5] ((‘-을 수 있는 대로’의 구성으로 쓰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다.						
대로10 [1] ((체언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6	미술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대로 잘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 대로 잘 움직이나요?	‘계획한대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세 번째로 의존 명사와 접사를 혼동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간(間)’은 접사로 사용될 경우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일주일 간’의 ‘-간’은 접사이므로 ‘일주일간’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간’ 역시 동일한 형태가 맥락에 따라 접사로도 쓰이고, 의존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의존 명사로 쓰이는 ‘간10’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간10 [1]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

¶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2] ((일부 명사 뒤에 쓰여))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3] ((‘-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국어 (듣말 쓰)	우리 진우가 일주 일 간 텔레비전 안 보기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우리 진우가 일주 일간 텔레비전 안 보기에 성공한 것 을 축하한다.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접사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고려할 때,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되는 형태가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혹은 의존 명사인지 접사인지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여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명사와 접사 간의 혼동

명사와 접사의 혼동으로 인해 띄어쓰기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왕(王)’, ‘왕-(王)’, ‘상(上)’과 ‘-상(上)’, ‘하(下)’와 ‘-하(下)’, ‘층(層)’과 ‘-층(層)’이 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사 ‘왕04’과 접사 ‘왕-06’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왕04 [1]=임금01.

¶ 왕을 세우다.

[2]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먹는 데는 내가 왕이다.

[3] 『운동』=장군05(將軍)[I].

왕-06 [1]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보다 큰 종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왕개미/왕게/왕느릅나무/왕모시풀.

[2]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매우 큰’ 또는 ‘매우 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왕겨/왕모래/왕소금/왕자갈.

[3]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왕가뭇/왕고집.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서에 제시된 ‘왕 초보자’의 ‘왕-’은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왕초보자’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띄어 쓴 사례가 발견된 것은 ‘왕-’이 접두사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국어	여행 <u>왕 초보자</u> 인 당신!	여행 <u>왕초보자</u> 인 당신!	‘왕-’은 접사인 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 ‘상’의 용례로 ‘지구 상의 생물’을 제시하면서 이를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상’과 같이 붙여 쓰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접사 ‘-상’의 의미 간섭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사 ‘-상26’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26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
 [2]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 지구상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 상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상(上)’은 명사이므로 ‘지구 상’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하’와 ‘층’ 역시 ‘상’과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일 때뿐만 아니라 접사로 쓰일 때가 존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사 ‘-하12’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1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식민지하/원칙하/지도하/지배하.

위의 내용에 따르면 ‘압력 하에서 냉각하면’과 같은 교과서의 사례는 ‘압력이 가해지는 조건 혹은 환경’을 의미하므로 ‘압력하’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층’ 역시 명사와 접사 두 경우로 쓰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사 ‘-층04’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층04 [1]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어떤 능력이나 수준이 비슷한 무리’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고객층/식자층.

[2] ((퇴적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지층’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석탄층/화강암층.

[3]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켜켜이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구름층/대기층/이온층/오존층.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서에 쓰인 ‘한 겹의 세포 층’의 ‘-층’ 역시 ‘켜켜이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을 뜻하는 접사이므로 ‘세포층’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상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압력 하’나 ‘세포 층’과 같이 띄어 쓰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하’와 ‘-층’이 접사로 인식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또한 ‘상’과 마찬가지로 명사와 접사 간 의미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되는 형태가 명사인 지 접사인지를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띄어쓰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 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압력 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중	2	과학	모세 혈관의 혈관 벽은 한 겹의 세포 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모세 혈관의 혈관 벽은 한 겹의 세포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세포 층’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층’은 ‘켜켜이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8) 동사와 접사 간의 혼동

동사와 접사를 혼동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받다’와 ‘-받다’, ‘하다’와 ‘-하다’, ‘되다’와 ‘-되다’가 있다. 먼저, ‘-받다’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구원하다’와 같이 대응하는 능동 표현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다’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구원 받을’과 같이 ‘받다’를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접사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기능을 변별적으로 인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¹¹⁾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사 ‘받다01’의 의미 중 접사 ‘-받다04’와 의미 변별이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받다01 [3]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

[4] 요구, 신청, 질문, 공격, 도전, 신호 따위의 작용을 당하거나 거기에 응하다.

¶ 도전자의 도전을 받다.

-받다04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강요받다/미움받다/사랑받다/오해받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상	역사	그는 3)‘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 받을 수 있다.’2)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3)“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받을 수 있다.”2)라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3)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1), 2)→부록 359, 360번 참고

11) 『교과서 편수 자료: 편수 일반 편』에서는 ‘-받다’의 의미를 풀이하면서 “행위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명사 뒤에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구체적인 사물이 앞에 올 때에는 사물을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동사 ‘받다’는 ‘주다’와 대칭적으로 쓰일 수 있다.”(p.209)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를 고려하면 ‘-받다’의 결합 조건은 ‘행위성 명사’이면서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동사 ‘받다’는 ‘주다’와 대칭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고통 주다’와 같이 해당 명사가 ‘주다’와 결합이 가능하면 ‘고통 받다’와 같이 띄어 쓰고, ‘선물’과 같은 사물이 앞에 올 때에도 ‘선물 받다’와 같이 띄어 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접사 ‘-하다’ 역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축구하기’처럼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하다’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앞선 ‘받다’와 마찬가지로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다’와 같이 써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축구 하기’와 같이 띄어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사와 접사의 의미 변별이 어렵기 때문이다.¹²⁾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사 ‘하다01’의 의미 중 접사 ‘-하다02’와 의미 변별이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하다01 [1]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p> <p>㉮ 운동을 하다/사랑을 하다/공부를 하다/말을 하다/일을 하다</p> <p>-하다02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p> <p>㉮ 공부하다/생각하다/사랑하다/빨래하다.</p> <p>[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p> <p>㉮ 건강하다/순수하다/정직하다/진실하다/행복하다.</p>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6	실과	축구 하기	축구하기	접사 ‘-하다’는 동작성 명사 뒤에 붙어 ‘공부하다, 이야기하다’와 같이 동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명사 ‘축구’는 ‘경기, 운동’의 뜻을 지닌 동작성 명사이므로, ‘축구하다’는 명사 ‘축구’ 뒤에 접사 ‘-하다’가 붙은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2) 『교과서 편수 자료: 편수 일반 편』에서는 “‘하다’는 접미사로 되어 있으므로 ‘-하다’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결합이 어색한 경우에는 띄어 쓴다.”(p.209)라고 언급하면서 ‘-하다’의 결합이 어려운 용례로 ‘음악 하다, 조교 하다, 떡 하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용례들을 고려할 때 ‘-하다’는 ‘-받다’와 마찬가지로 행위성 명사에 결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작 “결합이 어색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어 사용 주체의 입장에서 ‘-하다’와 ‘하다’의 변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서 ‘이성 교체하는 동안’과 같이 구 구성에 ‘-하다’가 결합한 사례가 또한 발견되는 것은 국어 사용 주체들의 이와 같은 혼란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되다’ 역시 동사와 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사 ‘되다01’의 의미 중 접사 ‘-되다04’와 의미 변별이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되다01	【…이】 [1]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 의사가 되고 싶다. 【…에게 …이】 [1] ((주로 피동의 뜻을 갖는 명사와 함께 쓰여))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하다. ¶ 저 아이는 그 사람에게 양육이 되었다./그 학생은 경찰한테 수배가 된 몸으로 피신을 다녔다./베트콩에게 포로가 되면 양키는 이백 달러, 월남 민병대는 오십 달러만 내면 풀려나올 수가 있다더라.《안정효, 하얀 전쟁》 -되다05 [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가결되다/사용되다/형성되다. [2]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거짓되다/참되다/어중되다/숫되다/막되다/못되다/안되다.
------	---

위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교과서의 ‘부모됨’은 ‘되다01-[1]’의 의미이므로 ‘부모 됨’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동사와 접사의 의미 변별은 앞선 ‘받다’, ‘하다’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부모 <u>됨</u> 에 대한 준비	부모 <u>됨</u> 에 대한 준비	‘되다’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경우이므로, 밑줄 친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9) 명사와 조사 간의 혼동

명사와 조사를 혼동하여 띄어쓰기를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밖에’가 있다.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결합하는 조사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에서처럼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뒤따른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밖에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에 나타난 ‘밖에’는 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가리키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밖에’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붙여 쓰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밖에’와 같은 결합형이 조사의 형태와 동일하여 그 기능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밖에’와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인 ‘밖에’의 의미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여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기	<u>이밖에</u>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u>이 밖에</u>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이르는 ‘밖’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이 밖에’로 수정한다.

10) 단어와 구의 의미 혼동

단어와 구의 형태가 동일하여 그 의미를 혼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되다’와 ‘안 되다’, ‘못하다’와 ‘못 하다’, ‘잘하다’와 ‘잘 하다’, ‘바른말’과 ‘바른 말’, ‘집안’과 ‘집 안’, ‘한번’과 ‘한 번’, ‘한해’와 ‘한 해’, ‘천년’과 ‘천 년’이 있다.

먼저, ‘안되다’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는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안되다01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안되다02

[1] 【…이】 【-기가】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 그것참, 안됐군./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2] 【…이】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

¶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서의 ‘안되네’는 주어진 맥락상 ‘붙어 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의 의미이므로 ‘안 되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또한 이때의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킨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우리 꼭 붙어 있자. 나는 기름! 그럴 순 없지. 우 리 힘이 더 세니까. 이리 와! 안되네.	우리 꼭 붙어 있자. 나는 기름! 그럴 순 없지. 우 리 힘이 더 세니까. 이리 와! 안 되네.	'안되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 다. 주어진 맥락상 '되다'를 부정 하는 의미이므로 '안 되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또한 교과서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못 하며'에 나타난 '못 하며'는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의 구성으로 쓰인 경우이므로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나 '안'과 '못'을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의 의미 변별은 사실상 쉽지 않아 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쉽게 발견된다.

못하다

- [I] 「동사」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 노래를 못하다/술을 못하다.
- [II] 「형용사」
 [1]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건강이 젊은 시절만 못하다.
 [2] (('못해도' 꼴로 쓰여)) 아무리 적게 잡아도.
- [III] 「보조동사」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 [IV] 「보조형용사」
 [1] ((형용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말.
 [2] ((주로 '-다(가) 못하여'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1)배우자를 선택 하지 않는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 이 자유로우며 가 족에 대한 책임감 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 에 몰두할 수 있 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 을 느끼지 2)못 하며 고독감이 커 질 수 있다.	1)배우자를 선택 하지 않은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 이 자유로우며 가 족에 대한 책임감 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 에 몰두할 수 있 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 을 느끼지 2)못하 며 고독감이 커질 수 있다.	2)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 으로 쓰이는 ‘못하다’는 보조 용언 으로, 한 단어이므로 띄지 않고 붙 여 쓴다. 1)→부록 1322번 참고

‘잘하다’ 역시 ‘안’, ‘못’과 같이 합성어와 구의 의미 변별이 쉽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교과서에 쓰인 ‘제도를 잘 하려면’은 맥락상 ‘제도를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려면’ 정도의 의미를 지니므로 ‘제도를 잘하려면’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잘하다 「1」 옳고 바르게 하다.

¶ 그러기에 평소 처신을 잘해야지

「2」 좋고 훌륭하게 하다.

¶ 공부를 잘하다/살림을 잘하다/일을 잘하다

「3」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 잘하는 숨씨/영어를 잘하다

「4」 버릇으로 자주 하다.

¶ 오해를 잘하다/그녀는 웃기를 잘한다

「5」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

¶ 그는 술을 잘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고		기가	제도를 잘 하려면 제도 용구의 명칭 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제도를 잘하려면 제도 용구의 명칭 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잘하다’ 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다음으로, ‘바른말’과 ‘바른 말’, ‘집안’과 ‘집 안’, ‘한번’과 ‘한 번’, ‘한해’와 ‘한 해’, ‘천년’과 ‘천 년’의 경우 역시 붙여 쓸 때와 띄어 쓸 때의 의미가 다르므로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 단어인 ‘바른말’은 ‘이치에 맞는 말’을 뜻한다. 그러나 교과서에 쓰인 ‘바른말 고운 입’에서의 ‘바른말’은 맥락상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다’는 의미이므로 ‘바른 말’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집안’ 역시 한 단어로 붙여 쓸 경우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교과서에서는 ‘집의 내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므로 ‘집 안’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한번’과 ‘한해’도 한 단어로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 의미가 다르다. 먼저, 다의어인 ‘한해’는 ‘旱害’를 가리키는 경우 ‘가뭄으로 인하여 입은 재해’를, ‘寒害’를 가리키는 경우는 ‘추위로 입은 피해’를, 마지막으로 ‘寒海’를 가리키는 경우는 ‘한대 지방의 찬 바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한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에 사용된 ‘한해’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므로 ‘한 해’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또한 한 단어로 쓰이는 ‘한 번’의 의미망 역시 다양한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번’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번

[Ⅰ]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언젠가 한번은 길에서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었어./한번은 네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

[Ⅱ] 「부사」

[1]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 한번 해 보다.

[2] 기회 있는 어떤 때에.

¶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3] ((명사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춤 한번 잘 춘다.

[4] 일단 한 차례.

¶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교과서의 ‘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에서 ‘한번’은 ‘차례나 일의 횟수’를 가리키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부사로 쓰이는 ‘한번’에도 ‘일단 한 차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과 ‘한번’의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라는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년’과 ‘천 년’ 역시 한 단어로 쓰일 경우 ‘오랜 세월’을 의미하지만 교과서의 ‘천년 이상 있었던 목사 고을로’에 쓰인 ‘천년’은 1000년을 가리키므로 ‘천 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주어진 맥락에서 요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단어와 구의 형태가 동일하더라도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2	국어 (쓰기)	바른말 고운 입	바른 말 고운 입	여기의 '바른 말'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바른말(이치에 맞는 말)'과 뜻이 다른데 붙여 적어서 잘못이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09	중	1	과학	반면 난방기는 대부분 집안 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 난방기는 대부분 집 안 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집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곳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뜻하는 '안'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09	중	2	도덕	1)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 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 '한 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번'은 '지난 어느 때나 기회', 또는 '일단 한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 해당 문장에서는 횟수의 의미를 지니므로 '한 번'으로 수정한다. 2)→부록 782번 참고
09	중	2	도덕	1)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 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2) '한 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은 수량 관형사로 의존 명사인 '해'와 띄어 쓴다. 1)→부록 781번 참고
09	초	5, 6	미술	우리 마을은 전라 남도를 다스리는 관아가 천년 이상 있었던 목사 고을로 전통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 마을은 전라 남도를 다스리는 관아가 천 년 이상 있었던 목사 고을로 전통 있는 고장입니다.	'천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천년'이 '오랜 세월'을 뜻할 경우 한 단어로 보아 붙여 쓰지만, 이 경우에는 문맥상 수 관형사인 '천'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천 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1.2.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어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초래된 문제들은 ‘1) 현실 발음에 의한 표기 혼동’, ‘2) 원칙적으로 붙여 쓰는 보조 용언에 대한 인식 결여’, ‘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식 결여’의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1) 현실 발음에 의한 표기 혼동

현실 발음에 의한 표기 혼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루’와 ‘누’, ‘후춧통’과 ‘후추통’, ‘소숫점’과 ‘소수점’, ‘갯수’와 ‘개수’가 있다. 먼저, 야구에서 ‘내야(內野)’의 네 귀퉁이에 있는 방석같이 생긴 물건’을 가리키는 ‘누(壘)’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1루’와 같이 적지만 교과서의 ‘각 루 사이의 거리가’에서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쓰일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므로 ‘각 누 사이의 거리가’에서와 같이 ‘누’로 써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수학	각 루 사이의 거리	각 누 사이의 거리	‘루(壘)’는 두음 법칙에 따라 ‘누’로 발음하고 적어야 한다.
07	중	1	과학	+ 후춧통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후추통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후춧통’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로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다. ‘후추통’이 사전 미등재어이지만 ‘후추 통’으로 띄어 써 구로 보게 함도 문제이므로 ‘휴지통, 가스통, 물통’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추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또한 ‘후춧통’은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므로 ‘후추통’으로 표기해야 한다.¹³⁾ 같은 맥락에서 ‘소수점’과 ‘개수’는 한자어 구성의 단어로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숫점’, ‘갯수’가 아닌 ‘소수점’, ‘개수’로 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잘못된 표기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 단어가 언중들에게 각각 ‘[루]’, ‘[후춧통]’, ‘[소숫점]’, ‘[갯수]’와 같이 발음되기도 한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현실 발음이 표기에 영향을 미쳐 ‘각 루’, ‘후춧통’, ‘소숫점’, ‘갯수’와 같은 잘못된 표기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언중들이 ‘루 → 누’로 적어야 한다는 두음법칙 지식, ‘후춧통 → 후추통’의 거센소리 앞 사이시옷 표기가 불필요하다는 지식, ‘소수점’, ‘개수’는 한자어 사이시옷 표기어 6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범 교육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소숫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이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의거하여 ‘소수점’으로 표기한다.
07	초	6	음악	구성음의 갯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구성음의 개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개수’를 ‘갯수’로 잘못 표기하였다. ‘개수(個數)’는 [개:쑤]와 같이 발음되지만,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13) 다만, ‘근거’란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후추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桶)’도 접사가 아니므로 ‘후추 통’과 같이 구로 보아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원칙인데,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휴지통, 가스통, 설거지통, 물통’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후추통’은 미등재 합성어로 봄이 타당하다.

2) 원칙적으로 붙여 쓰는 보조 용언에 대한 인식 결여

원칙적으로 붙여 쓰는 보조 용언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띄어 쓰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어하다’, ‘-아/어지다’가 있다.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과서에 쓰인 ‘불편해 하거나’, ‘힘들어 하는’은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형용사에 ‘-어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지다’ 역시 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과서에 쓰인 ‘만들어 질 거야’는 ‘만들다’라는 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만들어질 거야’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보조 용언 ‘하다’와 ‘지다’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어하다’, ‘-아/어지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¹⁴⁾

14) 다만, ‘-아/어하다’의 경우 결합하는 단어의 품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지다’의 경우는 ‘만들어지다’, ‘깨끗해지다’와 같이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가 결합할 때에도 붙여 쓰는 반면, ‘-아/어하다’의 경우는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만 붙여 쓴다. 따라서 ‘당황하다’와 같은 동사에 ‘-아/어하다’가 결합할 경우는 ‘당황해 하다’로 띄어 써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도덕	이처럼 배려 없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배려 없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편해하거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불편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07	고		기	가족 중에서 힘들 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 중에서 힘들 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경우의 ‘하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07	중	3	과학	설탕과 물의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 어 질 거야.	설탕과 물의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 어질 거야.	‘만들어 질 거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다’는 보조 동사이지만 ‘-어지다’의 형태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 문장 부호 규정에 대한 인식 결여

짜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서나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가운데점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이민’, ‘문화예술’과 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가운데점의 사용 규정과 관련된 언중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운데점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가운데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웃놀이를 하였다.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짜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상·중·하위권 | 금·은·동메달 | 통권 제54·55·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상, 중, 하위권 | 금, 은, 동메달 | 통권 제54, 55, 56호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제시된 ‘*유이민’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며 ‘유민’과 ‘이민’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낸 단어이므로, ‘유·이민’, ‘유, 이민’과 같이 명사 내 구분이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 역시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므로 ‘문화·예술’과 같이 가운뎃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첨단 과학 기술이 사회와 문화예술 , 환경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사회와 문화예술 , 환경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이나 특정 분야를 열거할 때 사용하는 쉼표를 쓸 수 있다.
07	고		한국사	중국 1)이 전국 시대에 잦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중국 1)에서 전국 시대에 잦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2) ‘유·이민’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유이민’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므로, 유민과 이민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서는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사용하여 ‘유·이민’, ‘유, 이민’과 같이 명사 내 구분이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유이민’이라는 잘못된 표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1)→부록 476번 참고

또한 2014년에 문장 부호 규정이 새롭게 고시되면서 이전까지는 ‘온점, 반점’이라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다가 개정 이후부터는 ‘마침표, 쉼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1.3. 어문 규범상의 문제

어문 규범상의 문제는 ‘1) 띄어쓰기 지침 미비’와 ‘2) 문장 부호 규정의 미비’로 대별된다.

1) 띄어쓰기 지침 미비

현행 띄어쓰기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주어진 언어 단위의 띄어쓰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먼저, 1음절 한자어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시’, ‘인생시’, ‘현대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가 아니며, ‘-시(詩)’와 같은 접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자연 시’, ‘인생 시’, ‘현대 시’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시(詩)’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중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서정시, 서사시, 극시’ 등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 시’, ‘인생 시’, ‘현대 시’의 경우를 띄어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하	국어	그런 작품들을 자연시 라고 부르는 어렵다.	-	-
07	고	하	국어	현대시	-	-
07	고	하	국어	시조는 철저한 인생시 라는 것	-	-

더욱이 이들을 일종의 교과 전문 용어로 본다면 붙여 쓰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서는 ‘현대시’와 같이 붙여 쓴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¹⁵⁾ 다만, ‘현대 시’로 띄어 쓴 경우도 있으며,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현대 시’의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한 교과서 안에서의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어 사전에 근거한 표기와 실제 표기 간의 혼란이 나타난다.¹⁶⁾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띄어쓰기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면(面)’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그림면’과 ‘숫자면’을 모두 붙여 쓰고 있는데, 앞선 사례의 ‘시(詩)’와 마찬가지로 ‘면(面)’ 역시 명사일 뿐 접사가 아니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다만, ‘그림면’의 경우는 ‘화면(畫面)’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어로서 붙여 써야 한다. 또한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앞뒷면’ 역시 ‘숫자면’과 같은 논리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면(面)’을 ‘값, 금, 길, 꽃’과 같이 일부 명사 뒤에서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교과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을 붙여 쓸 수 있는 것이다.¹⁷⁾

15)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신체시’의 정의를 기술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현대시’를 붙여 쓰고 있음이 발견된다.

신체-시(新體詩)

「1」 우리나라 신문학 운동 초창기에 나타난 새로운 시 형식. **현대시**의 출발점이 되며, 최남선이 1908년에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최초의 작품이다. (*강조 표시는 필자)

- 16)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는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붙여 쓰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 중에는 ‘서정시, 애국시, 연애시’와 같이 항상 붙여 쓰는 1음절 한자어로 ‘시(詩)’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따르면 위의 교과서 사례들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은 말 그대로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지침일 뿐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용 시 참고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지침에 따라 교과서의 해당 사례를 붙여 써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17) ‘면(面)’ 역시 ‘시(詩)’와 마찬가지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 항상 붙여 쓰는 1음절 한자어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수학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면(그림면, 숫자면)을 기록하여 보시오.	-	-
09	초	3, 4	미술	소마트로프는 실을 감은 후 당기면 빠른 속도로 돌아 앞뒷면 의 그림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	-

다음으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의 띄어쓰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래의 도덕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와 ‘참’은 각각 감탄사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아 참’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조합이 가능한 모든 감탄사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참’을 감탄사로 보고 붙여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뚜렷한 지침이 없어, 사실상 표기 주체가 해당 언어 단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띄어쓰기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1)아참2), 알겠어.	1)아, 참2)! 알겠어.	1) ‘아, 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아’와 ‘참’은 각각 감탄사이므로 띄어 쓴다. 2)→부록 684번 참고

또한 다음과 같은 수학 교과서의 사례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의 수를 표기할 경우 이들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교과서에서와 같이 ‘영일’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각각의 단위로 보고 띄어 쓰는 것이 옳은지 현행 규정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⁸⁾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4	수학	분수 1/100을 소수로 0.01이라 쓰고 영점 영일 이라고 읽습니다.	-	-

세 번째로,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한글 맞춤법 제49항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단위’의 파악이 언어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음의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나눔아파트주민자치회’와 ‘독도의용수비대’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와 같은 문제부터 단위별로 띄어 쓴다면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나눔아파트주민자치회’의 경우는 사전에 ‘주민^자치’가 등재되어 있어 개선안의 2안)과 같은 띄어쓰기가 가능하다. 이때 ‘나눔아파트’는 단위별로 띄어 쓴 것인데, ‘주민자치회’ 역시 단위별로 띄어 썼다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면이 있다. 따라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위별로 띄어 씀’이 의미하는 바를 언중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전문 용어 혹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지침을 재정비할 필요는 없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18)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수를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쓸 것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교과서 사례와 같이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의 수를 적을 때에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띄어 써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5	국어 (듣말 쓰)	<u>나눔아파트주민 자치회</u>	1안) <u>나눔아파트 주민자치회</u> 2안) <u>나눔아파트 주민 자치회</u> 3안) <u>나눔 아파트 주민 자치회</u>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 2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3안)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쓴다.
07	초	5	국어 (듣말 쓰)	<u>독도의용수비대</u>	1안) <u>독도 의용수비대</u> 2안) <u>독도 의용 수비대</u>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2안)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쓴다.

마지막으로,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문제이다. 국어과의 ‘말하는이’와 ‘듣는이’, 과학과의 ‘우리은하’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편수 자료에서는 붙여 쓴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¹⁹⁾ 이들 표기는 편수 자료의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교과서의 경우 전문어나 준전문어의 붙여쓰기로 인해 사전적 표기와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는데, 장기적으로는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에 대한 원칙과 허용 규정을 조정해 붙여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쓰는 이와 읽는 이의 혼란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²⁰⁾ 또한 이들 사례는 사전과 편수 자료의 불일치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읽는 이’의 경우는 ‘말하는이’, ‘듣는이’와 달리 띄어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용어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²¹⁾

19) ‘우리은하’의 경우는 편수 자료 간 띄어쓰기 지침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한 문제적이다. 즉, 『교과서 편수 자료: 편수 일반 편』에서는 구(句)인데도 합성 명사로 잘못 파악하여 붙여 쓰는 사례로 ‘우리 은하’를 들고 있는 반면, “교과서 편수 자료: 기초 과학 편”에서는 지구과학과의 전문 용어로 ‘우리은하’를 제시하고 있다. 편수 자료 간 띄어쓰기 지침이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20) 민현식(1999)에서는 현 규정이 합성어로서의 전문 용어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당연히 띄어 써야만 하는 구와 결과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합성어 구조의 전문 용어도 합성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띄어 쓸 수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가나다’에 교과서의 ‘말하는이’, ‘듣는이’의 표기에 관한 질문이 몇 차례 올라왔으며 ‘읽는 이’와 비교하는 질문 역시 제기되어, 위에서 지적한 두 지점에 대한 언중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3	국어 (듣말 쓰)	말하는이	-	-
07	초	3	국어 (듣말 쓰)	듣는이	-	-
09	고		과학	우리 은하	-	-

2) 문장 부호 규정의 미비

쉽표 사용과 관련된 현재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예: 감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감순이를 배웅했다.)’,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예: 내가 그, 그럴 리가 없잖아.)’ 쉽표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사례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임을 표시할 경우와 관련된 사용은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문장 부호 규정상으로는 위의 사례에서 마침표 사용을 권고할 수

21) ‘전문 용어의 선정 기준’ 문제는 곧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는 전문 용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불국정토(佛國淨土)’는 사전과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국 정토’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정토(極樂淨土)’와 같은 용어는 불교 분야의 전문 용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국정토’ 역시 같은 계열의 전문 용어로 보아 붙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띄어쓰기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통해 전문 용어의 등재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전문 용어의 선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범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국어 사용 주체의 혼란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밖에 없다. 문장 부호의 사용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양한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용상의 지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도덕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인 것이 참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인 것이 참 좋아.	문장 부호가 잘못 쓰였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한다.

한편, 기사문 등에서 간접 인용 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반면, 인용 조사와 문장 부호 쓰임에 대한 사전이나 규정의 정의는 간략하다. 따라서 다음의 교과서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인용 표지와 문장 부호 사용에 혼란이 나타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도덕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2)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2)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2)→부록 674번 참고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국어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1안)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2안)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직접 인용절에 간접 인용의 ‘-ㄴ다’는’이 사용되었으며, 간접 인용절을 강조하는 맥락이라 볼 경우 “-ㄴ다.’는”의 마침표가 잘못 사용되었다. 1안)과 같이 직접 인용으로 보아 ‘-라는’으로 수정하거나, 2안)과 같이 간접 인용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마침표를 삭제한다.

이규호(2015)에서는 “개정된 새 규정에서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큰따옴표는 ① 직접 대화 ② 말/글 인용 ③ 책이나 신문 이름에 쓴다. 작은따옴표는 ① 이중 인용 ② 생각 인용 ③ 소제목 ④ 강조에 쓴다. ③④는 겹낫표, 홑낫표, 드러냄표 등을 대신하여 쓰는 것으로 인용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좀 더 정밀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규정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규정 차원에서도 속담 등 생각 외의 것을 직접 인용할 때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는가, 또한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 뒤에 ‘고’, ‘-는’ 등의 간접 인용 표지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인다.²²⁾

22)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문장 부호 해설》에서는 규정에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장 부호 용법을 다루고 있다. 그중 큰따옴표의 용례로 속담을 제시하고 있어 속담 인용 시 큰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규정에서는 명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밝히지 않아 인용 부호와 인용 표지의 쓰임에 대한 언중의 의문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1.1.4.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초래된 문제들은 ‘1) 분기별 정보 수정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 ‘2) 뜻풀이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3) 부가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의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1) ‘분기별 정보 수정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

표준국어대사전은 분기별로 정보 수정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표준국어대사전에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국어	<u>배경 지식</u>	<u>배경지식</u>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09	초	3,4	음악	축제에서 음악은 흥을 돋우고, <u>신 나는</u> 분위기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축제에서 음악은 흥을 돋우고, <u>신나는</u> 분위기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신 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는’으로 붙여 써야 한다.

‘배경지식’은 ‘2010년 4/4분기’에,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추가된 것으로 이 단어들은 해당 교과서의 출판 시기 이전에 사전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분기별 정보 수정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2) ‘뜻풀이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명사 뒤에서 항상 붙여 쓰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된다.

극04

「1」 『문학』 작가의 개입이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을 이르는 말.

『토끼의 출연 때문에, 연출자의 의도는 어떠했던지 모르지만, 극은 이제 코미디가 되어 있었다.《김승옥, 다산성》

「2」 ((일부 명사 뒤에 붙어))‘연극’, ‘드라마’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고발극/사기극/실험극/특집극.

(*밑줄, 강조 표시 필자)

위의 사례에서 ‘고발극, 사기극, 실험극, 특집극’과 같이 붙여 쓴다는 것은 이들을 합성어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어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발 극, 사기 극, 실험 극, 특집 극’과 같이 띄어쓰기를 잘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과서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극(劇)’, ‘값’, ‘즙(汁)’²³⁾²⁴⁾이 있다.

먼저 ‘극(劇)’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연극이나 드라마’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서양 극’ 역시 ‘서양극’으로 붙여 써야 한다.

23) 교과서에서 발견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니나 ‘놀이’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놀이’가 ‘시장놀이, 병원놀이, 엄마놀이, 학교놀이’에서처럼 ‘모방을 하거나 흥내를 내면서 노는 일을 뜻할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공깃돌 놀이, 연 놀이, 주사위 놀이’에서처럼 ‘일정한 규칙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을 뜻할 때’에는 띄어 쓴다.

24) 『교과서 편수 자료: 편수 일반 편』과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서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합성어로 보고 반드시 붙여 써야 하는 경우를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극, 값, 즙’뿐만 아니라 ‘금(金), 난(難), 병(病)’과 같은 1음절 한자어에서부터 ‘길, 꽃, 방, 덩이, 덩어리’와 같은 1음절 이상의 고유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등 학교	하	국어	현대극 및 서양극	현대극 및 서양극	‘서양극’은 ‘현대극’과 달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극(04 「2」)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연극’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서양극’과 같이 붙일 수 있을 듯한데 띄어 썼다. ‘서양극’으로 수정한다.

‘값’과 ‘줍’도 각각 ‘가격, 대금, 비용, 수치를 뜻할 때’와 ‘농축액을 뜻할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커피 값’과 ‘레몬 줍’은 ‘커피값’, ‘레몬줍’처럼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다만, ‘커피값’처럼 합성어가 될 경우 해당 단어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조건인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데, [커피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값’이 일부 명사에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경우 ‘값’은 대부분 [값]으로 발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²⁵⁾ 따라서 ‘자전거’에 ‘값’이 결합(한자어+고유어)할 경우는 ‘자전거값’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²⁶⁾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커피 값	커피값	‘값’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므로, ‘커피값, 우윳값’과 같이 붙여 쓴다.

25) 그러나 ‘커피값’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커피+값’의 구성이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우윳값’과 같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 편수 자료: 편수 일반 편』에서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결팍값’, ‘좌푯값’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값’이 일부 명사에 결합할 경우 이를 합성어로 보아 해당 조건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도덕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 자전거 값 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 자전거 값 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2) ‘값’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이때 ‘값’은 대부분 [값]으로 발음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자전것값’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부록 646번 참고
09	중	3	과학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 즈 를 뿌려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킨다.	생선회를 먹을 때 레몬즙 을 뿌려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킨다.	‘레몬 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농축액’을 나타내는 말인 ‘즙(汁)’은 먹을 것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여 쓴다.

한편, ‘색(色)’도 ‘색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앞말에 붙여 쓰므로 ‘딸기색, 바이올렛색’처럼 써야 한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유사 색’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이 경우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중	미술	색상환에서 마주 보고 있는 색은 보색 관계로 서로 반대색이며, 가까이 있는 색은 + 유사색 이다.	-	-

‘유사 색’이 ‘비슷한 색깔’과 유의어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유사색’과 같이 붙여 쓸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의미가 ‘딸기색’처럼 색깔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붙여 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전상의 정의대로 유형에 관계없이 색깔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 어떠한 경우든 앞말

에 붙여 쓰는 것이라면 ‘유사색’ 역시 붙여 써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상의 용례를 고려하면 반드시 그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명사임에도 앞말과 반드시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사전을 통해 주어진 단어의 품사 정보만이 아니라 뜻풀이에 제시된 정보까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부가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 표시를 하고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사전 이용자들에게 해당 단어에 대한 문법적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용품01(用品)

「명사」 어떤 일이나 목적과 관련하여 쓰이는 물품.

『 이 매장에서는 유아 및 신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용품’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는 앞의 말과 띄어 쓰고, ‘사무용품’, ‘유아용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는 붙여 쓴다.

(*밑줄, 강조 표시 필자)

위의 정보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의생활용품’과 ‘장식용품’은 각각 ‘의생활’과 ‘장식’이라는 명사에 ‘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과 ‘물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품’이라는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생활용품’과 ‘장식용품’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사전의 이러한 부가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띄어쓰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실과	생활에 필요한 의생활용품 을 만들어	생활에 필요한 의생활용품 을 만들어	'-용'과 '-품'은 각각 접사로, '사무용품', '유아용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는 앞말과 '-용', '-품'을 모두 붙여 쓴다. 밑줄 친 부분은 '의생활'이라는 명사에 '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과 '물품', 또는 '작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품'이 붙은 구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의생활용품'으로 붙여 쓴다.
07	중		미술	유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유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 '장식용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용품'에 대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는 앞의 말과 띄어 쓰고, '사무용품', '유아용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는 붙여 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의 정의에서 "... 또는 실내 장식용품"이라 표기하였다. 따라서 '장식용품'으로 수정한다. 2)→부록 1453번 참고

1.1.5.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들은 ‘1) 합성어 처리 방식의 비일관성’, ‘2) 단어 간 의미 경계의 모호성’, ‘3)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어의 부재’, ‘4) 외래어 표기법 용례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 간 불일치’, ‘5)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와 용례 간 띄어쓰기 불일치’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된다.

1) 합성어 처리 방식의 비일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합성어 처리 방식에 일관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종이 책’, ‘후추 통’, ‘양념 통’, ‘전지 판/광전 판/집열 판’, ‘충돌 시’, ‘앞 발가락’, ‘뒤 발가락’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합성어가 아닌 구 구성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이들 단어를 구 구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비슷한 계열의 다른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종이 책’은 합성어로 등재된 동일 계열의 단어로 ‘전자책’이 있으며, ‘후추 통’과 ‘양념 통’은 ‘쌀통’, ‘가스통’, ‘석유통’, ‘설거지통’ 등이, ‘전지 판’은 ‘격자판’, ‘경사판’, ‘공명판’ 등이, ‘충돌 시’는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등이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단어 역시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함이 합리적이다.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양념통’을 ‘양념을 담아 두는 통’이라는 뜻을 지니는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간장통’, ‘우유통’ 등을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지 판’ 역시 ‘태양 전지판’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어 표준국어대사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국어 (읽기)	1) + 종이책은 2) 더 오랫동안 음 미하고 자기 나 름대로 상상력을 발 휘하게 해 준다.	1) 종이책은 2) 사 람들이 더 오랫동 안 내용을 음미하 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 게 해 준다.	1) '종이책'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 았으며, '책'을 일부 명사 뒤에 붙 여 쓰는 경우와 의미가 같지 않으 므로 띄어 쓰도록 할 수 있으나 '전자책' 등의 예에 따라 합성어로 붙여 쓰고 등재하도록 한다. 2) → 부록 53번 참고
07	중	1	과학	+ 후춧통을 흔 들어 후춧가루를 부린다.	후추통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부린 다.	'후춧통'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 긋난 표기로 사이시옷을 적을 필 요가 없다. '후추통'이 사전 미등 재어이지만 '후추 통'으로 띄어 써 구로 보게 함도 문제이므로 '휴지 통, 가스통, 물통'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추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09	중	1	과학	+ 양념통의 양 념 뿌리기	양념통의 양념 부 리기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을 뜻하는 '통(桶)'은 명사이므로 '양념 통'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고 할 수 있으나 '쌀통, 가스통, 물 통' 등에 따라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09	중	1	과학	식물의 잎은 헬리 오스의 태양 + 전지판 처 럼 얇고 넓으며 햇빛 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식물의 잎은 헬리 오스의 태양 전지 판처럼 얇고 넓으 며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널빤지를 뜻하는 '판(板)'은 명사 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 으나 합성어로 처리하고 붙여 쓰 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07	중	1	과학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시 몸 이 앞으로 튀어 나가서 매우 위험 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 시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가서 매우 위험 하다.	'충돌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 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時)'는 의 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 만, 이때의 '시(時)'를 시간 기능 접미사로 보면 붙일 수도 있다.

또한 다음의 ‘앞발가락’과 ‘뒷발가락’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앞 발가락’, ‘뒤 발가락’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합성어로 ‘앞발, 뒷발’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앞발가락, 뒷발가락’도 합성어로 보고 등재함이 합리적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1) + 앞발가락 은 4개, 2) + 뒷발가락 은 5개이다.	1)앞발가락은 4개, 2)뒷발가락은 5개이다.	1) ‘앞발가락, 뒷발가락’은 사전 미등재어인데 ‘앞발, 뒷발’이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앞발가락, 뒷발가락’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해야 한다. 1), 2)→부록 953~955번 참고

2) 단어 간 의미 경계의 모호성

앞서 ‘명사와 접사 간의 혼동’으로 다룬 바 있는 ‘지구 상/지구상’, ‘압력 하/압력하’, ‘세포 층/세포층’의 사례들은 사실상 명사와 접사 두 범주 간의 의미 변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사 ‘-상(上)’을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어휘가 지시하는 공간이 추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지구 상’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지구상’을 표제어로 두고, ‘지구의 표면. 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그 뜻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지구상’을 합성어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 지구상 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 상 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 다.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상(上)’은 명사이므로 ‘지구 상’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명사 ‘하’ 역시 사전에서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접사 ‘-하’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어진 문맥에 따라 이들의 의미를 변별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명사 ‘층’과 접사 ‘-층’에 이르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언중들이 이들 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용례를 제시해 주거나, 명사와 접사 간 의미가 중첩되는 경우 이를 변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을 참고 자료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²⁷⁾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 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압력 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 다. ‘-하’는 ‘그것과 관련된 조건 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09	중	2	과학	모세 혈관의 혈관벽은 한 겹의 세포 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모세 혈관의 혈관벽은 한 겹의 세포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세포 층’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 다. ‘-층’은 ‘켜켜이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2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번’의 경우는 뜻풀이 아래에 ‘한 번’과 ‘한번’을 변별하는 기준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접사의 뜻풀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단어와 구의 의미 혼동’으로 다룬 바 있는 ‘잘하다’, ‘못하다’의 경우도 그 의미가 사실상 ‘잘 하다’, ‘못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경우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어 사용 주체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잘하다’는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 버릇으로 자주 하다, 음식 따위를 즐겨 먹다’와 같이 특화된 의미 내에서도 의미 망이 넓기 때문에 ‘잘 하다’로 띄어 쓰는 경우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이다.²⁸⁾ 또한 ‘못하다’는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못 하다’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다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의미성 변별 지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노래 솜씨가 좋지 않을 때는 ‘노래 못한다’,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는 ‘노래 못 한다’라고 씌으로써 의미 변별을 위해 띄어 쓰게 한다거나, 반대로 띄어 씌으로써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국어 사용 주체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3)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어의 부재

현재 ‘맥주·음료 등의 깡통을 잡아당겨 따는 손잡이’를 뜻하는 외국어 ‘pull tab’에 대응하는 순화어가 없는 상태이다. ‘캔따개’라는 표현은 ‘병따개’를 뜻하는 ‘can opener’와 혼용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음료수 캔에 붙어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혼동을 방지하였다. ‘pull tab’에 대응하는 순화어를 마련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2	과학	음료수 캔에 붙어 있는 캔따개 를 사용하면 쉽게 음료수 캔을 딸 수 있다. ²⁹⁾	(pull tab에 대응하는 단어를 제시해야 함.)	-

28) 편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인 ‘출근 잘 하셨어요?’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해당 단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말 내에서도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별도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이때 발앞꿈치 쪽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이때 발끝 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발앞꿈치’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다. ‘발꿈치’는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볼록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발의 앞끝’을 의미하는 ‘발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서의 해당 부분에서는 ‘발뒤꿈치’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발앞꿈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발의 앞쪽을 가리키는 말로 ‘발끝’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때의 ‘발끝’이 ‘발의 앞쪽’뿐만 아니라 ‘발뒤꿈치’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의미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주어진 문맥에서 가리키는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그림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발앞꿈치’라는 단어를 인정하거나 해당 부분만을 가리키는 적절한 지칭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29) 해당 사례는 ‘pull tab’에 대응하는 마땅한 어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소통성’ 차원에서 국어 순화가 필요한 문제로 진단하였다.

4) ‘외래어 표기법 용례’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 간 불일치

‘세인트키츠 네비스’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나라 이름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원어를 ‘Saint Kitts and Nevis’로 보고 ‘세인트키츠’와 ‘네비스’를 띄어 썼으나,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는 그 원어를 ‘Saint Kitts-Nevis’로 보아 이 둘을 붙여 쓰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세인트키츠’와 ‘네비스’를 띄어 쓸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예시로, ‘세인트키츠 네비스’의 또 다른 이름인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Saint Christopher and Nevis)’를 들 수 있다.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라는 표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and’를 표기하지 않는 대신 띄어 쓰도록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표기한 원어는 ‘Saint Kitts and Nevis’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인트키츠 네비스’와 같이 띄어 적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사회과 부도	<u>세인트키츠 네비스</u>	<u>세인트키츠 네비스</u>	서인도 제도의 동부 리워드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Saint Kitts and Nevis’의 우리말 표기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이다. 이는 국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영어 표기법에 따라 제85차 외래어 심의회(2009)에서 규정한 어휘이며,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당트르카스토 제도’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사례이다. ‘당트르카스토 제도’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며,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이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당트르카스토’와 ‘제도’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 둘을 붙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전이나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 ‘갈라파고스 제도’나

‘길버트 제도’를 모두 띄어 쓰도록 한 것처럼 이 역시 일관되게 띄어 쓰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덴트레카스토 제도</u>	<u>당트르카스토 제도</u>	뉴기니 섬 남동쪽 부근에 분포하는 화산섬 제도인 'D'Entrecasteaux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당트르카스토 제도'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이렇듯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결국 집필자에 따라 다른 표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편수 자료에서 모든 지명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으나, 교과서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해 편수 자료 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와 용례’ 간 띄어쓰기 불일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代)’는 ‘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시대를 의미하는 ‘대(代)’의 풀이 예시로 ‘세종 대’를 든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동일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세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 ‘혼미하다’의 예문으로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정은 함부로 그들을 제어하지 못해 그것이 송대의 정치가 혼미한 한 원인을 이루었소.”라는 문장을 들고 있다.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대(代)’의 띄어쓰기를 달리 적용하여 보이고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대07(代) 「2」 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 세종 대.

혼미-하다(昏迷--)

[2] 「1」 하는 짓이나 뽀뽀이가 어리석고 미련하며 사리에 어둡다.

「2」 정세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하다.

¶ 혼미한 정국/조정은 함부로 그들을 제어하지 못해 그것이 충대의
정치가 혼미한 한 원인을 이루었소.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밑줄, 강조 표시 필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삼국 시대’, ‘조선 시대’처럼 시대(時代)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고, 몇몇 왕에 한정해서만 ‘세종 대’, ‘고종 대’ 등과 같이 대(代)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표현할 때는 ‘당대’, ‘송대’, ‘원대’와 같이 나라나 왕조의 이름에 대(代)를 붙여 사용해 왔으며, 이때의 ‘대(代)’를 관행적으로 붙여 써 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예외적인 띄어쓰기 관행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분명한 규칙을 정하여 지킬 필요가 있다.

1.1.6. 편수 자료의 문제

교과별 특수 어휘의 표기는 편수 자료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편수 자료의 지침이나 용례가 상세하지 못하여 해당 어휘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존재한다.

1) 표기 및 띄어쓰기 지침의 명확한 기준 부재

음악 교과의 편수 자료에는 ‘메기고받는소리’, ‘메기는소리’를 국악 분야의 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나 ‘메기고받다’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편수 자료에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용례까지를 모두 고려할 수 없다 해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해당 단어의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종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4	음악	친구들과 함께 <u>메기</u> 고 <u>받으</u> 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1안) 친구들과 함께 <u>메기</u> 고 <u>받으</u> 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2안) 친구들과 함께 <u>메기</u> 고 <u>받으</u> 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초음5-6(지학사, 46, 89쪽)에서는 ‘메기고 받으며’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는 ‘메기 고받는소리’, ‘메기는소리’를 국악 분야의 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나 ‘메기고받다’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메기고받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외국 지명 표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회과부도’ 교과서의 경우는 참고할 수 있는 편수 자료의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2003년 발행된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외국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가 편찬될 당시의 편수 자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외래어의 구체적인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외래어 용례집에 수록된 한글 표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서 검토 결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임에도 사전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용례집에서 손쉽게 검색 가능한 지명들도 그 표기를 잘못 쓴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편수 자료에서는 해당 교과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용어의 표기 및 띄어쓰기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사회과 부도	<u>스리자야와르데</u> <u>네파라</u>	<u>스리자야와르데</u> <u>네파라코테</u>	스리랑카 입법 수도인 도시 'Sri Jayawardenepura Kotte'의 우리말 표기는 '스리자야와르데네파라코테'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18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2) 교과별 특수 어휘의 미등재

교과별 특수 어휘로 분류될 수 있는 단어들임에도 편수 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어 교과의 ‘배경지식’, ‘현대시’, ‘자연시’, 수학 교과의 ‘쌍기나무’와 음악 교과의 ‘가락선’을 들 수 있다. 먼저,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편수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은 용어이며, ‘현대시’와 ‘자연시’는 사전과 편수 자료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국어과 편수 자료의 경우는 학교 문법의 용어를 위주로 하고 있는바,³⁰⁾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문학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 교과별 특수 어휘 혹은 전문 용어로 등재될 어휘를 선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쌍기 나무’는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반복되고 있는 용어이므로 교과별 특수 어휘로서 편수 자료의 등재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음악 교과의 ‘가락선’ 역시 표준국어대사전과 교과서 편수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전문 용어로 인식된 단어이다. 교과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2	국어	배경 지식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07	고	하	국어	그런 작품들을 자연시 라고 부르는 어렵다.	-	-
07	고	하	국어	현대시	-	-
07	초	2	수학	모양을 보고 쌍기나무 로 똑같이 쌓아보시오	모양을 보고 쌍기나무 로 똑같이 쌓아보시오	사전 및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30) 엄밀히 말해, “국어 교과용 편수 자료”는 없으며, 국어과에서 참고하는 편수 자료로는 “교과서 편수 자료(Ⅰ): 편수 일반 편”이나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미술 편”이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6	음악	<u>가락선</u> 을 그리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가락선’, ‘가락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과서별로 일관되게 표기해야 함.)	초등학교 음악 3-4학년 교과서에서는 ‘가락 선’으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가락선’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 편수 자료(2011년 발간)의 편수 용어로도 제시된 바 없다.

3) 편찬 시기의 문제

다음 사례들과 같이 편수 자료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교과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회과 편수 자료에서는 ‘서원’을 표기할 때 모두 띄어 쓰도록 명시하고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백운동^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옥산^서원’)에도 교과서에서는 해당 단어를 붙여 쓰고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한국사	본래는 1)백운동서원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서원이라 불리었다.	본래는 1)백운동 서원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 서원이라 불리었다.	1) ‘백운동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서 ‘백운동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2)→부록 465번 참고

이는 편수 자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수 자료의 편찬 시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교과별 편수 자료가 교과서 집필이 끝난 이후 편찬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서의 표기가 편수 자료의 기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1.7. 표준국어대사전과 편수 자료의 상충 문제

1) 띄어쓰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수 자료에 제시된 단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 간 ‘띄어쓰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과학과의 ‘눈금실린더, 용수철저울’, 역사과의 ‘바스쿠 다 가마’를 들 수 있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눈금실린더(--cylinder)’와 ‘용수철저울(龍鬚鐵--)’을 합성명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편수 자료에서는 시기에 따라 이 단어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즉, 07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눈금실린더’를 구(句) 구성으로 보고 띄어 쓸 것을 명시한 반면,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합성명사로 보고 ‘눈금실린더’로 붙여 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용수철저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용수철 저울’ 역시 07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구(句) 구성으로 처리하다가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합성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교과서에서도 이 두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과 동일하게 합성명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알아보자.	-	-
07	중	1	과학	같은 수의 잎이 달린 봉숭아 3개를 준비하고 20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꽂는다. 각 눈금 실린더에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솜으로 막는다.	-	-

다음으로, ‘바스쿠 다 가마’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바스쿠 다가마’와 같이 붙여 쓰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바스쿠 다 가마’와 같이 띄어 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를 따르고 있으며 이 교과서의 334쪽, 355쪽, 36쪽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다. 편수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국어사전의 등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국어사전에 이미 등재된 단어일지라도 과목 특성상 편수 자료의 지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거나, 어느 쪽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은하’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우리은하’를 합성명사로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지침에 따른다면 ‘우리은하’로 붙여 써야 한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교과서마다 ‘우리은하’의 띄어쓰기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바스쿠 다가마 는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지요.	-	-
09	고		과학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발견한 이 별의 거리를 측정하여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밖의 또 다른 은하인 것을 알아냈다.	-	-

2) 표기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편수 자료에 제시된 단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 간 ‘표기형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과학과의 ‘스타이로폼, 에스트로젠, 축삭돌기’를 들 수 있다.

먼저, ‘스타이로폼’의 경우, 07개정 및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스타이로폼’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스티로폼’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 제8항 중모음의 표기에 따르면 ‘styrofoam[staiəɾəfoʊm]’은 ‘스타이로폼’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규범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스티로폼’을 등재어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관용적인 표기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사진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스타이로폼 공과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만든 모형이다.	-	-

‘에스트로젠’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07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에스트로젠’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와 동일하게 ‘에스트로젠’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찰음의 표기에 따르면 ‘estrogen[éstrədʒən]’은 ‘에스트로젠’으로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는 어문 규범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동일한 유형인 ‘androgen[ændrədʒən]’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안드로젠’을 표제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는 통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여성 호르몬인 <u>에스트로젠</u> 이 분비되면 가슴이 커지고 몸의 굴곡이 나타난다.	-	-

마지막으로, ‘축삭돌기(軸索突起)’의 경우는 07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 ‘축색돌기’로 제시되었던 것이 09개정 교육과정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와 동일하게 ‘축삭돌기’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경우와 비슷하다. ‘索’의 한자음이 ‘색’ 또는 ‘삭’이므로 어느 쪽으로 표기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데, 09개정 교육과정 하의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가 ‘축삭돌기’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추후의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긴 <u>축삭 돌기</u> 를 통해 인접한 뉴런으로 전달된다.	-	-

3) 지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09개정 교육과정 하의 편수 자료에서는 다음에서와 같이 외래어에 ‘인(人), 족(族), 어(語), 해(海)’가 결합할 경우는 접사로 보지 않고 띄어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⑤ 외래어 다음의 ‘인(人)’, ‘족(族)’, ‘어(語)’, ‘해(海)’는 띄어 쓴다.

- 그리스 인 ■ 게르만 족 ■ 아라비아 어
 - 에스키모 인 ■ 발트 해
- ※ 다만, 화석 인류 명칭에 붙는 ‘-인(人)’은 접사로 보아 붙여 쓴다.
- 네안데르탈인 ■ 크로마뇽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접사 ‘-인, -족, -어, -해’에 관한 부가 정보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편수 자료의 설명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인, -족, -어’의 경우는 외래어 다음에서는 띄어 쓰거나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³¹⁾ ‘-해’의 경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다음에서는 항상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²⁾

-해18(海) ((고유 명사를 포함하는 일부 명사 뒤에 쓰여))

‘바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지중해/다도해/발트 해/에게 해.

※ ‘바다’의 뜻을 나타내는 ‘해’는 접미사이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다음에서는 띄어 쓴다.

(*밑줄, 강조 표시 필자)

따라서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앞선 편수 자료의 지침은 ‘인(人), 족(族), 어(語)’와 ‘해(海)’의 경우를 유형을 달리 하여 제시하여야 표준국어대사전 및 외래어 표기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1)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전에 ‘이탈리아^인(Italia人)’, ‘게르만^족(<독>German族)’, ‘아라비아^어(Arabia語)’와 같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에서는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 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소통성’ 영역 원인 분석

‘소통성’ 영역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크게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1.2.1.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단어에 대한 얇은 발음과 철자 등 ‘형태에 대한 지식’,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등 ‘의미에 대한 지식’, 연어 관계나 호응 등 ‘통사에 대한 지식’, 상황에 따른 사용의 제약이나 사용 효과에 대한 ‘화용에 대한 지식’으로 나뉜다(이영숙, 1997). ‘독자 수준에 부적합한 어휘 사용’은 ‘화용에 대한 지식’의 차원이며, 이중 피동과 이중 사동의 오·남용,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은 ‘의미에 대한 지식’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 ‘피동, 사동 표현의 부적절한 사용’은 1) 주어, 목적어와의 호응 관계상 부적절한 피동사가 쓰인 경우와 2) 단어 자체에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다’나 ‘-시키다’를 붙여 이중 피동/사동 형태를 사용한 경우로 분류된다. 이때 1)은 해당 단어의 ‘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2)는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사에 대한 지식’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므로, 여기에서는 2)에 해당하는 단어 의미에 대한 지식의 부족 차원에서 ‘-어지다’와 ‘-시키다’의 오·남용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독자 수준에 부적합한 어휘 사용

‘독자 수준에 부적합한 어휘의 사용’은 해당 어휘 사용의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로, 이는 ‘화용에 대한 지식’의 차원이다. 교과서가 사용되는 ‘학습’이라는 상황 맥락과, 교과서의 독자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단어의 선택에 관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사용하는 어휘의 수준은 점차 높아져야 하겠지만, 성인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단어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맥락을 통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임에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가 해당 어휘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단어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기가	대문 도로에서부터 현관까지 불필요한 단차 는 없는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해야 함.)	해당 내용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 내 점검 사항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대문’과 관련한 점검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단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거나 추론할 수 없을뿐더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해당 문맥에 맞는 ‘단차’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고등학생이 독자이므로, 독자의 이해 수준에 알맞은 용어나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체육	나의 협응성 을 측정해 보고, 협응성 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평가해 봅시다.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협응성’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협응성’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로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
07	중	상	역사	명주 장군 김순식이 귀부해 오자 .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명주 장군 김순식이 스스로 복종해 오자 ,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중학교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명사 ‘귀부(歸附)’란 스스로 와서 복종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학교 수준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내에서 추가 뜻풀이나 한자어 병기가 없어 난도는 더욱 높게 느껴진다. 중학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 써야 한다.
09	중	3	과학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기작 을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작용 원리 를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기작’은 독자 수준에 적합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 도움말을 통해 ‘기작’의 의미를 설명(뜻풀이)해주거나, 개선안과 같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한다.
07	초	3, 4	미술	자연에서 질감, 양감, 동세 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느껴 봅시다.	1안) 뜻풀이 제시 2안) 괄호에 ‘운동감’ 병기	‘동세(動勢)’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운동감’을 뜻하는 말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단어이다. 2007개정 초등학교 미술 5~6학년 교과서(천재교육, 6쪽)에서는 학습 용어로 ‘동세’를 제시하면서 괄호에 ‘운동감’을 병기했다. 따라서 ‘운동감’을 병기하거나 ‘동세’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중 피동, 이중 사동의 오·남용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미 해당 단어가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피동과 사동의 접사를 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혀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2009-중1-역사)”와 같은 문장에서는 피동사 ‘묻히다’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한번 더 붙은 불필요한 이중 피동 형태가 쓰였다[수정 후 문장: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힌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2009-중1-역사)"]. 이익섭(2005:273~274)에 의하면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는 양상은 군더더기 표현이지만, 의미 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성광수(1976)에서도 ‘보여지다’류는 피동사에 ‘-어지다’를 추가하여 ‘피동성의 강조’나 ‘과정성의 부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중 피동 형태가 모든 피동사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미 피동 접사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에 불필요하게 ‘-어지다’를 붙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더 우세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u>묻혀진</u>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u>묻힌/묻어진</u>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묻혀진’은 ‘묻다’의 피동사 ‘묻히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묻힌’ 또는 ‘묻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묻어진’으로 수정한다.
09	중	2	수학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u>담겨져</u> 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u>담겨</u> 있다.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사이므로 불필요하게 ‘-어지다’를 더 결합하지 않는다.

‘-시키다’ 역시 사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붙여 ‘촉진시키다, 고정시키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촉진하다, 고정하다’ 등은 각각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의 의미로, 굳이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고 ‘-하다’를 사용해 사동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시킵니다.(2009-초3-과학)”의 경우,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합니다.(2009-초3-과학)”와 같이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무분별하게 ‘-시키다’를 붙이기보다는, 단어의 본래 의미와 문맥을 살펴 필요한 경우에만 접사 ‘-시키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3	과학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u>고정시킵니다.</u>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u>고정합니다.</u>	'고정하다'가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수정한다.
09	중	2	기가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을 <u>연계시켜</u>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을 <u>연계하여</u> 소개하였다.	동사 ‘연계하다’는 ‘잇따라 매다’의 의미이기에 굳이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상 무리가 없다.
09	고		기가	세탁 후 완전히 <u>건조시켜</u>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며	세탁 후 완전히 <u>건조하여</u>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며	“‘건조’는 ‘물기나 습기가 말라서 없어짐. 또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앴.’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접사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든다. 실제로 동사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의 의미이다.
07	고		기가	기관의 마찰과 소음을 줄여 수명을 <u>연장시키기</u> 위한 장치로	기관의 마찰과 소음을 줄여 수명을 <u>연장하기</u> 위한 장치로	동사 ‘연장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의 의미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접사 ‘-시키다’를 통해 사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한다.

3)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

‘밀림 숲(2009-초5-국어)’,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2009-고등-생활)’, ‘크게 증폭한다(2009-초6-실과)’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전(驛前) 앞’과 같이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반복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단어가 지닌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초	5	국어	벌레잡이풀은 열대 <u>밀림 숲</u>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벌레잡이풀은 열대 <u>밀림</u>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밀림’과 ‘숲’이 연이어짐으로써 의미의 중복이 발생했다. ‘밀림’이 ‘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므로 ‘밀림 숲’을 ‘밀림’으로 수정한다.
09	고		생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u>깨끗하고 청정한</u> 에너지가 필요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u>깨끗하고 안전한</u> 에너지가 필요해.	‘청정하다’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형용사로 바로 앞의 ‘깨끗하다’와 의미가 일부 중복된다. 문맥을 고려하여 ‘청정한’을 ‘안전한’으로 수정한다.
09	초	6	실과	전기 신호를 <u>크게 증폭한다</u> .	전기 신호를 <u>증폭한다</u> .	동사 ‘증폭하다’는 ‘사물의 범위를 넓혀 크게 하다’의 뜻을 지녔다. 따라서 밑줄 친 ‘크게 증폭하다’는 ‘역전 앞’과 같이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증폭하다’ 하나만으로도 ‘크게 하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앞의 ‘크게’라는 부사어는 삭제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독자 수준에 부적합한 어휘의 사용	단어의 ‘화용(사용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 ‘-어지다’나 ‘-시키다’를 불필요하게 붙여 이중 피동/사동 형태를 사용한 경우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나열한 경우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1.2.2.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문장 구성 요소들의 결합 관계’인 ‘문장 구조’가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와 해당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수식 구조, 접속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호응 관계상 부적절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경우나 필수 성분이 생략된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수식 구조가 형성되거나 대등하지 않은 문법 층위가 병렬적으로 접속된 경우는 모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 부적절한 피동 표현 사용

교과서 문장 중에는 주어와 서술어 등의 호응 관계상 부적절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예들이 있었는데, 이는 문장의 서술어에 적합한 문장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2009-중3-국어)”와 같은 경우, 문장 맨 앞의 절에서 서술어 ‘회복되다’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가 되찾아지다’의 뜻으로 주어만을 필요로 하며 의미상 이때의 주어는 ‘기력’이다(“기력이 회복되다.”). 즉, 서술어 ‘회복되다’는 명사 ‘회복’에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되다’가 붙은 형태로 분석할 수 있으며, 위의 교과서 문장에서처럼 주어 ‘아버님께서’와 목적어 ‘기력을’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이는 선택한 서술어가 어떠한 문장 성분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⑤	국어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되시 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하 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목적어 다음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피동형 ‘회복되시는’을 능동형 ‘회복하시는’으로 수정한다.
09	중		체육	그 후 이들에게 사사받은 진수방, 김민자, 장추화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부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이들에게 사사한 진수방, 김민자, 장추화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부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사사(師事)하다’는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사받은’이 아니라 ‘사사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2) 필수 성분의 생략

‘문장 내 부적절한 생략’ 문제 중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생략해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2007-중1-수학)”에서는 ‘무엇’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지나가다’의 주어가 없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필수 성분이면서, 선행절의 주어와도 일치하지 않기에 분명히 밝혀 줘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④	국어	<u>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글을</u>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u>대상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을</u>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문장 성분(주어)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관점'이라는 주어를 첨가하도록 수정한다.
07	중	1	수학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 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u>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u>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 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u>기차가</u>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해당 문장 내에 '지나가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고, 이는 선행절의 주어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기차'라는 주어를 삽입한다.
07	중	3	국어	좋은 질문은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u>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u>	좋은 질문은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u>면담자가</u>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포절 중 후행절의 주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선행절의 주어인 '전문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후행절의 주어로 '면담자가'를 추가한다.
07	고		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끼주고 <u>헌신하려는</u>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끼주고 <u>서로에게 헌신하려는</u>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동사 '헌신하다'의 경우 '에/에게' 또는 '을 위하여'와 같은 부사어를 논항으로 갖는다. 따라서 앞선 목적어 '서로를'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헌신하려는'과 같이 '헌신하다'에 알맞은 논항을 갖추어 쓸 필요가 있다.

3)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수식 구조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한 문장 안에 여러 절이 이어지거나 안기면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성분 간 연결이나 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성분들을 적절히 배치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수식 구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의성의 양산이다. 수식어가 수식하는 대상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표현될 때 중의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친구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2007-초2-국어)”에서 ‘친구들과 함께’가 수식하는 대상이 ‘좋아하는’인지, ‘꾸며’인지, ‘열어 봅시다’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문장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2007-초2-국어)”와 같이, 해당 수식어가 수식하는 경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문장 배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수식어는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배열이 된다. 이러한 배열로도 중의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쉼표를 이용하여 수식의 범위를 제한해 줄 수 있다.

피수식어가 수식어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을 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빈번한 부족 간의 충돌(2007-초6-사회)’이 그 예이다. 수식어 ‘빈번한’은 ‘부족’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수식하는 것이기에 ‘부족 간의 빈번한 충돌’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6	사회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빈번한 부족 간³³⁾의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부족 간의 빈번한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부적절한 어순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07	초	5, 6	미술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라는 표현은 수식 구조의 문제로 부자연스럽다. 표현 의도에 따라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혹은 '급격한 산업화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정도로 수정한다.
07	초	2	국어(쓰기)	친구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수식하는 대상이 '꾸며'인지, '열어 봅시다'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진을 꾸미는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집단 활동인지 알기 어렵다. '친구들과 함께'를 후행절 앞으로 옮긴다.

33) '부족 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근거하면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나, '부부간, 형제간' 등의 예에 따라 '부족간'으로 붙여 쓸 필요성도 크다.

4) 대등하지 않은 문법 층위의 접속

문장 내에서 성분 등을 연결할 때 연결되는 대상 간의 문법적 층위가 같아야 한다. 문장 성분을 연결할 때는 문장은 문장과, 명사구는 명사구와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다(정희창, 2010:65). 이러한 문장의 접속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서로 다른 문법 층위의 구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2007-중3-과학)”,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2009-고등-기가)”가 그 예이다. 이들은 각각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2007-중3-과학)”,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2009-고등-기가)”와 같이 절-절, 동사구-동사구 또는 명사구-명사구 등 동일한 문법 층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사회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판매 등 과거와는 다른 유통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 는 등 과거와는 다른 유통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판매'라는 명사구를 동사구로 수정한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3	과학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선행절과 후행절이 명사구로 대등하게 이어지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선·후행절을 모두 명사구의 형식으로 만들어 접속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09	고		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밑줄 친 부분은 "자원의 절약"이라는 명사구와 "환경을 보존하는"이라는 동사의 관형형이 대등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서로 대등한 문법적 지위를 지닌 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중		미술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뒷부분을 앞부분과 문법적으로 대등한 명사구인 '앞으로의 발달 방향' 정도로 수정하고 '에 대해'를 붙인다.

1.2.3.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어 순화’란 ‘국어를 다듬는 일.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표준어로 또는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쓰는 것 따위’로 풀이된다. ‘국어’는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사상이 담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것이기에 ‘국어 순화’는 역사적으로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물론, 외래어가 우리말 어휘를 풍부히 하는 자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미 굳어져 흔히 쓰이고 쉽게 소통되는 외래어까지 우리말로 다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쉬운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도 남용되는 외래어·외국어 표현이나 어색한 번역투 표현이 교과서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외래어 신어가 25.9%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64%, 2003년에는 56.1%, 2004년에는 55.1%로 나타나는 등 신어 조사에서 점점 외래어의 비율이 급증하여 외래어가 신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노명희, 2009:5). 늘어나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할 수 있는 문제 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이정복, 2008:44).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수용하거나 편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 등을 외래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말의 영역과 위상을 축소하는 일이다. 박창원(2005)은 순화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민족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으로 좀 더 곱고 쉬운 우리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며 국어로 인정되지 못한 외국어,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꿀 수 있는 외래어, 일본식 한자어 혹은 일본식 외래어, 국적 불명의 외국어, 국어의 감각에 맞지 않는 신조어 등을 순화 대상으로 본 바 있다.

외래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순화의 대상이 되는 언어 요소에는 외래어 외에도 ‘번역투’가 있다. 번역투를 외국어와 모국어의 접촉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체의 하나로 이해하는 접근 방법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 이전에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해당 공동체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교과서에서 접하는 문장 표현은 평생 동안 기억에 저장되어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중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만큼 국어 교과서 등 교과서의 문장은 당연히 여러 가지 기준에서 ‘모범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김정우, 2003:147).

몇몇 교과서 문장들에서는 외래어 및 외국어가 남용된 문장, 영어와 일본어식의 번역투가 다수 보이는데, 이는 소통되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와 ‘교과서’라는 ‘교육적’ 역할 및 공적 위치의 문서에서 쓰여야 할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에는 일본어 번역투 표현(‘~において’)이라고 지적되는 표현 중 하나인 ‘~에 있어서’, ‘~적(的)’,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인 ‘굴삭기(掘索機), 개소(個所)’ 등이 있다. “현재와 같은 이차방정식의 풀이법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2007-중3-수학)”, “위의 왼쪽 사진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진이다.(2007-중2-도덕)” 등 불필요한 위치에 영어식 또는 일본어식 번역투를 그대로 사용하여 간결하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 경우와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활동의 큰 방향을 안내합니다.(2007-초6-음악)”와 같이 무생물이 행동주로 등장하는 부자연스러운 영어식 표현도 있었다.

교육 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9	중	1	역사	2. 조선 시대 왕 릉을 답사하고 각 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팸플릿 을 만들어 보자.	2. 조선 시대 왕 릉을 답사하고 각 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책자를 만들어 보자.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팸플릿'은 '책자' 등으로 순화하 여 수정한다.
07	중	3	기과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 있 어서 창의성을 적 극적으로 발휘하 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 에서 창의성을 적극적 으로 발휘하는 것 이다.	'~에 있어서'는 일어식 번역투 표 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07	중	3	사회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 적 수입 이다.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 수입 이다.	'~적(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어 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수정한다.
07	중	1	기과	굴삭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착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삭기'는 '굴착기(掘鑿機)'의 '뚫 을 착(鑿)'이라는 한자가 어려워져 일본 사람들이 '깎을 삭(索)'을 사 용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일본 식 어투이므로 원래의 '굴착기'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권고되는 바 이다.
09	중	2	기과	현재 전국적으로 360 개소 이상의 푸드뱅크가 설치 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60 군데 이상의 푸드뱅크가 설치 되어 운영 중이며	'개소(個所)'는 일어식 번역투 표 현이므로 '군데'로 순화하여 쓴다.

1.2.4.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은 그 논리적 연결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절과 절의 연결과 관련하여서도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2007-초5,6-미술)”[수정 후: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느끼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2009-초5-체육)”[수정 후: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2009-초5-체육)”]와 같이 그 의미상의 연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접속어나 지시어 등을 이용하여 문단 내 표면 결속(응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상	국어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u>그러나</u> 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u>또한</u> 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직업어의 특성으로서 '특수 용어로 전문성'과 '집단 내 친밀감 고양, 업무 이해 증진'은 역접 관계가 아닌데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특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아 '또한'으로 수정한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하	역사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선행 문장의 내용 뒤에 긍정적인 판단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순접의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접의 접속 부사로 수정한다.
07	고	상	국어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냉장고는 물건만 저장하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이러한 냉장고는 식품을 저장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주어로 '냉장고'가 사용되어 현재의 일반적 냉장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맥락상 주어는 선행 문장들에서 다루고 있는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이다. '냉장고' 앞에 '이러한'이라는 지시형용사를 추가한다.

1.3. ‘공공성’ 영역 원인 분석

‘공공성’ 영역에서 나타난 표현 문제의 원인은 객관성 측면, 비차별성 측면, 품위성 측면 각각에서 찾을 수 있다. 객관성 측면에서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원인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고정관념을 들 수 있고, 비차별성 측면에서는 인종·성별·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교과서 집필진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품위성 측면에서 교육용 텍스트라는 교과서 언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원인은 공공성 영역의 교과서 표현·표기 지침을 개발하는 데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1.3.1. 사회·문화적 고정관념 작용

교과서 표현·표기 문제 중 ‘공공성’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가족과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학습 활동(2007-초-1-국어)의 틀로 ‘아빠, 엄마’를 제시하여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를 부모-자녀 구성으로 전제한 것이나, 미국·일본과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2007-중-3-사회)한 것 등이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 작용한 사례이다.

전자의 경우, 한 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은 채 사회적 통념인 일반적인 가족의 구성 형태를 학습 활동의 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통계청(2016)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원은 1985년에 평균 4.1명에서 1990년에 3.7명, 1995년에 3.3명, 2000년에 3.1명, 2005년에 2.9명, 2010년에 2.7명, 2015년에는 2.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면서 대가족 구조를 벗어났으며, 송다영·성정현(2003)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족 형태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성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체 가구의 50%에 미치고 그 외에 한 부모 가족, 노인 단독(부부 혹은 독거) 가구, 독신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다. 특히 한 부모 가구의 비율 역시 1990년에 5.8%에서 2000년에 6.1%, 2005년에 6.6%, 2010년에 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과서상에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이 드러나, 그 외의 가족 형태는 ‘정상 가족’ 외의 범주로 분류되는 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평가 태도가 ‘선진국’이라는 명명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선진국’과 ‘비선진국(개발도상국)’을 이분화시키는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다. 박선미·우선영(2009: 22)에 따르면 실제로 제7차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각 국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거나 탐구 자료가 제시된 횟수는 총 1,004번이다. 이 중 100회 이상 언급된 국가는 미국이 187회(1위)로 전체 국가의 빈도의 18.6%를, 일본이 122회(2위)로 12.2%를 차지한다.

교과서에 기술된 다른 나라에 관한 내용은 한국인이 갖게 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과서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이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특정 국가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다(박선미, 2015: 558). 이처럼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한 편향된 내용 선정과 서술은 학생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박선미·우선영, 2009: 20), 교과서 내용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표 Ⅲ-1〉 빈도·내용의 긍정성 정도에 따른 분류(박선미·우선영, 2009: 23)

(밑줄과 굵은 표시는 인용자 표시)

빈도 기술 내용	10회 이상 국가	10회 미만 국가
긍정적 기술	<u>미국</u> , <u>일본</u>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타이완,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긍정적·부정적 기술의 혼재	독일, 중국, 멕시코,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쿠웨이트,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몽골, 칠레, 이집트
부정적 기술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아프가니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르완다, 수단, 알제리, 라이베리아, 앙골라, 콩고, 소말리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아이티,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은 교과서 집필진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환경이며, 교과 내용은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 측면에서의 원인은 보다 사려 깊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가치관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3.2.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

두 번째 원인은 교과서 집필진의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교과서에 나타난 인종·지역·성별·장애 등에 대한 편향된 표현이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것을, 집필진들이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그대로 실은 것이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교과서에 기술된 인종·지역·성별·장애 관련 차별적 표현은 ‘지배 계층’과 상반되는 의미로 ‘원주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원주민이 곧 빈곤층이라는 고정관념을 드러낸 경우(2007-고-사회), ‘아프리카’ 대륙을 ‘미지의 땅’이라고 표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2007-고-음악), ‘분홍색 옷차림’이 여자가 하기에는 자연스럽지만 성인 남성이 하기에는 어색하다고 기술하여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2009-중-미술),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난쟁이’를 사용한 경우(2007-고-1-수학) 등이 있다.

사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암묵적으로 차별성을 띠고 있음에도 언중들 사이에서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06)에서 정리한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은 <표 III-2>와 같다.

이 중 특히 성차별 언어 표현은 인종이나 장애, 국적, 직업 등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에 비해 보다 민감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래의 유형별 대표적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중 일부(나-②)를 보면, 단순히 성별 이분법만이 성차별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그에 맞지 않는 특정한 예외성을 강조하는 경우 역시 성차별 언어 표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분홍색 옷차림’의 어울림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차별적·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
(국립국어원, 2006: 28)

조사 이유		내용	보기
성	여성명칭	여성에게만 주어치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여성강조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의사, 여대생, 여기사
	신체강조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림, 처녀작, 처녀생식
	고정관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	시집가다, 바깥사돈
	여성비하	여성을 비하	계집애, 마누라
신체	장애비하	신체장애를 비하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이용	신체장애를 이용	병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행정
	외모비하	외모를 비하	뚱보, 쏸다리
	외모강조	불필요한 외모 강조 및 묘사	몸짱, 얼짱, 섹시, S라인
인종 국적 지역	인종비하	특정 인종을 비하 또는 차별	검둥이, 잡종, 유색인, 혼혈아
	자국중심	자국 중심적인 사고	교포/동포/재외국민, 코시안
	지역차별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	올라가다, 여의도 면적의...
직업 사회	직업비하	특정 직업을 비하	잡상인, 봉급쟁이, 노가다
	부적절지칭	부적절한 지칭	간호원, 청소부, 신용불량자
	출생비유	특정한 출생을 비하	사생아, 미숙아
객관성	가치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	진보/보수, 좌파/우파, 일류/이류
	지시대상	지시 대상 및 의미가 불분명	강남, 고전무용, 클래식음악
	과장자극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표현	초일류, 최악, 군단, 비밀병기

〈표 Ⅲ-3〉 유형별 대표적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92)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②-2 남자의 예외성

이러한 다양한 차별적 언어 표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고정관념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중심주의나 서구우월주의와 같은 가치관 및 사고방식이 차별적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한 교과서 집필진에 의해 특정 관점이나 주관적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서 집필진이 차별적 표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1.3.3. 교과서 언어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세 번째 원인은 교과서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학습의 실질적인 매개체인 교과서는 그 목적과 활용에 따라 일정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교과서 언어로서 부적합한 표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교과서란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특정 교과를 위한 교수·학습서로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일종의 예시적 교수·학습 자료’(고한중·송정미·강석진, 2010: 134)이다. 특히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국가 법령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 교재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다(신형욱·이재원, 2011: 138).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검정이나 선정 시 평가 기준에도 ‘표기·표현 및 편집’과 관련한 평가(심사) 기준이 개발되어 있다(이명준·윤영돈, 2013: 105).

〈표 Ⅲ-4〉 교과서 표기·표현 및 편집 관련 평가(심사) 기준

평가(심사) 영역	평가(심사) 기준
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와 편집 체계가 교과목의 특성에 부합하는가? 다양한 그래픽 자료(그림, 사진, 그래프, 지도 등)의 디자인이나 지면 활용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타자, 문법 오류, 비문 등은 없는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이 명료하고, 학습자 수준과 이해를 고려하여 표현하였는가?

이 중 특히 ‘교과서 언어 표현’이란, 교과서에 사용된 표기가 어문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단어 및 문장 등이 국어 문법에 맞는지 등을 판별하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가 다루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명준·윤영돈, 2013: 106).

그런데 이와 같은 교과서 언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대변’ 대신 교과서 언어에 어울리지 않는 ‘똥’이라는 저속한 표현(2007-중-2-과학)이 사용되거나, ‘열라’, ‘술까말’, ‘개절다’ 등 교수·학습의 예시로 부적합한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수·학습 언어 사용을 위해 교과서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서 편수 자료의 문제점 분석

교과서 집필 및 검토 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편수 지침과 함께 과목별 편수 용어를 싣고 있는 교과서 편수 자료는 교과서 편찬과 심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편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교과서 편수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교과서 내 표기·표현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교과서 편수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자료의 체계 및 구성 측면과 자료의 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체계 및 구성의 측면에서는 편수 자료의 발간 시기, 편찬 체계 및 편찬 형식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자료의 내용 측면에서는 일반 편수 지침에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일관된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있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교과별로 다른 용어를 제시하거나 수록된 편수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바와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2.1. 교과서 편수 자료의 체계 및 구성의 문제

2.1.1. 편찬 시기의 문제

교과서 편수 자료의 오류는 곧바로 교과서의 오류로 이어지므로 교과서 집필 및 검토 과정에서 편수 자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교부 등에서는 교과서용 편수 자료를 마련하여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제공해 왔다. 일찍이 교과서를 국정으로 개발하던 1950년대부터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용어를 통일하고, 편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여 편수 자료로 제작하였으며,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될 때마다 편수 자료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최초의 편수 자료는 1959년 9월 당시 문교부 편수국에서 발간한 인쇄물이다. 이 자료의 공식 명칭은 ‘제1집 편수 자료’였으나, 36쪽 분량의 소책자(4·6배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내용이 매우 간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77년 12월 ‘제7집 편수 자료’가 발간되기까지 수시로 내용이 추가되고 보완되었으나, 당시 편수 자료는 그 내용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교과를 포괄하지는 못하였다(교과서용 편수 자료, 2011: 3)고 밝히고 있다. 그 후 1986년 8월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편수 자료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4권으로 분책한 형태의 교과서용 편수 자료가 마련되었다. 이때 마련된 교과서용 편수 자료는 총론적 성격을 지닌 ‘제Ⅰ집’과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교과와 관련된 ‘제Ⅱ집’, 기초 과학 교과와 관련된 ‘제Ⅲ집’, 농업, 공업 등 응용과학과 관련된 ‘제Ⅳ집’으로 구성되었다. 편수 일반 지침과 교과별 편수 용어를 수록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던 중 1988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개정되고, 2000년에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새로이 고시되었으며, 1997년부터 7차 교육과정의 도입이 고시되면서 교과서용 편수 자료 역시 수정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 초에 ‘편수자료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2002년에 7차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 개발에 적용될 『교과서 편

수 자료』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 발간된 교과서 편수 자료는 이전의 발간 체제를 준용하여 4권 분책 체제를 따랐다. 구체적으로는 ‘제Ⅰ집’에 편수 일반 지침 및 검정 관련 사항을, ‘제Ⅱ집’에 한글 맞춤법 적용 준칙을 비롯하여 인문·사회 과학 교과와 예·체능 교과와 관련된 사항을, ‘제Ⅲ집’에 수학, 물리 등 기초 과학 관련 사항을, ‘제Ⅳ집’에 공학 단위, 공업 등 응용과학 관련 사항을 수록하였다. 또한 과목별로 필요한 외래 전문어를 교과 차원의 편수 용어로 수록하였던 이전까지와는 달리, 지명과 인명을 비롯한 외래어들을 국립국어원이 주도적으로 보완하고 개발하여 보다 종합적인 자료로서의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

2007년 8월에는 재판이 발행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검·인정 교과서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에 발간하였던 자료에서 몇몇 용어를 수정하고 추가하여 동일한 체계로 2007년 8월에 『교과서 편수 자료』의 2판을 발행하였다. 편수 자료의 목차나 구성은 2002년에 마련한 체계와 동일하였으며, 2007년 8월 이후에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필요가 생긴 용어들은 별도의 첨부 문서 형태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교과서용 편수 자료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역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2011년 11월과 2012년 8월에 발간되었다. 편수 일반 지침과 인문·사회 관련 사항, 응용과학 관련 사항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도하에 2011년 11월 발간되었고, 기초 과학 관련 사항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도하에 2012년 8월 발간되었다.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도로 마련된 교과서 편수 자료는 『교과서 편수 자료Ⅰ-편수 일반 편』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의 변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용 도서의 편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각종 법규,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관련 용어 해설, 교과용 도서의 표기·표현 사례 등을 다루었고, 『교과서 편수 자료Ⅱ-인문·사회 과학/체육·음악·미술 편』에서 한글 맞춤법, 학교 문법 용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국어의 가나 표기법 및 한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 사회,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편수 용어를 다루었다. 『교과서 편수 자료

Ⅲ-응용과학 편』에서는 공학 단위 및 공업, 정보, 농 생명 산업, 상업, 수산 해운, 가사 실업 교과서의 편수 용어를 수록하였다.³⁴⁾

2007년 발간된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 기초 과학 교과를 다룬 편수 자료(제Ⅲ집)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2년 8월에 별도로 발간하였다. 2010년부터 수학과 과학 영역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 및 인정 감수 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게 되면서 편수 자료 역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여 발간하게 된 것이다. 내용의 체계와 구성은 2007년 발간된 교과서 편수 자료 ‘제Ⅲ집’과 마찬가지로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다섯 교과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수학·과학 용어, 수학사 연표, 과학사 연표, 국제단위계, 화합물 명명법, 생명 과학 분류 체계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상의 교과서 편수 자료의 발간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교과서 편수 자료의 발간 역사

시기	내용
1959년 9월	문교부 편수국에서 소책자 형태로 편수 자료 ‘제1집’을 최초 발간하였다.
1977년 12월	‘제1집’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제7집’까지 발간하였으나, 자료의 내용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1986년 8월	종합적인 편수 자료 발간 계획이 확정되어 4권의 자료가 발간되었다. ‘제Ⅰ집’은 총론에 해당하며, ‘제Ⅱ집’은 인문·사회 과학 및 예·체능 관련 사항, ‘제Ⅲ집’은 기초 과학 관련 사항, ‘제Ⅳ집’은 응용과학 관련 사항을 수록하여 편찬하였다.
2002년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용 편수 자료의 초판을 발간하였다.
2007년 8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예고와 함께 2002년 발간하였던 편수 자료의 2판을 발간하였다. 단, 2007년 8월 이후에 수정되거나 추가된 편수 용어들은 관련 기관에 별도의 첨부 파일로 고시하였다.

34) 편수 자료 발간의 역사는 교육인적자원부(2007)가 발간한 『교과서 편수 자료 Ⅱ-1』의 ‘발간사’ 부분과 교육과정평가원(2011)이 발간한 『교과서 편수 자료(1)』의 ‘발간사’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시기	내용
2011년 11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예고와 함께 2007년 발간하였던 편수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때부터 발간의 주체가 구분되었다. 편수 일반, 인문·사회, 응용과학 관련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 과학 관련 사항은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담당하여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2012년 8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기초 과학 관련 편수 지침은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2년 8월에 발간하였다.

이상과 같이, 편수 자료의 발간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각 편수 자료들의 발간 시기가 새 교과서의 개발 시기에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및 편수 자료의 개발·발간 시기를 점검해 본 결과, 편수 자료가 공식적으로 배포된 시기가 새 교과서가 개발되던 시기보다 조금씩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7년 재판된 편수 자료의 경우에는 2007년 8월 이후에도 수시로 과목별 편수 용어들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는데, 별도의 첨부 파일 형식으로 관련 기관에 공시되어 수정된 용어의 배포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시기에는 영역별로 편수 자료 개발의 주체가 구분되면서, 교과별 편수 자료의 발간 시기가 많게는 수개월씩 차이 나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한 편수 일반 편, 인문·사회 편, 응용과학 편의 교과서 편수 자료는 2011년 11월에 발간되었지만,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한 기초 과학 편의 교과서 편수 자료는 2012년 8월에 최종 고시되었다.

원칙적으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는 2007년 8월에 발행된 교과서 편수 자료를 적용하여 개발 및 심의되어야 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는 2011년 11월과 2012년 8월에 발간한 편수 자료를 적용하여 개발 및 심의되어야 했다. 그러나 편수 자료의 발간이 늦어지면서 교과서 집필자들은 이전의 편수 자료에 의지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일단 교과서 개발을 마친 뒤에 심의 단계에 다다라야 하거나 혹은 심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 편수 자료의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인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해당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

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된 편수 자료의 내용을 반영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과서도 다수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 예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도산서원’, ‘백운동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과 같이 서원의 명칭과 ‘서원’을 모두 붙여서 표기하고 있으나, 2007년 8월 발간된 편수 자료의 한국사 영역에는 ‘도산 서원’, ‘소수 서원’, ‘백운동 서원’, ‘옥산 서원’과 같이 서원의 명칭과 ‘서원’을 모두 띄어 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편수 자료의 편찬 시기가 교과서 개발 시기보다 늦어져 발생한 문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편수 자료는 검·인정 교과서의 심의를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교과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기본 지침으로 작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편수 자료에 분명하게 실려 있는 용어를 두고 다른 표기형을 선택한 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부주의함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일부 오류들은 편수 자료가 교과서 개발 시기보다 앞서 발간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로 판단되었다.

2.1.2. 편찬 체계의 문제

교과서 표기·표현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편수 자료의 또 다른 문제로 편찬 체계를 꼽을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개발 시기에는 2002년에 발간된 편수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07년 재판된 편수 자료는 <표 III-6>과 같이 영역별로 분권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편수 자료의 구성은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Ⅲ-6〉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체계

제Ⅰ집	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 총론, 교과서에 관한 각종 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문헌, 교과서 목록, 편수 관련 일반 용어 해설, 검정과 관련된 내용
제Ⅱ집	한글 맞춤법 적용 준칙, 학교 문법 용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일본어 가나 표기, 한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 사회 및 체육, 음악, 미술 등과 관련된 내용
제Ⅲ집	기초 과학, 즉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에 관련된 내용
제Ⅳ집	응용과학, 즉 공학 단위,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컴퓨터 등에 관련된 내용

가장 최근에 발간된 편수 자료로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반영 교과서에 적용하기 위한 편수 자료는 교과별로 2011년과 2012년에 별도로 발간되었다. 편수 일반 지침 편, 인문·사회 과학 및 체육·음악·미술 편, 응용과학 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 8월 발간하였고, 기초 과학 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2년 8월 발간하였다. (각 편수 자료의 체계는 <표 Ⅲ-7>, <표 Ⅲ-8> 참고)

〈표 Ⅲ-7〉 2011년 발간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수 자료 체계

Ⅰ. 편수 일반 편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변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서의 편찬, 교과서에 관한 각종 법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용어 해설, 교과서의 표기·표현 사례와 관련된 내용
Ⅱ. 인문·사회 과학 / 체육·음악·미술 편	한글 맞춤법, 학교 문법 용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국어의 가나 표기법 및 한국사,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 체육,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된 내용
Ⅲ. 응용과학 편	공학 단위 및 공업, 정보, 농 생명 산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 실업 교과와 관련된 내용

〈표 Ⅲ-8〉 2012년 발간된 한국창의과학재단의 편수 자료 체계

Ⅰ. 기초 과학 편	기초 과학, 즉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에 관련된 내용
------------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편수 일반 지침 아래에 교과별 기본 편수 지침을 한 쪽 정도에 걸쳐 제시하고 이후 편수 용어를 목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두 편수 자료의 전체 체계가 동일함을 알 수 있으며, 발간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달라진 것 외에는 유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한국사	97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98
		I. 편수 용어	100
지 리	133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134
		I. 편수 용어	135
		II. 주요 산의 높이	164
세계사	181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182
		I. 편수 용어	184
일반 사회	199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	200
		I. 편수 용어	201

[그림 III-1]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 일부

V. 한국사	85
1. 편수 용어	88\
VI. 지리	111
1. 편수 용어	114
2. 주요 산의 높이	135
VII. 세계사	149
1. 편수 용어	152
VIII. 일반 사회	163
1. 편수 용어	166

[그림 III-2]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 일부

[그림 III-1]로 제시한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를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 등과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예외 없이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 아래 간단한 교과 특성을 소개하고, ‘용어 선정의 기본 방향’ 및 ‘용어 배열의 원칙’ 등을 한 쪽 정도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목차에서 ‘편수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표의 형식은 대체로 한글 표기 용어와 한자어, 외래어 정도를 병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과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이러한 체계는 [그림 III-2]의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목차는 더욱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용어 수정 및 보완의 방향이나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노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7년에 발간된 편수 자료와 동일하게 ‘편수 자료 발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용어 수정·보완의 방향’과 ‘용어 배열 항목’ 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표의 형식으로 편수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2012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간한 편수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이후 발간된 편수 자료들이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 비해 편집 양식이 보다 정돈되고 일부는 교과목 간에도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자들이 어떤 내용을 찾아보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편수 용어를 교과별, 영역별로 나열하고 있는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달리 비교적 상세한 목차 아래에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음악의 경우, 다른 과목들에 비해 편수 자료 내 체계가 매우 상세하다. 목차에서부터 일반 용어와 악기 용어, 악곡 용어 등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편수 용어 목록에서도 용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어의 한자어와 외국어, 병용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림 III-3]에서 확인할 수 있다.

X. 음악	231
1. 음악 일반 및 서양 음악	235
(1) 용어	235
(2) 악곡	248
(3) 악기	254
(4) 인명	257
(5) 매체 공학	262
2. 국악	264
(1) 용어	264
(2) 악절	277
(3) 악기	284
(4) 악곡	286

4. 악곡

용어	한자	외국어	비고[(병용)/→참조]
가락덜이			[가락제지(加樂除只)→영산회상]
가산 오광대	駕山五廣大		→탈놀이
가시리			
가인전목단	佳人剪牧丹		→정재
가짜 신선타령	—神仙—		
간장타령			

[그림 III-3]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음악 교과의 목차와 내용 일부

[그림 III-3]과 같이 음악 교과의 경우 ‘비고’ 항목을 설정하여 소괄호, 대괄호, 화살표 등의 기호로 용어 간의 관계와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소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 용어와 병용할 수 있는 용어를 나타내며, 빗금 뒤 화살표로 이어지는 내용은 집필자 및 심의자가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용어가 사용되는 영역이나 용어와 관련된 다른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필자 및 심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쓰인 문장 부호가 한글 맞춤법 및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하는 바와 달라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화살표(→)를 잘못된 말을 정정하여 이를 때 사용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발자옥’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1」 →

발자국’이라는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발자욱’이 ‘발자국’의 잘못된 표현이며, 따라서 ‘*발자욱’이 아닌 ‘발자국’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편수 자료의 음악 교과에서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참고할 만한 다른 용어나 분야를 기술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체육 교과의 경우에는 그 목차 체계가 음악 교과만큼 정밀하지는 않지만 용어를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편수 용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외국어,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문장 부호나 화살표와 같은 기호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칸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제시하고 있어, 기호의 해석에 따른 혼동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용어	한자	외국어	종목	비고
비대칭	非對稱	asymmetry	창작 무용	
비엔나 왈츠		Viennese waltz	민속 무용 등	
B 퀵		B quick	배구	
비탈 등반	—登攀	slab climbing	등산	
3루수	三壘手	third baseman	야구	삼루수
삼바		samba	댄스 스포츠	
3점 라인	三點一	three points line	농구	
3000m 장애물 경기	—障礙物競技	steeplechase	육상	3000m SC
3초 룰	三秒一	three seconds rule	농구	삼초 룰

[그림 III-4]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체육 교과의 내용 일부

그 외의 과목들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목차 구성상의 체계가 매우 단순하다. 대체로 [그림 III-5]의 세계사 교과에서처럼 영역이나 세부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사전식으로 편수 용어를 나열하고 있다.

1 편수 용어

용어	한자	외국어	비고(병용)
가격 혁명	價格革命	price revolution	
가리발디		Garibaldi, G.	
가마쿠라 막부	鎌倉幕府		
가톨릭 교회의 개혁	—教會—改革	Catholic reformation	
간다라 양식	—樣式	Gandhara style	
간디		Gandhi, M. K.	
갈릴레이		Galilei, G.	
갑골문	甲骨文		
개발 도상국	開發途上國	developing country	
거란(족)	契丹(族)		
게르만족	—族	Germanic peoples	
계몽사상	啓蒙思想	Enlightenment	
계몽 전제 군주	啓蒙專制君主	enlightened despots	
고르바초프		Gorbachyov, M. S.	
고증학	考證學		
공자	孔子		
공포 정치	恐怖政治	Terreur	
공행 (무역)	公行 (貿易)		

[그림 III-5]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 일부

위에서 예로 든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세계사라는 교과서의 특성으로 인해 편수 용어에서 다루어야 할 용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한 언어에서 비롯된 용어들을 정제하고 통일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편수 자료에서 제공하는 편수 용어의 목록을 살펴보면 용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매우 단순할뿐더러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영역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격 혁명’이나 ‘공포 정치’는 사태나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가리발디’나 ‘간디’, ‘고르바초프’, ‘갈릴레이’와 같은 용어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림 III-5]에서처럼 다양한 분야의 용어들을 단순히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는 인명이나 유물의 이름, 지명이나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러야 하는 세계사의 교과 특성을 일차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교과서 집필과 검토 단계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 또는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편수 자료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 외국 지명에 대한 내용

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 지명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교과 특성상 사회과부도나 세계사 및 지리 교과는 교과서 집필 시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 교과의 편수 자료에는 외국 지명을 따로 다루고 있는 바가 없다. 물론 기본적으로 1959년 편수 자료의 효시인 ‘제1집’이 발행된 이후 1960년 4월 ‘제2집’을 발행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실릴 외국어 지명 300여 개를 추려 ‘외국 지명 한글 표기’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1963년 7월에 발행된 ‘제4집’에서 ‘사회과 인명·지명 표기’를 수록하면서 외국 지명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고, 이후로도 편수 자료에는 외국 지명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오고 있지 않다.

편수 자료에서 외국 지명을 다룬다고 할 때 유의할 점은 외국 지명 역시 외래어임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용례집에 수록된 한글 표기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 용례집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외국 지명이 많고, 또 외래어 용례집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와도 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

일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사회과부도 교과서에서 캐나다 동북부에 위치한 배핀(Baffin)섬의 주도인 ‘Iqaluit’를 ‘이칼루이트’로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용례로 등재된 단어는 아니지만 ‘Iqaluit’의 발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칼루이트’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처럼 편수 자료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고, 사전이나 용례집에도 결정된 표기의 예가 없을 때에는 교과서 집필자가 직접 표기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교과서 표현·표기상의 오류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표기가 까다로운 지명에 한하여서라도 편수 자료에 수록하여 교과서 간 표기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일부 외국 지명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지명인데도 교과서에 잘못 표기되어 있어 문제적이다. 일례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 동유럽에 위치한 공화국 ‘벨라루스(Belarus)’를 ‘벨로루시(Belorus)’라고 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관습적으로 잘못 사용해 온 국가 명칭을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사회과부도 교과서에서

는 스리랑카의 수도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Sri Jayawardenepura Kotte)’를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스리랑카 입법 수도인 도시 ‘Sri Jayawardenepura Kotte’의 우리말 표기는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코테’이지만, 입법 수도가 현재의 도시로 이전되어 오기 전까지 관례적으로 ‘Kotte’에 해당하는 표기를 생략하고 ‘스리자야와르데네푸라’로 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과서 집필자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나 외래어 용례집의 사례를 확인해 보지 않고,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이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외래어 용례집의 사례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편집자의 부주의함으로 볼 수 있지만, 몇몇 표기하기 까다로운 지명이나 잘못된 관습이 존재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편수 자료로써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2.1.3. 편찬 형식의 문제

2007년 8월에 발행된 재판된 교과서 편수 자료는 2002년 초판 발간된 편수 자료와 체제 및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7차 교육과정 시기에 발간된 편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물론 2007년 8월 이후에도 일부 교과목들은 편수 용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수정되거나 추가된 용어들은 교과별 첨부 파일의 형식으로 관련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탑재되기도 하였다.³⁵⁾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된 내용은 대체로 신조어와 같은 새로운 용어나 뒤늦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 표기의 일관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의 제기가 있었던 용어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공된 자료의 형식은 특정 기관에서 일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한 것이기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내용이 어느 것인지 확인

35) 교과서 심의 과정이나 편수 자료 발간 과정에서 미처 보완되지 못한 문제들은 교과서가 출판된 이후에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출판된 교과서와 편수 자료 간의 상충 지점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건의하려고 해도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을 통해 해답을 얻고자 해도 편수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기 어렵고, 또 수학 및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관련 게시판을 마련해 두지 않아 이 또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각각의 파일이 마련된 시기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술한 바, 2011년 이후 발간된 편수 자료는 영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세 권(편수 일반 지침 편, 인문·사회 편, 응용과학 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 권으로 나누어 총 네 권으로 발간하였다. 이때에도 편수 자료는 편수 용어 목록을 텍스트로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집필자 및 심의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면, 예상 가능한 표기형을 하나씩 검색해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전식 오름차순에 따라 쉽게 찾을 수 있는 용어도 있지만, 두 단어 이상의 결합형이나 세부 종목별로 용어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 가능한 띄어쓰기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여 검색해야 하므로 교과서 집필자 및 심의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발간한 기초 과학 편의 편수 자료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편수 용어를 검색하려면, 검색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띄어쓰기 여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당 용어를 확인할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보존’, ‘역학적이에너지 보존’ 등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필요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용어는 관련 교과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분책되어 있는 파일을 모두 열어 검색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네안테르탈인’이라는 용어의 경우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인데, 편수 자료에서는 세계사 교과 영역으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 이러한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특정 교과서를 편찬하더라도 교과서 집필자는 몇몇 용어가 타 교과 영역의 편수 용어 목록에 수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기에, 현재와 같은 편찬 형식은 적극적인 활용에 다소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2. 교과서 편수 자료의 내용 문제

2.2.1. 지침의 구체성 문제

편수 용어의 경우 교과별로 확인하여 적용하게 되지만,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에서 활용되는 표기·표현의 일반 지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어 문제 외에 교과서 내 문장을 구성할 때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이나 문장 부호의 쓰임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다.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는 이러한 일반 지침이 다소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문장 부호의 쓰임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보다 정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1년 발간된 『교과서 편수 자료 I』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교과용 도서의 표기·표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표기 지침과 표현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기 사례’에서는 사이시옷, 접사, 어미 등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관련된 지침과 고유 명사와 합성 명사 등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와 관련된 지침들을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I-6]에서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접미사, 조사, 어미가 있는 의존 명사의 경우들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그 용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접미사, 조사, 어미가 있는 의존 명사

※ 의존 명사 ‘님, 차, 간(間)’은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존재하며, ‘대로, 만, 뿐’은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있고, ‘듯, 바, 뿐, 지’는 ‘-듯(이), -은바, -는바, -(으)르뿐더러, -지’와 같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어미가 있으므로 의존 명사를 접미사나 조사, 어미로 잘못 알고 붙여 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홍명순님은</u>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홍명순</u> <u>님은</u>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명순님은</u>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 <u>명순</u> <u>님은</u>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p>※ 주의: 선생님, 해님 (접미사)</p>
---	---

[그림 Ⅲ-6]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부록3. 표기 사례’의 일부

그러나 ‘표기 사례’의 지침이 매우 구체적인 것에 비해 ‘표현 사례’의 지침은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표현 사례’의 ‘7. 부적절한 접속’ 항목에서는 “앞뒤 문장의 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접속 부사나 어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대등 접속의 경우는 앞뒤 문장이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종속 접속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 시간의 순서, 가정과 추측 등 구문의 호응이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더해진 바 없이 [그림 Ⅲ-7]과 같이 세 가지 예시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 책 읽기,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해 모범적인 행동이나 생활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 책,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것을 통해 모범적인 행동이나 생활 모습을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 동물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의견이 가장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 동물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봅시다.

■ 고장의 높은 곳과 낮은 곳, 물이 흐르는 모습과 건물의 위치, 도로와 마을이 자리 잡은 곳 등

→ 고장의 높은 곳과 낮은 곳, 물이 흐르는 모습, 건물과 도로의 위치, 마을이 자리 잡은 곳 등

[그림 Ⅲ-7]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부록3. 표현 사례’의 일부

‘책 읽기’를 ‘책’으로 수정한 것은 의미적으로 대등한 접속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좋은지’를 ‘누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로 수정한 것을 ‘부적절한 접속’의 수정 사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는 모습과 건물의 위치’를 ‘물이 흐르는 모습, 건물의 위치’와 같이 문장 부호를 넣어 수정한 예시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편수 용어로 수록한 전문어에 숫자가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표기 원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서술할 때 편수 자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숫자가 들어간 편수 용어의 표기가 교과마다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편수 자료의 체계는 편수 지침 일반 편과 영역별 편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간의 지침이 다른 경우도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발간된 과학 교과서를 보면, ‘우리은하’를 붙여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를 확인해 보면, 편수 일반 편에서는 구(句)인데도 합성 명사로 잘못 파악하여 붙여 쓰는 사례로 ‘우리 은하’를 들고 있으며, 동일한 편수 자료의 기초 과학 편에서는 지구과학과의 전문 용어로 ‘우리은하’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용어에 대해 동일한 편수 자료에서 전혀 다른 표기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편수 용어로 수록한 전문어에 숫자가 들어갈 경우, 이에 대한 표기 원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서술할 때 편수 자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숫자가 들어간 편수 용어의 표기가 교과마다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사 교과에서 탑을 가리키는 전문어로 ‘감은사지 3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황룡사 9층 (목)탑’, ‘현화사 7층 석탑’ 등이 편수 용어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탑의 층수를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은사지 삼층 석탑’, ‘원각사지 십층 석탑’, ‘정림사지 오층 석탑’, ‘황룡사 구층 (목)탑’, ‘현화사 칠층 석탑’과 같이 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9산선문’이나 ‘9주 5소경’, ‘4·19 혁명’도 ‘구산선문’, ‘구주 오소경’, ‘사일구 혁명’과 같이 숫자

와 한글 표기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음악 교과에서도 ‘감3화음(減三和音)’, ‘감7화음(減七和音)’, ‘버금 3화음’, ‘버금 7화음’, ‘4중주’, ‘4중창’ 등에 대해,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삼화음’, ‘감칠화음’, ‘버금 삼화음’, ‘버금 칠화음’, ‘사중주’, ‘사중창’과 같이 표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교과의 경우 공통적으로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수의 한글 표기도 허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편수 자료의 미술 교과에서는 ‘경천사지 10층 석탑/경천사지 십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정림사지 오층 석탑’의 경우 숫자와 한글을 병용할 수 있게 하고, ‘불국사 3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숫자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탑의 명칭 외에 접사 ‘-층’이 붙는 ‘주칠 3층장’이나 ‘화각 3층 버선장’의 경우에도 숫자로만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체육 교과에서도 ‘일차성징(一次性徵)’, ‘이차성징(二次性徵)’, ‘일회박출량(一回搏出量)’의 경우에는 수를 나타내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모두 한글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숫자 병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1루수’, ‘2루수’, ‘3루수’, ‘7종 경기’ 등에 대하여서는 각각 ‘일루수’, ‘이루수’, ‘삼루수’, ‘칠종 경기’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마다 수를 포함하는 전문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 숫자 표기를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글 표기를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는 둘 다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구체적인 지침 없이 교과별 혹은 용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편수 용어의 표기형은 일차적으로 교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고 또 한자어를 어원으로 하는 등 동일한 환경에 있는 전문어의 경우, 그 표기형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편수 일반 지침에서 숫자를 포함하는 전문어 표기 시 표기형 선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2.2. 정보의 정확성 문제

편수 자료의 일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싣고 있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 특성상 일반 편수 용어 외에도 국내 주요 산들의 이름, 해당 산이 위치한 행정 구역 및 산의 높이에 대한 정보도 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일부 산의 위치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교과서 집필 및 검토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지리 교과서의 ‘주요 산의 위치’ 부분에서 ‘지리산’을 찾아보면 그 위치가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리산은 경상남도의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전라남도의 구례군, 전라북도의 남원군에 이르기까지 3개 도, 5개 군에 걸쳐 있다. ‘설악산’ 역시 그 위치가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에 걸쳐 있어 분포 지역이 더욱 넓다. 주요 산을 편수 용어로 삼고 그 높이나 위치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지리 교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행정 구역에 따른 내용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사례로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지리 교과 영역에는 이미 2010년 7월에 개편된 행정 구역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이 통합되어 ‘창원시’가 되었다. 이전의 창원시와 구별하기 위해 ‘통합 창원시’라고 칭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나 공식 문서에서 ‘창원시’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는 경상남도 진해시(136쪽), ‘경상남도 마산시’(144쪽)라는 행정 구역 표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 수정된 정보가 미처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광덕산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699	廣德山
광려산	경상남도 마산시, 함안군	723	
구곡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434	
군자산	충청북도 괴산군	948	
굴암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663	
금계산	충청남도 공주시	575	
구룡산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봉화군	1,344	九龍山
구룡산	경상남도 창원시	432	九龍山
구룡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284	九龍山

[그림 Ⅲ-8]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 중 지리 교과의 내용 일부

2.2.3. 표준국어대사전과 내용 불일치 문제

1) 서로 다른 띄어쓰기형

‘말하는이’나 ‘듣는이’라는 표현은 국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로 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는 모두 붙여 쓰고 있고, 2007년 발간한 편수 자료에서도 붙여 쓰도록 하였다. 이들 표기는 편수 자료의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구(句)’ 구성의 표기형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교과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마치 전문어인 것처럼 다루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읽는 이’의 경우는 ‘말하는이’, ‘듣는이’와 달리 띄어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일관된 표기안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초	3	국어 (듣말 쓰)	말하는이	-	-
07	초	3	국어 (듣말 쓰)	듣는이	-	-

한편 2011년 발간된 편수 자료의 세계사 교과에는 ‘가톨릭 교회의 개혁’이라는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를 포함한 구 단위의 구성까지도 편수 용어로 제시한 것으로 독특한 사례이긴 하지만, ‘가톨릭교회’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는 것으로 등재된 단어이므로, 편수 용어 역시 이를 고려하여 ‘가톨릭교회의 개혁’과 같이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로 다른 표기형

편수 자료에 제시된 단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 간 표기형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과학 교과에서의 ‘스타이로폼’, ‘에스트로젠’, ‘안드로젠’, 한국사 교과에서의 ‘원각사지 십층 석탑’, ‘경천사 십층 석탑’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중	1	과학	<u>스타이로폼</u>	-	-
07	중	3	과학	여성 호르몬인 <u>에스트로젠</u> 이 분비되면 가슴이 커지고 몸의 굴곡이 나타난다.	-	-
07	고		한국사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십층석탑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십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십층석탑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십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 ‘원각사지 십층 석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원각사지 십층 석탑’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 이전의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표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십층 석탑’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2)→부록 452번 참고

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교과	원문	개선안	근거
07	고		한국사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u>1)원각사지 십층석탑</u> 은 고려 후기 <u>2)경천사지 십층석탑</u>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u>1)원각사지 십층 석탑</u> 은 고려 후기 <u>2)경천사지 십층 석탑</u>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경천사지 십층 석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국어사전 및 편수 자료에서 ‘석탑’을 앞말에 띄어쓰고 있으므로, ‘십층 석탑’으로 수정한다. 1)→부록 451번 참고

과학 교과의 ‘스타이로폼’의 경우,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와 2012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 모두 ‘스타이로폼’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스티로폼’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 ‘에스트로젠’의 경우,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어가 모두 어문 규범에 어긋나 있다. 2007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는 ‘에스트로젠’이었다가 2012년 발간된 편수 자료에서는 ‘에스트로젠’으로 수정되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에스트로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발음을 고려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에스트로젠’으로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표기 유형인 ‘androgen[ændrədʒən]’의 경우, 편수 자료에서는 ‘안드로젠’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안드로젠’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구성의 외래어에 대해 편수 자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표기형을 선택하고, 또 표준국어대사전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서로 다른 표기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 교과의 ‘원각사지 십층 석탑’, ‘경천사 십층 석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인데도 특정 교과서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정 교과서에서 ‘경천사’를 ‘경천사지’로 표기한 것은 ‘원각사지’와 동일한 구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정해진 표기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과서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져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경천사 십층 석탑’의 풀이가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의 전 이

름”인 점, 또한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점을 고려하면 표준국어대사전 진술의 일관성이나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수 자료 내적 일관성 및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일한 발음 환경에 있는 외래어는 편수 자료 내에서만이라도 동일한 표기형으로 통일하여 수록할 필요가 있다.

Ⅳ. 교과서 표현 · 표기 개선 방향

1. 교과서 표현 · 표기 지침

1.1. ‘정확성’ 영역의 표현 · 표기 지침

1) 어형(語形) 확인: 어문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해 정확한 표기 형태를 판단한다.

- ▶ 정확한 표기를 위해 4대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한다. 특히 한글 맞춤법은 소리에 관한 표기 규정이나 형태에 관한 표기 규정 등 정확한 어형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규칙과 사례를 제공한다. 다만 규정이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기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해 어형을 판단하는 습관을 지닌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①. 두음 법칙에 관한 표기

-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제5절 두음 법칙(제10항~제12항)’에서 표기 규칙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서도 개별 어형을 판단할 수 있다.

☞ 각 루 사이의 거리 → 각 누 사이의 거리 (2007-중3-수학)

- ➡ 한자음 ‘라, 루’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누’로 적어야 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당 의미의 표제어로 ‘루’가 아닌 ‘누(壘)’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확한 어형을 판단할 수 있다.

1)-②. 어간과 어미 및 활용에 관한 표기

- ▶ 한글 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제2절 어간과 어미’에서는 용언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관한 규칙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제5절 준말’에서는 준말의 형태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낡고 혈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낡고 헌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9-중6-국어)

- ➔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는 어간의 끝 'ㄴ'이 줄어질 적의 활용 형태를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헐다’의 활용형 역시 ‘혈은’이 아니라 ‘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본형 ‘헐다’를 검색하면 용례에 “단층집을 헌 자리에…”와 같은 문장이 있어 활용형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되요.

→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돼요. (2007-중2-도덕)

- ➔ 한글 맞춤법 제35항의 [붙임 2]에서는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어드는 경우를 다루어 그 본말과 준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되다’에 대한 설명 하단에 언중이 혼란을 겪는 활용형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되어’, ‘되어라’, ‘되었다’에서 ‘되-’와 ‘-어’가 결합하여 줄면 ‘돼-’가 되어 각각 ‘돼’, ‘돼라’, ‘됐다’가 된다.(하략)

예)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에요.

→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예요. (2007-중1-기가)

예) 왜 아니예요? → 왜 아니예요? (2007-중1-도덕)

- ➔ 표준어 규정 제26항에서는 ‘이예요/이어요’를 복수 표준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의 준말은 ‘예요/여요’이다. 그런데 이들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

다. 즉 ‘이에요/이에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예요/-어요’가 어미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보를 활용하면 ‘거’와 같은 체언이나, ‘아니다’와 같은 용언에 ‘이에요/이에요’나 ‘-예요/-어요’가 결합할 때의 형태를 판단할 수 있다.

◆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

- 받침 있는 체언 + ‘이에요/이에요’: 책이에요/책이에요
- 받침 없는 체언 + ‘예요/여요’: 거예요/거여요

◆ 용언과 결합하는 경우

- 용언 어간 + ‘-예요/-어요’: 아니예요(아녜요)/아니어요(아녀요)

1)-㉓. 사이시옷에 관한 표기

- ▶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어형을 확인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예 후춧통 → 후추통 (2007-중1-과학)³⁶⁾

예 소숫점 → 소수점 (2007-중3-과학)

예 나무가지 → 나뭇가지 (2007-중1-기)

예 갯수 → 개수 (2007-초6-음악)

- ➡ 이들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검색을 통해 정확한 어형을 파악할 수 있다.³⁷⁾ 또한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판단 조건 형식으로 다시 표상해 보면, 해당 표기 형태를 취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36) ‘후추통’이 사전 미등재어이고, 편수 자료나 사전 편찬 지침 등에서 합성어와 구로 구별되는 예로 ‘통(桶)’을 제시하고 있으나 ‘후추 통’으로 띄어 써 구로 보게 함도 문제이므로 ‘가스통, 설거지통, 물통’ 등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추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37) 단, ‘뒷발가락(2007-중1-과학)’과 같은 사례는 사전 미등재어인데 ‘뒷발’이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뒷발가락’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해야 한다.

- ㉠ ‘합성어’에만 적는다.
- ㉡ 구성 요소(어근)에 ‘순우리말’이 있어야 하고, 외래어가 포함되면 안 된다. 예외)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 ㉢ 합성되면서 다음과 같이 ‘발음이 변해야’ 한다: 뒷말(뒤 어근)이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또는 ‘ㄴㄴ’ 소리가 삽입되어야 한다.

조건별 판단 과정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해님’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소수점(小數點)’, ‘개수(個數)’에는 순우리말이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피자 집’은 구일뿐더러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 ‘나뭇가지’는 합성되면서 ‘가지’가 [까지]로, 즉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후추통’은 ‘통’이 [퉁], 즉 거센소리 그대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국어사전에 등재해야 한다.

2) 띄어쓰기: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2)-①.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어 및 품사 정보를 활용한다.

- ▶ 한글 맞춤법 제2항과 제41항을 참고하면, 각 단어는 띄어 쓰되 단어에 속하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판단 단계를 거치게 된다.

- ㉠ 해당 표현이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인가 구인가를 판단한다.
- ㉡ 해당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붙여 쓰는 경우(조사, 접사, 어미가 결합한 표현의 경우 등)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제시된 품사 정보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품사가 ‘의존 명사’라면 이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하며, 앞말과 붙여 적으면 안 된다. ‘관형사’ 역시 하나의 단어이므로 뒷말에 붙여 적지 않는다. 품사가 ‘조사’라면 앞말에 붙여 적어야 하며, ‘접사’와 ‘어미’는 한 단어가 아니기에 붙여 적어야 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예) 축구시합 → 축구 시합 (2009-중1-국어)

- ➡ ㉠ 사전에 ‘축구시합’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예)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2007-고1-수학)

- ➡ ㉠ 사전에 ‘첫째항’이 ‘첫째^항’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 ‘둘째 항’, ‘셋째항’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 ‘항’의 품사가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되지.” 하고 → “...되지.” 하고 (2009-중2-기하)

- ➡ ㉠ 사전에 등재된 조사 ‘하고’와 의미가 다르며, ㉢ 의미가 일치하는 ‘하다’는 동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살수 있게 → 살 수 있게 (2007-중1-사회)

- ➡ ㉠ 사전에 ‘수있다’, ‘-르수’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한가족 → 한 가족 (2007-초3-도덕)

- ➡ ㉠ 사전에 ‘한가족’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 이때의 ‘한’은 접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왕초보자 → 왕초보자 (2007-중3-국어)

- ➡ ㉠ 사전에 ‘왕초보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 이때의 ‘왕-’이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예) 후방으로 까지 → 후방으로까지 (2007-중3-과학)

- ➡ ㉠ 사전에 ‘까지’는 등재되어 있지만, ㉢ 그 품사가 ‘조사’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쓰므로, ‘까지’를 ‘으로’에 붙여 쓴다.

※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의존 명사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려워 판단 시 주의를 요한다.

예) 알게 뭐야 → 알 게 뭐야 (2007-초5-도덕)

예) 잘 전해야 할텐데 → 잘 전해야 할 텐데 (2009-중1-기가)

- ➔ ‘게’는 ‘것이’의 준말이므로 ‘것’의 품사를 판단해야 한다.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므로 ‘터’의 품사를 판단해야 한다. 이들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지 않는다.

2)-㉔. 유사한 형태가 혼란스러울 경우 의미나 통사 구성을 식별하여 띄어쓰기를 판단한다.

- ▶ 명사(의존 명사)와 조사, 의존 명사와 어미, 의존 명사와 접사, 형용사의 활용형과 조사, 동사와 접사, 구와 복합어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를 취해 띄어쓰기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발견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명사와 조사의 혼동

◆ 명사

예) 이밖에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 이 밖에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2009-중2-기가)

◆ 조사

예) 10% 밖에 살지 않는 → 10%밖에 살지 않는(2007-고-음악)

➔ 명사 ‘밖’은 외의 뜻을 지니며, 조사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지닌다. ‘밖에’ 대신 ‘말고는’을 넣어 보면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의존 명사(보조 형용사)

예) 십 년 만의 귀국(표준국어대사전)

예) 그럴 만 한 것이 → 그럴 만한 것이 (2007-초5-도덕)

◆ 조사

예) 조금 만 더 하면 → 조금만 더 하면 (2009-중2-기가)

예) 동전만 한 원 → 동전만 한 원 (2007-중3-과학)

➔ 의존 명사 ‘만’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하다’와 결합하여 보조 형용사 ‘만하다’로 쓰인다. 다음으로 조사 ‘만’은 한정하거나 강조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며, “집채만 한 파도”와 같이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 의존 명사

예) 계획한대로 → 계획한 대로 (2009-초5~6-미술)

◆ 조사

예) 처벌하려면 벌대로 해라. (표준국어대사전)

➔ 의존 명사 ‘대로’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지만, 조사 ‘대로’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인다.

※ 의존 명사와 어미의 혼동

◆ 의존 명사

예) 발표하는데 필요한 → 발표하는 데 필요한 (2009-고2-국어)

◆ 어미

예)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 데,
→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데,
(2009-고-사회)

➡ 의존 명사 ‘데’는 장소, 것, 경우 등의 뜻을 나타낸다. 연결 어미 ‘-ㄴ데’와 구별을 위해 격 조사 ‘에’ 등을 결합해 보아 판단할 수 있다.

◆ 의존 명사

예) 알게 뭐야 → 알 게 뭐야 (2007-초5-도덕)

◆ 어미

예) 착하게 살 게요. → 착하게 살게요 (2007-중1-도덕)

➡ 의존 명사 ‘것(거)’에 주격 조사가 붙은 ‘게’와,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게’를 혼동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의존 명사 ‘것’으로 착각한 사례로는 “*약한 걸(2007-중2-체육)”, “*되는 걸요(2009-초3-도덕)”, “*잘해 드릴 걸(2007-고-기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어미 ‘-ㄴ걸’, ‘-는걸’, ‘-ㄴ걸’이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적어야 한다.

◆ 의존 명사

예) 백열전구를 발명한지 8년

→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8년 (2009-중3-과학)

◆ 어미

예) 무엇이 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표준국어대사전)

➡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므로 어미 ‘-는지’와 변별할 수 있다.

※ 의존 명사와 접사의 혼동

◆ 의존 명사

예) 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 → 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 (2009-중2-기가)

◆ 접사

예) 일주일 간 텔레비전 안 보기 → 일주일간 텔레비전 안 보기

(2007-초6-국어)

- ➔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나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의존 명사로 띄어 쓰고,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단,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 ‘자매간’ 등은 ‘관계’의 의미를 지니지만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이므로 붙여 적는다.

※ 형용사와 조사의 혼동

◆ 형용사의 활용형

예) 품성같은 내면적인 모습 → 품성 같은 내면적인 모습 (2007-중1-도덕)

◆ 조사

예)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표준국어대사전)

- ➔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같은’은 형용사 ‘같다’의 활용형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유사한 형태의 ‘같이’는 부사나 조사로 쓰이는데, 조사로 쓰일 경우 앞말에 붙여 적는다.

※ 동사와 접사의 혼동

◆ 동사

예) 장모님, 막냇사위가 올리는 절 받으세요. (표준국어대사전)

◆ 접사

예) 이런 가치를 인정 받아 →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2007-중3-국어)

- ➔ 받는 행위를 뜻할 때에는 동사 ‘받다’를 써서 앞말과 띄어 쓰지만,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받다’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적는다. ‘인정받

다’ 외에도 동사 ‘받다’와 접사 ‘-받다’를 혼동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사 ‘-받다’의 식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다’-‘받다’ 관계와 상관없이, ‘받다’ 앞에 구체적인 사물이 올 때는 앞말과 띄어 쓰고, 그 외의 추상적인 단어가 앞에 올 때는 붙여 쓴다. 예)고통받다(O) /눈총받다(O) /버림받다(O) /사랑받다(O) /미움받다(O) 등.

◆ 동사

예)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다. (표준국어대사전)

◆ 접사

예) 이 수수께끼를 말씀드리자, → 이 수수께끼를 말씀드리자,
(2007-중1-도덕)

➔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드리다’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 이 외에도 접사 ‘-드리다’를 동사로 착각하여 띄어 쓴 사례로는 “*부탁 드립니다(2007-중2-기가)”, “*설명 드리게(2009-중4-국어)”, “*감사 드려요(2007-중1-도덕)” 등을 들 수 있다.

◆ 동사

예) 부모됨의 의미 → 부모 됨의 의미 (2007-고-기가)

◆ 접사

예) 식물성 기름이 고체화 될 때 → 식물성 기름이 고체화될 때
(2007-중1-기가)

➔ 접사 ‘-되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부모 됨’은 피동의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되다’가 쓰인 것이므로 띄어 쓴다.

※ 구와 복합어의 혼동

◆ 구

예) 게임을 못하게 되면 → 게임을 못 하게 되면 (2009-중1-기가)

예) 절대 안됨. → 절대 안 됨. (2007-중2-체육)

◆ 복합어

예) 행복을 느끼지 못 하며 →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2007-고-기가)

예) 의사소통이 잘 된다. → 의사소통이 잘된다. (2007-중2-기가)

➔ 부사 ‘못’, ‘안’, ‘잘’이 ‘하다’나 ‘되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와, 한 단어인 복합어 ‘못하다’, ‘못되다’, ‘안되다’, ‘잘하다’, ‘잘되다’가 쓰이는 경우를 변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복합어가 된 단어들의 의미와 자신이 표현할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잘되다’는 붙여 적는다. 또한 통사적 구성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장형 부정 시 사용되는 ‘-지 못하다’는 보조 용언 ‘못하다’가 쓰인 것이므로 ‘못’과 ‘하다’를 띄지 않는다.

◆ 구

예) 정씨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 정 씨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2007-중1-도덕)

◆ 복합어

예) 최씨 문중 (표준국어대사전)

➔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 ‘씨’는 의존 명사이므로 성(姓)이나 이름에 붙여 쓰지 않고, ‘그 성씨 자체’나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씨’가 결합한 복합어의 경우 성(姓)에 붙여 쓴다.

◆ 구

예) 어떻게 누나가 연주하는 걸 한번 듣고 따라 할 수 있지?

→ 어떻게 누나가 연주하는 걸 한 번 듣고 따라 할 수 있지?

(2009-초3~4-음악)

◆ 복합어

예) 꼭 한 번 달에 가고 싶다. → 꼭 한번 달에 가고 싶다. (2009-초6-국어)

➔ 위 사례의 복합어 ‘한번’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붙여 적는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표제어 ‘한번’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식별 방식을 제시하였다.

※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한 번 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쓰지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도전하자.”라는 문장에서 ‘한 번’은 ‘두 번’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므로 ‘한 번’으로 띄어 쓴다.

2)-㉓.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위와 같은 표기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단 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수 자료의 편수 일반 편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교과서 감수 시에는 띄어 쓰도록 한다.(밑줄 연구자)”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교과서 편찬 시 편수 자료의 지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겨내고 → 이겨 내고 (2009-중2-도덕)

예) 넘쳐나고 → 넘쳐 나고 (2009-중1-도덕)

예) 변해버렸고 → 변해 버렸고 (2009-중2-사회)

➡ 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쓴 사례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럴만한 → 그럴 만한 (2009-중2-도덕)

예) 속상해하실까봐 → 속상해하실까 봐 (2007-중2-기)

예) 방블케한 → 방블케 한 (2009-초6-도덕)

➡ 특히 이러한 경우는 보조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워 잘못된 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각각 보조 용언 ‘만하다’, ‘보다’, ‘하다’가 쓰인 구문인데, ‘-을 만하다’, ‘-을까 봐’, ‘-게 하다’ 구성으로 쓰였다. 보조 용언 ‘만하다’와 유사한 것들로 ‘듯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하다’, ‘양하다’, ‘체하다’, ‘듯싶다’, ‘뻔하다’ 등을 들 수 있다.

- ▶ 위와 같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이들이 결합한 합성 용언이 있어 사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물어 본다면

→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물어본다면 (2007-초4-도덕)

➡ ‘물어보다’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묻다.”라는 뜻의 합성 용언이므로 붙여 적는다. 유사한 사례로 “*되돌아 본다(2009-중2-기)”, “*주고 받으며(2007-초4-도덕)”를 들 수 있다. 다만 합성 용언이 존재하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가 자신이 표현할 의미와 일치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해보다’는 “대들어 맞겨루거나 싸우다.”라는 뜻일 때 붙여 적으나, “*공부를 해봅시다.(2007-초4-도덕)”와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 ▶ 그런데 일부 보조 동사의 경우 본용언에 붙여 적어야 하여 주의를 요한다.
 해당 보조 동사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이는 ‘지다’와,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하다’이다.

예) 만들어 질 거야 → 만들어질 거야 (2007-중3-과학)

예) 불안해 하고 있다 → 불안해하고 있다 (2007-중1-도덕)

- ➡ ‘-어지다’ 구성의 보조 동사 ‘지다’의 경우, 한글 맞춤법 제47항 해설³⁸⁾ 및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띄어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만들어 지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나 ‘허용’ 표기가 아니라 잘못된 표기이다.
- ➡ 다음으로 ‘-어하다’ 구성의 보조 동사 ‘하다’의 경우, 한글 맞춤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띄어쓰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⁹⁾ 형용사 뒤의 ‘-어하다’를 잘못 띄어 쓴 사례로 “*행복해 했고(2007-중2-도덕)”, “*어리둥절해 한다(2007-중2-도덕)”, “*힘들어 하는(2007-고-기가)” 등을 더 들 수 있다.
- ➡ 다만 보조 용언 띄어쓰기의 일반 규칙에 어긋나는 이들 ‘지다’와 ‘하다’는, 본용언의 품사나 구성에 따라 다시 붙여쓰기에 차이를 보여 주의를 요한다. 즉 ‘-어지다’ 구성의 ‘지다’는 본용언이 동사, 형용사, 구일 경우에 모두 붙여 적으나, ‘-어하다’ 구성의 ‘하다’는 본용언이 형용사일 경우에만 붙여 적는다.⁴⁰⁾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결합 품사 정보와 용례,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의 답변⁴¹⁾ 등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용언이 형용사	본용언이 동사	본용언이 구
‘-아/어’	붙여서 씀.	붙여서 씀.	붙여서 씀.
+ 지다	예) 따뜻해지다	예) 만들어지다	예) 보고 싶어지다
‘-아/어’	붙여서 씀.	띄어서 씀.	띄어서 씀.
+ 하다	예) 서글퍼하다	예) 당황해 하다	예) 보고 싶어 하다

3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7항 해설에서 ‘지다(피동)’의 ‘원칙’ 표기에 대한 예로 ‘이루어진다, 써진다, 예뻐진다’를 들며, 그에 대한 ‘허용’ 표기는 공란으로 두었다. 다른 보조 용언의 경우 ‘원칙’으로 띄어 쓴 예를, ‘허용’으로 붙여 쓴 예를 제시하였기에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3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붙여 쓰는 형태와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표제어 ‘하다01’ [Ⅱ]「보조동사」 「8」(「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말. 위 손녀를 예뻐하다/친구를 좋아하다/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다/결혼 생활을 행복해하다/새 직장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2)-④. 기타 혼동 사례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편수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사전 미등재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

- ▶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표현의 경우 복합어가 아니라 구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겠으나,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상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의 품사만을 확인(예: 접사인지 명사인지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의 ‘문법 정보’와 ‘용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⁴²⁾ 표준국어대사전의 명사 ‘놀이’ 항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학교놀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놀이’가 “모방을 하거나 흥내를 내면서 노는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쓰인다는 문법 정보에 따라 ‘학교놀이’와 같이 쓴다.

「3」 일정한 규칙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

㉠ 공깃돌 놀이/연 놀이/제기 놀이/주사위 놀이/트럼프 놀이/화투 놀이/그 애들은 불빛이 비치는 마당에서 땅뽕기 놀이를 고향을 지르면서 오가고 있었다. <최인호, 미개인>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모방을 하거나 흥내를 내면서 노는 일’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시장놀이/병원놀이/엄마놀이/학교놀이. (밀줄 연구자)

4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Ⅰ》의 176쪽에서 제시한 다음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8.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다'와 '하다'는 본용언과 붙여 쓴다.
예) (중략) 이루어진다, 써진다, 예쁘진다, 예쁘하다, 행복해하다, 부끄러워하다
9. 띄어 쓰는 '-아/어 하다' 보조 용언 구성은 구에 통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1) 마음에 들어 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구에 '-어 하다'가 통합되었다. (하락)

41)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0&qna_seq=109098&pageIndex=1

4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Ⅰ》의 212~215쪽, 09 개정 교육과정 편수 자료 186~188쪽에 관련 목록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각 자료의 목록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정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 판단에 어려움을 준다. (예: ‘책’의 경우 편찬 지침의 목록에는 없으나 편수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고, 사전 문법 정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서적’임을 나타내는 말. ㉠ 국어책/요리책/해설책”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 ‘종이책’과 ‘종이 책’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종이 책’이라는 표기가 정확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우리말샘에서는 ‘종이책’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예) 레몬즙 → 레몬즙 (2009-중3-과학)

예) 커피값 → 커피값 (2007-고-기가)

예) 현대극 및 서양극 → 현대극 및 서양극 (2007-고하-국어)

- ➔ ‘레몬즙’, ‘커피값’, ‘서양극’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즙’, ‘값’, ‘극’ 항목에서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등의 문법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접사 연속체의 경우

예) 출판업계 → 출판업계 (2007-고하-국어)

예) 장식용품 → 장식용품 (2007-중-미술)

- ➔ 2009 교육과정의 편수 자료에서는 “※ ‘무허가 업소’, ‘경쟁 업체’: 이 말들은 각각 ‘업소’가 ‘무허가’라는 뜻과 ‘업체’가 경쟁적이라는 뜻이 있으며 ‘무허가업’, ‘경쟁업’에 ‘-所’, ‘-體’가 붙은 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비슷한 경우로 ‘금속 용품, 목재 용품’에서도 ‘용품’을 앞말과 띄어 쓴다.”라고 하며 띄어 쓰는 경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출판업계’와 ‘장식용품’은 ‘출판업’, ‘장식용’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 업체’, ‘금속 용품’보다 ‘섬유업계’, ‘유아용품’과 유사하므로, 붙여 적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 2009 교육과정의 편수 자료에서는 접사 연속체의 띄어쓰기에 대해 언급하며 ‘섬유업계’, ‘유아용품’ 등의 사례를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³⁾

※ 의미가 유사하지만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

- ▶ 의미나 통사적 구성이 유사하다고 하여 띄어쓰기가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당 표현을 찾아보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43) 관련 언급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 다시 그 접사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단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모두 붙여 써야 할지 아니면 접사 연속체를 한 단어로서 띄어 써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의미상 전자가 더 가까우며 띄어쓰기 관용도 전자 쪽이 우세하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고 있다. 본 지침서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예) 배트와 공을 이용한 놀이도 이중 하나이다

→ 배트와 공을 이용한 놀이도 이중 하나이다 (2007-중2-체육)

예) 세종대왕 동상 → 세종 대왕 동상 (2007-고-한국사)

-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그중’은 있지만 ‘이중’은 없다. 또한 ‘진흥왕’과 같이 고유어나 한자어 인명에 ‘왕’이 붙을 경우 붙여 쓰지만, ‘대왕’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2)-㉔. 외래어와 함께 쓰이는 접사나 명사는 다음과 같이 띄어 쓰거나 붙여 쓴다.⁴⁴⁾

-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의 관련 지침을 몇 가지 수정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㉔ 지명이나 그에 준하는 고유 명사가 외래어에 붙을 경우 띄어 쓴다.⁴⁵⁾

예) 카리브 해, 발리 섬, 헤이룽장 성 등

※ 명사 ‘섬’, ‘강’, ‘산’ 등과 달리 ‘-해’는 접사임에도, ‘카리브 해’와 같이 띄어 써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㉕ 외래어 표기법의 지명 표기에 해당하는 띄어쓰기를 다른 경우에 확대하지 않는다.⁴⁶⁾

예) 조지[^]워싱턴교(橋), 메이플라워호(號), 메디치가(家) 등

㉖ 외국명 다음의 ‘인(人)’, ‘족(族)’, ‘어(語)’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단 화석 인류 명칭에 붙는 ‘-인’은 붙여 쓴다.⁴⁷⁾

예) 이스라엘[^]인, 게르만[^]족, 러시아[^]어, 이태리인(한자 취음이므로 붙여 씀), 네안데르탈인(화석 인류 명칭)

※ ‘인’은 명사와 접사, ‘-족’, ‘-어’는 접사이나 위와 같이 표기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4) 2017년 1월 현재 외래어 표기법을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5)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에서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하위 지침으로 제시된 내용의 일부이다. 이는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 띄어 쓴다’는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과 관계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다. 단 ‘사막, 열도, 자치구, 자치현, 제도, 해협, 산맥, 반도’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 인용한 9항이 아닌 14, 15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외래어 뒤에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9항과 차이를 보인다.

예) 일본의 도쿠시마현 → 일본의 도쿠시마 현 (2009-초56-음악)

➡ 외래어에 지명 ‘현(縣)’이 붙는 경우로, ㉠의 예와 같이 띄어 쓴다.

예) 카페리호 (표준국어대사전 용례)

➡ 외래어에 접사 ‘-호’가 붙은 경우로 ㉡에서와 같이 붙여 쓴다.

예) 유태인 (표준국어대사전)

➡ ‘유태인(猶太人)’은 한자어로 된 복합어이므로, ㉢을 참고하면 ‘유대^인(←Judea 人)’과 달리 붙여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지명이나 그에 준하는 고유 명사에 해당하는 ‘가(街), 갑(岬), 강(江), 곳(串), 관(關), 궁(宮), 도(道), 만(灣), 봉(峰), 부(府), 부(部), 사(寺), 산(山), 섬, 성(城), 성(省), 시(市), 역(驛), 요(窯), 주(州), 주(洲), 항(港), 해(海), 현(縣), 호(湖)’가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한자어나 고유어에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단, 외래어라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뒤에 연속으로 다른 말이 나올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아칸소 주, 카리브 해, 북해, 발리 섬, 목요섬, 크레이터 호 국립공원, 페르시아 만 협력^위원회, 위한 산 석굴, 헤이룽장 성(흑룡강성)(밀줄 연구자)

46)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Ⅰ》의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하위 지침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1. 위의 항목들은 외래어 표기법의 지명 표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다른 경우에 확대하지 않는다.

예) 메디치-가(家), 합스부르크-가, 롤러드-파(派), 기독교^그노시스파, 골든^게이트교(橋), 조지^워싱턴교, 히피-족(族), 델파이-법(法), 청년^이탈리아당(黨), 카르보나리-당, 하버·보슈-법, 메이플라워-호

47)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Ⅰ》의 ‘외래어의 띄어쓰기’ 하위 지침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9. 외국명 다음의 ‘인(人)’, ‘족(族)’, ‘어(語)’는 띄어 쓴다.(표제어에서는 ‘^’ 표시) 외래어가 발음이 달라졌더라도 ‘^’ 표시를 하는 반면, 한자로 취급한 경우는 우리말처럼 붙여 쓴다.

예) 이스라엘^인, 유대^인(‘유대’는 원어와 발음이 다소 다르지만 그대로 외래어로 취급함), 한국인, 고구려인, 이태리인(‘이태리’는 한자 취급이므로 한자어처럼 취급함), 유럽 인, 아시아 인, 인도·유럽^어, 아랍^어, 러시아^어, 노서아-어, 아라비아^어

☞ 화석 인류 명칭에 붙는 ‘-인(人)’은 접사로 보아 붙여 쓴다: 네안데르탈-인

다만,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6)에서는 외래어 표기법과 달리 “‘인(人), 족(族), 어(語)’는 접사로 보아 붙여 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표기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침으로 보인다.

3) ‘문장 부호’는 한글 맞춤법 부록과 “문장 부호 해설”을 통해 판단한다.

- ▶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과, 규정에 담지 못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용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 부호 해설”을 통해 적절한 쓰임을 판단한다. 각 문장 부호에 대한 규정과 해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예 어디 보자…… → 어디 보자……. (2009-중2-도덕)

예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 n째항

→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 n째 항 (2009-고2-수학)

예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2009-고-생활)

예 장·단점 → 장단점 (2009-고-생활)

※ 인용 시의 ‘문장 부호’와 ‘표지’

- ▶ 인용 부호: ‘직접 인용문’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단 이중 인용이나 생각 인용의 경우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⁴⁸⁾ ‘간접 인용문’에서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나, 강조의 맥락에서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 ▶ 인용 표지: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나 ‘라고 하-’의 표지(‘라는’ 등)를 사용한다. 간접 인용 시에는 조사 ‘고’(‘-다고’ 등 어미와의 결합형), ‘-다고 하-’의 표지(‘-다는’ 등)를 사용한다.⁵⁰⁾

48) 이규호(2015)에서는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에 나타난 ‘큰따옴표’는 ‘① 직접 대화 ② 말/글 인용 ③ 책이나 신문 이름’에, ‘작은따옴표’는 ‘① 이중 인용 ② 생각 인용 ③ 소제목 ④ 강조’에 사용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③과 ④는 겹낫표, 홑낫표, 드러냄표 등을 대신하여 쓰는 것으로 인용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49) 강조의 맥락에서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31501) 여기서는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직접 인용)〉 또는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간접 인용)〉고 표현할 수 있으며,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5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사 ‘고23’을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라 설명하고 있으

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2007-중2-도덕)

- ➔ “문장 부호 해설”에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어, 속담을 인용할 때에도 ‘큰따옴표’와 ‘라는’ 등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예) 그 이유로는 늦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가 가장 많았고,

→ 그 이유로는 “늦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가 가장 많았고,

(2009-중2-국어)

- ➔ “문장 부호 해설”에서는 “인용한 말이나 글이 문장 형식이 아니더라도 큰따옴표를 쓴다.”라고 언급하며, <(7) 뜻말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 있었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4) 호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에 주목한다.

- ▶ 문장의 길이가 긴 경우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교과서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보어와 서술어’ 등의 호응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파악해 이들끼리 연결해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겹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주어나 서술어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며, ‘라고01’은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고’는 간접 인용의 표지, ‘라고’는 직접 인용의 표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명희(2004)에서 제시한 비규범적 사용 사례와 그 개선안(“이런 부실주 테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고 고개를 젓는다. → “이런 부실주 테마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며 고개를 젓는다.)에서는 ‘라며’가 직접 인용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규호(2015: 136-137)에서는 직접 인용의 ‘라고’와 간접 인용의 ‘고’를 다루며, ‘라는’이 직접 인용 표지임을 언급하였다. 그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 부호 규정 개정 사례를 제시하였다. ‘라고’를 써야할 곳에서 ‘고’를 쓴 개정 전 용례 ㄴ이, 개정 후 용례 ㄷ에서는 직접 인용 표지인 ‘라는’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밑줄 연구자)

ㄱ.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개정 전)

ㄴ.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개정 전)

ㄷ.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개정 후)

예)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역할 분담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분담하기보다는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역할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분담하기보다는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2007-고-기가)

- ➡ 문장의 길이가 길어 호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이때 ‘주어’와 ‘서술어’만을 찾아보면 ‘역할 분담은~분담하다’의 구조로 호응이 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체중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2009-초5-체육)

- ➡ “체중이~오면서”의 주어는 ‘체중이’인데, 이후 절들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한 사람(예: 당신)이라 볼 수 있다. 즉 명시된 주어 ‘체중이’와 겹문장을 구성하는 각 절의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 각종 연구와 저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 각종 연구와 저술 활동을 벌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2009-중3-국어)

- ➡ 절의 구성은 여러 목적어가 서술어 ‘개최하다’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저술을 개최하다’가 부자연스러운 것과 같이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2. ‘소통성’ 영역의 표현 · 표기 지침

1) 주어·목적어 등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피동사의 사용 여부를 검토하며, 이중 피동 형태는 사용하지 않는다.

- ▶ 문장 내에서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주체일 때 서술어로 피동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 피동 접사의 결합으로 피동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에는 ‘-어지다’ 등을 덧붙이지 않는다.

☐ 예)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아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009-중3-국어)

- ➡ 목적어 다음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피동형 ‘회복되시는’을 능동형 ‘회복하시는’으로 수정한다.

☐ 예)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혀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 이처럼 발굴을 통하여 묻힌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2009-중1-역사)

- ➡ ‘묻혀진’은 ‘묻다’의 피동사 ‘묻히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묻힌’ 또는 ‘묻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묻어진’으로 수정한다.

2)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단어에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남용하지 않는다.

- ▶ 예컨대, ‘촉진하다’는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굳이 ‘-시키다’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

☞ 혹독한 추위를 완화시키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 혹독한 추위를 완화하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2009-중1-기가)

- ➡ ‘완화하다’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다. 병의 증상을 줄어든게 하거나 누그러지게 하다’의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사용하여 ‘완화시키다’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시킵니다.

→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합니다. (2009-초3-과학)

-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함’을 의미하는 ‘고정’은 이미 사동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접사 ‘-시키다’를 붙일 필요 없이 동사를 만드는 ‘-하다’를 붙여 ‘고정하다’로 쓴다.

3) 문장 내 필수 성분을 확인하고, 성분의 과도한 생략을 지양한다.

- ▶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확인하여 기술하고, 특정 단어가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동일한 성분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기차가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2007-중1-수학)

- ➡ ‘지나가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고, 앞의 절과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기차가’라는 주어를 넣는 것이 좋다.

☐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 대상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2009-중2-국어)

- ➡ 문장 성분(주어)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관점’이라는 단어가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반복되어도 동일한 성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절에서의 성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4)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중복하여 나열하지 않는다.

- ▶ 해당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장 내에서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 없도록 한다. 불필요한 의미 중복은 특정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단어가 지닌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 숲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2009-초5-국어)

- ➡ ‘밀림’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므로 ‘밀림 숲’은 ‘밀림’으로 수정한다.

예) 전기 신호를 크게 증폭한다.

→ 전기 신호를 증폭한다. (2009-초6-실과)

- ➡ 동사 ‘증폭하다’는 ‘사물의 범위를 넓혀 크게 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밑줄 친 ‘크게 증폭하다’는 ‘역전 앞’과 같이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증폭하다’만으로도 ‘크게 하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앞의 ‘크게’라는 부사어는 삭제한다.

5) 독자 수준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한다.

- ▶ 어휘의 사용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휘나 사용 빈도가 지나치게 낮은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명주 장군 김순식이 귀부해 오자,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 명주 장군 김순식이 스스로 복종해 오자,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2007-중-역사)

- ➡ 독자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였다. ‘귀부(歸附)’란 스스로 와서 복종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뜻풀이나 한자어 병기가 없이 사용되었다. 중학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의 뜻을 풀어 써야 한다.

예)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기작을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작용 원리를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009-중3-과학)

- ➡ ‘기작’은 독자 수준에 적합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 도움말을 통해 ‘기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개선안과 같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한다.

6)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도록 한다.

- ▶ 문장 내 수식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중의적인 문장이나 의미상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예) 친구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007-초2-국어)

- ➡ ‘친구들과 함께’가 수식하는 대상이 ‘좋아하는’인지, ‘꾸며’인지, ‘열어 봅시다’인지 명확하지 않다. ‘친구들과 함께’라는 부사어가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오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예) 빈번한 부족 간의 충돌

→ 부족 간의 빈번한 충돌 (2007-초6-사회)

- ➡ 피수식어가 수식어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수식어 ‘빈번한’이 피수식어 ‘충돌’ 바로 앞에 오도록 조정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다.

7) 문장 내에서 여러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로 연결한다.

- ▶ 문장의 접속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 내에서 여러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하지 않은 문법 층위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와 동사구, 명사구와 명사구 등 문법적으로 대등한 것끼리 연결하도록 한다.

예)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2007-중3-과학)

- ➡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문법적으로 대등한 층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명사구와 명사구(‘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 또는 하나의 절과 절(‘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로 연결한다.

예)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009-고-기가)

- ➡ ‘자원의 절약’이라는 명사구와 ‘환경을 보존하는’이라는 동사의 관형형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서로 대등한 문법적 지위를 지닌 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외래어·외국어의 남용 및 불필요한 로마자 표기를 지양한다.

- ▶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고려하여, 문장 내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로마자 표기를 지양하도록 한다. 이는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과 글의 영역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어 순화의 한 방법이다.

☞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뉴 스포츠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새로운 스포츠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2007-중3-체육)

- ➡ ‘뉴 스포츠’는 ‘새로운 스포츠/새 스포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팸플릿을 만들어 보자.

→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책자를 만들어 보자. (2009-중1-역사)

- ➡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팸플릿’은 ‘책자’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9) 번역투 표현을 지양하고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을 사용한다.

- ▶ 번역투 표현은 외국어와 모국어의 접촉 과정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체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소통하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와 ‘교과서’라는 교육적 역할 및 공적 위치의 문서에서 쓰여야 할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어·일본어 등의 번역투 표현을 지양하고 국어 문장으로서 보다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예)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활동의 큰 방향을 안내합니다.

→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통해 활동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2007-초6-음악)

- ➡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안내의 주체인 것처럼 기술된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목적으로 수정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국어 문장에서 자연스럽다.

예) 굴삭기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 굴착기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2007-중1-기가)

- ➡ ‘굴삭기’는 ‘굴착기(掘鑿機)’의 ‘뚫을 착(鑿)’이라는 한자가 어려워 일본 사람들이 ‘깎을 삭(索)’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원래의 ‘굴착기’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에게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2007-중2-도덕)

- ➡ ‘~에 있어서’는 일어식 번역투 표현(‘~において’)이다. ‘에게’와 같은 조사로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불필요한 번역투를 사용한 것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10) 접속어·지시어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문장을 연결한다.

- ▶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은 논리적 연결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단 내에서 접속어·지시어 등을 사용하여 문단 내 표면 결속을 강화한다.

예)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2007-중-역사)

- ➡ 앞의 문장은 ‘미국의 원조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이고 뒤의 문장은 ‘미국의 원조로 인한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듯 상반되는 내용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게’, ‘그 위에 더’의 뜻을 지닌 ‘또한’으로 연결되어 부자연스럽다.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인 ‘하지만’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냉장고는 물건만 저장하지 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이러한 냉장고는 식품을 저장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2007-고-국어)

- ➡ 주어로 ‘냉장고’가 사용되어 현재의 일반적인 냉장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맥락상 주어는 선행 문장들에서 다루고 있는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이다. ‘냉장고’ 앞에 ‘이러한’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추가한다.

1.3. ‘공공성’ 영역의 표현 · 표기 지침

1)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 태도를 지닌다.
- 교육 현장과 교과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가치관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자세’는 부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검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2007-중3-사회)

- ➡ 특정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이분하는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표현은 대안적 표현으로 대체한다.
- 편향성이나 차별성이 없는 대안적 표현을 활성화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 교과서 언어로 자리 잡도록 한다.
- 대안적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로 인해 또 다른 차별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특히 외국에서 시집온 어머니들은

→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 결혼한 어머니들은 (2009-초6-도덕)

- ➡ ‘시집오다’는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일컫는 결혼에 대한 남성 중심적 표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가들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여성 중심적 표현이 되므로 중립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다.

2) 차별적 표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 ▶ 인종·지역·세대(연령) 및 성별·장애·직업·종교와 관련된 차별적 표현을 삼간다.
- 어떤 표현이 차별적 표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과 관련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민감성이 필요하다.
- 특정 인종 및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나 성별화된 언어 표현, 외모와 관련된 표현, 비하적 표현 등 차별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예쁜 얼굴, 뛰어난 재능, 엄청난 경제력 등

→ 뛰어난 외모와 재능, 엄청난 경제력 등 (2007-중2-도덕)

- ➡ ‘예쁘다’가 보통 ‘잘생기다’에 대응되는 여성 관련 어휘라는 점에서 ‘예쁜 얼굴’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경우에만 외모가 중요하다는 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성별 차원의 차별성이 최소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 ▶ 차별적 표현 중에는 일상 언어생활에서 차별의 의도 없이 곧잘 쓰이기도 하여 그것이 차별적 표현인지 언중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러나 차별적 표현은 차별하려는 의도의 여부가 아니라 차별성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적 표현은 순화하여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나노는 $1/10^9$ 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스에서 유래하였다.

→ 나노는 $1/10^9$ 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키가 작은 사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스에서 유래하였다. (2007-고1-수학)

- ➡ ‘난쟁이’는 그 뜻이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순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교과서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 ▶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매개체로서,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문제와 더불어 올바르고 바람직한 언어의 사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과서가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과 권위를 고려하여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 먹은 음식물과 똥을 비교해 보면

→ 먹은 음식물과 대변을 비교해 보면 (2007-중2-과학)

- ➡ 교과서 언어가 갖추어야 하는 품격을 고려하여 ‘똥’을 점잖게 이르는 말인 ‘대변’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예)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열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술까말 청소하는 거 개쩔지 않습니까? (2009-고1-국어)

- ➡ 교수·학습적 필요에 의해 부정적 언어 표현의 예를 든 것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저속한 표현이 쓰여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므로 순화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예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2. 교과서 편수 자료 개선 방향

교과서 편수 자료는 교과서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수록한 하나의 안내서이다. 따라서 교과서 편수 자료의 발간 목적은 교과서에 사용되어야 하는 정확한 용어를 제시하고, 교과서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편수 자료가 갖추어야 할,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향과 내용적 차원에서의 개선 방향을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2.1.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향

교과서 편찬 관계자들이 편수를 위한 일반 지침들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개별 편수 용어의 표기형은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차원에서 편수 자료에 수록된 각 교과목의 편수 용어를, 검색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편수 용어를 수월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검색이 편리한 형태의 파일로 편수 용어 자료를 제작한다면, 교과서의 제작, 심의, 보급 모든 과정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를 제공받는 대상도 확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검정협회 등의 유관 기관은 물론이며, 교과 관련 학회들에도 널리 보급하여 용어의 표기형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표기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편수 자료에 수록된 편수 용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편수 용어를 추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편수 자료에 수록된 용어들은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용어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 관련 전공 학회들에 의한 것일 수 있고 언론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편수 용어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편수 용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용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

들여 검토하여 수정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보완할 것인지 아니지를 판단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주도하되, 국립국어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정보원, 문화재청 등 정부 유관 기관과 교과 관련 전공 학회 등에 판단을 의뢰하여 결과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수 자료의 상시적인 수정 및 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지 위해서는, 기존 편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거한 새 교과서가 제작되므로 교과서가 제작되기 전에 기존 편수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2. 내용적 차원의 개선 방향

교과서 편수 자료는 일차적으로 정확한 용어 및 표기·표현과 관련하여 교과서 집필 시 반드시 참조해야 할 자료로 기능하며, 동시에 검·인정 교과서를 심의할 때 용어 및 표기·표현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내용적 차원에서는 지침의 정확성과 구체성 및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편수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편수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된 교과서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외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편수 자료는 일관된 근거에 따라 선정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교과 편수 용어를 수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 편수 자료는 편수 자료 내 일반 지침의 내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교과서 집필 및 심사 단계에서 충분한 참고가 되도록 구체적인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교과 간 편수 용어 선정·배열 방식의 통일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용어 일치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 예컨대 사용된 편수 용어들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표기를 병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 표기를 병용하도록 하는 등 일관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수 용어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가 다른 경우

또는 편수 자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편수 자료에는 수록된 용어의 경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관된 편수 용어 목록을 구성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교과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범교과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편수 용어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변경되거나 수정된 편수 용어에 대해서는 집필자와 심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정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함께 제시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이러한 편수 용어들은 교과 전문 용어라는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이것에 전문 용어를 34만여 개 보강한 ‘우리말샘’의 전문 용어 수록과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어 수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일관되지 않은 기술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세 유형이 있다(민현식 2011).

① 무품사 처리 전문어⁵¹⁾

- 경제^가치(經濟價值) 『경제』 경제 활동에 따라 생겨나는, 재화의 가치.
- 경제^개발(經濟開發) 『정치』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
- 경제^개발^오^개년^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정치』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행한 경제 계획.

② 품사 처리 전문어

- 경제-사상(經濟思想) 「명사」 『경제』 인류가 재화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사상.
- 경제-생활(經濟生活) 「명사」 『경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51) 표준국어대사전의 무품사 전문어는 영어 사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웹스터’ 사전도 품사 표시 없이 실려 있는 구형(句形) 복합어들이 있다: ① air mail, air force, air gun, air letter 등은 품사 표시 없이 등재된 것들이다. ② air-condition, air-cool, air-dry는 짧은 줄로 연결되고 품사 표시가 된 단어들이다. ③ airbus, aircraft, airflow는 붙여 쓴 명사 합성어이다.

③ 전문어 표시가 없는 단순 합성어

- 경제-관념(經濟觀念) 「명사」 재화나 노력, 시간 따위를 유효하게 쓰려고 하는 생각.
- 경제-속도(經濟速度) 「명사」 자동차, 항공기 따위의 탈것이 연료를 되도록 적게 소비하여 가장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속도. ≒경제속력.
- 경제-평화(經濟平和) 「명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이런 혼란은 ‘한글 맞춤법’ 제50항에서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한 데 원인이 있다. 언어 현실은 일반어와 전문어의 경계를 나누기도 어렵고 전문 용어와 구(句)의 경계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합성어가 대부분인 전문 용어를 굳이 구(句)처럼 띄어 쓰게 해 혼동을 주므로 이런 혼란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문 용어는 (단어로서 대부분 합성어이므로 일반 단어처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이 길면 가독성을 높이도록) 띄어 쓸 수 있다.”라고 현재와 정반대로 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간결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표기 및 표현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총 209권의 교과서에서 1,516건의 표현 및 표기 관련 문제를 확인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확성 영역은 1,039건(68.54%), 소통성 영역은 446건(29.42%), 공공성 영역은 31건(2.04%)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영역에서는 띄어쓰기 문제가 60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와 어미 사용 문제와 문장 성분 호응 문제도 각각 111건, 89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의 소통성 39건, 문장의 소통성 383건, 텍스트 소통성 24건으로 나타났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주관적이거나 편파적인 기술이 9건, 차별 표현이 20건으로 나타났고, 교과서의 품위성과 관련하여 저속한 표현이 2건 확인되었다.

교과서 표현 및 표기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확성 영역의 경우 국어 문법, 어문 규범, 표준국어대사전, 편수 자료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어 문법의 측면에서는 언어 사용자들의 문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가, 어문 규범의 측면에서는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규범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 편수 자료의 문제, 표준국어대사전과 편수 자료의 상충 문제 등이 나타났다.

소통성 영역의 경우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단어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재로 인하여 독자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이중 피동, 이중 사동을 남용하는 문제,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피동 표현의 사용, 필수 성분의 생략,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수식 구조 사용, 대등하지 않은 문법 층위의 접속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우리말 표현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외래어 및 외국어 남용과 번역투의 사용

문제가 나타났고, 문장 연결에 대한 민감성 부족으로 인하여 문단 내 부적절한 표면 결속의 문제가 나타났다.

공공성 영역의 경우 객관성, 비차별성, 품위성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원인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고정관념을, 인종·성별·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차별적 표현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의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품위성 차원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교육용 텍스트라는 교과서 언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 공공성 영역의 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아 문제의 전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교과서 개발이 교과서 편수 자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수 자료의 적절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자료 체계 및 구성 차원에서 편찬 시기, 편찬 체계, 편찬 형식의 문제를, 자료 내용 차원에서는 편수 지침의 내적 일관성, 편수 자료 내 교과 간 용어 불일치, 편수 자료와 표준국어대사전 간의 내용 불일치 문제 등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표기 및 표현 문제의 원인 진단과 교과서 편수 자료의 체계 및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표기·표현 지침을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서 표기 및 표현 지침은 교과서 및 편수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귀납적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가 교과서 표기·표현 개선이라는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교과서 표기·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교과서 표기·표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시기별 표기·표현 문제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기별 교과서를 비교해 봄으로써 표기·표현 차원에서 개선된 문제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교과서 개발자 및 편집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의 마련이 가능해진다.

둘째, 교과서 개발자 및 편집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표기·표현 교육 방안 연구가 요구된다. 교과서 표기·표현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보고서를 교재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자 및 편집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의 개발과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재는 교육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자 및 편집자들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편람 형태의 책자로 개발할 수도 있고, 연수용 교재의 형태로 개발할 수도 있다. 교과서 표기·표현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서 표기·표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행이 요구된다.

첫째, 교과서 개발 직후 교과서 표기·표현 검토 작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문제가 있는 표기·표현이 즉각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전 교과서에 나타났던 문제가 새로 개발된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례화함으로써 교과서 표기·표현 검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교과서 표기·표현 연구 결과가 교과서 편수 자료, 교육과정, 사전 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교과서 편수 자료와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교과서 연구를 통해 역으로 편수 자료와 교육

과정에 사용된 표기·표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 문제 중 일부가 사전에서의 처리 방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과서 표기·표현 연구 결과는 사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과서 표기·표현에 대한 연구가 편수 자료, 교육과정, 사전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야 교과서 표기·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한중·송정미·강석진(2010),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이독성 연구, 초등과학교육 29(2), 초등과학교육학회, pp.134-143.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과서 편수 자료 1~4 (2판), 대한교과서.
- 구본관 외 (2012), 2012년 행정 기관 공공언어 진단Ⅱ,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6),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4), 문장 부호 해설, 국립국어원.
- 김세중(2004),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원, pp.105-122.
- 김정우(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pp.143-167.
- 노명희(2009), 외래어 단어 형성,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pp.5-29.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11), 국립국어원 스무 돌의 성과와 발전 방안,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pp.7-24.
-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1), 2011년 행정 기관 공공언어 진단 II,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5), KBS 국어 자문단 사업 보고서(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선미(2015), 한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이미지, 대한지리학회지 50(5), 대한지리학회, pp.557-569.
- 박선미·우선영(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제7차 고등

- 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4),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학회, pp.19-34.
- 박재현 외(2007), 교과서 표기 감수 지침 시안, 국립국어원.
- 박창원(2005), 남북한 공동 언어 순화(1)- 순화대상어의 선정과 순화의 원칙 정립을 위하여,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pp.209-233.
- 성광수(1976). 국어 간접피동에 대하여 - 피동 조동사 ‘지(다)’를 중심으로, 문법 연구 3, pp.159-182.
- 송다영·성정현(2003), 가족구조와 형태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혼/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5(2), 한국가족학회, pp.81-113.
- 신형욱·이재원(2011), 교과서의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텍스트언어학의 과제와 한계-,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135-160.
- 안의정(2005), 기존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의 기술, 한국사전학 5, 한국사전학회. pp.139-159.
- 양명희 외(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3 - 초등학교 교과서(1, 2학년)를 대상으로, 중학교(음악,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4), 라고라고라고라, 새국어소식 14(3), 국립국어원.
- 윤구희(2011), 문장부호 ‘따옴표’의 국어 사용 실태 분석 -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pp.209-237.
- 윤천탁(2012), 교과용 도서의 문장 부호 사용 실태와 문제점 해결 방안, 청람어문교육 45, 청람어문교육학회, pp.265-295.
- 이규호(2015), 인용과 인용 부호: 사용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pp.135-163.
- 이명준·윤영돈(2013), 도덕 교과서 언어 표현 개선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8,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pp.101-123.

- 이수열(1996),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1) 어문연구 2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96-200.
- 이수열(1997a),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2) 어문연구 2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70-176.
- 이수열(1997b),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3) 어문연구 2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63-168.
- 이수열(1997c),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4) 어문연구 2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32-238.
- 이수열(1997d),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5) 어문연구 25-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52-259.
- 이수열(1998a),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6) 어문연구 26-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27-233.
- 이수열(1998b),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7) 어문연구 2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39-144.
- 이수열(1998c),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8) 어문연구 2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32-240.
- 이수열(1998d),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9) 어문연구 2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15-220.
- 이수열(1999a),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10) 어문연구 2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44-248.
- 이수열(1999b),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11) 어문연구 2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52-157.
- 이수열(1999c), 부실교과서 고발: 국어답지 못한 문장으로 점철한 국어교과서 (12) 어문연구 2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39-145.
-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어휘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p.189-208.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 외(1999), 중학교 1종 교과서의 문장 실태 검토·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

- 원(RRO 99-1).
- 이정복(2008), 외래어 순화 정책의 방향: 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국문학 99, 한국어문학회, pp.27-66.
- 이현우(1999), 교과서의 문장실태,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연구원, pp.17-28.
- 임동훈(1999),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정희창(2010), 글쓰기의 국어학적 분석, 반교어문연구 28, 반교어문학회, pp.57-85.
- 최용기 외(2003),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 연구-국정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최용기(2001), 교과서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서연구 36,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p.67-72.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6),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윤문진 연수자료집,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서 편수 자료(Ⅰ) - 편수 일반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RRO 2011-6-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서 편수 자료(Ⅱ) -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RRO 2011-6-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서 편수 자료(Ⅲ) - 응용과학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RRO 2011-6-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교과서 언어 표현 개선 방안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워크숍 자료집(ORM 2012-9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3년 교과용도서 재검정 수정·보완 대조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어원(200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검정) 표기·표현 기초 조사 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어원.
- 한국과학창의재단(2012), 교과서 편수 자료 - 기초 과학 편,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교과서의 교과별 표기 · 표현 개선 목록

일러두기

1. 209종 교과서의 교과별 표기·표현 개선 요구 사항 1,516항목을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의 평가항목에 따라 분석한 목록을 제시한다.
2. 목록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교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과목별, 학교급별, 학년별, 평가영역, 평가항목, 오류 원문, 개선안,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3. 동일한 원문에서 오류 항목이 여럿 나타난 것은 해당 오류 단어 앞에 1), 2), 3) 식으로 번호를 붙이고 ‘근거’에 오류의 이유와 개선안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4. 교과목별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국어 (1~229)	사회 (230~348)	역사 (349~450)	한국사 (451~514)
사회과부도 (515~543)	도덕 (544~820)	생활과윤리 (821~849)	수학 (850~926)
과학 (927~1101)	실과 (1102~1146)	기가 (1147~1388)	음악 (1389~1430)
미술 (1431~1473)	체육 (1474~1514)	통합교과 (1515~1516)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	7	국어(듣말)	초등학교	1	공공	3111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1~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0~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모두 '아니요'라고 표시할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의 수를 0~3개로 수정한다.
2	7	국어(듣말)	초등학교	1	정확	1211	3. <ㄱ>와 <ㄴ> 소리가 들어 있는 다음 낱말을 정확히 발음 하여 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1) 네모 (2) 제주도 (3) 계절 (4) 예술	3. <ㄱ>와 <ㄴ> 소리가 들어 있는 다음 낱말을 정확히 발음 하여 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발음하는지 친구와 서로 살펴봅시다. (1) 네모 (2) 제주도 (3) 차례 (4) 예술	표준 발음법에 따라 '예, 레'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하는데, 'ㄱ'과 'ㄴ' 소리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위한 사례로 '계절[계-/게-/]이 제시되었다. '예, 레'가 들어간 단어(예절, 차례 등)로 수정한다.
3	7	국어(듣말)	초등학교	1	정확	1211	그림 2~4의 말주머니 안에 적어 봅시다.	그림 2~4의 말풍선 안에 적어 봅시다.	사전에 등재된 '말주머니'는 '말풍선'이 아닌 비유적 의미를 가리키므로, 의미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말풍선으로 수정한다.
4	7	국어(듣말)	초등학교	1	정확	1112	이제 안 빌려 줄 거야.	이제 안 빌려줄 거야.	'빌려준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5	7	국어(듣말)	초등학교	2	공공	3111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1~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예' 또는 '아니요' 표시하는 선행 활동) '예'가 4~5개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린이입니다. '예'가 0~3개이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다섯 가지 물음에 모두 '아니요'라고 표시할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예'의 수를 0~3개로 수정한다.
6	7	국어(듣말)	초등학교	2	소통	2221	1)이 단원에서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하나를 2)골라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알기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	1)이 단원에서 내가 설명한 것 중 하나를 2)골라 ,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알기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	1)과 같이 '에서'가 중복 사용되어 부자연스럽다. 뒤의 '에서'를 삭제한다.
7	7	국어(듣말)	초등학교	2	정확	1113	1)이 단원에서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하나를 2)골라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알기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	1)이 단원에서 내가 설명한 것 중 하나를 2)골라 , 듣는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알기 쉽게 설명하여 봅시다.	2)와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이 이어지는 부분에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아, 의미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다. 2) 뒤에 쉼표를 추가한다.
8	7	국어(듣말)	초등학교	2	소통	2213	보기와 같이 인물이 등장할 때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적어 봅시다.	인물이 등장할 때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기와 같이 적어 봅시다.	'보기와 같이'가 '등장할'과 '나타내는', '적어 봅시다' 중 어떤 것을 수식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적어 봅시다' 앞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9	7	국어(듣말)	초등학교	2	정확	1112	숲속 나라	숲속 나라	'숲속'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0	7	국어(쓰기)	초등학교	1	공공	3111	3. 우리 가족과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나와 닮은 점 (1) 아빠 → (2) 엄마 → (3) →	3. 우리 가족과 나의 닮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누구 나와 닮은 점 (1) → (2) → (3) →	가족 구성원이 다를 수 있음(한 부모 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제시된 아빠, 엄마라는 표현과 삽화를 삭제하고, '누구'라는 항목명을 제시한다.
11	7	국어(쓰기)	초등학교	1	정확	1111	가 나 다 라 머 버 서 야 자 쳐 커 티 피 히	가 나 다 라 머 버 서 야 자 쳐 커 티 피 히	바른 모양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위해 제시된 글자들이 맞춤법의 자음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처 를 활용한 글자가 누락되고 처 를 활용한 글자가 중복되었다. '처'를 '쳐'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	7	국어(쓰기)	초등학교	1	정확	1211	글자 쓰는 자세(중략)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모은 뒤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연필을 바르게 잡고 썼습니다.	글자 쓰는 자세(중략)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모은 뒤에 뻗지 않고 앉았습니다. 연필을 바르게 잡고 썼습니다.	다른 제시 항목을 보면 글자를 쓰는 바른 자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릎을 세우고"는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다리를 뻗지 않다'로 수정한다.
13	7	국어(쓰기)	초등학교	1	소통	2223	오늘 학교에서 글자를 썼던 것을 떠올려 보고, 바른 자세로 썼는지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오늘 학교에서 글자를 쓰던 나의 자세를 떠올려 보고, 바른 자세로 썼는지 붙임 딱지를 붙여 봅시다.	선행절은 본인이 글자를 쓰는 자세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쓴 글자를 떠올리라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 본인의 자세를 떠올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수정한다.
14	7	국어(쓰기)	초등학교	1	정확	1222	이 내용은 내 생각과 맞지 않다 고 생각했구나.	이 내용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구나.	맞다'는 동사인데, 보조 동사인 '않다'의 현재 시제 언어말 어미가 누락되었다. '-는-'을 추가한다. 단지 구어에서 '맞지 않다'가 잘 쓰임을 인정할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15	7	국어(쓰기)	초등학교	2	소통	2213	1)친구들과 함께 2)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1),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1)이 수식하는 대상이 '꾸며'인지, '열어 봅시다'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진을 꾸미는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집단 활동인지 알기 어렵다. '친구들과 함께'를 수행할 앞으로 옮긴다.
16	7	국어(쓰기)	초등학교	2	정확	1211	1)친구들과 함께 2)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자기가 좋아하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을 예쁘게 꾸며 1),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누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였는지 살펴봅시다.	2)로 인해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것인지,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수행 문장 및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썼던 선행 활동을 고려하면 '친구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꾸미는 전시회로 추정되므로, '내가'를 '자기가'로 수정한다.
17	7	국어(쓰기)	초등학교	2	정확	1112	바른말 고운 입	바른 말 고운 입	여기의 '바른 말'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바른말(이치에 맞는 말)'과 뜻이 다른데 붙여 적어서 잘못된이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18	7	국어(쓰기)	초등학교	2	정확	1112	신 나게	신나게	'신나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9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3	정확	1221	'5-3=2'는 오해에서 세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 ' 2+2=4 '는 이 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람이 됩니다 .	1안) ' 5-3=2 '는 오해에서 세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 ' 2+2=4 '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2안) ' 5-3=2 '처럼 오해에서 세 걸음만 물러서면 이해가 되고 , ' 2+2=4 '처럼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람이 됩니다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1안)과 같이 서술어를 수정하거나, 2안)과 같이 수식을 부사어로 바꾼다.
20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3	정확	1112	듣는이	-	-
21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3	정확	1112	말하는이	-	-
22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4	소통	2212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표면 근처의 공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 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 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명사를 지나치게 나열하여 조사 '의'가 남용되었다. 문맥에 따라 '의'를 삭제하고 서술어를 추가하여 구를 절로 바꾼다.
23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나눔아파트주민자치회	1안) 나눔아파트 주민자치회 2안) 나눔아파트 주민 자치회 3안) 나눔 아파트 주민 자치회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 2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3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쓴다.
24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나눔아파트주민자치회장	1안) 나눔아파트 주민자치회장 2안) 나눔아파트 주민 자치회장 3안) 나눔 아파트 주민 자치회장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 2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3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5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독도의용수비대	1안) 독도 의용수비대 2안) 독도 의용 수비대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2안)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쓴다.
26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독도의용수비대장	1안) 독도 의용수비대장 2안) 독도 의용 수비대장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기관명, 단체명)는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으나, 원문은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힘들다. 1안)과 같이 단위별로 띄어 쓰거나, 2안)과 같이 단어별로 띄어 쓴다.
27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듣는이	-	-
28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말하는이	-	-
29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5	정확	1112	발표를 듣는이 는 누구입니까?	발표를 듣는 이 는 누구입니까?	'듣는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합성어로 보더라도 '청자'로 대치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내포절에서 '듣다'가 서술어로 기능해야 하므로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30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소통	2223	〈웃 한 벌〉, 〈국 한 그릇〉, 〈꽃 한 송이〉, 〈낮 한때〉 발음 관련 선행 활동) 3. 두 낱말을 이어서 발음할 때 <ㅎ>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예를 더 찾아보고 정확히 발음하여 봅시다.	〈웃 한 벌〉, 〈국 한 그릇〉, 〈꽃 한 송이〉, 〈낮 한때〉 발음 관련 선행 활동) 3. 두 낱말을 이어서 발음할 때 <ㄱ>, <ㄷ> 소리와 <ㅎ> 소리가 다른 소리로 줄어드는 예를 더 찾아보고 정확히 발음하여 봅시다.	〈축약〉을 다른 활동인데 원문의 설명은 '대치'와 같이 제시되었다.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행 활동에서 다른 음운을 제시하고 '바뀌다'를 '줄어들다'로 수정한다.
31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정확	1112	(축하하는 글의 짜임 중 처음 부분) 첫인사 (중략) (축하하는 글의 짜임 중 끝부분) 끝인사	(축하하는 글의 짜임 중 처음 부분) 첫 인사 (중략) (축하하는 글의 짜임 중 끝부분) 끝인사	'첫인사'는 사전에서 '사람을 새로 만나서 처음 하는 인사'라는 뜻만 제시하고 있다. 원문은 이러한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첫 인사'로 띄어 쓴다.
32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소통	2322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2)물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2)말투와 몸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1) '과'가 이어 주는 대상이 '등장인물과 몸짓'인지, '등장인물과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 활동을 고려하면 전자의 해석이 적절하므로, 작은따옴표를 활용하여 접속 대상을 명확히 제시한다.
33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소통	2214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2)물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흥부와 놀부" 대본을 읽고, 1) 등장인물과 '그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게 표현한 2)말투와 몸짓' 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활동 일부 사례) 흥부 부인 - 작고 느리며 낮은 목소리와 기운이 없는 말투 - 흥부를 보며 포기한 듯한 표정과 발길을 돌리는 몸짓	2) '말투'와 '표정, 몸짓'을 '등장인물'과 연결하는 활동인데, 원문의 지시문은 2)와 같이 몸짓만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단원이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학습하는 단원이므로, '말투'를 추가한다.
34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소통	2213	노려보며 험상궂은 표정 과 손을 치켜드는 몸짓	험상궂게 노려보는 표정 과 손을 치켜드는 몸짓	문장이 명사로 끝나 부사어 '노려보며'가 꾸미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험상궂다'가 '노려보다'를, '노려보다'가 '표정'을 수식하도록 수정한다.
35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소통	2213	놀부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 과 몸을 흔드는 몸짓	놀부를 바라보는 슬픈 표정 과 몸을 흔드는 몸짓	문장이 명사로 끝나 부사어 '바라보며'가 꾸미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바라보다'가 '표정'을 수식하도록 수정한다.
36	7	국어(통말쓰)	초등학교	6	정확	1111	바른 글씨로 옳겨 써 보고	바른 글씨로 옳겨 써 보고	'옳기다'를 '옳기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옳겨'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7	7	국어(문말쓰)	초등학교	6	정확	1112	우리 친구가 일주일 간 텔레비전 안 보기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우리 친구가 일주일간 텔레비전 안 보기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접사인 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38	7	국어(읽기)	초등학교	1	소통	2111	(본문의 어려운 단어 뜻을 제시한 부분) 떡시루: 떡을 찌는 데 쓰는 등근 질그릇 .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음.	(본문의 어려운 단어 뜻을 제시한 부분) 떡시루: 떡을 찌는 데 쓰는 등근 그릇 .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음.	'떡시루'의 뜻을 풀이하면서 '질그릇'이란 단어를 활용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준에 어려울 수 있다. '그릇'으로 수정한다.
39	7	국어(읽기)	초등학교	1	정확	1112	(차표 그림 중) 출발 일	(차표 그림 중) 출발일	'출발일'에 사용된 '일'을 단어로 보아 띄어 썼으나, 이는 명사나 의존 명사 '일'이라 보기 힘들다. 접사 '-일'로 보아 붙여 쓴다.
40	7	국어(읽기)	초등학교	1	정확	1113	' 나와라, 발! ' 하면 발이 나오고, ' 그쳐라, 발! ' 하면 똑 그치는 신기한 맷돌이었습니다.	' 나와라, 발! ' 하면 발이 나오고, " 그쳐라, 발! " 하면 똑 그치는 신기한 맷돌이었습니다.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써야 하는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41	7	국어(읽기)	초등학교	1	정확	1113	도둑은 너무 놀라 ' 그쳐라, 소금! '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둑은 너무 놀라 " 그쳐라, 소금! "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써야 하는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42	7	국어(읽기)	초등학교	1	정확	1112	영차영차	영차, 영차	'영차'만 사전에 등재되었는데 '영차영차'와 같이 붙여 적었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43	7	국어(읽기)	초등학교	2	소통	2321	(제목) 동물들은 어떻게 잘까요? 황새는 부리를 깃털 사이에 파묻고 한쪽 다리로 서서 잡니다. 이때, 다른 한쪽 다리는 접어서 깃털 사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새를 천연기념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린도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하락)	(제목) 동물들은 어떻게 잘까요? 황새는 부리를 깃털 사이에 파묻고 한쪽 다리로 서서 잡니다. 이때, 다른 한쪽 다리는 접어서 깃털 사이에 넣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린도 서서 자는 동물입니다.(하락)	동물들이 자는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 황새와 기린이 자는 방법을 각각 한 문단으로 설명한 글인데,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추가되었다. 삭제하도록 한다.
44	7	국어(읽기)	초등학교	2	정확	1112	영차영차	영차, 영차	'영차'만 사전에 등재되었는데 '영차영차'와 같이 붙여 적었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45	7	국어(읽기)	초등학교	3	정확	1221	공통점은 독서 감상문에 쓰인 내용이 모두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차이점은 독서 감상문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아요.	공통점은 독서 감상문에 쓰인 내용이 모두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차이점은 독서 감상문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차이점'은 '과' '찾아보아요'가 호응하지 않으며, 공통점을 다른 문장과 형식도 같지 않다. "차이점은...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로 수정한다.
46	7	국어(읽기)	초등학교	3	정확	1112	스르르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스르르스르르'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데 붙여 썼다. 두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47	7	국어(읽기)	초등학교	3	소통	2222	짧은 것가락 모양의 산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풀어 가는 것이 산가지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따라 산가지 때어 내기, 형태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산가지를 누가 많이 가지는지 겨루거나, 산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풀어 가는 것이 산가지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에 따라 산가지 때어 내기, 형태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산가지 때어 내기'는 산가지를 누가 많이 가지는가를 겨루는 것이지, '형태 바꾸기'와 같은 문제 풀이가 아니다. 즉 '산가지 놀이'에 대한 설명이 일부만 제시되었다. 생략된 정보를 제시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8	7	국어(읽기)	초등학교	4	공공	3211	(상략) "아, 재 좀 봐!"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중략) 담임 선생님께서 새 친구를 소개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하얀 피부에 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아이 가 칠판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제니는 금세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인기 만점이었다.(하략)	(불필요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	출처 정보가 따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높임법을 지도하기 위해 교과서 제작 시 만든 글로 보이는 제재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 불필요하게 제시되었다. 우선 외국인 전학생을 보고 '수군거리는' 행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니를 묘사한 부분은, 외국인이란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를 가진 서양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기대감에 차서 소곤대는 소리' 등과 같이, 전학생에 대한 기대를 담은 행동임을 보여주도록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 설정한 '높임말이 서툰 외국인 전학생'이 꼭 서양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불필요한 묘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49	7	국어(읽기)	초등학교	5	소통	2222	(나만의 낱말 사전 예)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오빠는 없지만 언니가 있고, 동생은 없지만 골 인형이 있는 것.	(나만의 낱말 사전 예)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오빠는 없지만 언니가 있고, 동생은 없지만 골 인형이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여기는 마음.	원문의 밑줄 친 부분은 '감사'가 아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예시이므로, '그러한 것들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50	7	국어(읽기)	초등학교	5	정확	1222	그러나 이 동화책 에는 주인공이 아빠, 엄마를 다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모험을 떠난다든지, 행운돼지와 결투를 벌인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화책 에서는 주인공이 아빠, 엄마를 다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모험을 떠난다든지, 행운돼지와 결투를 벌인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동화책에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므로, 처소의 부사격 조사 '예'가 아닌 '알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서'를 써야 한다. '예'를 '에서'로 수정한다.
51	7	국어(읽기)	초등학교	5	소통	2222	책이나 글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글이나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봅시다.	책이나 글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낱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아봅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데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간략한 표현을 위해서라면 반복되는 부사어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므로, 후행절에서 부사어를 생략하고 주어를 추가한다.
52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정확	1112	1)종이책은 2)더 오랫동안 유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1)종이책은 2)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내용을 유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1) '종이책'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책'을 일부 명사 뒤에 붙여 쓰는 경우와 의미가 같지 않으므로 띄어 쓰도록 할 수 있으나 '전자책' 등의 예에 따라 합성어로 붙여 쓰고 등재하도록 한다.
53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22	1)종이책은 2)더 오랫동안 유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1)종이책은 2)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내용을 유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해 준다.	2) 부사절 내의 선행절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후행절에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선행절에 '사람들이'와 같은 주어, '내용을'과 같은 목적어를 추가한다.
54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22	1950년대에 비하여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도 점점 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1950년대에 비하여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벼농사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과 사회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후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벼농사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벼농사의 가치나 소중함이 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열어지는 것이므로 생략된 내용을 추가한다.
55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14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도에 136킬로그램에서 2008년에는 75.8킬로그램으로 줄었다.	1)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도에 136킬로그램이었으나, 2008년에는 75.8킬로그램으로 줄었다. 2)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도의 136킬로그램에서 2008년의 75.8킬로그램으로 줄었다.	원문을 겹문장이라 볼 수 있는 표현과 홑문장이라 볼 수 있는 표현이 혼재하고 있다. 원문을 겹문장으로 볼 경우 선행절의 서술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원문을 홑문장으로 볼 경우 부사구의 조사 '예', '은'이 잘못 사용되었다. 1)와 같이 서술격 조사를 추가하여 겹문장으로 만들거나, 2)와 같이 관형격 조사를 교체하여 홑문장으로 만든다.
56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정확	1112	말하는이	-	-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7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11	시장에서 40년 동안 순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한 할머니 께서 계시다 .	시장에서 40년 동안 순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한 할머니 가 있다 .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데, 동사로서의 높임말은 '계시다'이고, 형용사로서의 높임말은 '있으시다'이다. '계시다'는 동사로서 '머물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원문의 맥락에서 적합한 높임 표현이 아니며, 설혹 '계시다'가 맞더라도 현재 시제에서는 '계신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원문 맥락에서는 '존재하는 상태'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와야 하므로 동사인 '계시다'는 적절하지 않다.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있다'로 표현하고, '주다'에 높임의 '-시-'를 추가한다.
58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정확	1112	신 나게	신나게	'신나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59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정확	1112	신 나고	신나고	'신나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60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정확	1112	신 나는	신나는	'신나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61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11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 준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 께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 준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할머니 께서 살아가시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께서'를 사용하였으나 서술어에서는 '-시-'를 사용하지 않아 어색함을 준다. 서술어에 '-시-'를 추가한다.
62	7	국어(읽기)	초등학교	6	소통	2223	흔히 사람들은 채식을 하게 될 경우, 영양 불균형을 염려한다.	흔히 사람들은 채식을 하게 될 경우 의 영양 불균형을 염려한다.	원문은 실제 채식을 하게 된 사람들이 영양 불균형을 염려한다는 내용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심표로 인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사람들은 ...을 염려한다'의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심표를 삭제하고 '의'를 추가해 내부절을 만든다.
63	9	국어	초등학교	1	정확	1112	나라가 숲 속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숲 속 에서 만난 자 를 찾아 색칠하여 봅시다.	나라가 숲속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숲속 에서 만난 자 를 찾아 색칠하여 봅시다.	'숲속'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숲 속'과 같이 띄어 썼다. '숲 속'을 '숲속'으로 수정한다.
64	9	국어	초등학교	1	정확	1112	사는 곳: 무지개마을 무지개마을 에 살고, 좋아하는 일은.....	사는 곳: 무지개 마을 무지개 마을 에 살고, 좋아하는 일은.....	'무지개마을'이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데 붙여 썼다. '무지개 마을'을 '무지개 마을'로 띄어 쓴다.
65	9	국어	초등학교	1	정확	1112	아이들이 신 나게 발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발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신 나다'가 아닌 '신나다'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 나다'로 띄어 썼다. '신 나게'를 '신나게'로 수정한다.
66	9	국어	초등학교	2	정확	1222	" 똑같구나, 똑같애. "	" 똑같구나, 똑같아. "	'-애'는 맞춤법에 맞는 어미가 아닌데 사용되었다. '똑같애'를 '똑같아'로 수정한다.
67	9	국어	초등학교	2	정확	1112	벌써 입 속 에 침이 고이는걸	벌써 입속 에 침이 고이는걸	'입속'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띄어 썼다. '입 속'을 '입속'으로 붙여 쓴다.
68	9	국어	초등학교	2	정확	1112	신 나는 달팽이 놀이	신나는 달팽이 놀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신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나는'을 '신 나는'으로 띄어 썼다. '신 나는'을 '신나는'으로 수정한다.
69	9	국어	초등학교	2	정확	1112	정말 신 나고 즐거운 하루였다.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하루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신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신나고'를 '신 나고'로 띄어 썼다. '신 나고'를 '신나고'로 수정한다.
70	9	국어	초등학교	3	소통	2222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떠오르는 대로 써 봅시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써 봅시다.	'떠오르다' 앞에 '-애'라는 어구가 와야 하는데 '~애'라는 어구가 없어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떠오르는'을 '마음속에 떠오르는'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1	9	국어	초등학교	3	정확	1112	아이스케키를 많이 먹어서 혀가 얼얼해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함.	아이스케키를 많이 먹어서 혀가 얼얼해서 맛을 느끼지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함.	문맥상 아이스케키(→아이스 케이크)가 차가워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잘하지 못함'으로 '잘하지'를 붙여 썼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잘하지'를 '잘 하지'로 띄어 쓴다.
72	9	국어	초등학교	3	정확	1112	엄청나게 커다란 해가 해치의 입 속 으로 쏙 들어갔지.	엄청나게 커다란 해가 해치의 입속 으로 쏙 들어갔지.	'입속'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입'과 '속'을 띄어 썼다. '입'과 '속'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한다.
73	9	국어	초등학교	3	소통	2213	자신이 민주가 되어 응원하여 준 반 친구들에게 쪽지를 간단히 써 보시다.	자신이 민주가 되어, 응원하여 준 반 친구들에게 쪽지를 간단히 써 보시다.	"자신이 민주가 되어"라는 구절이 수식하는 말이 모호하다. "자신이 민주가 되어"라는 구절 다음에 침표를 찍어 중의성을 해소한다.
74	9	국어	초등학교	3	정확	1221	장승은 사람의 얼굴 형태를 나무에 그리거나 돌에 조각하였는데,	장승은 사람의 얼굴 형태를 나무에 그리거나 돌에 조각한 것인데,	'장승은'이라는 주어와 '조각하였는데'라는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조각하였는데'를 '조각한 것인데'로 수정하여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게 한다.
75	9	국어	초등학교	3	소통	2213	친구들과 말하는 종이컵 인형을 만들어 놀이를 해 보시다.	친구들과 '말하는 종이컵 인형'을 만들어 놀이를 해 보시다.	'친구들과'라는 어구의 수식 범위가 모호하다. 작은따옴표표를 활용하여 수식 범위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76	9	국어	초등학교	4	정확	1222	"하하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는 말이 맞긴 맞구나."	"하하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맞긴 맞구나."	원문의 작은따옴표는 인용할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용된 속담 뒤에는 직접 인용의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는'을 '라는'으로 수정한다.
77	9	국어	초등학교	4	소통	2223	나는 누구인가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누구인가와 말을 거의 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해당 표현을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로 수정한다.
78	9	국어	초등학교	4	소통	2213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 를 생각하며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사용해요.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 를 생각하며 상황에 알맞은 문장을 사용해요.	'여러 가지'가 수식하는 말의 범위가 모호하다.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를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로 수정하여 모호성과 중의성을 해소한다.
79	9	국어	초등학교	4	소통	2113	영화, 글, 음악, 게임 등을 만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창작한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영화, 글, 음악, 게임 등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창작한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문장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번째 문장의 '그들'에 일치하도록 첫 문장의 '사람이'를 '사람들이'로 수정한다.
80	9	국어	초등학교	4	소통	2223	중심 문장과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공부하여 보시다. -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 중심 문장에 대한 예를 든다. -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제시한다.	중심 문장과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공부하여 보시다. - 중심 문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 중심 문장에 대한 예를 든다. - 중심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뒷받침 문장으로 제시한다.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제시한다'는 것은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을 인과 관계에 알맞게 제시한다는 것인데,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제시한다"를 "중심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뒷받침 문장으로 제시한다"로 수정한다.
81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112	그러면 현주는 꼬마를 안고 개천가 풀썩에 가서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먹이는 것이었다.	그러면 현주는 꼬마를 안고 개천가 풀썩에 가서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 먹이는 것이었다.	'잡아먹이다'는 하나의 동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며, 문맥상 '잡아서 먹이다'인데 붙여 썼다. '잡아먹이는'을 '잡아 먹이는'으로 띄어 쓴다.
82	9	국어	초등학교	5	소통	2214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보다는 친구들끼리 서로 충고하며 품위 있는 말을 쓰려고 노력할 때에 거친 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때보다는 친구들끼리 서로 충고하며 품위 있는 말을 쓰려고 노력할 때에 거친 말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사구와 동사구의 병렬이 나타나 의미 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지도보다는'을 '지도 받을 때보다는'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3	9	국어	초등학교	5	소통	2221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 숲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벌레잡이풀은 열대 밀림 이나 고산 지대에서 삽니다.	'밀림'과 '숲'이 연이어짐으로써 의미의 중복이 발생했다. '밀림'이 '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깊은 숲'을 의미하므로 '밀림 숲'을 '밀림'으로 수정한다.
84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211	시간이 정지한 듯 얼어붙은 땅, 높게 덮인 눈과 혹독한 추위, 얼음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	시간이 정지한 듯 얼어붙은 땅, 수북하게 덮인 눈과 혹독한 추위, 얼음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생물.....	'높게 덮인'이라는 표현에서 '높게'라는 말이 문맥상 어색하다. '높게'를 '수북하게'로 수정한다.
85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222	아무래도 이젠, 나한테 나는 냄새 같았다. 왜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아무래도 이젠, 나한테서 나는 냄새 같았다. 왜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문맥상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인데 '한테서'가 아닌 '한테'를 사용했다. '나한테'를 '나한테서'로 수정한다.
86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112	자신이 기동이라면 재훈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생각하여 보고 131쪽 의 빈 말주머니 에 써 봅시다.	자신이 기동이라면 재훈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생각하여 보고 131쪽 의 빈 말 주머니 에 써 봅시다.	'말주머니'는 말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말주머니'를 '말 주머니'로 띄어 쓴다.
87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112	파란 기와 집 어찌고저찌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란 기와집 어찌고저찌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와집'이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기와 집'으로 띄어 썼다. '기와 집'을 '기와집'으로 붙여 쓴다.
88	9	국어	초등학교	5	정확	1112	한 마디 씩	한마디 씩	짧은 말, 또는 간단한 말을 의미하는 '한마디'에서 '한'과 '마디'를 띄어 썼다. '한마디'가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마디'를 '한마디'로 붙여 쓴다.
89	9	국어	초등학교	6	정확	1112	'꼭 1)한 번 달에 가고 싶다.' 2)고 꿈꿨던 기억이 아스아스 떠올랐어.	'꼭 1)한번 달에 가고 싶다.' 2)라고 꿈꿨던 기억이 아스아스 떠올랐어.	1) '기회' 있는 어떤 때에'라는 의미를 갖는 '한번'을 '한 번'으로 띄어 썼다.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한다.
90	9	국어	초등학교	6	정확	1222	'꼭 1)한 번 달에 가고 싶다.' 2)고 꿈꿨던 기억이 아스아스 떠올랐어.	'꼭 1)한번 달에 가고 싶다.' 2)라고 꿈꿨던 기억이 아스아스 떠올랐어.	2)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잘못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로 수정한다.
91	9	국어	초등학교	6	정확	1222	'나는 불행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잘못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로 수정한다.
92	9	국어	초등학교	6	소통	2222	그렇지만 콜럼버스의 항해로 신대륙과 유럽의 교역이 왕성해져서 세계 문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어.	그렇지만 콜럼버스의 항해는 신대륙과 유럽의 교역이 왕성해져서 세계 문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어.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콜럼버스의 항해로'를 '콜럼버스의 항해는'으로 고치는 것과 같이, 주어를 밝혀 서술함으로 써 의미가 소통되도록 한다.
93	9	국어	초등학교	6	소통	2223	이토 를 '이 톨아.'속으로 이 갈면서 아이들은 따라갔습니다.	이토에게 '이 톨아.'라고 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이들은 따라갔습니다.	'이 갈다'라는 표현은 앞에 목적어가 오기에 어색한 표현인데 '이토를'이라는 목적어가 앞에 왔다. '이토를'을 '이토에게'로 고치고 뒷부분을 의미가 통하도록 수정한다.
94	9	국어	초등학교	6	정확	1112	화내서 미안해. 공을 잘못 던질 수도 있는 건데 이기고 싶은 마음에 화를 냈어.	화내서 미안해. 공을 잘 못 던질 수도 있는 건데 이기고 싶은 마음에 화를 냈어.	문맥상 '틀리거나 그릇되게', '적당하지 아니하게'를 의미하는 '잘못'이 적절하지 않다. '잘못'을 '잘 못'으로 띄어 쓴다.
95	7	국어	중학교	1	소통	2221	1982년 프로 야구 원년 당시, 꼴찌 팀 삼미 슈퍼스타즈의 패전 처리 전문 투수(경기의 패배가 확실할 때 투수들이 다음 경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 나서는 교체 투수)로 활동했던 '감사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이 제작되었다 .	1982년 프로 야구 원년 당시, 꼴찌 팀 삼미 슈퍼스타즈의 패전 처리 전문 투수(경기의 패배가 확실할 때 투수들이 다음 경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 나서는 교체 투수)로 활동했던 '감사용'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이 제작되었다 .	'제작되다'는 '만들어지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해당 문장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만들어졌다'와 같이 중복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관형절의 '만든'을 삭제하여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6	7	국어	중학교	1	소통	2221	감사용 자신의 선수 경력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영화화되는 것을 승낙한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영화가 오늘의 프로 야구가 있게 한 수많은 무명 선수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감사용 자신의 선수 경력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영화화되는 것을 승낙한 이유에 대해, 이 영화가 오늘의 프로 야구가 있게 한 수많은 무명 선수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술어 '말한다'에 대한 주어가 두 가지로 중복 제시되었다. 두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일치하므로 뒤의 것을 삭제하고 부사절 뒤에 싹표를 추가한다.
97	7	국어	중학교	1	소통	2211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확장'은 표준국어대사전상 이미 사동의 의미(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힘)를 지니는데, 사동 접사 '-시키다'를 다시 사용하였다. '확장시키다'를 '확장하다'로 수정한다.
98	7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2	배경 지식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99	7	국어	중학교	1	소통	2222	서자는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서자는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관직에 진출하는 주체와 금지한 주체가 문장에서 생략되어 있다. 주어 생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앞 문장과 같은 주어의 문장으로 수정한다.
100	7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2	한적한 시골길 을 걸으면서	한적한 시골길 을 걸으면서	'시골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01	7	국어	중학교	2	정확	1113	'아빠와 나'라는 옆의 만화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색깔도 구분 못한다.' 는 아빠의 편견 은,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려는 아빠의 그릇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있다.	'아빠와 나'라는 옆의 만화는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여 대하는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색깔도 구분 못한다는 아빠의 편견 은, 사람을 '색깔'로 구분하려는 아빠의 그릇된 가치관을 풍자하고 있다.	간접 인용절의 형식에 맞지 않게 표현되었다. "아빠는 나한테 색깔도 구분 못하냐고 화냈다."라는 만화의 서술 부분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므로,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삭제한다.
102	7	국어	중학교	2	정확	1222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1안)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2안)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이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	직접 인용절에 간접 인용의 '-다'는'이 사용되었으며, 간접 인용절을 강조하는 맥락이라 볼 경우 "-다.'는'의 마침표가 잘못 사용되었다. 1안)과 같이 직접 인용으로 보아 '-라는'으로 수정하거나, 2안)과 같이 간접 인용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마침표를 삭제한다.
103	7	국어	중학교	2	정확	1112	배경 지식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04	7	국어	중학교	2	정확	1112	위 대화에서 (가)학생 과 같이	위 대화에서 (가) 학생 과 같이	두 단어를 붙여 썼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105	7	국어	중학교	2	정확	1211	책 이름(지은이) 인생은 아름다워(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작품 이름(저자/감독) 인생은 아름다워(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책과 영화의 제목을 통칭하는 용어로 '책 이름'이, 저자와 감독을 통칭하는 용어로 '지은이'가 사용되어, 어휘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책'을 '작품'으로, '지은이'를 '저자/감독'으로 수정한다.
106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322	'먹는다', '만머느리', '잡는다' 발음 제시됨.) 또 '담력'을 [담녁]으로, '종로'를 [종노] 라고 할 때는 '르'이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ㄴ 소리인 'ㄹ', ㄴ'이 ㄴ소리가 아닌 자음을 ㄴ소리로 만든 것이다.	'먹는다', '만머느리', '잡는다' 발음 제시됨.) 또 '담력'을 [담녁]으로, '종로'를 [종노] 라고 할 때는 '르'이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ㄴ 소리인 자음이 ㄴ소리가 아닌 자음을 ㄴ소리로 만든 것이다.	'(자음 중화는) ㄴ소리인 'ㄹ', 'ㄴ'이 ㄴ소리가 아닌 자음을 ㄴ소리로 만든 것이다.'란 설명 자체는 오류가 없으나, 이는 앞 문장에서 예로 든 '종로'를 설명하지 못한다. ㄴ소리인 'ㄹ', 'ㄴ'이란 표현을 ㄴ소리인 '자음'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7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223	“ㅎ·ㄴ저 읍서에,” “퍼독 온나.” 이 말들은 표준어로 “ 어서 오세요. ”에 해당하는 말로, 앞의 것은 제주도 방언이고 뒤의 것은 경상도 방언이다.	“ㅎ·ㄴ저 읍서에,” “퍼독 온나.” 이 말들은 표준어로 “ 어서 오세요. ”와 “ 빨리 오너라. ”에 해당하는 말로, 앞의 것은 제주도 방언이고 뒤의 것은 경상도 방언이다.	‘어서’의 중의성으로 인해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어서’는 반갑게 맞아들일 때 쓰이기도 하고, ‘빨리’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제주도 방언은 두 의미 모두로 해석 가능하나 경상도 방언은 ‘빨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경상도 방언의 어미 ‘-ㄴ나’는 ‘-너라’의 방언으로 해라체이므로, ‘오세요’와 높임의 등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의미를 따로 제시한다.
108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221	3분이 지나면 치아 표면에 충치 발생의 주범인 플라크에 세균 막이 형성된다.	3분이 지나면 치아 표면에 충치 발생의 주범인 플라크(치면세균막) 가 형성된다.	‘치아 표면에’, ‘플라크에’와 같이 부사어가 중복되었고, ‘플라크’의 유의어가 ‘치면세균막’임을 고려하면 플라크에 세균막이 형성된다는 표현 역시 의미가 중복된다. ‘플라크’를 주어로 수정하고 유의어인 ‘치면세균막’을 함께 표시한다.
109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5만 여 마리	5만여 마리	‘여’는 접사인대 앞 단어로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10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222	각 방송사 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 다.	각 방송사 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의 부사어에 붙는 조사인데,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있다’로 형용사이다. ‘에서’를 장소의 부사어 뒤에 붙는 ‘에’로 수정한다.
111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교통 편 은 어떤지	교통편 은 어떤지	‘교통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12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321	디지털 치매를 막으려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와 중요한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외우고, 신문이나 책을 매일 한두 시간씩 정독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메모, 일기 쓰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도 글쓰기의 발달을 탄식한 적이 있다. 머리에 생각을 담아두는 대신 기록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할 것이라 우려 에서다. 이젠 디지털 기기가 기억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디지털 치매를 막으려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와 중요한 전화번호를 의도적으로 외우고, 신문이나 책을 매일 한두 시간씩 정독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크라테스는 글쓰기의 발달을 탄식한 적이 있다. 머리에 생각을 담아두는 대신 기록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할 것이라 우려 에서다. 이젠 디지털 기기가 기억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메모와 일기 쓰기도 글쓰기의 일종인데, 선행 문장에서는 이를 권하고 후행 문장에서는 글쓰기(기록) 발달에 따른 우려를 다루어 응집성이 부족하다. 또한 해당 문단의 앞부분은 디지털 치매 예방법을, 뒷부분은 기록이 기억을 대신하는 현실을 다루어 응집성이 부족하다. 메모와 일기 쓰기를 권하는 문장을 삭제하고, 뒷부분은 결론으로서 새로운 문단으로 독립시킨 후 보조사를 수정한다.
113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113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석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석가탑 과 마주 보고 2)있으면서 3)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 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삼층 석탑 과 마주 보고 2)있습니다. 3)이 두 탑은 각각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1)과 같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삼층 석탑’, ‘불국사 삼층 석탑’, ‘석가탑’이 한 문단 안에서 혼용되었다. 뒤쪽 문장의 석가탑을 삼층 석탑으로 수정하고, 불국사 삼층 석탑이 석가탑임을 괄호에 넣어 병기한다.
114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석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석가탑 과 마주 보고 2)있으면서 3)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 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삼층 석탑 과 마주 보고 2)있습니다. 3)이 두 탑은 각각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1)의 ‘삼층 석탑’은 두 단어인데 붙여 썼다. ‘불국사 삼층 석탑’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나, ‘삼층 석탑’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써야 하며, 표기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삼층 석탑’, ‘불국사 삼층 석탑’ 모두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5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222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석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석가탑 과 마주 보고 2)있으면서 3)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 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삼층 석탑 과 마주 보고 2)있습니다. 3)이 두 탑은 각각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2)에서 ‘-면서’라는 어미를 사용한 것은, 다보탑이 석가탑과 마주보고 있다는 정보와 다보탑이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동시에 겹치고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연결 어미를 종결 어미로 수정하여 후행절을 새로운 문장으로 독립시킨다.
116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222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석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석가탑 과 마주 보고 2)있으면서 3)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불국사 안에는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 1)삼층 석탑 , 다보탑, 해탈교 등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1)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은 국보 제21호로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높이는 8.2미터이고,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으면서도 우아한 통일 신라 시대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또한 국보 20호인 다보탑은 높이가 무려 10.4미터에 이르며, 1)삼층 석탑 과 마주 보고 2)있습니다. 3)이 두 탑은 각각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3)에서 다보탑이 석가여래의 설법 모습을 형상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보탑은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석가여래의 설법을 증명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부적절한 생각으로 인해 정보의 오류가 발생했다. 석가탑은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있는 석가여래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그의 설법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찬탄하는 다보여래를 상징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여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였다.
117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여행 왕 초보자인 당신!	여행 왕 초보자인 당신!	‘왕-’은 접사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18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이런 가치를 인정 받아 ,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	‘인정받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19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322	정재환: (상락) 주말에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학생 3: 왜요? 정재환: (상락) 주말에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학생 3: 왜요? 정재환: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정재환: (상락) 주말에 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학생 3: 왜요? 1안) 정재환: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2안) 정재환: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특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시청률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거절한 이유 추가)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거절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 했으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지만 후회는 없어요.	1안) 프로그램 거절 이유를 언급한 문장의 서술어는 ‘많아요’로, ‘-아요’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기에 후행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것을 기대케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유를 다루는 것은 해당 문장뿐이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인 ‘-아서’를 활용해 해당 문장에서 “왜요?”에 대한 답변이 완결됨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안) 해당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것을 거절한 이유로 충분치 않다. 시청률에 민감한 프로그램을 거절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120	7	국어	중학교	3	소통	2222	좋은 질문은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질문은 전문가 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고, 면담자가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포절 중 후행절의 주어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선행절의 주어인 ‘전문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후행절의 주어로 ‘면담자가’를 추가한다.
121	7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집중 포화	집중포화	‘집중포화’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22	9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2	그러다가 부재 중 통화를 확인한다.	그러다가 부재중 통화를 확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된 ‘부재중’에서 ‘부재’와 ‘중’을 띄어 썼다. ‘부재중’으로 고쳐 표기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3	9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2	<u>그만 하랬지.</u> 어린애 같은 짓.	<u>그만하랬지.</u> 어린애 같은 짓.	표준국어대사전에 '그만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만하다'로 띄어 썼다. '그만 하랬지'를 '그만하랬지'로 수정한다.
124	9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3	시간 경과. 옥림,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u>수경 미소</u> 를 짓고 있다.	시간 경과. 옥림,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 <u>수경, 미소</u> 를 짓고 있다.	'수경' 다음에 침표가 필요한데 침표가 없다. 침표를 첨가한다.
125	9	국어	중학교	1	소통	2113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u>보이게 한다.</u>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u>보이게 하다.</u>	사전 뜻풀이를 제시한 부분인데 '하다'가 아닌 '한다'로 종결되었다. '한다'를 '하다'로 수정한다.
126	9	국어	중학교	1	정확	1112	함께 <u>축구시합</u> 을 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u>축구 시합</u> 을 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한 단어가 아닌 '축구 시합'을 붙여 썼다. 두 단어로 띄어 쓴다.
127	9	국어	중학교	2	정확	1113	그 이유로는 <u>늦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가</u>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 <u>늦은 결혼 탓에 나이가 많아서</u> "가 가장 많았고,	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에 큰따옴표를 추가한다.
128	9	국어	중학교	2	정확	1221	봉사 활동을 할 곳을 찾기 어렵고 점수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u>문제점과</u> ,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의미 있기 때문에 봉사 활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봉사 활동을 할 곳을 찾기 어렵고 점수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u>문제점이 지적되었고</u> ,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의미 있기 때문에 봉사 활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주어-서술어 호응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129	9	국어	중학교	2	정확	1113	이 책을 추천한 친구에게 따지고 <u>싫었어요</u>	이 책을 추천한 친구에게 따지고 <u>싫었어요.</u>	문장 종결 지점에 마침표를 쓰지 않았다. 마침표를 첨가해야 한다.
130	9	국어	중학교	2	소통	2223	이처럼 <u>새 주소를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바탕으로 바꾼</u> 이유는 무엇일까?	이처럼 <u>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바탕으로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꾼</u> 이유는 무엇일까?	문맥상 '새 주소를' 바꾼다는 것이 어색하다. 기존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꾼다는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131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11	'체념과 달관'에 6) 각주 표시.	'한곳'에 6) 각주 표시.	6) 각주 풀이 내용이 '같은 곳'이므로 6) 각주를 '한곳'으로 옮긴다.
132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21	각종 연구와 <u>저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u> 우리 언어문화와 언론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와 <u>저술 활동을 벌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u> 우리 언어문화와 언론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와 저술'을 '개최'한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연구와 저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를 '각종 연구와 저술 활동을 벌이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로 수정한다.
133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경지: 경작하는 토지. <u>농사 땅.</u>	경지: 경작하는 토지. <u>농사땅.</u>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농사땅'의 '농사'와 '땅'을 띄어 썼다. '농사'와 '땅'을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34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11	국가는 유전자 조작 <u>기술이 높아짐</u> 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술을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유전자 조작 <u>기술이 향상됨</u> 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술을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높아짐'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기술이 향상됨'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135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22	그러나 서양 그림을 모방하여 그리는 듯한 그곳의 분위기는 '참된 예술은 태어나 자란 곳의 땀냄새가 흠뻑 배어 있어야 <u>한다.</u> ' <u>는</u> 그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서양 그림을 모방하여 그리는 듯한 그곳의 분위기는 '참된 예술은 태어나 자란 곳의 땀냄새가 흠뻑 배어 있어야 <u>한다.</u> ' <u>라는</u> 그의 생각과 맞지 않았다.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 '-다'는 잘못 사용되었다. 직접 인용의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136	9	국어	중학교	3	소통	2113	등재: ①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u>올린다.</u> ② 서적이나 잡지 따위에 <u>실다.</u>	등재: ① 일정한 사항을 장부나 대장에 <u>올림.</u> ② 서적이나 잡지 따위에 <u>실음.</u>	명사에 대한 뜻풀이인데도 동사로 끝맺은 상태이다. 해당 동사인 '올린다', '실다'를 명사형인 '올림', '실음'으로 수정한다.
137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우투리가 그걸로 감옷을 짓는데, 붉은 쿵을 하나하나 붙여 옷을 만드니 온몸을 다 가릴 만큼 되었어. 그런데 딱 한 알이 모자라서 <u>한군데</u> 를 못 가렸어.	우투리가 그걸로 감옷을 짓는데, 붉은 쿵을 하나하나 붙여 옷을 만드니 온몸을 다 가릴 만큼 되었어. 그런데 딱 한 알이 모자라서 <u>한 군데</u> 를 못 가렸어.	'한군데'는 어떤 일정한 곳을 가리키는데, 이 문맥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군데'를 가리키는 말이 와야 한다. '한군데'를 '한 군데'로 수정한다.

연번	교과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8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11	유전자 조작 농산물 찬성론자들은 해충과 잡초에도 잘 건디는 품종을 길러 내면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찬성론자들은 해충과 잡초에도 잘 건디는 품종을 길러 내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한다.
139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112	이곳 에 쓰인 '≡'는 동의어를, '≡'는 유의어를 가리킵니다.	이곳 에 쓰인 '≡'는 동의어를, '≡'는 유의어를 가리킵니다.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이곳'에서 '이'와 '곳'을 띄어 썼다. '이'와 '곳'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한다.
140	9	국어	중학교	3	소통	2113	주말·공휴일이 여가는 길지만, 독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일 21.9% 에 비해 적은 9.31%로 나타났다.	(문장과 표의 내용을 통일하여 제시해야 함.)	해당 문장 밑의 표에서는 여가에서 독서 시간의 비중(평일 평균, 단위: %)을 21.0으로 처리하여, 문장과 표에서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둘 중 하나로 통일하도록 수정한다.
141	9	국어	중학교	3	정확	1221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한 민족 은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모두 성인(聖人)을 만드는 데 있다.	최고 문화 건설의 사명을 달한 민족이 지향할 바 는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모두 성인(聖人)을 만드는 데 있다.	"민족은~성인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어색하다. "민족은"을 "민족이 지향할 바는"으로 수정한다.
142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113	'노다지'의 경우 북한 사전에선 '많이 쏟아져 나오는 광석이나 광맥 '으로 남한 사전에선 '캐내려 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 있는 광맥'으로 풀이되어 있다.	'노다지'의 경우 북한 사전에선 '많이 쏟아져 나오는 광석이나 광맥 '으로 풀이되어 있다.	나열의 의미를 갖는 쉼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쉼표를 첨가한다.
143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113	'애완동물'에 대한 상대의 관심이나 , 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화의 주제와 말하기 방식 등을 생각해 본다.	'애완동물'에 대한 상대의 관심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화의 주제와 말하기 방식 등을 생각해 본다.	쉼표가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사용되었다.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사용된 쉼표를 삭제한다.
144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11	"안네의 일기" 암스테르담에서 독일군의 박해를 피하여 은신처를 옮기면서부터 독일군에게 잡히기까지의 생활을 적은 것으로, 사춘기 소녀의 성장 과정과 곳곳한 용기를 그리고 있다. 1947년에 출간하였다 .	"안네의 일기" 암스테르담에서 독일군의 박해를 피하여 은신처를 옮기면서부터 독일군에게 잡히기까지의 생활을 적은 것으로, 사춘기 소녀의 성장 과정과 곳곳한 용기를 그리고 있다. 1947년에 출간되었다 .	마지막 문장에서 피동형('출간되었다')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능동형('출간하였다')이 사용되었다. 능동형을 피동형으로 수정한다.
145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222	글쓴이가 한식의 세계화 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글쓴이가 한식의 세계화 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접근하다' 앞에 '를'이라는 조사가 와서 비문법적이다. 해당 조사('를')를 '에'로 수정한다.
146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23	다음 <조건>에 따라 찾은 색을 그림에 칠하여 탐을 완성해 보자. <조건> 같은 색을 나란히 칠해서는 안 된다. 색깔이 부족한 새로운 문장을 찾아 부족한 색을 마련한다.	앞 활동에서 찾은 색을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림에 칠하여 탐을 완성해 보자. <조건> 같은 색을 나란히 칠해서는 안 된다. 색깔이 부족하면 새로운 문장을 찾아 부족한 색을 마련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라는 어구가 수식하는 말이 다중적이다. '칠하여'를 수식하도록 어순을 조정하여 수정한다.
147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22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글 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대상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글 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있는가?	문장 성분(주어)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관점'이라는 주어를 첨가하도록 수정한다.
148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21	말과 글처럼 언행의 구분과 기능이 따로 있듯이, 또한 각각 특유의 매력 이 있다. 그러므로 표현에 있어서도 특유의 장점과 매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것이다.	말과 글은 구분되며 기능이 서로 다른데, 또한 각각 특유의 매력 이 있다. 그러므로 표현에 있어서도 특유의 장점과 매력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것이다.	첫 문장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데, 이는 의미상 중복되는 표현이 쓰였기 때문이다. 의미의 중복을 없애도록 수정한다.
149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21	물론 말에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처럼, 구어와 문어처럼 말과 글은 구분되어야 한다 .	물론 말에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처럼, 말과 글은 구분되어야 한다 .	"~처럼"이라는 어구가 반복되어 어색하다. "구어와 문어처럼"이라는 잉여적인 어구를 삭제하도록 수정한다.
150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113	박현민 하지 마 .	박현민! 하지 마 .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 따르면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느낌표를 사용하는데, 부르는 말 뒤에 느낌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느낌표를 첨가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51	9	국어	중학교	4	소통	2221	오히려 말로써의 자신과 용기는 오히려 회의와 경계심을 불러오기 쉽다.	오히려 말로써의 자신과 용기는 회의와 경계심을 불러오기 쉽다.	'오히려'라는 부사가 한 문장에서 중복 사용되어 어색하다. 부사 '오히려'를 하나만 사용하도록 수정한다.
152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112	요만 한	요만한	'요만하다'가 사전에 등재된 말인데 '요만'과 '한'을 띄어 썼다. '요만한'을 '요만한'으로 수정한다.
153	9	국어	중학교	4	정확	1112	잘 설명 드리게.	잘 설명드리게.	'-드리다'가 접사인데 앞말과 띄어 썼다. '-드리다'를 앞말과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54	9	국어	중학교	5	소통	2222	광고 8은 지하철의 노약자석과 일반석이 뒤바뀐 위기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략) 광고 9와 같이 새로운 음악을 유행시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하기도 한다.	광고 8은 지하철의 노약자석과 일반석이 뒤바뀐 위기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략) 광고 9는 새로운 음악을 유행시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광고 8에 대한 설명에서는 표면적인 주어를 명시하고 있으나, 광고 9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러한 주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표면적인 주어를 명시하도록 수정한다.
155	9	국어	중학교	5	소통	2211	아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비님께서 기력을 차차 회복하시는 데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나의 열성을 가상히 여기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목적어 다음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피동형 '회복되시는'을 능동형 '회복하시는'으로 수정한다.
156	9	국어	중학교	5	정확	1211	연우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이처럼 서술의 객체 가 되는 성분,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연우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이처럼 문장의 객체 가 되는 성분, 즉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는 행위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을 의미하는데, '서술의 객체'라 표현할 경우 필자가 서술하는 행위의 대상인 '연우'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 내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므로, '서술의 객체'를 '문장의 객체'나 '서술어의 객체'로 수정한다.
157	9	국어	중학교	5	정확	1211	주체 높임법에는 서술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서술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시키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주체 높임법에는 문장의 주체 와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문장의 주체 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신체의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시키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서술자)가 아닌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인데도 '서술의 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술의 주체'를 '문장의 주체'로 수정한다.
158	9	국어	중학교	5	소통	2113	진행상은 '민석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 있다', ' 아 가다 .'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완료상은 '민석이가 그림을 그려 놓았다: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 어 놓다 .' ' 어 버리다 .'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진행상은 '민석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 있다', ' 아/어 가다 .'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완료상은 '민석이가 그림을 그려 놓았다: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 아/어 놓다 .' ' 아/어 버리다 .' 등의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아 가다', '-어 놓다', '-어 버리다'에서 '-아/어' 표기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을 갖추고 '-아/어' 표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아' 혹은 '-어'를 '-아/어'로 수정한다.
159	9	국어	중학교	6	정확	1111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낡고 혈 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비록 귀퉁이가 낡고 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다'의 활용형이 '혈은'으로 잘못 사용되어 있다. '혈은'을 올바른 활용형인 '현'으로 수정한다.
160	9	국어	중학교	6	정확	1221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 한자나 일본 가나에 비해 일곱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판에 표시된 문자를 입력하는 즉시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 한자나 일본 가나에 비해 일곱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입력하는'과 '기록되는'의 주어가 다르다. '문자가'를 '문자들'로 '기록되는'을 '기록할 수 있는'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탄	근거
161	7	국어	고등학교	상	공공	3212	(문제시되는 그림의 호칭 중 일부분 제시함) ‘나’: 여성 인물 위쪽 부분: 형, 형수 인물 아래쪽 부분: 아주머니, 형님	(‘나’가 여성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의 그림을 분리 제시하여, 자신의 집안에 대한 호칭(‘오빠’, ‘형’ 등)과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호칭(‘아주머니’, ‘형님’ 등)을 남녀 모두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는 그림 하단에서 여성으로 설정되었으나, 인물 위쪽에 제시된 친족 호칭의 경우 남성 화자인 ‘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그림의 ‘나’와 맞지 않는다. 또한 인물 위쪽의 호칭은 아들인 ‘나’를 가정하고, 아래쪽의 호칭은 며느리인 ‘나’를 가정한 것으로, 사위인 ‘나’와 딸인 ‘나’의 경우는 배제되었다. 화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를 나누어 제시하여, 자신의 집안과 배우자의 집안에 대한 호칭이 균형 있게 제시되도록 수정한다.
162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223	* 선행 문단 발췌: 꽃[꽃], 만물[만물], 일길[일길], 꽃이[꽃치/꽃시], 꽃말[꽃말], 젊은 날의[나래] 위에서 ‘꽃(花)’이라는 낱말은 ‘[꽃]~[꽃+꽃시]~[꽃]’으로 서로 다르게 소리나지만, 일정한 음운 규칙을 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발음한다. 그러나 ‘ 만물 ’, ‘ 일길 ’, ‘ 날의 ’ 등의 말소리는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낱말을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면 언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발음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정하여 언어생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 낱개 문제: ‘ 만물 , 일길 , 날의 ’를 발음해 보고, 친구의 발음과 나의 발음을 비교해 보자.	* 선행 문단 발췌: 꽃[꽃], 만물[만물], 일길[일길] , 꽃이[꽃치/꽃시], 꽃말[꽃말], 젊은 날의[나래] 위에서 ‘꽃(花)’이라는 낱말은 ‘[꽃]~[꽃+꽃시]~[꽃]’으로 서로 다르게 소리 나지만, 일정한 음운 규칙을 따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발음한다. 그러나 ‘ 만물 ’, ‘ 일길 ’, ‘ 날의 ’ 등의 말소리는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낱말을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면 언어생활에 혼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발음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정하여 언어생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꽃이[꽃치]’, ‘만물[만물]’, ‘일길[일길]’이 표준 발음이며, ‘날의[나래]’가 허용되는 발음이라는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 * 낱개 문제: ‘ 만물 , 일길 , 날의 ’를 발음해 보고, 친구의 발음과 나의 발음을 비교해 보자.	표준 발음법 제정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언중의 다양한 발음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그중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활동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에 후행하는 문장들의 설명은 [교사]란 발음이 바르고 [나래]라는 발음이 틀리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 제정의 이유를 다루는 부분이지만 학습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례의 표준 발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163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331	1. 효과적으로 자기소개하기 개인정보 성격, 습관과 취향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려면? 잊지 못할 기억, 잊고 싶은 기억 휴대 전화 관련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끔 하는 일 지금 현재 상황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생각 이런 친구가 있다, 없다 예, 아니요.	1. 효과적으로 자기소개하기: 소개 내용의 예 개인정보 성격, 습관과 취향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려면? 잊지 못할 기억, 잊고 싶은 기억 휴대 전화 관련(삭제 또는 설명 추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끔 하는 일 지금 현재 상황 사람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생각 이런 친구가 있다, 없다 예, 아니요.(설명 추가)	‘단원 마무리’로서 “말하기(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와 관련된 소단원 1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단원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목과 하위 항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예, 아니요’나 ‘휴대 전화 관련’ 등과 같은 항목들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항목과 성격이 균질하지 않아 보인다. 하위 항목들은 자기소개 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예를 제시하는 듯하므로 제목에 이를 반영하고, 균질하지 않거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설명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164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321	2. 독서 신문에 들어갈 내용 (3) 바깥, 바깥: 소설에서 대화 장면 하나를 선택해서 상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뒤, 태도를 바깥 희곡으로 각색한다. 각색하는 순서 소설의 원래 장면 제시 ① 상대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 분석 ② 어떤 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중략) ③ 다른 태도가 드러나게 희곡으로 각색 ④ 특목 공익 광고(중략) ⑤ 출동, 취재 현장(중략) ⑥ 성격으로 본 오늘의 날씨(오늘의 운세)(중략) ⑦ 굿모닝 레터(중략) ⑧ 그림 마당(하략)	2. 독서 신문에 들어갈 내용 (3) 바깥, 바깥: 작품을 선택하여 다음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각색한다. 다양한 각색 방법 ① 소설의 원래 장면 제시 후 인물의 태도를 바꾸어 희곡으로 각색하기 ② 특목 공익 광고(중략) ③ 출동, 취재 현장(중략) ④ 성격으로 본 오늘의 날씨(오늘의 운세)(중략) ⑤ 굿모닝 레터(중략) ⑥ 그림 마당(하략)	(3) 바깥, 바깥의 ①~③은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것이고, ④~⑧은 희곡 외의 여러 독후 활동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문단의 지시문 및 ‘각색하는 순서’라는 안내 표현은 희곡 각색만을 의미하므로 ①~⑧을 대표하지 못한다. 지시문과 안내 표현을 수정하고, ①~③을 하나의 항목으로 요약하여 다른 항목과 동등하게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65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3	교조적(敎條的):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또는, 그런 것.	교조적(敎條的):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또는 그런 것.	불필요하게 침표를 사용하였다. 사전에서도 개선안과 동일하게 침표 없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침표를 삭제한다.
166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11	그래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 사회의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친구 역할을 한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내면의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진정한 친구가 없는 현대 사회의 많은 청소년에게 따뜻한 친구 역할을 한다.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꿈을 키우기도 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내면의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목적어가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이므로 서술어로 '들다'는 적절하지 않다. '들으면서'를 후행절과 동일하게 '통해'로 수정한다.
167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322	그러면 음절의 끝에 놓인 자음은 항상 한 가지 음으로만 발음될까? 다음 두 학생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자. 질문: 화려한 겉옷은 겉으로만 (중략) 진호: 받침소리는 7개만 발음한다고 했으니 '거들', '거드로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 경숙: 아니야, 이럴 때에는 제 음가대로 '거튼', '거드로만'으로 발음해야 해. 자음이 음절의 끝에 놓였어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겉옷'은 '겉옷'→'거들'으로 발음한다.	그러면 음절의 끝에 놓인 자음은 항상 한 가지 음으로만 발음될까? 다음 학생들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자. 질문: 화려한 겉옷은 겉으로만 (중략) 진호: 받침소리는 7개만 발음한다고 했으니 '거들', '거드로만'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지. 경숙: 아니야, 이럴 때에는 제 음가대로 '거튼', '거드로만'으로 발음해야 해. [거들], '거드로만'이라는 학생 발언 추가.) 자음이 음절의 끝에 놓였어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따르지 않고 앞 단어의 받침에 있던 소리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에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겉옷'은 '거트'로 발음하고, '겉옷'은 '겉옷'→'거들'으로 발음한다.	본문에서 두 학생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살펴보라 하였으나, 제시된 두 의견은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문항의 답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후행하는 문단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따른 발음 차이를 설명하였나, '겉옷'의 발음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른 발음을 다른 학생 의견을 추가 제시하고, 설명에 따른 사례로 '겉옷'과 '겉으로만'의 경우를 모두 다루도록 수정한다.
168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22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언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로서 사회방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언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로서 사회방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통해 사회 방언의 특성을 이해하는 맥락이 아닌데,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로써'가 사용되었다. '다양한 언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예'라는 자격을 나타내도록 '로서'로 수정한다.
169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21	너는 지나치게 외골수라는 게 문제야.	너는 지나치게 외골수라는 게 문제야.	'외골'이 '외골수'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외골'을 표준어로 삼되, '단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외골수'는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즉 '외골수'는 '외골'과 별개의 단어이므로, 의미에 맞는 표기인 '외골수'로 수정한다.
170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22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냉장고는 1)2)물건만 저장하지 3)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이러한 냉장고는 2)식품을 1)저장하는 기능만인 3)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1)에서 보조사 '만'이 '물건'을 한정하기에 후행 문장에서 냉장고가 물건 외의 것을 저장함을 다룰 것을 기대케 하나, 실제로는 '저장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갖춘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보조사 '만'을 그 뒤에 붙이도록 수정한다.
171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11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냉장고는 1)2)물건만 저장하지 3)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이러한 냉장고는 2)식품을 1)저장하는 기능만인 3)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앨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2)에서 냉장고의 기본적 기능으로 물건 저장을 언급하고 있지만, 냉장고는 물건을 저장한다기보다는 식품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물건'을 '식품'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72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211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냉장고는 1)2)를건만 저장하지 3)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엘법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이러한 냉장고는 2)식품을 1)저장하는 기능만이 3)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엘법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3) 이 문단은 발전된 냉장고의 기능을 예상하는 부분이기에, "만약에 ~나올 것이다."와 같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3)에서는 현재 시제와 완료상을 사용하여, 문단 내에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미래 시제로 수정한다.
173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312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냉장고는 1)2)를건만 저장하지 3)않는다. 냉장고에는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엘법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만약에 유비쿼터스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장물을 점검하여 부족한 식품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집주인의 휴대 전화나 개인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장착된 것이다. 4)이러한 냉장고는 2)식품을 1)저장하는 기능만이 3)아니라, 컴퓨터·텔레비전·오디오·엘법 기능까지 갖추고 있을 것이다.	4)에서 주어로 '냉장고'가 사용되어 현재의 일반적 냉장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맥락상 주어는 선행 문장들에서 다루고 있는 '더욱 발전된 기능을 가진 냉장고'이다. '냉장고' 앞에 '이러한'이라는 지시형용사를 추가한다.
174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3	모두 사개가 물러나서	모두 사개가 물러나서	뜻풀이 제시 단어는 '사개'인데 드러냄표를 '모두' 위에 잘못 표시하였다. '사개' 위로 수정한다.
175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3	바를 리는 만무이고	바를 리는 만무이고	뜻풀이 제시 단어는 '만무'인데 드러냄표를 '리는' 위에 잘못 표시하였다. '만무' 위로 수정한다.
176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2	배경 지식	배경지식	'배경지식'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구가 아닌 한 단어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177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3	보건 복지 가족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의료적 판단이 아닌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 복지 가족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의 본격 허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의료적 판단이 아닌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국민 의식과 외국 사례를 파악한 뒤, 법으로 이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용문의 끝부분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였으나, 시작 부분에서 따옴표를 빠뜨렸다. 큰따옴표를 추가한다.
178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2	소리나지만	소리 나지만	'소리나다'는 한 단어가 아닌데 붙여 썼다.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179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3	시간의 흐름이나, 지역에 따라 말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낱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되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이나 지역에 따라 말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낱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발음되기도 한다.	불필요하게 쉼표가 사용되었다. 삭제하도록 한다.
180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211	어렸을 때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호칭이 바뀌어, 출가를 하게 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으로 다시 호칭이 변한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 성인이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호칭이 바뀐다.	편지글의 경우를 제외하면, 살아 계신 자기 부모를 부를 때 '-님' 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표준 화법이므로 설명이 잘못되었다. 해당 절을 삭제한다.
181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311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그러나 2)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또한 2)같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1) 직업어의 특성으로서 '특수 용어로 전문성'과 '집단 내 친밀감' 고강, 업무 이해 증진'은 직접 관계가 아닌데 '그러나'가 사용되었다. 특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아 '또한'으로 수정한다.
182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11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그러나 2)같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직업어는 특정 직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쓰는 특수한 용어로 전문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1)또한 2)같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2)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은 집단 외의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직업어가 집단 내 친밀감을 높인다는 특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사회'를 '집단'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83	7	국어	고등학교	상	소통	2222	이러한 시스템이 실현되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재고 및 물류 관리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재고 및 물류 관리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혁신을 가져올' 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선행절 '이러한 시스템이 실현되면'을 주어 '이러한 시스템은'으로 수정한다.
184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112	자신의 생각을 요약·정리 한다.	1안) 자신의 생각을 요약·정리한다. 2안) 자신의 생각을 요약정리한다. 3안) 자신의 생각을 요약정리 한다.	'요약하다'와 '정리하다'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가운뎃점으로 묶을 경우 '하다'를 띄어 써서는 안 된다. 1안)과 같이 '요약하다'와 '정리하다'를 가운뎃점으로 묶어서 표기하거나, 2안)과 같이 명사 '요약정리'가 한 단어이므로 접사 '-하다'를 붙여 쓰거나, 3안)과 같이 명사 '요약정리'와 동사 '하다'를 띄어서 쓴다.
185	7	국어	고등학교	상	정확	1211	젊은 학생들의 리더인 보조 교원 양흥목이 으레 진지한 표정으로 중이를 꺼내더니 적어 온 글을 읽었다.	젊은 학생들의 리더인 보조 교원 양흥목이 진지한 표정으로 중이를 꺼내더니 적어 온 글을 읽었다.	'으레'의 의미가 해당 문장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186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23	(상략) 그 선이 패퇴하는 모습을 보면 약에 비하여 그 인간형의 너무도 '호아형(好爺型)'이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무기력할 정도로 후퇴형이고 이른바 '무골호인형(無骨好人型)'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상략) 그 선이 패퇴하는 모습을 보면 약에 비하여 너무도 순하고 인물이 훌륭하다. 이러한 인간형을 '호아형(好爺型)'이라 한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무기력할 정도로 후퇴형이고 이른바 '무골호인형(無骨好人型)'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호아형(好爺型)'이라는 말이 본문에 제시되었지만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 본문의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후퇴형이고 이른바 무골호인형'이라는 설명은, '호아형'의 정의라기보다 유의어에 가깝다. 따라서 '호아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호아형'을 처음 언급한 문장에서 그 의미를 제시하도록 수정한다.
187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2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보금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에요. 가장 큰 것은 '살아 있다.'는 느낌이죠.	1안)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보금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에요. 2안)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보금자리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에요. 가장 큰 것은 '살아 있다.'는 느낌이죠.	직접 인용절에 간접 인용의 표지가 사용되었으며, 간접 인용절을 강조하는 맥락이라 볼 경우 "다:는"의 마침표가 잘못 사용되었다. 1안)과 같이 직접 인용으로 보아 '-라는'으로 수정하거나, 2안)과 같이 간접 인용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마침표를 삭제한다.
188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11	'금이가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금이의 삶은 파란만장했다.(후략)'	'금이가 자기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금이의 삶은 파란만장했다.(후략)'	간접 인용된 문장에서 화자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내가' 사용되었다. '자기'로 수정한다.
189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3	2)한때는 ~ 마음 아프다.『세빌리아의 이발사 나의 아버지』를 쓴 정○○ 군)1). 2)아버지에게~곯았다.『택시 드라이버』를 쓴 예○○ 군)1).	2)한때는 ~ 마음 아프다.『세빌리아의 이발사 나의 아버지』를 쓴 정○○ 군) 2)아버지에게~곯았다.『택시 드라이버』를 쓴 예○○ 군)	1) 괄호 앞 문장에는 이미 마침표가 찍혀 있어, 괄호 밖에 다시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다. 괄호 밖 마침표를 삭제한다.
190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3	2)한때는 ~ 마음 아프다.『세빌리아의 이발사 나의 아버지』를 쓴 정○○ 군)1). 2)아버지에게~곯았다.『택시 드라이버』를 쓴 예○○ 군)1).	2)한때는 ~ 마음 아프다.『세빌리아의 이발사 나의 아버지』를 쓴 정○○ 군) 2)아버지에게~곯았다.『택시 드라이버』를 쓴 예○○ 군)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쓰는 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191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14	4번의 실패와 3명의 대원을 잃은 후에 등정에 성공했어요.	4번의 실패를 겪고 3명의 대원을 잃은 후에 등정에 성공했어요.	관형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구와 절로 대등하지 않다. 명사구에 서술어를 추가한다.
192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22	그러나 외어 "비겁한 행동이지만 (중략) 헛갈리기 때문이다." 라며 "주변에 많은 우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중략) 너는 존경받아 마땅한 우주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났다." 라고 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냈다.	그러나 외어 그는 "비겁한 행동이지만 (중략) 헛갈리기 때문이다. 주변에 많은 우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중략) 너는 존경받아 마땅한 우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났다." 라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냈다.	해당 문장을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어 "∼"라며 "∼"라고 하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냈다. 즉 주어가 없고, '라며'에 이어지는 서술어가 없다. 주어를 추가하고 '라며'를 삭제한 후, 각 인용문을 하나의 따옴표 안에 배치한다.
193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그런 작품들을 자연 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	-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94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1	그리고 군악대 100명을 주어 금산벌에 나가 장례를 치르게 하고, 말은 이에게 비석을 세워 공과 명예를 기록하고 , 또 거기서 살 만한 집을 정하여 묘소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군악대 100명을 주어 금산벌에 나가 장례를 치르게 하고, 말은 이에게 비석을 세워 공과 명예를 기록하게 하고 , 또 거기서 살 만한 집을 정하여 묘소를 지키게 하였다.	해당 절과 심표로 구분되어 이어지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게 하다’로 끝나는데, 해당 절만 그렇지 않다. 또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왕은) 말은 이에게...기록하고’이므로 기록의 주체가 왕이 되었다. ‘기록하다’의 주체가 ‘말은 이’이고 시키는 주체가 ‘왕’이므로, 이 점이 드러나도록 ‘-게 하다’를 추가한다.
195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3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1안)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2안)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3안) 당시는 1)죽었다거나 월복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4안) 당시는 1)'죽었다'거나 '월복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직접 인용문으로 보아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하되, 2안)과 같이 간결한 표현을 위해 마침표를 삭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혹은 3안)과 같이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어 따옴표와 마침표를 삭제할 수 있으며, 간접 인용문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4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를 추가할 수 있다.
196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2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1안)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2안) 당시는 1)'죽었다.', "월복했다."2)라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3안) 당시는 1)죽었다거나 월복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4안) 당시는 1)'죽었다'거나 '월복했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2)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간접 인용의 표지를 사용하였다. 1안이 나 2안과 같이 '-라네'으로 수정하거나, 3안이나 4안과 같이 간접 인용절로 바꾸어 간접 인용의 표지를 유지한다.
197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23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이 세계 처음으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 하고(하락). (상략) 짜야짜야 어를 표기할 공식 문자로 한글을 도입했다 . (중략) 인구 6만여 명의 소수 민족인 짜야짜야 족은 독자적 언어를 갖고 있지만 문자가 없어 모어(母語) 교육을 못해 고유어를 잃을 위기 에 처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훈민정음 학회 관계자들이 바우바우 시를 찾아가 한글 채택을 건의 해(하락)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이 부족어 표기에 한글을 활용 하고(하락). (상략) 짜야짜야 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시범 도입하였다 . (중략) 이에 앞서 훈민정음 학회 관계자들은 인구 6만여 명의 소수 민족인 짜야짜야 족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기존의 로마자와 함께 한글 채택을 건의 했다(하락)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짜야짜야 족도 한글을 공식 문자 체계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어 표기에 적용하려는 상황인 것인데, 잘못된 정보가 제시되어 혼동을 줄 수 있다. 공식 문자로 채택하였다는 부분은 '부족어 표기에 한글을 시범 도입해 활용'한 것으로 수정하고, 문자가 없다는 부분은 삭제한다.
198	7	국어	고등학교	하	소통	2223	본문) 이러한 '호야형'의 대표적인 예는 일찍이 신라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처용 설화 에 나오는 처용 이 그러하다. 날개) 글쓴이는 호야형 인간상의 최초 인물 로 누구를 들었는지 찾아보자.	본문) 이러한 '호야형'의 대표적인 예는 일찍이 신라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처용 설화 에 나오는 처용 이 그러하다. 날개) 글쓴이는 호야형 인간상의 대표적 인물 로 신라 시대 의 누구를 들었는지 찾아보자.	본문에서는 신라 시대 호야형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처용을 들고 있을 뿐인데 날개 문제에서는 호야형 인간상의 최초 인물을 묻고 있어, 학습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 인물'로 표현을 수정한다.
199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시조는 철저한 인생시 라는 것	-	-
200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친지들은 조금 더 여위거나 하나 둘 아픈 곳이 늘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친지들은 조금 더 여위거나 하나들 아픈 곳이 늘어 있었다.	'하나들'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201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11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 는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이 글은 현대어 번역이며 한자음 은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를 따랐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당시 한자음을 새롭게 고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규정한 음이다. 원문은 '한자'의 표기가 달라진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한자음'으로 수정한다.
202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1	이 네 가지 식물은 군자의 덕을 지녔다고 하여 문인화의 지배적인 소재로 채택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꽃이 지닌 아름다움보다는 군자의 미덕을 드러내는 그 속성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할 것이다 .	이 네 가지 식물은 군자의 덕을 지녔다고 하여 문인화의 지배적인 소재로 채택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꽃이 지닌 아름다움보다는 군자의 미덕을 드러내는 그 속성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선행 문장의 '우리는'에서 후행 문장의 주어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아름다움을 느낀 주체는 '시조의 창작자(선조)'이지만, 선조가 지은 시조의 꽃을 해석하는 주체는 '우리'이다. 그런데 원문의 '할 것이다'는 '우리의' 해석을 추측하는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 마지막 문장은 대화와 국화가 시조에서 즐겨 불린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므로, '(우리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03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2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산을 오를 때마다 그는 ‘내가 미친놈이다.’ 고 생각한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산을 오를 때마다 그는 ‘내가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한다.	직접 인용절에 간접 인용의 조사를 사용하였다.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로 수정한다.
204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출판업계	출판업계	‘-게’가 접사이며 ‘출판업’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205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3	하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고	1안) 하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고 2안) 하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고 3안) 하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라고	속담을 직접 인용하면서 작은따옴표와 ‘고’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따옴표와 마침표를 삭제해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거나, 2안)과 같이 간접 인용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마침표를 삭제하거나, 3안)과 같이 큰따옴표와 ‘라고’로 수정해 직접 인용문으로 바꾼다.
206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현대극 및 서양극	현대극 및 서양극	‘서양극’은 ‘현대극’과 달리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04‘2.)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연극’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서양극’과 같이 붙일 수 있을 듯한데 띄어 썼다. ‘서양극’으로 수정한다.
207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112	현대시	-	-
208	7	국어	고등학교	하	정확	1222	홍 할머니는 “(중략) 우리가 ‘이제는 됐다.’ 는 소리 하고 살고 있건만 (중략)”라고 안타까워했다.	홍 할머니는 “(중략) 우리가 ‘이제는 됐다.’ 라는 소리 하고 살고 있건만 (중략)”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제는 됐다.’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직접 인용문인데, ‘-는’을 사용하였다. ‘-라는’으로 수정한다.
209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11	[白雲]	[白雲]	‘채’에 대해 잘못된 한자 표기가 사용되었다. 한자 표기를 수정한다.
210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113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문맥상 나열이나 휴지 등의 기능을 갖는 침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데 사용했다. 침표를 삭제한다.
211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22	대단원 을 들어가며	대단원 에 들어가며	‘들어가다’ 앞에 오는 조사로 ‘을’이 쓰였다. 사전에서는 ‘들어가다’가 “【...을】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본문의 ‘들어가다’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을’을 ‘에’로 수정한다.
212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22	대화 내용 을 공감적 듣기가 이루어지도록 옆 친구와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자.	대화 내용에 대해 공감적 듣기가 이루어지도록 옆 친구와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자.	문맥상 ‘대화 내용’에서 조사 ‘을’이 비문법적으로 사용되었다. ‘을’을 ‘~에 대해’로 수정한다.
213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113	문체란 글의 표현에 드러나는 개성적인 특색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말투를 말한다.	문체란 글의 표현에 드러나는 개성적인 특색으로 , 글을 쓰는 사람의 말투를 말한다.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침표를 쓸 수 있다. 원문에서는 이러한 자리에 침표가 사용되지 않아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 침표를 첨가한다.
214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11	언어생활을 규범 짓고 있다고	언어생활의 규범을 마련 하고 있다고	‘규범’과 ‘짓다’는 적절한 통합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다. 두 단어의 연결체를 문법적으로 적절하게 수정한다.
215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22	인과 관계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점과 같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인과 관계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과 같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어미 사용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어미 사용을 일관되게 하도록 수정한다.
216	9	국어	고등학교	1	소통	2212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을 먼저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아는 것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 것’ 형태로, 지나친 명사화 구성을 취해 부자연스럽다.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17	9	국어	고등학교	1	공공	3311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신다면 얼만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술까 말 청소하는 거 개쩔지 않습니까?	(다른 사례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부정적 언어 표현(품위를 갖추지 못한 언어 표현)의 예를 든 것이라 하더라도 심하게 저속한 표현이 쓰였다. 교과서 언어임을 고려하여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한다.
218	9	국어	고등학교	1	소통	2113	정부는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어 에 대한 편향을 없애고 지역 언어 를 통해 표준어를 풍성히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어 를 어문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공식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식 언어의 필요성이 지역 언어 의 불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언어 의 다양성이 문화의 풍부함을 말해 준다고 할 때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어 에 대한 편향을 없애고 지역어 를 통해 표준어를 풍성히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어 를 어문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공식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식 언어의 필요성이 지역어 의 불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어 의 다양성이 문화의 풍부함을 말해 준다고 할 때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지역어'와 '지역 언어'라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역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수정한다.
219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11	주제가 긴밀하지 않으면	주제를 이루는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제'라는 주어와 '긴밀하다'라는 서술어의 내용상 통합 관계가 어색하다. '주제를 이루는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도록 수정한다.
220	9	국어	고등학교	1	정확	1222	친구를 문병 가서	친구 에게 문병을 가서	'문병(을) 가다'라는 동사구 앞에 '을/를'이라는 조사가 와서 비문법적이다. 조사를 '에게'로 수정한다.
221	9	국어	고등학교	2	소통	2213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어휘들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변화의 유형을 정리해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 제시된 어휘들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변화의 유형을 정리해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라는 어구가 수식하는 말이 다중적이다. 중의성을 없앨 수 있도록 심표를 추가한다.
222	9	국어	고등학교	2	소통	2214	건강한 여가 시간의 확대는 물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가 시간의 확대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사구 구성과 동사구 구성이 병렬되어 있어 비문법적이다. 동사구 구성을 명사구 구성으로 수정한다.
223	9	국어	고등학교	2	정확	1112	관직을 그만 두고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그만두다'가 한 단어인데 띄어 썼다.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224	9	국어	고등학교	2	정확	1112	선정한 주제로 발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마련해 보자.	선정한 주제로 발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마련해 보자.	의존 명사로 쓰인 '데'를 앞말과 붙여 썼다. 앞말과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225	9	국어	고등학교	2	정확	1211	성례(成禮)	성례(成禮)	'성례'의 '성'이 한자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한자로 수정한다.
226	9	국어	고등학교	2	정확	1112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때문에 이 제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하략)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때문에 이 제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하략)	의존 명사로 쓰인 '데'를 앞말과 붙여 썼다. 앞말과 띄어 쓰도록 수정한다.
227	9	국어	고등학교	2	소통	2231	일광 절약 시간제의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의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개선의 측면에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번역투인 '~에 있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번역투 표현을 지양하고 좀 더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한다.
228	9	국어	고등학교	2	정확	1221	정확한 문장과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해야 한다.	문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해야 한다.	'문장을 한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229	9	국어	고등학교	2	소통	2211	초성·중성·종성이 합성한 글자	초성·중성·종성이 합성된 글자	'합성한'의 경우 문맥상 피동형 '합성된'이 알맞은데 능동형으로 썼다. '합성한'을 '합성된'으로 수정한다.
230	7	사회	초등학교	4	정확	1112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조화로운 삶을 위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한지역'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31	7	사회	초등학교	4	공공	3211	도시는 농촌 지역에 문화적 경험을, 농촌은 도시 지역에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농촌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음.)	농촌 역시 고유의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농촌이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232	7	사회	초등학교	4	정확	1221	우리는 대중 매체의 바람직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 매체의 바람직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도록 해야 하다'는 일인칭 주어 '우리는'과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 어미 '-도록'을 수정한다.
233	7	사회	초등학교	5	정확	1221	그러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졌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호응을 얻지 못한 대상이므로 원문을 피동의 서술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34	7	사회	초등학교	5	정확	1211	또한 당시 사회 문제와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사회 문제와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이 등장하였다.	발생(發生)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등장(登場)은 '어떤 사건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현상, 인물 등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옴'을 의미한다. 실학의 경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나옴을 뜻하는 '등장'으로 서술하는 편이 적절하다.
235	7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22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어 한국인의 항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게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어 그들의 한국인의 항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게 하였다.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중국인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 협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36	7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11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걸림들이었던 신분 제도가 폐지되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걸림들이었던 신분 제도를 폐지하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원문의 주어는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에서 신분 제도를 폐지한 것이므로 능동의 서술어로 수정하여야 한다.
237	7	사회	초등학교	5	정확	1222	한편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동원하였다.	한편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동원하였다.	'우리나라'와 '물자' 및 '사람들' 사이에 조사 '의'가 생략되어 있어 수식 관계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조사 '의'를 삽입한다.
238	7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221	고유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한다.	고유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한다.	원문의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해를 가지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해하다'를 서술어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239	7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22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과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까닭과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선행절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임을 밝히는 말을 삽입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240	7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131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 밝힌 외래어 표기에 따르면 '마틴 루서 킹'이 옳은 표기이므로 수정한다.
241	7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22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것을 '수입',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 오는 것을 '수입', 다른 나라에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	사 오거나 파는 대상인 목적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사 오거나 파는 '물건'을 수입, 수출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를 명확히 제시한다.
242	7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112	북반구에 있는 밀 수출 국가들이 4~10월에 밀을 수확하는데 반해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1~1월에 밀을 수확한다.	북반구에 있는 밀 수출 국가들이 4~10월에 밀을 수확하는 데 반해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는 11~1월에 밀을 수확한다.	이 문장에서의 '데'는 '일'이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43	7	사회	초등학교	6	공공	3111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도와주다'라고 기술하여 시혜적인 인상을 준다. 이를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44	7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311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1)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2)오르게 된다.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1)그러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2)오르게 된다.	1) 선행 문장은 천연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행 문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므로 역점의 접속어가 삽입되어야 한다.
245	7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221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1)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2)오르게 된다.	천연자원은 기업의 제품 생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1)그러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계속 2)오르게 된다.	2) '일이 어려워지고'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른다는 서술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격도 계속 오르게 된다."로 수정한다.
246	7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221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은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15~64세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뉜다.	한 나라의 인구 구성은 크게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15~64세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뉜다.	인구 구성이 몇 개의 층으로 나뉘는 것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어의 의미로 수정하여야 한다.
247	7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13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빈빈한 부족 간의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아프리카는 질병과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높은 문맹률, 부족 간의 빈빈한 충돌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부적절한 어순이다.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248	9	사회	초등학교	4	공공	3211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서부터 우리와 얼굴색이 다른 외국인 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서부터 우리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 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얼굴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적이 다른 사람이므로 수정한다.
249	9	사회	초등학교	4	소통	2222	처음에는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기도 하였습니 다.	처음에는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기도 하였습니	목적어를 명시하여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여성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250	9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11	1)민주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려고 앞은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한다고 2)말씀하셨다.	1)민주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려고 앞은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한다고 2)말씀하셨다.	2) '민주아버지께서는'으로 주체를 높였기 때문에 서술어에도 선어말어미 '-시-'를 써야 한다.
251	9	사회	초등학교	5	정확	1222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고, 호족에게는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백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거두었고, 호족 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호족이 세금을 거두는 주체이므로 '에게는'을 주격 조사 '이'로 수정하여야 한다.
252	9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23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석가탑 이라 불리는 삼층 석탑 이 있다.	1안)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 석가탑이라 불리는 삼층 석탑이 있다. 2안) 불국사에는 석가탑 이라 불리는 삼층 석탑과 다보탑 이 있다. 3안)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삼층 석탑(석가탑) 이 있다.	'삼층 석탑'이라 불리는 대상이 '다보탑과 석가탑'인지, '석가탑'인지 명확하지 않다. 후자임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안)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에 쓰는 점표를 사용한다. 2안) 어순을 조정하여 중의성을 해소한다. 3안) 관형절에서 다루는 보충 내용을 소괄호 안에 표시한다.
253	9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12	우리나라에는 경관이 아름답고 빼어난 곳이 많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 최고'를 선정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우리나라에는 경관이 아름답고 빼어난 곳이 많다. '우리 국토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정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우리 국토 '최고'와 같이 명사를 나열하여 어색한 문장이다. 지나치게 명사가 나열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수정한다.
254	9	사회	초등학교	5	소통	2222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교통수단을 편리하게 2)이용하고 교통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2)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1)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체를 삽입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55	9	사회	초등학교	5	정확	1221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교통수단을 편리하게 2)이용하고 교통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사람들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2)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2) 원문은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주체가 동일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선행절의 서술어에 사동의 의미를 첨가하여야 한다.
256	9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112	1)민우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려고 알은 바 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한다고 2)말씀하였다.	1)민우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려고 알은 바 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한다고 2)말씀하셨다.	1)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써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우 아버지'로 띄어 써야 한다.
257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22	또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문화에 기여할'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세계 문화의 '무엇'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258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11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환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1) 제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수용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환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1)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이 를 수용하였다.	1) '수용'에 앞서 '제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행절의 서술어도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59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22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환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1) 제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수용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어인 연주환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1)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이 를 수용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한 대상인 목적어를 밝혀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60	9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222	오늘날에는 다양한 정보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에서'는 앞말이 저소나 출발점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대상에 불기에 적합하지 않다. 목적격 조사로 수정하여야 한다.
261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22	왜냐하면 지구는 1)육지보다 바다가 세 배나 더 2)넓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1)육지의 면적보다 바다의 면적이 세 배나 더 2)넓다 때문이다.	1) 문맥상 지구와 육지의 면적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262	9	사회	초등학교	6	정확	1211	왜냐하면 지구는 1)육지보다 바다가 세 배나 더 2)넓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1)육지의 면적보다 바다의 면적이 세 배나 더 2)넓다 때문이다.	2) 면적을 비교하는 서술어로 형용사 '넓다'가 아닌 '넓다'를 써야 한다.
263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11	우리 삼촌은 소를 키우는데, 요즘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 삼촌은 소를 키우는데, 요즘 자유 무역 협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선행절과 마찬가지로 후행절 서술어에도 높임 표현을 써야 한다.
264	9	사회	초등학교	6	소통	2213	지난 학급 회의에서 휴대 전화를 반드시 내지 않고 진동으로 해 두거나 끄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학급 회의에서 휴대 전화를 내지 않고 반드시 진동으로 해 두거나 끄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드시'가 수식하는 대상이 '내지 않고'가 아니라 후행절이므로 수식어의 위치를 피수식어의 앞으로 옮긴다.
265	7	사회	중학교	1	정확	1112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이나 극지방, 고산 지역, 밀림 지역 등에서도 사람들이 살수 있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막이나 극지방, 고산 지역, 밀림 지역 등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진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266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112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 1병을 정화하는1)데2), 약 2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 1병을 정화하는 1)데2) 약 2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1) 이 문장에서의 '데'는 '일'이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써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267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113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 1병을 정화하는1)데2), 약 2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 1병을 정화하는 1)데2) 약 2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2) 원문에 실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268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11	귀찮은데 선생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	귀찮은데 선생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로 주체를 높였기 때문에 서술어에도 선어말 어미 '-시-'를 써야 한다.
269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211	그러나 1969년부터 양쪽 국가는 과학, 예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결과 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9년부터 양쪽 국가는 과학, 예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배경 이기도 하다.	민간 교류는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배경이지 결과가 아니므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70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22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소비자들로부터 2)외면 받게 3)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기업들 소비자들로부터 2)외면받게 3)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1) '이러한 행위들'이 초래한 결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은 대상을 명시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271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112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소비자들로부터 2)외면 받게 3)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기업들 소비자들로부터 2)외면받게 3)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2) '외면 받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외면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272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11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소비자들로부터 2)외면 받게 3)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을 추락시켜 1)기업들 소비자들로부터 2)외면받게 3)하고, 더 이상의 이윤 추구를 어렵게 만든다.	3) '행위들'이 주어이므로 '외면받게 되고'라는 피동 표현을 '외면받게 하고'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273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222	또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방어 기지로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 동쪽 바다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항공 및 방어 기지로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 및 방어 기지라는 것이 지위나 신분, 자격을 의미하므로 조사 '로서'로 수정하여야 한다.
274	7	사회	중학교	3	정확	1113	또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으로 자원을 이동하려면 이들 나라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으로, 자원을 이동하려면 이들 나라를 거쳐야만 합니다.	원문의 맥락에 따르면 내륙국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이 내륙국이라는 것이므로 원표를 사용하여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을 제시하는 편이 적절하다.
275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22	부산은 국제적인 물류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76%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 국제적인 물류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약 76%를 담당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이동성의 의미를 지닌 적절한 명사가 추가되어야 한다.
276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22	북극 빙하를 1979년 처음 분석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과 2030년에는 북극 빙하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알았다.	북극 빙하를 1979년 처음 분석한 이후 빙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과 2030년에는 북극 빙하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알았다.	무엇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지, 주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277	7	사회	중학교	3	소통	2231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적 수입이다.	세입은 1년 동안 국가의 모든 현금 수입이다.	'~적(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수정한다.
278	7	사회	중학교	3	공공	3211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지열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지열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도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나라의 수준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설명·분류하는 학습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열 발전소가 최초로 건설된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명시하여, 지열 발전소가 늦게 건설된 나라들에 대한 평가적 태도를 유도한다.
279	9	사회	중학교	1	정확	1221	국토의 1/5이 물에 잠겼고, 2,000여 명의 생명을 앗아 갔으며, 600만 명이 갈 곳을 잃었다.	국토의 1/5이 물에 잠겼고, 2,0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600만 명이 갈 곳을 잃었다.	원문에는 '자연재해로 인해'라는 부사어가 맥락상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부사어와 호응하도록 문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280	9	사회	중학교	1	정확	1221	본격적인 이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로 이동하였다.	본격적인 이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주어 '이민'과 서술어 '이동하였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서술어를 수정하여야 한다.
281	9	사회	중학교	1	소통	2211	세계적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49차 유엔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고,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 날'로 정해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세계적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제49차 유엔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였고,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 날'로 정해 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한 것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사막화 방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선행절의 서술어를 과거 시제로 수정하여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82	9	사회	중학교	1	소통	2222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하게 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그것이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원문에서 '조례안'은 주어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출하다'와는 호응하지만 '통과하게 되다'와는 호응하지 않아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83	9	사회	중학교	1	소통	2223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큰 피해는 매년 발생하지 않지만 계절별로 재해의 양상이 다르다.	지진이나 해일에 의한 큰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절별로 재해의 양상이 다르다.	원문의 선행 문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지진, 해일을 꼽고 있다. 그러나 후행 문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매년은 아니지만 가끔 발생한다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다. 따라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84	9	사회	중학교	1	정확	1221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숲이나 논, 밭 등이 사라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내려 저지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숲이나 논, 밭 등이 사라지고 건물과 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내려 저지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부사어 '최근'은 '얼마 되지 않은 지난날'부터 현재 또는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의 의미이다. 따라서 원문의 서술어 '발생한다'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진행의 의미가 담기도록 서술어를 수정한다.
285	9	사회	중학교	1	소통	2222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 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 또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어를 삽입한다.
286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2	그러나 나무루의 인광석은 2003년경에 거의 고갈되어 더는 인광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자 나무루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무루의 인광석이 2003년경에 거의 고갈되어 더는 인광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자 나무루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원문에서 '인광석'은 주제가 아닌 주어로 기능해야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러워지므로 보조사 '은' 대신 '주격 조사' '이'로 수정하여야 한다.
287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22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전직 대통령인 존 쾰시 애덤스까지 힘을 보태 재판을 거듭한 끝에, 약 3년 만인 1841년 3월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자유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판결한다. 인종을 넘어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노력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실현한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전직 대통령인 존 쾰시 애덤스까지 힘을 보태 재판을 거듭한 끝에, 약 3년 만인 1841년 3월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자유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판결한다. 이는 인종을 넘어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노력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실현한 위대한 승리이다.	맨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맨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앞 문장 전체이므로 이를 밝혀 적으면 문장의 필수 성분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두 문장을 적절히 연결해 주는 기능도 하므로,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288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1	그러므로 다양한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한국 땅임을 인식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근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한국 땅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식해야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사동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로 자연스럽게 수정하여야 한다.
289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22	그리고 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만 열중하면서, 오히려 자원 개발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자원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에만 열중하면서, 오히려 자원 개발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선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문맥에 어울리는 주어를 삽입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290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14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협약을 맺거나 공동 연구 및 관측,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연구·관측하거나,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문장의 접속 구조를 문법적으로 대응하게 수정한다. 특히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연구나 관측을 시행할 수 있는 데에는 '협약'이 선행 조건이 되므로 '협약을 맺어'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291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14	따라서 통일이 되어 남북한 긴장 관계가 사라진다면 주변국 간의 긴장 완화는 물론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 남북한 긴장 관계가 사라진다면 주변국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긴장 완화'라는 명사구를 동사구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292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22	또 사람들로 하여금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쌀 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의 가격 안정인지 생략되어 있다.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293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1	문화 경관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문화 경관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주어와 부사어,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주어 '우리는', 부사어 '문화 경관을 통해'와 어울리도록 서술어를 수정하여야 한다.
294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1	북부 유럽의 경우 서부 유럽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서풍을 타고 도달하여 산성비를 내린 결과,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숲이 파괴되고 호수가 산성화되어 물고기가 죽어 갔다.	북부 유럽의 경우 서부 유럽의 공업 지대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서풍을 타고 도달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한 결과,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숲이 파괴되고 호수가 산성화되어 물고기가 죽어 갔다.	선행절의 주어인 '대기 오염 물질'과 서술어인 '내린'이 호응하지 않으므로, 사동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로 수정한다.
295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11	비정규직은 고용 기간이 불안정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도 크다. 2007년에는 약 59만 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04만 원으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고용 기간이 불안정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도 크다. 2007년에는 약 59만 원이었던 격차가 2011년에는 104만 원으로 벌어졌다.	59만원과 104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격차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96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31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와 남부 지역 에 항공 식량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난민 캠프에 대한 식량 지원도 확대되었다.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와 남부 지역 에 항공 식량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난민 캠프에 대한 식량 지원도 확대되었다.	'~에 대한'이라는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을 쓰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수정한다.
297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22	외국 유학생을 둔 가정주부	자녀가 외국 유학 중인 가정주부	외국 유학생과 가정주부의 관계를 밝혀 두지 않아 문장이 모호하다. 명확하게 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298	9	사회	중학교	2	소통	2222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남북통일 문제, 다양한 집단 갈등 문제를 이미 겪고 있으며,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남북통일 문제, 다양한 집단 갈등 문제를 이미 겪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후행절에 주어와 생략되었다.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주어를 삽입하여야 한다.
299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2	이 중 바다제비·습새·괘이갈매기 등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중 바다제비·습새·괘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를 천연기념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바다제비·습새·괘이갈매기 등'과 '번식지' 사이에 조사 '의'가 생략되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조사를 삽입하여야 한다.
300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2	이는 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이는 개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원문은 수식어 '만들+어+가+는'이 쓰였지만, 문장 내의 수식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가 결합된 수식어 '만들+어+가+려+는'이 적절하다.
301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1	이러한 소득으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육 및 의료에 투자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육 및 의료에 투자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	부사어 '소득으로'와 서술부 '높이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호응하지 않는다. 소득은 정부가 이용하는 대상이므로 조사 및 서술어를 수정하여야 한다.
302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221	인간 행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최소한이며, 모두 땅으로 돌려보내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하는 데 다시 사용된다.	인간 행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도 최소한이며, 이 오염 물질은 모두 땅으로 돌려보내져 인간 생활을 이롭게 하는 데 다시 사용된다.	오염 물질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지는 것이므로 후행절의 서술어가 피동사의 의미를 갖도록 수정해야 한다.
303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112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 버렸고 ,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섬에서는 2)더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 버렸고 ,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자 섬에서는 2)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1) '변해 버리다'는 '변하다'라는 본용언에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 용언 '버리다'가 더해진 표현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도 띄어 쓸 수도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두의 '베어 버려'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문의 수정이 필요하다.
304	9	사회	중학교	2	정확	1112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 버렸고 ,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섬에서는 2)더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인광석 채굴을 위해 나무를 베어 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1)변해 버렸고 , 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되자 섬에서는 2)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다.	2) '더 이상'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05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31	1)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불량 시설은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 ‘~에 대해서는’이라는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을 쓰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수정한다.
306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1)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불량 시설은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 ‘소방 안전’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307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112	1)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불량 시설은 정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하는 등 2)소방안전 3)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 원문의 ‘시스템’은 우리말 ‘체계’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므로 순화하여 쓴다.
308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31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서구에 의한 식민지 경험,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도시의 발전 과정이 서구의 도시들과는 다르며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과정들이 도시 경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지역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서구에 의한 식민지 경험, 그리고 세계화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도시의 발전 과정이 서구의 도시들과는 다르며 도시가 경험한 역사적 과정들이 도시 경관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에 의해’는 번역투 표현이므로 좀 더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 수정한다.
309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누어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기에 휴경지가 복합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경작 단위로 나뉘는데 , 밀이나 호밀 같은 겨울 작물의 재배지, 보리나 귀리 같은 여름 작물 재배지, 여기에 휴경지가 복합되어 있었다.	경지는 몇 개의 단위로 나뉘는 대상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의 의미로 수정한다.
310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14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소득 향상, 소통과 교류의 증가 , 위급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외부인에 의한 범죄 등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고, 소통과 교류가 증가하며 , 위급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외부인에 의한 범죄 등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다.	정보를 나열할 때 대당한 문법 충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소득 향상, 소통과 교류의 증가’라는 명사구를 문장의 접속 구조에 맞게 동사구로 수정한다.
311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14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중산층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1)인터넷 판매 등 과거와는 다른 2)유통체계 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중산층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1)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2)유통 체계 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1) 정보를 나열할 때 대당한 문법 충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판매’라는 명사구를 동사구로 수정한다.
312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1)인터넷 판매 등 과거와는 다른 2)유통체계 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도 협동조합이나 직판 시설을 이용하거나 1)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2)유통 체계 로 바뀌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통한 명품 특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2) ‘유통 체계’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313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31	농업용 토지 이용 방식은 소규모 자급자족 형태에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 작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농업용 토지 이용 방식은 소규모 자급자족 형태에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 작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적(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수정한다.
314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의 2)도시적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을 확대했다.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 2)도시의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방식을 확대했다.	1) ‘으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원문의 맥락상 도시 외부 지역으로 무엇인가를 확대했다는 의미를 가지려면 격 조사 ‘의’를 삭제하여야 한다.
315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31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의 2)도시적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을 확대했다.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 2)도시의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방식을 확대했다.	2) ‘~적(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므로 수정한다.
316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의 2)도시적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을 확대했다.	도시화는 도시 자체를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1)도시 외부 지역으로 2)도시의 생활 양식과 3)토지 이용 방식을 확대했다.	3) ‘토지 이용을 확대했다’라는 표현은 의미상 적절하지 않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자연스러운 호응을 위하여 목적어를 수정한다.
317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또한, 1)청소년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2)신장시킨다 .	또한, 1)청소년이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2)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	1) 원문은 맥락상 주체어인 ‘청소년의 회회’가 ‘청소년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어 비문이다. 부사 ‘스스로’와 의미상으로 호응하는 주어가 설정되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18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또한, 1)청소년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2)신장시킨다.	또한, 1)청소년이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2)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선행절의 서술어에 생략된 부분을 감안하여 후행절의 서술어를 수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의 서술어로 수정한다.
319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2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찬반 의견을 경청하게 하며, 관련된 가치들을 명료화 혹은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장단점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찬반 의견을 경청하게 하며, 관련된 가치들을 명료화 혹은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은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장단점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후행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선행 문장으로 미루어 보면 주어는 '시민들은'이 적절하다.
320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3	또한, 하천 하류부에 형성된 습지는 다양한 1)동·식물 의 서식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아 2)보호하고 있으며,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하천 하류부에 형성된 습지는 다양한 1)동식물 의 서식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아 2)보호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1) '동식물'은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삭제한다.
321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또한, 하천 하류부에 형성된 습지는 다양한 1)동·식물 의 서식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아 2)보호하고 있으며,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하천 하류부에 형성된 습지는 다양한 1)동식물 의 서식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아 2)보호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2) 습지는 보호 받는 대상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의 의미로 수정한다.
322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14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경우, 자동차 이용을 둘러싸고 자연 보존 의 입장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한 적이 있었다.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경우, 자동차 이용을 둘러싸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한 적이 있었다.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 보존'이라는 명사구를 동사구로 수정한다.
323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3	석굴암은 신라인의 불교 사상과 고도의 건축 기술, 뛰어난 조형 감각이 반영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재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이다.	석굴암은 신라인의 불교 사상과 고도의 건축 기술, 뛰어난 조형 감각이 반영된 ,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재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이다.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쓰는 원표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4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11	선생님은 역할극의 총괄 지휘자이면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신속히 해결하여 주시 는 연출자이다.	선생님은 역할극의 총괄 지휘자이면서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신속히 해결하여 주는 연출자이다.	높임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다른 문장 성분과 높임이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25	7	사회	고등학교		공공	3211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도심에 거주하는 지배 계층은 저밀도, 원주민 은 고밀도의 토지 이용 경관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도심에 거주하는 지배 계층은 저밀도, 피지배 계층 은 고밀도의 토지 이용 경관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원문에서 '지배 계층'과 상반되는 의미로 '원주민'이 쓰였다. 설사 원주민이 빈곤층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기술은 차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26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예를 들면, 큰 소비 시장이 있는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개성 공업 지구로의 이전,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로의 이전 등은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입지 변동의 사례이다.	예를 들면, 큰 소비 시장이 있는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개성 공업 지구로의 이전,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멕시코로의 이전 등은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입지 변동의 사례이다.	원문에 따르면 '멕시코로의 이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가 앞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위한'으로 수정한다.
327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예를 들어, 우리 손으로 뽑은 학생회장은 우리가 학교생활을 해 가는 데 이런저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우리 손으로 뽑은 학생회장은 우리가 학교생활을 해 가는 데 이런저런 영향을 끼친다.	원문의 '데'는 '일'이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328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3	오늘날 촌락의 생산 활동은 자급자족의 전통적인 소비보다 도시 지향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가족들은 도시적 생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오늘날 촌락의 생산 활동은 자급자족의 전통적인 소비보다 도시에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구성되고, 가족들은 도시적 생활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도시 지향적'의 의미가 모호하다. 이어지는 설명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므로 '도시'로 간결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329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2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위치하며, 20여 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위치하며, 그곳에 20여 명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부사어 '그곳에'가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사어를 밝혀 적는다.
330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위법성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위법성은 법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가'가 생략되어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 따라서 삽입하도록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31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2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어디로부터 독립한 것인지를 제시해야 함.)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디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인지 밝히야 한다.
332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이러한 전자 상거래는 정보 통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발달하며, 배송업체의 증가로 이어져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외곽에는 물류 단지나 유통 단지가 입지하여 물류 서비스업의 부도심 역할을 하면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자 상거래는 정보 통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발달하며, 배송업체의 증가로 이어져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외곽에는 물류 단지나 유통 단지가 입지하여 물류 서비스업의 부도심 역할을 하면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서비스업은 물자의 생산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333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이물질이 가득한 더러운 휴탕물을 여과없이 먹던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개발을 통한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물질이 가득한 더러운 휴탕물을 여과 없이 먹던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개발을 통한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과 없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334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2	이에 따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정체성 변화를 새롭게 모색하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조사 '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다문화 사회로'와 '정체성'은 호응하지 않는다. 적절한 어휘를 삽입하여 자연스러운 의미를 전달한다.
335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1	즉,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 보고, 이들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기 위한 것이다.	즉,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예측해 보고, 이들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기 위한 것이다.	동사 '예측하다'에 이미 '미리 해라 짐작하다'의 의미가 있다. 의미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부사 '미리'를 생략해야 한다.
336	7	사회	고등학교		공공	3211	지배 계층이 선호하는 저밀도 토지 이용과 원주민의 고밀도 토지 이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보인다.	지배 계층이 선호하는 저밀도 토지 이용과 피지배 계층의 고밀도 토지 이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를 보인다.	원문에서 '지배 계층'과 상반되는 의미로 '원주민'이 쓰였다. 설사 원주민이 빈곤층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러한 기술은 차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37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11	첫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기회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어색하므로, '주여지다'로 서술어를 수정한다.
338	7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22	학교는 가해자인 박 군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교 방문을 요청하였지만 직장 일로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는 가해자인 박 군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학교 방문을 요청하였지만 그는 직장 일로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어를 삽입한다.
339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문화 요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계속하는 데, 이를 문화 과정이라고 한다.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문화 요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계속하는데, 이를 문화 과정이라고 한다.	원문의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340	7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따처럼 연속되어 나타나 이곳을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부르며, 대체로 조산대와 일치한다.	화산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따처럼 연속되어 나타나 화산대 또는 지진대라고 불리며, 대체로 조산대와 일치한다.	주어 '지역'은 불리는 행동의 대상이므로 서술어를 피동의 의미로 수정하고 목적어 '이곳을'을 삭제한다.
341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1)전자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1)전자 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1) '전자 지도'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342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1)전자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1)전자 지도에는 대중교통 정보는 물론 교통 상황, 사고 및 공사 정보, 2)CCTV 등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며 음식점, 은행, 약국, 주유소 등의 지역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어 장소,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아는 데 매우 편리하다.	2) 부사어 '전자 지도에는'과 호응하고 후행절과 대등한 문법 구조가 되도록 문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43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31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침몰에서 30%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 덕분이었다. 타이타닉호 에 타고 있던 기술자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SOS를 쳤고, 근처에 있던 배가 그 신호를 듣고 사고 현장에 재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태닉호 침몰에서 30%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 덕분이었다. 타이태닉호 에 타고 있던 기술자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 SOS를 쳤고, 근처에 있던 배가 그 신호를 듣고 사고 현장에 재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 따르면 타이태닉호가 정확한 표기이므로 타이태닉호로 수정한다.
344	9	사회	고등학교		소통	2214	세계화는 1955년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고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어.	세계화는 1955년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과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어.	정보를 나열할 때 대등한 문법 층위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사구는 명사구와, 동사구는 동사구와 연결되도록 수정한다.
345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1	아무리 싫어하는 누나, 형이 사라진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리 누나, 형이 싫더라도 그들이 사라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문두에 부사 '아무리'가 오면서 문장 전체의 성격이 이미 결정되었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결정된 문장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비문이 되었다.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346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위치 정보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 측정 시스템이다.	위치 정보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 측정 시스템이다.	조사 표기 오류이다. 보조사 '는'이 '은'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47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112	특히,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 데 , 현재 지구 환경의 파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힘든데 , 현재 지구 환경의 파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문의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348	9	사회	고등학교		정확	1222	폭탄 테러가 일상이 된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 주인공 아소는 축구 꿈나무였지만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은 동생과 함께 산다.	폭탄 테러가 일상이 된 이라크 키르쿠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 주인공 아소는 축구 꿈나무였지만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은 동생과 함께 산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의미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다. 단순한 순접의 연결 어미보다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이는 연결 어미 '-는데'가 오는 편이 적절하다.
349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3	"칠정산" 은 '7개의 움직이는 별을 계산한다.' 는 뜻으로 해와 달, 5개의 행성(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의 운행을 파악하여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1안) "칠정산" 은 7개의 움직이는 별을 계산한다 는 뜻으로 해와 달, 5개의 행성(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의 운행을 파악하여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2안) "칠정산" 은 '7개의 움직이는 별을 계산한다' 는 뜻으로 해와 달, 5개의 행성(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의 운행을 파악하여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칠정산'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해야 하므로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수정한다. 또한 간접 인용문인데 내포절에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마침표를 삭제하도록 한다. 강조 여부에 따라 2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는 유지할 수도 있다.
350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22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은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2)있다. ”이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은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2)있다. ”이다.”이다.	2)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었다. 해당 문장의 주어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과 호응을 이루는 적절한 서술어가 필요하다.
351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은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2)있다. ”이다.”	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은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2)있다. ”이다.”이다.	1)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괄호는 앞의 말과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352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병을 키워 군사력을 늘린 후에 권력 다툼 을 벌였다.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들이 농장을 확대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병을 키워 군사력을 늘린 후에 권력 다툼 을 벌였다.	'권력 다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권력 다툼'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53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고구려는 수와 당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 냈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에 우리 민족의 국가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구려는 수와 당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 내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한반도와 만주에 우리 민족의 국가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어떤 물건이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54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311	고려 명종 때 평랑은 김영관의 노비였고 그의 부인은 왕원지 집안의 노비였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자, 뇌물을 주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1)그런데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원지가 집안이 가난해져 평랑의 집에 와서 살았다. 평랑은 왕원지와 그 가족을 잘 2)대접하고 그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해하고는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하였다.	고려 명종 때 평랑은 김영관의 노비였고 그의 부인은 왕원지 집안의 노비였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자, 뇌물을 주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1)그러던 어느 날 ,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원지가 집안이 가난해져 평랑의 집에 와서 살았다. 평랑은 왕원지와 그 가족을 잘 2)대접하였으나 그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해하고는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하였다.	1) 문장 간의 연결이 부적절하다. '그런데'는 주로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룰 때 사용하는데,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원지가 가난해져 평랑의 집에 와서 살게 된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이다. 따라서 '그러던 어느 날'과 같이 구체적인 접속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55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311	고려 명종 때 평랑은 김영관의 노비였고 그의 부인은 왕원지 집안의 노비였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자, 뇌물을 주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1)그런데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원지가 집안이 가난해져 평랑의 집에 와서 살았다. 평랑은 왕원지와 그 가족을 잘 2)대접하고 그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해하고는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하였다.	고려 명종 때 평랑은 김영관의 노비였고 그의 부인은 왕원지 집안의 노비였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자, 뇌물을 주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1)그러던 어느 날 ,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원지가 집안이 가난해져 평랑의 집에 와서 살았다. 평랑은 왕원지와 그 가족을 잘 2)대접하였으나 그들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해하고는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하였다.	2) 문장 간의 연결이 부적절하다. 평랑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인물을 잘 대접하였다는 내용과 그 주인이었던 인물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역접 관계로 수정해야 한다.
356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고려의 중앙 관제가 당·송의 중앙 관제와 다른점 을 설명할 수 있다.	고려의 중앙 관제가 당·송의 중앙 관제와 다른 점 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다른 점'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357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그 뒤 에스파나 왕의 후원을 받은 마젤란의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 세계 일주에 성공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 뒤 에스파나 왕의 후원을 받은 마젤란의 함대가 태평양을 건너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어떤 물건이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58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221	그 예로 놀지왕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가 신라에 불교를 전하였다 고 한다 .	그 예로 놀지왕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가 신라에 불교를 전한 것을 들 수 있다 .	그 예로'와 '전하였다고 한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그 예로'는 '~을 들 수 있다' 또는 '~이 있다'와 같은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59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 받을 수 있다. 2)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받을 수 있다. 2)라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1) '구원 받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받다'는 피동词的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60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222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 받을 수 있다. 2)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받을 수 있다. 2)라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2)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사용한 직접 인용문이므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하는'의 줄임형인 '라는'으로 수정한다.
361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3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 받을 수 있다. 2)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3)사 랑과 민음을 통해 누구나 1)구원받을 수 있다. 2)라는 가르침을 전하여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다.	3)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362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	'네안데르탈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칙)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며, 교육과정 편수 자료에서도 붙여 쓰고 있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63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당시 신라에서도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임신서기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신라에서도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임신서기석에서 알 수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64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덕분에 1)송대에 이어 2)원대에도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덕분에 1)송 대에 이어 2)원 대에도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1) ‘송 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대(代)’는 ‘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명사로 ‘세종 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동일한 교과서 내에 278쪽에서도 ‘송대’라고 붙여 쓰고 있다.
365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덕분에 1)송대에 이어 2)원대에도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덕분에 1)송 대에 이어 2)원 대에도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2) ‘원 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대(代)’는 ‘지위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명사로 ‘세종 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원대’라는 표현은 278쪽, 281쪽 등에서도 잘못 붙여 쓰고 있다.
366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또한 한문학의 높은 수준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광개토 대왕릉비문, 사택지적비문, 진흥왕 순수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한문학의 높은 수준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광개토 대왕릉비문, 사택지적비문, 진흥왕 순수비문에서 알 수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67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111	명주 장군 김순식이 귀부해 오자,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명주 장군 김순식이 스스로 복종해 오자, 태조는 왕씨 성을 주고 대광(2품)으로 임명하였다.	중학교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명사 ‘귀부(歸附)’란 스스로 와서 복종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학교 수준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내에서 추가 뜻풀이나 한자어 병기가 없어 난도는 더욱 높게 느껴진다. 중학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 써야 한다.
368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무과는 무예 시험을 통해 군사 지휘관을 뽑았다.	무과는 무예 시험으로 군사 지휘관을 뽑았다.	명사와 ‘~을 통하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으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69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3	반정은 ‘바른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다.	1안) 반정은 바른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다. 2안) 반정은 ‘바른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다.	간접 인용문인데 내용표에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마침표를 삭제하도록 한다. 강조 여부에 따라 2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는 유지할 수도 있다.
370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 대향로,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 등을 통해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과 금동 대향로,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 등에서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71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배이징 인	배이징인	‘배이징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칙)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배이징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72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3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1)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고 한 명의 백성도 죽이지 않았다.2)고 하자 백성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다.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1)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고 한 명의 백성도 죽이지 않았다.2)라고 하자 백성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다.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373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222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1)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고 한 명의 백성도 죽이지 않았다.2)고 하자 백성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다.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1)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고 한 명의 백성도 죽이지 않았다.2)라고 하자 백성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다.	2) 잘못된 인용 조사를 사용하였다. 직접 인용문에 간접 인용 조사를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인용 조사'라고'로 수정한다.
374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112	부여 군수리 절터 납석제 불상(위)과 복위의 여래 좌상(아래) 군수리 절터 불상은 복위 여래 좌상을 모델로 만들었다.	부여 군수리 절터 납석제 불상(위)과 복위의 여래 좌상(아래) 군수리 절터 불상은 복위 여래 좌상을 본보기로 만들었다.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본보기', '모형'과 같이 '모델'이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
375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31	섬 지역에서는 7세기 이후 스리위자야, 사일렌드라, 마자파히이 차례로 들어섰다.	섬 지역에서는 7세기 이후 스리위자야, 사일렌드라, 마자파히이 차례로 들어섰다.	'사일렌드라'의 외래어 표기가 잘못되었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및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 근거하여 'Shailendra'는 '사일렌드라'로 표기해야 한다.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 254쪽, 319쪽 등에서도 잘못 표기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76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세종 때에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세종 때에는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여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77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신라는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당의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신라는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78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세폴리스를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세폴리스를 철저히 파괴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79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1)국가에 대해 2)조세와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1)국가에 2)조세 납부와 국역 부담 등의 의무를 지녔다.	1) 명사와 '~에 대하여'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about'과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 '~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우리말 조사 '에'를 사용하여 보다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80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21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1)국가에 대해 2)조세와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자유민으로서 1)국가에 2)조세 납부와 국역 부담 등의 의무를 지녔다.	2) '의무'를 수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다. 양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 납부하기'와 '국역 부담하기'이므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81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옛 아시아 지역에서 온 기술자는 궁전의 전체적인 배치를 정하고 크세르크세스 문이 날개달린 항소를 조각했을 것이다.	옛 아시아 지역에서 온 기술자는 궁전의 전체적인 배치를 정하고 크세르크세스 문이 날개 달린 항소를 조각했을 것이다.	'날개 달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날개 달리다'라는 한 단어는 없으므로 '날개'와 '달리다'는 띄어 써야 한다.
382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왕건이 왕이 됨으로써 도읍지가 된 송악의 명칭은 개경이 되었다.	왕건이 왕이 된 후/왕이 되고 도읍지가 된 송악의 명칭은 개경이 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83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31	원강 석굴 사원	원강 석굴 사원	'원강'은 '원강'을 잘못 쓴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 및 교과서 편수 자료에 따라 '원강'이라고 써야 한다. 242쪽에서도 '중국의 원강 석굴 불상'이라고 쓰고 있다.
384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이 시기에는 부처를 밧음으로써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는 부처를 밧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85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이러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관한 사실은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영토 확장에 관한 사실은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86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나당 연합군이 다시 평양성을 공격함으로써 고구려도 멸망하였다(668).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나당 연합군이 다시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도 멸망하였다(668).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87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222	이후 일본의 간청을 받아들여 부산포, 제포, 염포의 3포 를 개방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일본의 간청을 받아들여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 를 개방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격 조사 '의'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격 조사 '의'는 앞 예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데, 조선이 개방한 '3포'는 '부산포', '제포', '염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들이 '3포'를 수식할 수 없다.
388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자와인	자와인	'자와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직)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국어사전과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과 같이 모두 붙여 쓰고 있다. 따라서 표기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자와인'으로 붙여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89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211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서 이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이다.	잘못된 관형사를 사용하였다. '오랜'은 '이미 지난 동안이 긴'을 의미하는 관형사로 '오랜 가뭄', '오랜 세월'과 같은 기간을 가지는 대상을 수식한다. 역사서를 꾸며 주기 위해서는 '오래된'으로 수정해야 한다.
390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초기 고딕 양식의 대표작으로 큰 창과 높은 뾰족 탑 이 인상적이다.	초기 고딕 양식의 대표작으로 큰 창과 높은 뾰족함 이 인상적이다.	'뾰족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뾰족탑은 끝이 '뾰족한 탑', 즉 '첨탑(尖塔)'의 의미로 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391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크로마뇽 인	크로마뇽인	'크로마뇽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칙)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크로마뇽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며, 교육과정 편수 자료에서도 붙여 쓰고 있다.
392	7	역사	중학교	상	소통	2231	평지에 위치한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국내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피난지로서의 역할 도 하였다.	평지에 위치한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국내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였을 때는 피난지 역할 도 하였다.	조사 '로서'와 '의'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as'와 결합하는 영어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と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격 조사 '의'를 쓸 수 있으나, 간결한 우리말로 대신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조사 결합은 피해야 한다. '피난지로서의 역할'은 '피난지 역할'이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대신하여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393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하이델베르크 인	하이델베르크인	'하이델베르크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人)'은 외래어 다음에 띄어 쓰거나(원칙) 붙여 쓸 수 있는데(허용), '하이델베르크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394	7	역사	중학교	상	정확	1112	한편,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일을 맡아오던 향리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에게 예측되어 전보다 권한이 제한되었다.	한편, 지방에서 조세를 징수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일을 맡아 오던 향리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에게 예측되어 전보다 권한이 제한되었다.	'맡아 오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과서 내 통일성을 고려하여 '맡아 오던'으로 수정한다.
395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222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사용한 직접 인용문임으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하는'의 줄임형인 '-라는'으로 수정한다.
396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당선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397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398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농민군이 일본군의 최신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여 동학 농민 운동이 좌절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농민군이 일본군의 최신 무기를 당해 내지 못하고 크게 패하여 동학 농민 운동이 좌절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해 내다'는 동사 '당하다'와 보조 동사 '내다'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동일 교과서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 결합을 띄어 쓰고 있으므로 '당해 내다'로 수정한다.
399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221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서 이루어진 철수 작전 을 통해 군인 10만 5천여 명, 민간인 9만 1천여 명, 그리고 엄청난 양의 차량과 군수 물자를 무사히 남쪽으로 수송하고, 철수 작전은 12월 24일에 끝났다.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서 이루어진 철수 작전 은 군인 10만 5천여 명, 민간인 9만 1천여 명, 그리고 엄청난 양의 차량과 군수 물자를 무사히 남쪽으로 수송하고 12월 24일에 끝났다.	'철수 작전을 통해 ~ 수송하고, 철수 작전은 ~ 끝났다'라는 문장 구조는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철수 작전'을 주어로 하고 '끝나다'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으로 수정한다.
400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만주 지역의 농민들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항일 유격대를 결성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어나갔다.	만주 지역의 농민들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항일 유격대를 결성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어 나갔다.	'벌이어 나간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 '벌이다'와 보조 용언 '나가다'가 결합한 것이다. 동일 교과서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고 있으므로 '벌어 나갔다'로 수정한다.
401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1	명동 성당, 정동 교회, 덕수궁 석조전 등이 서양식으로 지어졌고, 서울의 거리에도 2층집 이 들어섰다.	명동 성당, 정동 교회, 덕수궁 석조전 등이 서양식으로 지어졌고, 서울의 거리에도 이층집 이 들어섰다.	'두 층으로 된 집'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층집'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층집'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402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부모님께서 물려 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라니.....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르라니.....	'물려주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물려주신'으로 붙여 쓰도록 수정한다.
403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21	운동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직원과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지역 축제의 행사였다.	운동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직원과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지역 축제였다.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는 뜻으로 이미 '행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축제의 행사'는 중복된 표현이므로 '행사'를 삭제하여 수정한다.
404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311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또한, 미국 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때에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는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나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서 농가에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미국 의 원조는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선행 문장의 내용 뒤에 긍정적인 판단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순접의 접속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접의 접속 부사로 수정한다.
405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은 학생과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은 학생과 시민들의 힘에 무너졌다.	명사(구)와 '~에 의해'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에 의해'는 영어 수동태 구문 또는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によ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의해'를 삭제하여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06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이에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지하철 건설, 사회 복지 제도 확충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지하철 건설, 사회 복지 제도 확충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通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을 통하여'를 삭제하여도 의미가 성립되므로 '등으로'로 수정한다.
407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하며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08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일제는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을 강제로 거두어가고 , 절이나 교회의 중, 가정의 온갖 쇠붙이, 농그릇, 손가락까지 빼앗아 갔다.	일제는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을 강제로 거두어 가고 , 절이나 교회의 중, 가정의 온갖 쇠붙이, 농그릇, 손가락까지 빼앗아 갔다.	'거두어간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 '거두다'와 보조 용언 '가다'가 결합한 것이다. 동일 교과서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고 있으므로 '거두어 가고'로 수정한다.
409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임시 정부는 비록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과 방법의 차이 때문에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즐기치게 이어나갔다 .	임시 정부는 비록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과 방법의 차이 때문에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독립을 위한 활동을 즐기치게 이어 나갔다 .	'이어 나간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단어가 아니며, '잇다'와 보조 용언 '나간다'가 결합한 것이다. 동일 교과서에서 표제어로 등록되지 않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고 있으므로 '이어 나갔다'로 수정한다.
410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113	중국 화북 지방은	중국 화베이 지방은	'화북'과 '화베이' 모두 올바른 표기이나 동일 교과서에서 중국의 특정 지역의 지명을 '화베이'로 표기해 왔으므로,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화베이'로 수정한다.
411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진압 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격렬한 사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진압 경찰 때문에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격렬한 사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명사(구)와 '~에 의해'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에 의해'는 영어 수동태 구문 또는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によ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우리말을 사용하여 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12	7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콜로라도 호	콜로라도호	배, 비행기, 기타 따위의 이름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쓰여 '그 이름을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호(號)'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동일 교과서에서 '제너럴서먼호'의 경우 붙여 쓰고 있으므로(45쪽) 일관성을 위해서도 붙여 써야 한다.
413	7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을 통하여 성립되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성립되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명사구와 '~을 통하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through'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通じ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말 조사 '에서' 등을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을 통하여'를 삭제하여도 의미가 성립되므로 '결혼으로'로 수정한다.
414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책 읽는 여인'(윤석희, 서울대학교 박물관)	'책 읽는 여인'(윤석희, 서울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의 띄어쓰기에 일관성이 없다. 고유 명사의 경우 '서울대학교'로 띄어 쓸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로 붙여 쓸 수도 있으나 동일한 교과서 내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붙여 써야 한다.
415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112	2.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램플릿 을 만들어 보자.	2. 조선 시대 왕릉을 답사하고 각각의 특색 있는 안내 자료 책자들 을 만들어 보자.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램플릿'은 '책자' 등으로 순화하여 수정한다.
416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2호갱 에서는 활을 쓰는 공노병, 기마병, 전차병이 발견되었고	2호갱 에서는 활을 쓰는 공노병, 기마병, 전차병이 발견되었고	'2호 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호'는 단위성 의존 명사며 '갱'은 굴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17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결국 일본 구원군이 도착하고 조명 연합군이 철수함으로써 전투는 끝이 났다.	결국 일본 구원군이 도착하고 조명 연합군이 철수하며 전투는 끝이 났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18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고구려는 중국과 경계를 이룬 라오허 강 유역 각지에 산성을 쌓아 충 충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이 성들을 잘 지킴으로써 수와 당의 침략을 연이어 물리칠 수 있었습니	고구려는 중국과 경계를 이룬 라오허 강 유역 각지에 산성을 쌓아 충 충한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이 성들을 잘 지켜 수와 당의 침략을 연이어 물리칠 수 있었습니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간결하게 수정한다.
419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 시험과 읍서에 의한 것이었다.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 시험과 읍서였다.	명사(구)와 '~에 의해'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에 의해'는 영어 수동태 구문 또는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によ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에 의해'를 삭제하여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20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군사 지휘부로 추정되는 3호갱 에서는 장군의 것으로 보이는 채색된 전차 1량과 갑옷 입은 보병용 64기, 마용 4기가 출토되었어요.	군사 지휘부로 추정되는 3호 갯 에서는 장군의 것으로 보이는 채색된 전차 1량과 갑옷 입은 보병용 64기, 마용 4기가 출토되었어요.	'3호 갯'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호'는 단위성 의존 명사며 '갱'은 굴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421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그들 내부에서 왕위다툼 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들 내부에서 왕위 다툼 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왕위 다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왕위 다툼'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422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그러나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됨으로써 원 제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어 원 제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의 하나가 부마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423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211	그리스 세계 에서는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통일된 국가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그리스 지역 에서는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 통일된 국가가 나타나지 못하였다.	'세계'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였다. 해당 단원의 주제가 그리스 지역에서 발생한 사실들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문장에서 '그리스 세계'가 의미하는 바는 '계통', '사회'이기보다는 지형, 국경과 같은 물리적인 범주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424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바스쿠 다가마 는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 를 개척하였지요.	-	-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25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나라는 기울어지고 재앙이 절에까지 미치니 도적때 의 칼날이 난무하면서 목숨을 잃는 자가 많았다.	나라는 기울어지고 재앙이 절에까지 미치니 도적 때 의 칼날이 난무하면서 목숨을 잃는 자가 많았다.	'도적 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도적 때'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426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에 비해 세금 액수가 가벼웠으며, 세금만 내면 종교와 문화에 관용을 베풀었다. 세금의 납부는 이슬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에 비해 세금 액수가 가벼웠으며, 세금만 내면 종교와 문화에 관용을 베풀었다. 세금의 납부는 이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27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또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또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28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망원경(좌)과 자명종(우) 숭실 대학교 박물관)	망원경(좌)과 자명종(우) 숭실대학교 박물관)	'숭실대학교'의 띄어쓰기가 일관성이 없다. 고유 명사의 경우 '숭실 대학교'로 띄어 쓰거나 '숭실대학교'로 붙여 쓸 수도 있으나 동일한 교과서 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붙여 써야 한다.
429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21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메카를 성지 순례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입니다.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입니다.	문장 내 불필요한 의미가 중복되었다. '메카'가 일종의 성지이므로 메카를 성지 순례한다는 말은 '성지를 성지 순례한다'는 표현과도 같으므로 의미상 중복된다.
430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삼국과 가야의 왕실은 자신들이 그 시조를 통해 천신과 연결되는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 자신들의 지배가 정당함을 내세웠다.	삼국과 가야의 왕실은 자신들이 그 시조를 통해 천신과 연결되는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하여 , 자신들의 지배가 정당함을 내세웠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31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222	석굴암 입구의 '너비, 원형' 적실의 반지름, 벽면에 배치된 조각상의 높이, ~ 그 대각선은 모두 √2의 비율로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비례를 보인다.	석굴암 입구의 '너비, 원형' 적실의 반지름, 벽면에 배치된 조각상의 높이, ~ 그 대각선은 모두 √2의 비율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비례를 보인다.	조사를 잘못 사용하였다.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데, 해당 문장에서 '√2의 비율'을 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432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봄으로써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33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원래 금속이나 칠기 등에서 사용되던 기법을 자기 제작에 독창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청자는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로 표현되었다.	원래 금속이나 칠기 등에서 사용되던 기법을 자기 제작에 독창적으로 응용하여 청자는 더욱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로 표현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독창적인 기법을 응용하였고 이로 인해 청자의 화려한 무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명제 간의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한다.
434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원효(617~686)는 대승 불교의 참뜻이 중생 구제에 있음을 깨닫고, 고통받는 일반 민중에게 불교를 민음으로써 내세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원효(617~686)는 대승 불교의 참뜻이 중생 구제에 있음을 깨닫고, 고통받는 일반 민중에게 불교를 민으면 내세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불교를 믿는다면 이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으면'을 사용하여 수정한다.
435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11	이처럼 발글을 통하여 문허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이처럼 발글을 통하여 문헌/문어진 역사가 사실로 드러난답니다.	'문허진'은 '문다'의 피동사 '문히다'에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문헌' 또는 '문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문어진'으로 수정한다.
436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222	죽은 후 영조에 의해 '사도'라는 시호를 받았다. 사도는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한 다 라는 뜻이다.	죽은 후 영조에 의해 '사도'라는 시호를 받았다. 사도는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 한다 는 뜻이다.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해당 문장은 인용의 형식이지만 문장 부호가 없는 간접 인용문이므로 간접 인용 표지로 수정한다.
437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중국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에 정선은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림으로써 회화사의 일대 전환을 마련하였다.	중국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던 당시에 정선은 풍경을 직접 보고 그려 회화사의 일대 전환을 마련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독창적인 기법을 응용하였고 이로 인해 청자의 화려한 무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명제 간의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한다.
438	9	역사	중학교	1	정확	1112	지역세계 의 형성과 발전	지역 세계 의 형성과 발전	'지역 세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역 세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 '각 지역 세계', '동아시아 지역 세계의 형성', '하나의 지역 세계'와 같은 사례에서도 붙여 쓰고 있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39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21	특히 감자는 아일랜드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자 한 가지에 의존하다가 감자마름병이 돌자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는 대재앙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감자는 아일랜드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자 한 가지에 의존하다가 감자마름병이 돌자 기근이 들었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는 대재앙을 겪기도 하였다.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감자마름병이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수정한다.
440	9	역사	중학교	1	소통	2231	특히,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527), 최고 지배자로서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귀족들의 간섭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불교를 공인하여 (527), 최고 지배자로서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귀족들의 간섭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41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 로 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 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조사 '로'와 '의'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to'와 결합하는 영어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への'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경우 격 조사 '의'를 쓸 수 있으나, 조사 '의'를 삭제하여야 헌법 개정의 방향성이 더 잘 드러나므로 '로'의 '로'로 수정한다.
442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14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며 ,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대조적인 평가임에도 단순 나열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였다. 명확한 의미 관계가 드러낼 수 있도록 선행절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미 '으나'로 수정한다.
443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21	그 결과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증가하였으나, 그보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민족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증가하였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민족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수적으로 더 많은 일본인이 기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일본인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자유로워졌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다 분명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부사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444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도는 연합국 에 의해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도는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되었다.	명사(구)와 '~에 의해'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에 의해'는 영어 수동태 구문 또는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によ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의해'를 삭제하여도 의미 변화가 없다면,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45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111	낚시 물림으로 묶고, 원환과 국화등을 사용해 장정하였다 .	낚시 물림으로 묶고, 원환과 국화등을 사용해 장식하였다 .	중학교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였다. 동사 '장정하다'는 "책의 결장이나 면지(面紙), 도안, 색채, 싸개 따위의 결모양을 꾸미다"라는 뜻이다. 이는 중학교 수준에서 접하기 어려운 어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내에서 추가 뜻풀이나 한자어 병기가 없어 난도는 더욱 높게 느껴진다. '낚시 물림', '원환', '국화등'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중학교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꾸미다'의 의미가 드러나도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46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이름으로써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산가족의 고통과 국방비 등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이루어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산가족의 고통과 국방비 등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47	9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112	박은식의 한국 통사	박은식의 한국통사	'한국통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책이름인 '한국통사'는 편수 자료의 지침에 따라 붙여 쓴다.
448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이후 도청을 장악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은 끝이 났다.	이후 도청을 장악하며 5·18 민주화 운동은 끝이 났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49	9	역사	중학교	하	정확	1222	일부에서는 전차를 '서양 마귀의 발명품'으로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차를 '서양 마귀의 발명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양 마귀의 발명품'이 비판의 방향이거나 수단 및 도구, 원인 등이 될 수 없으므로 조사 '으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사 '비판하다'를 고려하여 '~을 ~(라)고'의 구조로 수정한다.
450	9	역사	중학교	하	소통	2231	최근 중국은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이 중국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도록 여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이 중국인 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도록 여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로서'와 '의'의 불필요한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as'와 결합하는 영어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としての'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앞 체언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뒤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경우 격 조사 '의'를 쓸 수 있으나, 조사 '의'를 삭제하여도 의미가 통하므로 '로서의'를 '로서'로 수정한다.
451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심층석탑 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심층석탑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심층 석탑 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심층 석탑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 '원각사지 심층 석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원각사지 심층 석탑'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7년 이전의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표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심층 석탑'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452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심층석탑 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심층석탑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은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세조 때 만든 1)원각사지 심층 석탑 은 고려 후기 2)경천사지 심층 석탑 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경천사지 심층 석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국어사전 및 편수 자료에서 '석탑'을 앞말에 띄어 쓰고 있으므로, '심층 석탑'으로 수정한다.
453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고구려는 5세기에 남북조의 국가들과 모두 친선 관계를 맺음으로써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는 5세기에 남북조의 국가들과 모두 친선 관계를 맺어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54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국왕은 제천 의식을 주관함으로써 자신만이 하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국왕은 제천 의식을 주관하면서 자신만이 하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55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6조와 그 아래의 여러 관청이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6조와 그 아래의 여러 관청이 나누어 맡아/맡아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56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대표적인 서원으로 경주의 1)육산서원 , 안동의 2)도산서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서원으로 경주의 1)육산 서원 , 안동의 2)도산 서원 등이 있다.	1) '육산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서 육산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457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대표적인 서원으로 경주의 1)육산서원 , 안동의 2)도산서원 등이 있다.	대표적인 서원으로 경주의 1)육산 서원 , 안동의 2)도산 서원 등이 있다.	2) '도산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서 도산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458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때마침 프랑스와 교섭도 제대로 되지 않자 조선 정부는 1866년 봄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프랑스와 교섭도 제대로 되지 않자 조선 정부는 1866년 봄,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필요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봄'과 '서양의 통상 요구'는 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가 아니므로, 봄과 서양의 통상 요구 사이 휴지를 문장 부호로 표시해야 한다.
459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또, 타이완을 획득함으로써 서구 열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또, 타이완을 획득하여 서구 열강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식민지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60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또한 백성들에게 문자를 익히게 함으로써 교화를 쉽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또한 백성들에게 문자를 익히게 하여 교화를 쉽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61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322	또한, 유엔에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다양한 소리를 글로 표현하기에 한글만큼 정확한 언어가 없다고 하여 그들에게 한글 사용을 권하고	(주어진 문맥에 맞게 문장을 끝맺어야 함.)	문단 내의 마지막 문장이 끝맺어지지 않아 문단 내 의미 결속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462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22	리빙스턴, 스탠리 등 탐험가들이 내륙 깊이 들어가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한 사정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음.)	필요한 정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부정확하다. 탐험가들이 알게 된 아프리카 내륙의 '사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해당 문장의 전후 어디에도 어떠한 사정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63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무관세 무역과 일본 화폐의 통용까지 허용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무관세 무역과 일본 화폐의 통용까지 허용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64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본래는 1)백운동서원 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서원 이라 불리었다.	본래는 1)백운동 서원 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 서원 이라 불리었다.	1) '백운동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 서 '백운동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465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본래는 1)백운동서원 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서원 이라 불리었다.	본래는 1)백운동 서원 이었으나 명종으로부터 현판을 받고 2)소수 서원 이라 불리었다.	2) '소수 서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 및 국어사전에서 '소수 서원'의 표기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466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14	서양인은 오랑캐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경계심도 더욱 높아졌다.	서양인은 오랑캐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한 경계심도 더욱 높아졌다.	후행절의 서술어가 피동형이므로 선행절의 서술어도 피동형으로 수정한다.
467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서원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교육함으로써 사림의 수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원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교육하여 사림의 수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68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세종대왕 통상	세종 대왕 통상	'세종 대왕'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469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 기록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 마한 시대 토실이 발견됨으로써 사실로 밝혀졌다.	이 기록을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 마한 시대 토실이 발견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70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는 공신이나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양인을 늘려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국가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공신이나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양인을 늘려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71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1	이는 함격 인원제 비해 관직의 수가 적어 출신 가문이 관직 임용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함격 인원제 비해 관직의 수가 적어 출신 가문이 관직 임용에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은 '짐작할 수 있다'와 어울리기에 다소 어색하므로, '이를 통해~짐작할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472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22	이들이 타고 온 이양선은 19세기에는 더욱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하고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타고 온 이양선은 19세기에는 조신에 더욱 자주 나타나 해안을 측량하고 통상을 요구하였다.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양선이 나타난 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73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런 정권 교체는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권 교체는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되어/교체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74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렇게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귀족 문화와 지방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귀족 문화와 지방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75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에 인종은 이자겸 세력을 분열시킴으로써 이자겸과 그 일당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이에 인종은 이자겸 세력을 분열시켜 이자겸과 그 일당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76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2	중국 1)이 전국 시대에 찾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중국 1)에서 전국 시대에 찾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1) 잘못된 조사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중국'은 전쟁이 지속되었던 공간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477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중국 1)이 전국 시대에 찾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중국 1)에서 전국 시대에 찾은 전쟁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많은 2)유이민 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2) '유이민'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유이민'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재된 합성어가 아니므로, 유민과 이민을 동시에 지칭하기 위해서는 가운뎃점이나 쉼표를 사용하여 '유·이민', '유, 이민'과 같이 명사 내 구분이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유이민'이라는 잘못된 표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478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13	특히 청나라 수도 베이징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점령당한 소식 은 정부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특히 청나라 수도 베이징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점령당했다는 소식 은 정부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적절하지 못한 시간 표현을 사용하였다. 청나라의 수도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은 현재 백성들이 충격을 받게 된 원인이므로 이미 일어난 사태이다. 따라서 '소식'을 수식하는 '점령당하다'는 '점령당한'이 아닌 '점령당했다'는 것과 같이 과거형으로 수정해야 한다.
479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프랑스군은 이 통고서처럼 1)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 2)는 강렬한 '응징' 자세를 보였다.	1) 프랑스군은 이 통고서처럼 1)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 2)라는 강렬한 '응징' 자세를 보였다.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480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2	프랑스군은 이 통고서처럼 1)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 2)는 강렬한 '응징' 자세를 보였다.	프랑스군은 이 통고서처럼 1)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 2)라는 강렬한 '응징' 자세를 보였다.	2)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사용한 직접 인용문이므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하는'의 줄임형인 '라는'으로 수정한다.
481	7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중략) 모두 실어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였다.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중략) 모두 실어 독자들에게 알려/알리 고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려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82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홍선 대원군의 만동묘 철폐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1)제사지내던 만동묘는 폐허가 되었으며, 묘정비는 글자가 알아볼 수 없게 쪼아진 채로 오랫동안 2)흙속 에 묻혀 있었다.	홍선 대원군의 만동묘 철폐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1)제사 지내던 만동묘는 폐허가 되었으며, 묘정비는 글자가 알아볼 수 없게 쪼아진 채로 오랫동안 2)흙 속 에 묻혀 있었다.	1) '제사 지내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제사를 지내다'에서 '를'이 생략된 형태라면 '제사 지내다'와 같이 띄어서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제사'와 '지내다'가 결합된 형태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483	7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2	홍선 대원군의 만동묘 철폐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1)제사지내던 만동묘는 폐허가 되었으며, 묘정비는 글자가 알아볼 수 없게 쪼아진 채로 오랫동안 2)흙속 에 묻혀 있었다.	홍선 대원군의 만동묘 철폐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1)제사(를) 지내던 만동묘는 폐허가 되었으며, 묘정비는 글자가 알아볼 수 없게 쪼아진 채로 오랫동안 2)흙 속 에 묻혀 있었다.	2) '흙 속'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흙 속'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484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 무천은 '하늘을 향해 춤춘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 무천은 하늘을 향해 춤춘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는데, 무천은 '하늘을 향해 춤춘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접 인용문인데 내포절에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마침표를 삭제하도록 한다. 강조 여부에 따라 2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는 사용하지할 수도 있다.
485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결국,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함으로써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결국,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여 고려, 송, 거란 사이에는 세력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86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경제적으로는 대지주를 없애고 중소 지주와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백성의 생활을 동시에 안정시키려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대지주를 없애고 중소 지주와 자영농을 육성하여 국가 재정과 백성의 생활을 동시에 안정시키려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87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22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 송으로부터 각종 비단과 약재, 서적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고 종이, 인삼 등은 수출하였다 .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 송으로부터 각종 비단과 약재, 서적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고 종이, 인삼 등은 송으로 수출하였다.	서술어에 필요한 부사어를 삽입하여 수정해야 한다. 수출과 수입의 상태는 '송'이므로 '수출하다'는 '송으로부터'와 호응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그 방향성을 명시하기 위해 '송으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488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고려는 이를 토대로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함으로써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는 이를 토대로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89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고려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여 고려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90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과전법은 국가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새 왕조 개창에 이바지하는 한편	과전법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새 왕조 개창에 이바지하는 한편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91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그러나 이자겸은 척준경의 배신으로 쫓겨나고 척준경 역시 탄핵을 받음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그러나 이자겸은 척준경의 배신으로 쫓겨나고 척준경 역시 탄핵을 받아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92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또 초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국사와 왕사 제도를 1) 됨으로써 불교가 2) 국교로서의 권위 를 지니게 되었다.	또 초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국사와 왕사 제도를 1) 되어 불교가 2) 국교의 권위 를 지니게 되었다.	1)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93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또 초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국사와 왕사 제도를 1) 됨으로써 불교가 2) 국교로서의 권위 를 지니게 되었다.	또 초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국사와 왕사 제도를 1) 되어 불교가 2) 국교의 권위 를 지니게 되었다.	2) 조사 '로서'와 '의'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as'와 결합하는 영어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とし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의'를 삭제하여도 동일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조사 결합은 피해야 한다.
494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명무의 '의공공후왕'은 1)'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2)'는 뜻이므로	명무의 '의공공후왕'은 1)'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2)라는 뜻이므로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495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2	명무의 '의공공후왕'은 1)'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2)'는 뜻이므로	명무의 '의공공후왕'은 1)'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2)라는 뜻이므로	2)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사용한 직접 인용문이므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하는'의 줄임형인 '라는'으로 수정한다.
496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22	부여와 마한의 목지국은 왕을 칭할 정도로 성장하여 연맹 왕국의 단계에 이르렀다.	부여와 마한의 목지국은 지도자를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성장하여 연맹 왕국의 단계에 이르렀다.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부여와 목지국이 왕으로 칭할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497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신라는 사비를 공략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신라는 사비를 공략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498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심지어 주화의 질을 낮추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심지어 주화의 질을 낮추어 화폐를 발행하여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499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11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남의 범위 가 15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정남의 기준 이 15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올라갔다.	주어인 '정남의 범위'에서 '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동사 '올라가다'와 어울린다고 보기 어렵다. 나이 제한선이 15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는 의미라면 '정남의 기준'과 같이 주어를 수정해야 한다.
500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영고는 '동동동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영고는 '동동동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영고는 동동동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영고는 '동동동 북을 울리면서 신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간접 인용문인데 내포절에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1)과 같이 마침표를 삭제하도록 한다. 강조 여부에 따라 2)인과 같이 작은따옴표는 유지할 수도 있다.
501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교류를 끊었으나,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가 수립되고 통신사가 파견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다.	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 교류를 끊었으나,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가 수립되고 통신사가 파견되어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02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113	이 시기에 등장한 단군 집단은 주변의 군장 사회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1)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2)는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등장한 단군 집단은 주변의 군장 사회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1)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2)라는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1)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작은따옴표를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503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2	이 시기에 등장한 단군 집단은 주변의 군장 사회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1)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2)는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등장한 단군 집단은 주변의 군장 사회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1)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2)라는 홍익인간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	2) 잘못된 인용 표지를 사용하였다. 문장 부호를 사용한 직접 인용문으로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하는'의 줄임형인 '라는'으로 수정한다.
504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렇게 한계를 드러낸 양무운등은 결국 청·일 전쟁(1894~1895)에서 일본에 패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한계를 드러낸 양무운등은 결국 청·일 전쟁(1894~1895)에서 일본에 패하여 실패로 끝났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05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를 통해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 등용함으로써 호족의 전횡을 막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들 등용하여 호족의 전횡을 막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키우려고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06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에 놀란 고종이 ~ 독립 협회를 해산함으로써 현의 6조는 실현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고.	이에 놀란 고종이 ~ 독립 협회를 해산하여 현의 6조는 실현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07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1	이에 도교는 불교적인 요소와 예언을 믿는 도참사상이 수용되어 민간 신앙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도교는 불교적인 요소와 예언을 믿는 도참사상을 수용하여 민간 신앙으로 전개되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이루는 호응이 부적절하다. 해당 문장의 주어는 '도교' 그 자체이므로 '도교'는 '도참사상'을 '수용'한 '주체'가 된다.
508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냄으로써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을 드러내고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09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전부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략)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규제하였다.	전부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략)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이들의 생활을 규제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10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정치적 측면에서는 궁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함으로써 왕실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궁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여 왕실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11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지방 호족 출신의 자제들은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기도 하였다.	지방 호족 출신의 자제들은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되어 귀족의 대열에 들기도 하였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12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청은 흥선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탄진으로 압송함으로써 일 본의 무력 개입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청은 흥선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몰아 탄진으로 압송하여 일본의 무력 개입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つ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13	9	한국사	고등학교		정확	1222	한동안 동북아시아 는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한동안 동북아시아 에서는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세력의 균형이 '유지'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사 '에서'를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514	9	한국사	고등학교		소통	2231	한편, 원 간섭기에는 몽골 문물이 유입됨으로써 풍습과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한편, 원 간섭기에는 몽골 문물이 유입되어 풍습과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으로써'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결합 구조는 번역투 표현이다. 영어에서 'with'이나 'by'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일본어의 '~をもって'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의 선후 관계는 우리말 어미를 사용하여 더욱 간결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번역투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515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덴트레카스토 제도	당트르카스토 제도	뉴기니 섬 남동쪽 부근에 분포하는 화산섬 제도인 'D'Entrecasteaux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당트르카스토 제도'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516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우크라이나 중동부 드네프르 강의 종류에 있는 항구 도시 'Dnepropetrovsk'의 우리말 표기는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이다. 이는 러시아어 표기법(2005년 제정)에 따른 것이며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37쪽, 38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517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벨로루시(Belorus)	벨라루스(Belarus)	유럽 동쪽에 위치하며 폴란드와 인접한 공화국 'Belarus'의 우리말 표기는 '벨라루스'이다. 동일 교과서 내 다른 부분에서는 '벨라루스'로 바르게 표기하였다.
518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베네수엘라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이다. 따라서 줄여 쓸 때에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또는 '베네수엘라'로 써야 한다. 동일한 교과서 내 45쪽, 46쪽, 49쪽, 55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519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사우스샘프턴	사우스샘프턴	영국 잉글랜드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Southampton'의 우리말 표기는 '사우스샘프턴'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520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샤울라이	샤울라이	리투아니아 중북부의 도시 'Shauliai'의 우리말 표기는 '샤울라이'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타 언어 표기법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21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	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코테	스리랑카 입법 수도인 도시 'Sri Jayawardanepura Kotte'의 우리말 표기는 '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코테'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18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522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스피츠베르겐 섬	스피츠베르겐 섬	노르웨이 북부의 스피츠베르겐 제도에 속하는 섬 'Spitsbergen'의 우리말 표기는 '스피츠베르겐'이다. 이는 노르웨이어 표기법을 따른 것이며, 노르웨이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23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싹팁카르	싹팁카르	러시아 연방 서북부 코미 자치 공화국의 도시 'Syktyvkar'의 우리말 표기는 '싹팁카르'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38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24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알라모스</u>	<u>알라모스</u>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도시 'Alamos'의 바른 우리말 표기는 '알라모스'이다. 이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에스파냐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25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아키미스키 섬</u>	<u>에키미스키 섬</u>	캐나다 허드슨 만에 위치한 'Akimiski Island'의 우리말 표기는 '에키미스키 섬'이다. 이는 영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26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위베스퀼레</u>	<u>이위베스퀼레</u>	핀란드 중남부에 위치한 케스키수오미 주(州)의 주도(州都)인 'Jyväskylä'의 우리말 표기는 '이위베스퀼레'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타 언어 표기법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27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이칼루이트</u>	<u>이칼루이트</u>	캐나다 동북부에 위치한 배핀(Baffin)섬의 주도인 'Iqaluit'의 우리말 표기는 '이칼루이트'이다. 이는 국어사전이나 외래어 용례로 등재된 어휘는 아니나, 영어 표기법에 따라 '이칼루이트'로 표기해야 한다.
528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케이프코랄</u>	<u>케이프코럴</u>	미국 플로리다 주(州)의 도시 'Cape Coral'의 우리말 표기는 '케이프코랄'이다. 이는 영어 표기법을 따른 것이며, 영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동일한 교과서 내 45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529	7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트렌티노</u>	<u>트렌티노알토아디제</u>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주(州)인 'Trentino-Alto Adige'의 우리말 표기는 '트렌티노알토아디제'이다. 이탈리아어 표기법에 따라 제44차 외래어 심의회(2002)에서 규정하였고, 이탈리아어 표기법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0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케르겔렌 제도</u>	<u>케르겔렌 제도</u>	남인도양 남부에 있는 프랑스령 제도 'Kerguelen'의 우리말 표기는 '케르겔렌'이다. 이는 프랑스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프랑스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1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글래스베이</u>	<u>글레이스베이</u>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동부의 도시 'Glace Bay'의 우리말 표기는 '글레이스베이'이다. 이는 영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영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2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노보시비르스크 제도</u>	<u>노보시비르스키 제도</u>	북극해의 라프테프 해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해 사이에 줄지어 있는 무인도 무리인 'Novosibirskiye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노보시비르스키 제도'이다. 이는 동일한 교과서 내 27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러시아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3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노보시비르스크 제도</u>	<u>노보시비르스키 제도</u>	북극해의 라프테프 해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해 사이에 줄지어 있는 무인도 무리인 'Novosibirskiye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노보시비르스키 제도'이다. 이는 동일한 교과서 내 27쪽에서도 잘못 표기하였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러시아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4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다우가프필스</u>	<u>다우가프필스</u>	라트비아 동남부의 도시 'Daugavpils'의 우리말 표기는 '다우가프필스'이다. 이는 기타 언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5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덴트레카스토 제도</u>	<u>당트르카스토 제도</u>	뉴기니 섬 남동쪽 부근에 분포하는 화산섬 제도인 'D'Entrecasteaux 제도(諸島)'의 우리말 표기는 '당트르카스토 제도'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36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바우브자흐</u>	<u>바우브지흐</u>	폴란드 서남부 도시 'Wałbrzych'의 우리말 표기는 '바우브지흐'이다. 이는 폴란드어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7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벨루우리존치</u>	<u>벨루오리존치</u>	브라질 중남부의 도시 'Belo Horizonte'의 우리말 표기는 '벨루오리존치'이다. 동일 교과서 내 다른 부분에서는 '벨루오리존치'로 바르게 표기하고 있다.
538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브워크와베크</u>	<u>브워츠와베크</u>	폴란드 중부에 위치한 브워츠와베크 주(州)의 도시 'Włocławek'의 우리말 표기는 '브워츠와베크'이다. 이는 폴란드어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39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세인트키츠 네비스</u>	<u>세인트키츠 네비스</u>	서인도 제도의 동부 리워드 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Saint Kitts and Nevis'의 우리말 표기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고, 영어 표기법에 따라 제85차 외래어 심의회(2009)에서 규정한 어휘이며,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40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u>	<u>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코테</u>	스리랑카 입법 수도인 도시 'Sri Jayawardenepura Kotte'의 우리말 표기는 '스리자아와르데네푸라코테'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다. 동일 교과서 내 26쪽에도 잘못 표기하였다.
541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에르주름</u>	<u>에르주름</u>	터키 동북부에 위치한 에르주름 주(州)의 주도 'Erzurum'의 우리말 표기는 '에르주름'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기타 언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42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푸에르토데세아도</u>	<u>푸에르토데세아도</u>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스 주(州)에 있는 도시 'Puerto Deseado'의 우리말 표기는 '푸에르토데세아도'이다. 이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며, 에스파냐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43	9	사회과부도	중학교		정확	1131	<u>프로비덴스</u>	<u>프로비던스</u>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州)의 도시 'Providence'의 우리말 표기는 '프로비던스'이다. 이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어휘이며, 영어 표기법에 따라 영어 표기법의 용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544	7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그런데 <u>잘사는</u> 삶, 행복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u>잘 사는</u> 삶, 행복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사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잘살다'는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도록 '잘 살다'로 띄어 쓴다.
545	7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3	<u>맞아</u> 저거였어.	<u>맞아</u> , 저거였어.	'맞아'에 대한 적당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의미 연결을 고려하여 '맞아' 뒤에 쉼표를 추가한다.
546	7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u>잘살고</u>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u>잘 살고</u> 싶어 합니다.	'잘 살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잘살다'는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도록 '잘 살다'로 띄어 쓴다.
547	7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222	작은 <u>일도</u> 감사합니다.	작은 <u>일에도</u> 감사합니다.	'감사하다'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조사가 잘못 선택되었다. 행위(감사)가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조사로 수정한다.
548	7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철조망 양편에 있는 이들이 다시 <u>한가족</u> 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해 봅시다.	철조망 양편에 있는 이들이 다시 <u>한 가족</u> 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해 봅시다.	'한 가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같은'의 뜻을 지닌 관형사 '한'은 체언과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49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봅시다.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해 봅시다.	'배출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분리 배출'과 '해'를 '분리하다'와 '배출하다'로 단속 결합되어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리하다'와 '배출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분리·배출해'로 수정한다.
550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골고루 공을 주고 받으며 모든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골고루 공을 주고받으며 모든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고받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주고받다'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551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1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훌륭하게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훌륭하게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치루다'는 '치르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해당 문장에서는 '치르다'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였으므로, '치른'이 아닌 '치른'으로 수정한다.
552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그 중 에서 나와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는 커다란 공동체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중 에서 나와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이 모두 모여 살고 있는 커다란 공동체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로 붙여 쓴다.
553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그런데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한번 놀랐어.	그런데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한번 놀랐어.	'한 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번'은 '지난 어느 때나 기회', 또는 '일단 한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 해당 문장에서는 부사 '또'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재차'의 의미이므로 '한 번'으로 수정한다.
554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나는 아버지께서 책가방을 다 싸주셔 .	나는 아버지께서 책가방을 다 싸 주셔 .	'싸 주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싸 주다'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싸 주셔'로 수정한다. 다른 예) 어머니께서 너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김밥과 과일을 싸 주셨어. (81쪽 7행)
555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몰어 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몰어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몰어보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무엇을 밝히려나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는 '몰어보다'이다.
556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221	비 오는 날, 전희 어머니께 따뜻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전희 어머니께 따뜻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배려'가 어색하므로, '따뜻하게 배려하다'로 수정한다.
557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산 넘어 물 건너가는 길	산 넘어 물 건너 가는 길	'건너 가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가는'은 '산 넘어'와 '물 건너'에 모두 걸리는 서술어이므로 '건너가는'처럼 쓰면 호응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산 넘어 가는 길', '물 건너 가는 길'의 의미가 모두 담기도록 '건너 가는'으로 수정한다.
558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상장에 내 이름을 적고 다함께 읽어 보며,	상장에 내 이름을 적고 다 함께 읽어 보며,	'다 함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다 함께'는 한 단어가 아니며 '다'와 '함께'는 각각 부사이므로 '다 함께'와 같이 띄어 쓴다.
559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3	스스로 책임을 다해 정리하는 네 모습을 보면, 나도 도서 정리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책임을 다해 정리하는 네 모습을 보면, '나도 도서 정리를 좀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알맞은 문장 부호가 누락되었다. 해당 문장은 말하는 내용 중에서 화자가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내므로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추가한다.
560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1	시험은 자신의 실력대로 치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은 자신의 실력대로 치려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치루다'는 '치르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해당 문장에서 '치르다'는 '치르-+-어'로 활용되므로 '치뤼'가 아닌 '치르'로 수정한다.
561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1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면 우정도 더 커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면 우정도 더 커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버리다'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의리를 잊거나 여기다'는 '저버리다'가 아닌 '저버리다'이므로, '저버리다'로 수정한다.
562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옆집 언니가 쓰던 물건들이지만, 정말 좋은 걸 .	옆집 언니가 쓰던 물건들이지만, 정말 좋은걸 .	'좋은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은걸'은 현재의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좋은걸'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63	7	도덕	초등학교	4	공공	3212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로서 또는 오빠나 동생으로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다.	1안)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로서 또는 형제자매로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2안)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로서 또는 오빠, 언니, 형, 누나나 동생으로 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설명할 때 남자 형제를 뜻하는 '오빠'만을 제시하는 것은 성별과 관련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형제자매로서'와 같은 표현으로 포괄하거나, 형제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명사(오빠, 언니, 형, 누나)를 제시한다.
564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221	자주적인 생활 여부를 반성하기와 실천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자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기	'자주적인 생활 여부'와 '반성하기' 및 '실천'이 서로 호응하지 않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반성'과 '실천' 각각에 호응하는 목적어가 드러나도록 절 구성으로 수정하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면서도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다.
565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자주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공부를 해봅시다 .	자주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공부를 해 봅시다 .	'해 보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 보다'의 '보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해 봅시다'로 수정한다. 다른 예) 약속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잘 지키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 봅시다. (64쪽 11행)
566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21	정직한 삶의 모범된 모습	정직한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	'모범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다. 의미는 통하되 정확한 표현을 위해 '모범이 되는'으로 수정한다.
567	7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기다리던 배추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기다리던 배추 장수가 서 있었습니다.	'나가 보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나가 보다'의 '보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나가 보니'로 수정한다. 다른 예) 상황 카드를 뽑아서 읽어 보고 카드에 적힌 상황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67쪽 13행)
568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선플 달기 운동'은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달아 주자는 운동입니다.	'선플 달기 운동'은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달아 주자는 운동입니다.	'고통받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고통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569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 날까 봐 불안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날까 봐 불안할 때	'들통날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들통나다'는 "비밀이나 잘못된 일이 드러나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570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게임은 재미도 있고 친구들보다 실력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은 재미도 있고 친구들보다 실력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하던 일을 그만 멈춘다는 의미일 때에는 '그만하다'와 같이 붙여 쓴다.
571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게임을 못하면 하루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게임을 못 하면 하루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못 하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는 게임을 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못 하면'과 같이 띄어 쓴다.
572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그럴 만 한 것이	그럴 만한 것이	'만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그럴 만한'과 같이 붙여 쓴다.
573	7	도덕	초등학교	5	소통	2222	그리고 미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곳곳이 동생들을 잘 돌보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잘 도와주어서 추천되었습니다 .	그리고 미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곳곳이 동생들을 잘 돌보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며, 친구들을 잘 도와주어서 추천되었습니다 .	'친절하다'와 '도와주다' 각각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 중 일부가 생략되었다. '잘 도와주다'의 목적으로 '친구들을'을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수정한다.
574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누가 그랬는지 알게 뭐야	누가 그랬는지 알 게 뭐야	'알 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알 게'에서의 '게'는 '것'의 준말로, 의존 명사인 '것'의 띄어쓰기를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575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대화로 해결 못할 일은 없어요.	대화로 해결 못 할 일은 없어요.	'못 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은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못 할'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76	7	도덕	초등학교	5	소통	2222	더군다나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잘 도와줍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고 친구들을 잘 도와줍니다.	'친절하다'와 '도와주다' 각각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 중 일부가 생략되었다. '잘 도와준다'의 목적어로 '친구들을'을 추가한다.
577	7	도덕	초등학교	5	소통	2111	모든 부족원들이 부족의 생존에 어떤 방법으로도 일익 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부족원들이 부족의 생존에 어떤 방법으로도 일정한 역할 을 담당했습니다.	'중요한 구실을 하는 부분 또는 조그마한 도움을 뜻하는 한자어 '일익'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어휘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한 역할'로 수정한다.
578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바빠서 다 못해요 .	바빠서 다 못 해요 .	'못 해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맥은 어떤 일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미처 다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못 해요'로 띄어 쓴다.
579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아이들이 정성껏 가꾼 채소를 먹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가꾼 채소를 먹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580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3	여러분 진선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 진선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여러분'은 문장에서 여러 듣는 이를 일러 부르는 말이므로 뒤에 점표를 쓴다.
581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222	예로부터 대자연과 예술 작품 에서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으며 균형 잡힌 것들을 보통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대자연과 예술 작품 에 대해서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으며 균형 잡힌 것들을 보통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대자연과 예술 작품'은 '아름답다'는 평가의 대상이므로 '에서'가 아닌 '-에 대하여' 구성으로 수정한다.
582	7	도덕	초등학교	5	소통	2222	참됨과 착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선미란 참됨과 착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부자연스럽다.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진선미란'을 추가한다.
583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3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1단)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2단) 친구야! 그럼 우리 뭐 할까?	문장 부호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 '친구야'는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므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나 느낌표를 쓴다.
584	7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하루의 작업 일정을 지시 받아 공장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작업 일정을 지시받아 공장 일을 시작합니다.	'지시받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시받다'에서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585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1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청자는 고려 시대에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의 화제인 '고려청자'와 서술어 '만들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해당 문장에서는 고려청자를 만든 주제를 뚜렷하게 밝히기 애매하므로 서술어를 '만들어진'로 수정한다.
586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1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1971년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1971년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 민간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문장의 화제인 '국경 없는 의사회'와 서술어 '설립하다' 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해당 내용에서는 주어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 문장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서술어를 '설립된'으로 수정한다.
587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3	그래 맞아.	그래 , 맞아.	'그래'에 대한 적당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감탄사의 끝에 느낌표를 쓰되,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래' 뒤에 적절한 문장 부호를 추가한다.
588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빌려 준다 .	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빌려준다 .	'빌려준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내어 주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빌려주다'로 붙여 쓴다.
589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1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편견은 꼭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편견은 꼭 극복되어야 합니다 .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다. 문장의 주어인 '편견'은 서술어 '극복되다'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지 '중요한 일'은 아니므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590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모둠장인 경희가 신 나게 말했습니다.	모둠장인 경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신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591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봉사하는 것이 늘 재미있고 신 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늘 재미있고 신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신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592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1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어린이 5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어린이 5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	문장의 서술어 '전망하다'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아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다. 해당 내용에서는 주어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 문장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서술어를 '하다'로 수정한다.
593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이제 피해 지역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용기에 힘입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 지역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용기에 힘입어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찾아 가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로 붙여 쓰는 '찾아가다'는 "특정한 곳으로 가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해당 문맥에 알맞지 않다. '찾아가다'와의 구분을 위해 '찾아 가고'로 수정한다.
594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1	초기의 청자는 매우 소박한 모습이었는데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종과 인종 때에 이르러 비색 청자 시대를 이루며 고려청자의 진면목을 보이는 상감 청자를 만들었습니다 .	초기의 청자는 매우 소박한 모습이었는데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종과 인종 때에 이르러 비색 청자 시대를 이루며 고려청자의 진면목을 보이는 상감 청자가 만들어졌습니다 .	해당 문장에서는 상감 청자를 만든 주체를 뚜렷하게 밝히기 애매하므로 주어를 '상감 청자'로, 서술어를 '만들어지다'로 수정한다.
595	7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2	휴대 전화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대 전화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 있게 생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문장 내에서 '도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생기지 않도록', '생활하도록')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휴대 전화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스스로 책임 있게 생활하는 것'의 결과이자 목적으로서 후행절에는 어미 '도록'이 붙지 않아야 한다.
596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222	'하루 종일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 는 덕이의 생각에 찬성하나요?	'하루 종일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면 내 자유가 없어진다.' 라는 덕이의 생각에 찬성하나요?	문장 내에 삼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시 '·'라는'으로 수정한다.
597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3	그러자 모래에 글을 적었던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1) 친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서 고맙다. 2) 고 새겼습니다.	그러자 모래에 글을 적었던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1) 친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서 고맙다. 2)라고 새겼습니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598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222	그러자 모래에 글을 적었던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1) 친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서 고맙다. 2) 고 새겼습니다.	그러자 모래에 글을 적었던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1) 친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서 고맙다. 2)라고 새겼습니다.	2) 인용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해당 표현은 직접 인용이므로 그에 붙은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가 되어야 한다.
599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또 지나치게 관심을 받을 때 정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또 지나치게 관심을 받을 때 정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별받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차별받고'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600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어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여 바깥출입을 못하셨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여 바깥출입을 못 하셨습니다 .	'못 하셨습니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맥에서는 외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못 하셨습니다'로 띄어 쓴다.
601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3	유민이가 자신의 일이라며 부모님과 상의 없이 '매일 세 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유민이가 자신의 일이라며 부모님과 상의 없이 '매일 세 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마침표를 삭제한다.
602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이렇게 물을 아껴 쓰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는 걸요?	이렇게 물을 아껴 쓰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는걸요?	'되는걸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는'은 현재의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되는걸'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03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2	친구가 아파하거나 힘들어 한다 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친구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한다 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힘들어한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힘들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604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113	친구의 짜증에 화가 난 다른 친구는 모래에 1)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냈다. 2)고 적었습니다.	친구의 짜증에 화가 난 다른 친구는 모래에 1)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냈다." 2)라고 적었습니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605	9	도덕	초등학교	3	정확	1222	친구의 짜증에 화가 난 다른 친구는 모래에 1)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냈다. 2)고 적었습니다.	친구의 짜증에 화가 난 다른 친구는 모래에 1)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냈다." 2)라고 적었습니다.	2) 인용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해당 표현은 직접 인용이므로 그에 붙은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가 되어야 한다.
606	9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1	서로가 도움이 되었으 며 좋겠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었으 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단순 오타자로 판단된다. '되었으'를 '되었으면'으로 수정한다.
607	9	도덕	초등학교	4	정확	1112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팀을 만들어 책을 정리하고 빌려 주며 ,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팀을 만들어 책을 정리하고 빌려주며 , 필요한 자료를 번역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빌려 주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기로 하고 내어 주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빌려주다'로 붙여 쓴다.
608	9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221	'과학자의 1)연구 결과는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안 된다 2) '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과학자의 1)연구 결과를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안 된다 2) '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 '연구 결과는~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장이다. '이용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므로 '는'을 '를'로 수정한다.
609	9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3	'과학자의 1)연구 결과는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안 된다 2) '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과학자의 1)연구 결과를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안 된다 2) '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2) 불필요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인용해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침표를 삭제한다.
610	9	도덕	초등학교	5	정확	1112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사람 모아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람 모아	'고운 사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곱다'와 '사람'은 각각 독립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611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3	1)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612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2	1)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화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613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 세요.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으 세요.	'털어놓으세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다'라는 뜻의 '털어놓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614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힘들어 해요.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힘들어 해요.	'힘들어해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힘들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615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연평도 주민들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 주민들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한다.	'방불케 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라는 뜻의 형용사 '방불하다'는 '~을 방불케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쓰일 때 보조 동사 '하다'와 띄어 써야 한다.
616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112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국민을 잘살 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국민을 잘 살 게 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잘 살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잘살다'는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도록 '잘 살게'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17	9	도덕	초등학교	6	정확	1222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많이 들읍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읍니다.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618	9	도덕	초등학교	6	공공	3212	특히 외국에서 시집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언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 결혼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언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성별과 관련하여 편중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시집은'은 '남자 집안'에서, 다른 집안의 여자가 자기 집안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음을 이르는 말'로 남성 중심적 표현에 가깝다. '시집은'을 '우리나라로 와 결혼한'으로 수정한다.
619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 경찰청 보안과는 '폭발물 사용 선동 및 충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K군 (15) 등 중학생 3명과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찰청 보안과는 '폭발물 사용 선동 및 충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K 군 (15) 등 중학생 3명과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K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군'은 의존 명사이므로 성과 띄어 쓴다.
620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1)엄마 여기 2)았 아요.	1)엄마 , 여기 2)았으 세요.	1)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엄마'는 부르는 말이므로 뒤에 쉼표를 쓴다.
621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11	1)엄마 여기 2)았 아요.	1)엄마 , 여기 2)았으 세요.	2) 높임법 표현을 어색하게 사용하였다. 문장의 주어를 고려하여 '았'을 '았으'로 수정한다.
622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검찰은 A 기업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의 기술 담당 과장인 김모 씨 를 구속했다.	검찰은 A 기업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의 기술 담당 과장인 김 모 씨 를 구속했다.	'김 모 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모'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로 앞에 오는 성(姓)과 띄어 쓴다.
623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문제없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문제없다'는 문제가 될 만한 점이나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뜻의 형용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624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고 가르친 예수의 '사랑'과,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자비를 베풀라.' 고 가르친 석가모니의 '자비(慈悲)'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라.' 고 가르친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라고 가르친 예수의 '사랑'과,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자비를 베풀라." 라고 가르친 석가모니의 '자비(慈悲)'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라." 라고 가르친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1)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625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222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고 가르친 예수의 '사랑'과,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자비를 베풀라.' 고 가르친 석가모니의 '자비(慈悲)'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라.' 고 가르친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2)라고 가르친 예수의 '사랑'과,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느끼고 자비를 베풀라." 라고 가르친 석가모니의 '자비(慈悲)'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라." 라고 가르친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2)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626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공부와 춤, 둘 다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	공부와 춤, 둘 다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	'않을게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을게'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627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그래	그래.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표시하는 마침표(.)를 추가한다.
628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들이 사이버 공간에 퍼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들이 사이버 공간에 퍼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해하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불안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29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 아니 ,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장례식장에 가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 아니 ,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장례식장에 가는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라고 말씀하셨다.	‘아니’에 대한 적당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감탄사의 끝에 느낌표를 쓰되, 감탄의 정도가 약하면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니’ 뒤에 적절한 문장 부호를 추가한다.
630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22	그러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할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누구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술어 ‘지급받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목적어 ‘생계비’를 추가하여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수정한다.
631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1	그러자 민호 엄마는 “당신이 웬일이예요 ? 내가 그렇게 끊으라고 할 때는 안 끊더니.” 하고 말했다.	그러자 민호 엄마는 “당신이 웬일이예요 ? 내가 그렇게 끊으라고 할 때는 안 끊더니.” 하고 말했다.	‘예요’는 ‘이예요’의 준말이므로 ‘이예요’와 같이 쓰지 않는다. ‘이예요’로 수정한다.
632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야단법석이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야단법석이다.	‘다음 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다음날’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날을 지칭하는 단어로, 해당 문장의 맥락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 날’로 수정한다.
633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나는 언제나 자연과 한몸 이 되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숨어 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나는 언제나 자연과 한 몸 이 되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숨어 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한 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과 ‘몸’은 각각 독립적인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34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나도 미안해, 친구야.	나도 미안해, 친구야.	문장 부호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나도 미안해’의 뒤에 ‘친구야’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연결한다.
635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또한 가까운 친구는 허물없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편한대로 행동하고, 친구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가까운 친구는 허물없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친구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편한 대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대로’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636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1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외적의 침입 이 있을 때 국민을 보살피고 지켜 주는 것은 국가이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외적의 침입 이 있을 때 국민을 보살피고 지켜 주는 것은 국가이다.	‘침입’의 맞춤법이 잘못되었다. ‘침입’을 ‘침입’으로 바르게 수정한다.
637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모둠별로 해결 방법을 발표해 보고, 그 중 에서 우리 반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모둠별로 해결 방법을 발표해 보고, 그중 에서 우리 반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맥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라는 의미이므로 ‘그중’으로 붙여 쓴다.
638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 에 실린 독도 광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에 실린 독도 광고	잡지명인 ‘워싱턴 포스트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잡지’의 뜻을 더하는 ‘-지’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639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부 간 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부간 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부부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부부 사이’를 뜻하는 ‘부부간’은 붙여 쓴다.
640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22	뿐만 아니라, 교주 부부가 새로 세운 종교 단체에 빠져 사회생활을 포기한 신도들은 또다시 빚을 얻어 현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주 부부가 새로 세운 종교 단체에 빠져 사회생활을 포기한 신도들은 또다시 빚을 얻어 현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의 뜻을 지닌 보조사로 앞에 반드시 체언이나 부사어가 와야 한다. 즉 ‘뿐’만으로 문두에 올 수 없는데 선행어가 생략되었으므로, 대명사 ‘그’를 붙여 수정한다.
641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22	사실 판단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	사실 판단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다. 서술어 ‘가려내다’에 호응하는 적절한 주어(‘어떤 것이’)를 삽입한다.
642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사회적 존재로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사회적 존재로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고통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43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 드리자 ,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께끼 를 풀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드리자 ,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께끼 를 풀었다.	1) '말씀드리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드리다'는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붙여 쓴다.
644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1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 드리자 ,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께끼 를 풀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 수수께끼를 1)말씀드리자 , 어머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2)수수께끼 를 풀었다.	2) '수수께끼'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수수께끼'로 바르게 수정한다.
645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애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잖아요 .	애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	'못 하잖아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맥은 '공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못 하잖아요'로 띄어 쓴다.
646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3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자전거 값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자전거값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1)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해당 문장은 문장 내 삽입된 화자의 마음속 생각이므로 작은따옴표와 마침표를 추가한다.
647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자전거 값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잡히자, 1)예전의 그 가게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2)자전거값을 몇 백 배로 갚아야지. 하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2) '값'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이때 '값'은 대부분 [값]으로 발음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자전거값'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648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22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군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군요.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주어진 '문제가'를 추가한다.
649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 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돈을 빌려 준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생계유지 가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돈을 빌려 준 사람의 하인이 되어야 한다.	'생계유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생계유지'는 '살아 나갈' 방도를 찾아서 계속 이어 나간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650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1	예를 들어, '기원이기 짜궁 을 때린 것은 나쁘다.'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도덕 원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원이기 짜궁 을 때린 것은 나쁘다.'는 개별적인 도덕 판단에 해당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 즉 도덕 원리에 해당한다.	'짜궁'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짜궁'이 아닌 '짜꿍'으로 수정한다.
651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예를 들어,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품성 같은 내면적인 모습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나 품성 같은 내면적인 모습을 중시한다.	형용사 '같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체언 뒤에서 '같은' 꼴로 쓰이는 형용사 '같다'는 어떤 부류에 속한다는 뜻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652	7	도덕	중학교	1	소통	2222	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후행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되었다. 서술어 '침해하다'의 주체인 '국가'를 주어로 명시한다.
653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1	왜 아니예요?	왜 아니예요?	'아니예요'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아니예요'를 '아니예요'로 수정한다. '아니-'에 어미 '-예요'가 결합한 것이므로, '아니예요'로 쓰거나 그 준말 '아녜요'로 쓴다.
654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대화나 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며, 밤 안 에만 틀어박혀 혼자 생활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가족과 같이 대화나 식사를 하려 하지 않으며, 밤 안 에만 틀어박혀 혼자 생활한다.	'밤 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밤'과 '안'은 각각 독립적인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655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이때 파티아스의 절친한 친구인 다몬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 친구를 집에 다녀 오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때 파티아스의 절친한 친구인 다몬이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을 테니 친구를 집에 다녀오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다녀오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느 곳에 갔다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다녀오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56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이상적인 국가는 결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국가를 말한다.	이상적인 국가는 결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국가를 말한다.	'잘 사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잘살다'는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도록 '잘 사는'으로 띄어 쓴다.
657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이처럼 배려 없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하거나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배려 없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불편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편해하거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불편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658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자기 주변에 낙심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할지 표현해 보자.	자기 주변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할지 표현해 보자.	'힘들어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힘들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659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자기 집안 은 깨끗이 치우고 살면서 대문 밖은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기 집의 쓰레기를 이웃집 대문 앞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	자기 집 안 은 깨끗이 치우고 살면서 대문 밖은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자기 집의 쓰레기를 이웃집 대문 앞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다.	'집 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집안'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로 추상적인 공간을 일컫는데, 해당 문장에서는 집의 실내를 뜻하므로 '집 안'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660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정씨 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정 씨 는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정 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씨'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661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222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없애자." 는 다정이 아빠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가족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텔레비전을 없애자." 라는 다정이 아빠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가족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적절한 인용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662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철없는 손녀를 한없이 예뻐해 주신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 드려요 .	철없는 손녀를 한없이 예뻐해 주신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드려요 .	'감사드려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드리다'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663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최군 처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최 군 처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최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군'은 의존 명사이므로 성과 띄어 쓴다.
664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최근 공중도덕이나 법을 어긴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과 같은 사생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중도덕이나 법을 어긴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과 같은 사생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못 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맥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못 할'로 띄어 쓴다.
665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한편 박씨 의 어머니는 컴퓨터를 전혀 못 하면서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편 박 씨 의 어머니는 컴퓨터를 전혀 못 하면서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박 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씨'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666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는 '-드리다'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667	7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얼마 아파게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	할머니께 못 다한 효도를 얼마 아파게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	'살게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게'가 하나의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668	7	도덕	중학교	2	공공	3212	" 1)문동병 환자를 2)씻어 줄 때 나는 3)하나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 1)나병 환자를 2)씻겨 줄 때 나는 3)하나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1)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문동병'은 나병균(癩病菌)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인 '나병'의 차별적 표현이므로 '나병'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6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1)문둥병 환자를 2)씻어 줄 때 나는 3)하나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1)나병 환자를 2)씻겨 줄 때 나는 3)하느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2) 목적어와 서술어 간 호응이 어색하다. 테레사 수녀가 나병 환자를 씻겨 준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선행절의 서술어를 '씻어'에서 '씻겨'로 수정한다.
670	7	도덕	중학교	2	공공	3111	"1)문둥병 환자를 2)씻어 줄 때 나는 3)하나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1)나병 환자를 2)씻겨 줄 때 나는 3)하느님을 간호하고 있다고 느낀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 아닌가?"	3) 테레사 수녀가 속한 가톨릭에서 신봉하는 유일신의 명칭은 '하느님'이다.
67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담배를 피우면 이 결심을 되새기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1안) 담배를 피우면 이 결심을 되새기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2안) 담배를 피우면 이 결심을 되새기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간접 인용문인데 내포절에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1안과 같이 마침표를 삭제하도록 한다. 강조 여부에 따라 2안과 같이 작은따옴표는 유지할 수도 있다.
67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간절히 나비가 되기를 원해야 해.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간절히 "	"간절히 나비가 되기를 원해야 해.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간절히. "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마침표를 사용한다.
67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2)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2)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67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2)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2)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기의 생활은 성인기에 이르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67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20여 년 간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2)분단의 평화적 관리,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1)20여 년간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2)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1) '20여 년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간'이 '동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선행 명사에 붙여 쓴다.
67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1)20여 년 간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2)분단의 평화적 관리,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1)20여 년간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2)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2)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호응하지 않는 표현이다. '관리하다'라는 서술어를 활용해 절로 수정한다.
677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22	1)때문에 주민들은 언론·출판,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2)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1) 때문에 주민들은 언론·출판,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2)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 '때문에'의 '때문'은 명사나 대명사, 어미 '-기', '-은', '-는', '-던'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 자체로 문두에 올 수 없는 데 선행어가 생략되었다. 대명사 '그'를 붙여 수정한다.
67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때문에 주민들은 언론·출판,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2)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1) 때문에 주민들은 언론·출판,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의 상당 부분을 2)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 '보장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보장받다'에서의 '-받다'는 파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67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1)모든 언론의 자유도 억압돼 있으며 간행물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배포 수단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어 식량과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2)고 지적했다.	1)모든 언론의 자유도 억압돼 있으며 간행물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배포 수단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어 식량과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2)라고 지적했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68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1)모든 언론의 자유도 억압돼 있으며 간행물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배포 수단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어 식량과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2)고 지적했다.	1)모든 언론의 자유도 억압돼 있으며 간행물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배포 수단도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어 식량과 주택,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평양으로의 이주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2)라고 지적했다.	2) 적절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8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박씨는 남편과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후로 남편 이시백과 2)잘살았다.	1)박 씨는 남편과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후로 남편 이시백과 2)잘 살았다.	1) '박 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씨'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68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박씨는 남편과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후로 남편 이시백과 2)잘살았다.	1)박 씨는 남편과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후로 남편 이시백과 2)잘 살았다.	2) '잘 살았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잘살다'는 "부유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도록 '잘 살았다'로 띄어 쓴다.
68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아침2), 알겠어.	1)아, 참2)! 알겠어.	1) '아, 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아'와 '참'은 각각 감탄사이므로 띄어 쓴다.
68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1)아침2), 알겠어.	1)아, 참2)! 알겠어.	2)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아'와 '참'은 각각 감탄사이고,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에서 감탄사 뒤에 느낌표(혹은 쉼표, 마침표)를 쓴다고 하였으므로, 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아, 참!'으로 수정한다.
685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22	1)전 세계를 돌며 장애인의 2)능력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1)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장애인의 2)능력 계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1)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었다. 문장의 서술어와 전체 의미를 고려하여 주어 '그녀는'을 추가한다.
686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22	1)전 세계를 돌며 장애인의 2)능력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1)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장애인의 2)능력 계발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2) '능력을 위한 지원'은 어색한 표현이다.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능력 계발을 위한 지원'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계발'을 추가한다.
68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31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나가사키'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일본어의 'ங'는 '끼'가 아닌 '키'로 표기한다.
68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걱정마.	걱정 마.	걱정 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라는 뜻의 '말다'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68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결국 두 강아지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던 고기를 꼬맴은 여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두 강아지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던 고기를 꼬 많은 여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꼬 많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꼬 많은'과 같이 띄어 쓴다.
69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후 유치원과 학교생활, 사회생활도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하게 된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주어와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살아가게'를 '하게'로 수정한다.
69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그래, 좋아	그래, 좋아.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표시하는 마침표(.)를 추가한다.
692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11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1)2)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1)2)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2)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요'체 높임법이 쓰이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이다. '해'체로 수정한다.
693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그러나 현실적으로 값대국들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값대국들에게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에(게) 있어서'는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69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러므로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최대한 다양하게 탐색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택한 직업을 갖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최대한 다양하게 탐색하고 그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과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69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휘파람'과 같이 남녀 간에 애정을 표현한 가요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휘파람'과 같이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한 가요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관형격 조사 '의'는 [에]로 읽는 것은 허용되나, 표기 시에는 '의'로 적어야 한다. '남녀 간에 애정을'을 '남녀 간의 애정'으로 수정한다.
69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리고 국제무대 에서도 서로 소모적인 경쟁으로 외교력을 낭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 무대 에서도 서로 소모적인 경쟁으로 외교력을 낭비하기도 한다.	'국제 무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국제무대'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므로 각 단어를 띄어 '국제 무대'와 같이 쓴다.
69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리고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남북 역류자·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혈육 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	그리고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남북 역류자·국군 포로 가족들에게 혈육 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	'안겨 주었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안겨 주다'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안겨 주었다'로 수정한다. 다른 예)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40쪽 18행)
69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남한만의 총선거는 결국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데 우려하며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남한만의 총선거는 결국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 협상을 추진했으나 실패하였다.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어미의 사용이 어색하다. 해당 문장에서는 '일'이나 '것', '경우'를 뜻하는 '데'를 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자연스러운 연결 어미 '-(이)라고'로 수정한다.
69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인 것이 참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인 것이 참 좋아.	문장 부호가 잘못 쓰였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한다.
70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나도 너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 .	나도 너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걸 .	'있는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는'은 현재의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있는걸'로 수정한다.
70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난 학교 수업 끝나면 한 대씩 피워, 자! 한번 피워 봐.	난 학교 수업 끝나면 한 대씩 피워, 자! 한번 피워 봐.	문장 부호가 잘못 쓰였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한다.
70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남과 북의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차이는 훗날 통일을 이룬다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차이는 훗날 통일을 이룬다 해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문장의 주어를 고려하여 서술어를 '가져올'로 수정한다.
70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너랑은 얘기가 안돼 .	너랑은 얘기가 안 돼 .	'안 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안돼'와 같이 붙여 쓰는 경우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일 때이다.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안 돼'로 띄어 쓴다.
70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네 눈엔 이게 그냥 평범한 형겉신으로 밖에 안 보이니?	네 눈엔 이게 그냥 평범한 형겉신으로밖에 안 보이니?	'형겉신으로밖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앞말에 붙여 쓴다.
70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1	뇌졸중	뇌졸중	'뇌졸중'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뇌중풍'을 뜻하는 의학 용어는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므로 바르게 수정한다.
70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21	넌 가 말하는 억양도 조금 웃긴다.	네 가 말하는 억양도 조금 웃긴다.	'니'는 이인칭 대명사 '네'의 방언(경상)이며, [니]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네'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을 때는 '네'로 써야 하므로 '네'로 수정한다.
70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	'들어 준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들어준다'는 "부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해당 문맥에 알맞지 않다. '들어 주다'와의 구분을 위해 '들어 준다'로 수정한다.
70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당시 남북한에서 전투에 의한 사망자가 150여 만 명, 부상자는 350여 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당시 남북한에서 전투에 의한 사망자가 150여 만 명, 부상자는 350여 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문장의 주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서술어 '추정하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해당 문장에서는 '명수를 추정하는' 주체를 뚜렷하게 밝히기 위해 '추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0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따라서 1)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2)는 말처럼, 우리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1)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2)라는 말처럼, 우리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해야 한다.	1)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작은 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71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따라서 1)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2)는 말처럼, 우리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1)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2)라는 말처럼, 우리는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해야 한다.	2)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시 '-라는'으로 수정한다.
71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주는 서로 양보하면서 자신들의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주는 서로 양보하여야 자신들의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어미의 사용이 어색하다. 선행절이 후행절의 조건이므로 문장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면서'를 '-여야'로 수정한다.
71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또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권위주의적 정체 체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권위주의적 정체 체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장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보장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1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또한 피카소는 비난 받아야 할 것은 공습을 주도한 히틀러 정권만이 아니라 실제로 폭격을 사주한 스페인 프랑코 군부임을 고발했다.	또한 피카소는 비난받아야 할 것은 공습을 주도한 히틀러 정권만이 아니라 실제로 폭격을 사주한 스페인 프랑코 군부임을 고발했다.	'비난받아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비난받아야'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14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22	반대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을 한 기관원이 연행하거나 다그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반대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한 기관원이 연행하거나 다그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적절한 조사가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문장의 원래 의미를 고려하여 생략된 조사 '를'을 추가해 '반대투표를 하고'로 수정한다.
715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21	반면 재민이는 자신에게 그 공부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1)깨닫고 알기 때문에, 배우는 2)데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반면 재민이는 자신에게 그 공부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1)깨달았기 때문에, 배우는 2)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1) '깨닫다'의 의미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공리하여 알게 되다"이므로, '알다'를 이어서 결어 의미의 중복된다. '알다'를 삭제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한다.
71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반면 재민이는 자신에게 그 공부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1)깨닫고 알기 때문에, 배우는 2)데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반면 재민이는 자신에게 그 공부가 왜 의미가 있는지를 1)깨달았기 때문에, 배우는 2)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다.	2) 알맞은 조사가 생략되었다. 배움의 기쁨과 행복의 출처 및 근거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 조사 '에서'를 추가한다.
71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북한 당국으로부터 한 차례의 입국도 허가 받지 못한 문태폰 보고관은 북-중 국경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 관련 NGO, 북한을 출입하는 유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 활동을 펼쳤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한 차례의 입국도 허가받지 못한 문태폰 보고관은 북-중 국경 지역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북한 관련 NGO, 북한을 출입하는 유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 활동을 펼쳤다.	'허가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허가받지'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1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북한 주민들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장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보장받지'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1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비록 금전적으로 궁핍해 험한 길이 될 지라도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일에 제대로 부딪쳐 보며 사는 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금전적으로 궁핍해 험한 길이 될지라도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일에 제대로 부딪쳐 보며 사는 게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될지라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르지라도'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붙여 쓴다.
72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사진으로 치유 받고 나를 찾아 가고, 그러면 세상도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치유받고 , 나를 찾아 가고, 그러면 세상도 새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치유받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치유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2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술, 담배 안돼!	술, 담배 안 돼!	'안 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안돼'와 같이 붙여 쓰는 경우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일 때이다.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안 돼'로 띄어 쓴다.
72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심어도 심어도 겨울만 되면 땀감으로 나무를 모두 베어가니 산은 계속 민둥산이지 않던?	심어도 심어도 겨울만 되면 땀감으로 나무를 모두 베어 가니 산은 계속 민둥산이지 않던?	'베어 가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베어 가다'는 '베다'와 '가다'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므로 각 단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띄어 쓴다.
72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쓸거야?	쓸 거야?	'쓸 거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쓸 거'에서의 '거'는 의존 명사 '것'의 구어형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쓸 거야'와 같이 수정한다.
72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아래는 2000년대 초반 신발 기술 합작 회사 사장으로 ○○ 국가에서 2년여 간 근무한 뒤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이탈 주민 김 모 씨의 ○○ 국가 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이다.	아래는 2000년대 초반 신발 기술 합작 회사 사장으로 ○○ 국가에서 2년여간 근무한 뒤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이탈 주민 김 모 씨의 ○○ 국가 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이다.	'2년여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간'이 '동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선행 명사에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25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11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외모가 중시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외모를 중시하고 있다.	주어를 '우리 사회'로 볼 때,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외모가 중시되고'는 '외모를 중시하고'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726	7	도덕	중학교	2	공공	3212	예쁜 얼굴, 뛰어난 재능 , 엄청난 경제력 등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집착한다.	뛰어난 외모와 재능 , 엄청난 경제력 등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집착한다.	'예쁘다'는 보통 '잘생기다'에 대응하여 여성과 관련하여 쓰이는 어휘이다. '예쁜 얼굴'이라는 표현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여성만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72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옛 선인들은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함을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1)는 말로 2)일려주었다.	옛 선인들은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함을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1)라는 말로 2)일려 주었다.	1) 인용 표지가 잘못 사용되었다. 해당 표현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지 '라는'으로 수정한다.
72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옛 선인들은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함을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1)는 말로 2)일려주었다.	옛 선인들은 청소년기가 매우 중요함을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1)라는 말로 2)일려 주었다.	2) '일려 주었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려 주다'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려 주었다'로 수정한다. 다른 예)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140쪽 18행)
72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오미란, 홍영희 등 1)인민 배우 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2)배정 받으며 ,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오미란, 홍영희 등 1)인민배우 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2)배정받으며 ,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1) '인민배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북한어로 '영화·음악·무용·연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우고, 국가적·사회적 사업에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한 배우에게 수여하는 인민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인민배우'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73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오미란, 홍영희 등 1)인민 배우 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2)배정 받으며 ,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오미란, 홍영희 등 1)인민배우 는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에 방 2칸짜리 주택을 2)배정받으며 , 화장품과 의복 구입용 활동비가 따로 지급되는 등 특혜가 주어졌다.	2) '배정받으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배정받으며'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3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왜냐하면 공부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 주고, 삶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보다 현명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부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 주고, 삶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보다 현명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열어 주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주다'는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어 주다' 구성과 같이 앞말에 띄어 쓴다.
73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우리 이미 친구하기로 했는 걸~	우리 이미 친구하기로 했는걸~	'했는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는걸'은 현재의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했는걸'로 수정한다.
733	7	도덕	중학교	2	공공	3111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담배를 피워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흡연을 당연시하면서도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금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흡연을 하는 여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담배를 피워 왔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흡연을 당연시하면서도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는 금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흡연을 하는 여학생들 역시 점점 늘고 있다.	여학생의 흡연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남녀평등'으로 설명하기 부적절하다. 학습자에게 잘못된 평등의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남녀평등'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한다.
73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11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전쟁 위협 이 늘 존재함에 따라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전쟁 위협 이 늘 존재함에 따라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하고 있다.	문맥에 맞지 않은 어휘가 쓰였다. '위협'은 '힘으로 어르고 협박함'이라는 뜻으로 해당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위협'으로 수정한다.
735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위의 왼쪽 사진은 1)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2)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진이다.	위의 왼쪽 사진은 1)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2)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진이다.	1) '-에 대하여'는 번역투 표현이다. 자연스럽게 간결한 국어 문장 표현으로 수정한다.
736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위의 왼쪽 사진은 1)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2)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사진이다.	위의 왼쪽 사진은 1)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른쪽 사진은 2)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진이다.	2) '-에 대하여'는 번역투 표현이다. 자연스럽게 간결한 국어 문장 표현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3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이 현장에는 '과학자는 대중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든지 혹은 그것을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잘 쓰이도록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이 현장에는 '과학자는 대중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지식을 갖고 있든지 혹은 그것을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잘 쓰이도록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해당 문장은 간접 인용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하게 마침표가 사용되었다. 마침표를 삭제한다. 만약 원문이 현장의 선언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면, 작은따옴표와 인용 표지를 각각 수정하여야 한다.
73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11	이들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동산 affluent 와 독감을 뜻하는 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형용사 affluent 와 독감을 뜻하는 influenza를 합성하여 어플루엔자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affluent'의 품사는 동사가 아닌 형용사이다. 바르게 수정한다.
739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이미 개개인의 세포, 땀줄의 혈액 등에 대해서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이미 개개인의 세포, 땀줄의 혈액 등에 특허가 주어지고 있다.	'-에 대하여'는 번역투 표현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국어 문장 표현으로 수정한다.
74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이와 같은 경제 난 속에서 2002년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 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 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7·1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난 속에서 2002년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 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 기능을 일부 활용하는 7·1 조치를 시행하였다.	'경제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경제상의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뜻하는 단어는 '경제난'이다.
741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이와 같이 국가적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함으로써 강대국들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적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여 강대국들의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함으로써'의 과도한 사용은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74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들어 주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들어준다'는 '부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다. '들어준다'에서의 '준다'는 보조 동사로 '-어 주다'의 구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74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인간은 일을 통해 생계와 가정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 주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조한다.	인간은 일을 통해 생계와 가정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조한다.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어색하다. 주어진 '인간'을 고려하여 보조 동사 '준다'를 삭제한다.
74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자신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평가받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평가받는'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4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1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되요 .	자존심은 북한의 문화라고 보면 돼요 .	'돼요'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되-'는 '되다'의 어간으로 바로 조사 '요'와 결합할 수 없다. '되+-어'의 형태인 '돼'로 수정하여 '돼요'로 표기하여야 한다.
74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잘 때던 깨어 있을 때던 , 일을 하 던 식사를 하 던 , 집 안에서 던 밖에서 던 , 목욕할 때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던 상관없었다.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 일을 하 든 식사를 하 든 , 집 안에서 든 밖에서 든 , 목욕할 때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든 상관없었다.	잘못된 어미가 사용되었다. '-던'은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음을 뜻하는 어미로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붙는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든'으로 수정한다.
74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생활을 보장 받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보장받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보장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4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주변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 은연 중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주변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 은연중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은연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은연중'은 '남이 모르는 가운데'라는 뜻의 명사로 한 단어가기 때문에 붙여 쓴다.
74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천 년 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언어와 역사 등을 공유하며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였다.	천 년 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언어와 역사 등을 공유하며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였다.	'천 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 단어인 '천년'은 오랜 세월을 뜻하는데, 해당 문맥에서는 햇수로 1,000년을 의미하므로 '천 년'과 같이 띄어 쓴다.
75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1	청소년 탈선의 시작 은 대체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 .	청소년 탈선 은 대체로 음주와 흡연에서 시작된다 .	'청소년 탈선의 시작'이라는 주어와 '시작된다'라는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주어를 '청소년 탈선'으로 수정한다.
75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청소년기는 지적 성장과 더불어 자아와 가치관의 형성 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지적 성장과 더불어 자아와 가치관의 형성 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조사의 사용이 어색하다. '가치관의 형성'은 출처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에서'를 '에'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52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청소년기에 있어서 소비 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청소년기의 소비 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하나의 수단 이 된다.	'~에 있어서'는 일어식 변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753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331	<p>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진다. 성호르몬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 친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남자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p> <p>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p> <p>성적 욕망이란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성과 사귀고 싶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강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타난다. 다음을 읽고 생각해 보자.</p>	<p>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진다. 성호르몬은 이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 친구가 이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남자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p> <p>성적 욕망이란 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성과 사귀고 싶고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강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타난다.</p> <p>개인차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적 욕망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 이는 단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음을 읽고 생각해 보자.</p>	세 문단 간의 논리적 흐름이 부자연스럽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청소년기에 느끼는 성적인 욕망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적 욕망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성적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서술하고 있다. 이 세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
75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청소년들의 과소비 현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 번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과소비 현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 번지고 있다.	문장 내에 삽입된 해당 문장은 직접 인용이므로 적절한 인용 표시 '-라는'으로 수정한다.
75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생산성이 서독 지역의 1/3에 지나지 않았고, 서독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10%이상 이었다.	통일 직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생산성이 서독 지역의 1/3에 지나지 않았고, 서독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10% 이상 이었다.	'10% 이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10%'와 '이상'은 붙여 쓸 이유가 없으므로 띄어 쓴다.
75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특히 1천만 이산가족들은 그동안의 아픔을 잊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 행복해 했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특히 1천만 이산가족들은 그동안의 아픔을 잊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 행복해했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행복해했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행복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757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하나 밖에 없는 딸을 땅에 묻은 수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벽보였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땅에 묻은 수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벽보였다.	'하나밖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앞말에 붙여 쓴다.
758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하루 600g의 식량을 1배급 받으며 생활하던 수영의 가족은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당에서 2인식량이 없다. '는 이유로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굶주리게 된다.	하루 600g의 식량을 1배급받으며 생활하던 수영의 가족은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당에서 2인식량이 없다. '는 이유로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굶주리게 된다.	1) '배급받으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배급받다'에서의 '-받다'는 피동词的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59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하루 600g의 식량을 1배급 받으며 생활하던 수영의 가족은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당에서 2인식량이 없다. '는 이유로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굶주리게 된다.	하루 600g의 식량을 1배급받으며 생활하던 수영의 가족은 어느 날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당에서 2인식량이 없다. '는 이유로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굶주리게 된다.	2) 문장 부호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라면 인용 표시 '라는'으로 수정하고, 단순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인용 문장 안의 마침표를 삭제하여야 한다.
760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하지만 북에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1)힘들어 하고 2)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북에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1)힘들어하고 2)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1) '힘들어하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힘들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761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하지만 북에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1)힘들어 하고 2)어리둥절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북에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너무나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데 1)힘들어하고 2)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어리둥절해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리둥절해하다'의 '하다'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762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한국의 정치가 독립 운동가 이다.	한국의 정치가 독립운동가 이다.	'독립운동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독립운동가'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63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21	혜교가 1)네 운동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고 .	혜교가 1)네 운동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고 .	1) '니'는 이인칭 대명사 '너'의 방언(경상)이며, [니]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너'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은 '니'가 아닌 '네'이므로 '네'로 수정한다.
764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21	혜교가 1)네 운동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고 .	혜교가 1)네 운동화를 무시하려고 그런 건 2)아니라고 .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고'를 등재하고 있으며, '-라구'를 '-라고'의 잘못된 표기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라고'로 수정한다.
765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혜교는 혼자 남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여리동절해 한다 .	혜교는 혼자 남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여리동절해한다 .	'여리동절해한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리동절해하다'의 '하'는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대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말로 앞말에 붙여 쓴다.
766	7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1	화는 1)자연스런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	화는 1)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그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1) '자연스럽다'는 '자연스러운'으로 활용되는 불규칙 용언이다.
767	7	도덕	중학교	2	소통	2311	화는 1)자연스런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	화는 1)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화를 잘 관리하여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다. 2)그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2) 적절한 접속어가 생략되어 문장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상 흐름을 고려하여 '그리기 위해서는' 정도를 추가한다.
768	7	도덕	중학교	3	정확	1112	개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타고난 천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질과 적성 등이 자신의 개성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개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타고난 천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질과 적성 등이 자신의 개성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로 붙여 쓴다.
769	7	도덕	중학교	3	정확	1113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1)'2)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이 흡연을 하라는 압력을 가할 때 1)'2)아니.'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1) 문장 부호가 잘못 사용되었다. 말을 인용한 것이므로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770	7	도덕	중학교	3	정확	1222	이에 따르면 지구가 돌글기에 지구 위에 특별한 중심이 되는 나라도 없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이 세상 만물을 판단하여 세상의 중심과 오락케를 구별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르면 지구가 돌글기에 지구 위에 특별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이 세상 만물을 판단하여 세상의 중심과 오락케를 구별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어색한 조사가 사용되어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나라도'를 '나라가'로 수정하여 문장의 주어임을 명시한다.
771	7	도덕	중학교	3	정확	1211	차비가 없어 왕복 26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2주에 거쳐 걸어야 했던 고흐는 보리나주의 숙소로 되돌아왔을 때 발가락이 빠져나오고 누더기가 된 신발을 발견한다.	차비가 없어 왕복 26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2주에 걸쳐 걸어야 했던 고흐는 보리나주의 숙소로 되돌아왔을 때 발가락이 빠져나오고 누더기가 된 신발을 발견한다.	적절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문맥에서는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라는 뜻의 '걸치다'가 적절하므로 '거쳐'를 '걸쳐'로 수정한다.
772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고운말 사용	고운 말 사용	'고운 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곱다'와 '말'은 각각 독립된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773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뿐'에서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뜻하는 보조사로 앞에 오는 체언 또는 부사어에 붙여 쓴다.
774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나를 가장 신나게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신나게 하는 것은?	'신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775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잘 따라 가다 보면 훌륭한 삶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잘 따라가다 보면 훌륭한 삶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가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가다"라는 뜻의 '따라가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76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당시 인도의 빈민가에는 가난한 사람, 집을 잃은 어린이, 병에 걸린 환자, 굶주린 사람이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 인도의 빈민가에는 가난한 사람, 집을 잃은 어린이, 병에 걸린 환자, 굶주린 사람이 넘쳐 나고 있었다.	'넘쳐 나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넘쳐 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성이므로 '넘쳐 나다'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넘쳐 나고'로 수정한다.
777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봉사를 하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없이 즐거워.	봉사를 하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없이 즐거워.	'더없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더할 나위가 없이"라는 뜻의 '더 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778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이는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이는 남과 북이 본래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한 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번'은 '지난 어느 때나 기회', 또는 '일단 한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 해당 문장에서는 부사 '다시'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 '재차'의 의미이므로 '한 번'으로 수정한다.
779	9	도덕	중학교	1	소통	2231	이웃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이웃들과 함께 살다 보면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음으로써'의 과도한 사용은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780	9	도덕	중학교	1	정확	1112	진짜 신 났어 .	진짜 신났어 .	'신났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이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781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 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 '한 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번'은 '지난 어느 때나 기회', 또는 '일단 한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 해당 문장에서는 횟수의 의미를 지니므로 '한 번'으로 수정한다.
782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1)한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1)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세계의 여러 곳에서 2)한 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 낸다.	2) '한 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은 수량 관형사로 의존 명사인 '해'와 띄어 쓴다.
783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2009년 6월 23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2009년 6월 23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모(77) 할머니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김 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모'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로 앞에 오는 성(姓)과 띄어 쓴다.
784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걸러내거나 빼낸다.	걸러 내거나 빼낸다.	'걸러 내거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거 내고'로 수정한다. 다른 예) 주로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것을 걸러 낼 때 많이 쓰인다. (53 쪽 날개)
785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하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고통받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786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고통을 이겨낸 후 얻을 수 있는 교훈	고통을 이겨 낸 후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겨 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겨 낸'으로 수정한다.
787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괜찮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거야 .	괜찮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	'되는 거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되는 거야'에서의 '거야'는 '것'이야의 준말이고, 이때의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788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 중 에서도, 특히 분노의 감정인 화(火)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중 에서도, 특히 분노의 감정인 화(火)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명사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789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런데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잡고, 곳곳이 설 수 있는데 1년 반이나 걸렸고, 죽기 전까지 배운 언어가 보통 어린이의 5~6세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잡고, 곳곳이 설 수 있는 데 1년 반이나 걸렸고, 죽기 전까지 배운 언어가 보통 어린이의 5~6세 수준이었다.	'있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790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켜 나가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켜 나가다'는 '지키다'와 '나가다'가 결합한 구로, 각 단어를 띄어 쓴다.
791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나비의 고통을 덜어줄까?	나비의 고통을 덜어 줄까?	'덜어 줄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줄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덜어 줄까'로 수정한다.
792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나와 상대방을 공손하고 소중하게 대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태도	나와 상대방을 공손하고 소중하게 대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 주는 태도	'높여 주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줄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높여 주는'로 수정한다. 다른 예) 타인을 밝혀 주는 등불 이야기 (95쪽 20행)
793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내가 내 휴대 전화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데 뭐가 잘못이니?	내가 내 휴대 전화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데 뭐가 잘못이니?	'보내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의존 명사가 아니며, 동사 '보내다'에 연결 어미 '-는데'가 결합한 활용형이므로 '보내는 데'와 같이 붙여 쓴다.
794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내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아무것'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795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다만 너의 생명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다만 너의 생명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그럴 만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하다'는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그럴 만한'으로 수정한다.
796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동화책 읽어주기	동화책 읽어 주기	'읽어 주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줄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읽어 주기'로 수정한다.
797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따라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겨냄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겨 냄으로써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진다.	'이겨 냄으로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겨 냄으로써'로 수정한다.
798	9	도덕	중학교	2	소통	2231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여아가 생긴다.	또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아는 여아가 생긴다.	'-에 대하여'는 번역표 표현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국어 문장 표현으로 수정한다.
799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또한, 폭력 행동을 자기 과시의 수단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표시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를 심어줄 수도 있다.	또한, 폭력 행동을 자기 과시의 수단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표시로 여기는 잘못된 사고를 심어 줄 수도 있다.	'심어 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줄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심어 줄'로 수정한다. 다른 예) 상호 존중의 태도는 곧 나와 타인이 상호 공존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줄 것이다. (105쪽 30행)
800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만일 점이 많이 찍혀 있으면 반성하고 차츰 고쳐나가 나중에는 점을 찍지 않는 날이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만일 점이 많이 찍혀 있으면 반성하고 차츰 고쳐 나가 나중에는 점을 찍지 않는 날이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고쳐 나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고치다'와 '나가다'는 각각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01	9	도덕	중학교	2	공공	3111	먼 옛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u>순한 노예였다.</u>	먼 옛날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u>자연에 순응하는 존재였다.</u>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의 인간에 대하여 '노예'라는 다소 편파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교과서 언어에 걸맞은 표현으로 수정한다.
802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잘 <u>견뎌내고</u> 성인이 된 뇌 부이치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잘 <u>견뎌 내고</u> 성인이 된 뇌 부이치지.	'견뎌 내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견뎌 내고'로 수정한다.
803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불교에서 추구한 이상 사회인 <u>불국정토</u>	-	-
804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시련을 어떻게 <u>이겨내는가</u> 가 중요한 거예요.	시련을 어떻게 <u>이겨 내는가</u> 가 중요한 거예요.	'이겨 내는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겨 내는가'로 수정한다.
805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3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끝났으므로 마침표(.)를 추가한다.
806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엄마에게 여쭈어 보니 알아서 정해 <u>줄테니</u>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엄마에게 여쭈어 보니 알아서 정해 <u>줄 테니</u>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줄 테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테니'는 '타이니'의 준말이고, '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07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여기서 학문과 기술은 사람으로서 <u>살아가는데</u>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문과 기술은 사람으로서 <u>살아가는 데</u>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살아가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808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역사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가 <u>되는데</u> 기여를 했다.	역사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가 <u>되는 데</u> 기여를 했다.	'되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809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u>온누리</u> 에 퍼져	<u>온 누리</u> 에 퍼져	'온 누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온'은 '전부', '모두'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그것이 수식하는 말과 띄어 쓴다.
810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주인으로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u>한 번 뿐</u> 인 청소년기를 가지 있게 보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주인으로서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 <u>한 번뿐인</u> 청소년기를 가지 있게 보내야 한다.	'한 번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뿐'은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811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u>형성하는데</u>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u>형성하는 데</u> 영향을 끼친다.	'형성하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812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이런 회의가 <u>드는 데도</u>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u>드는데도</u>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드는데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데'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연결 어미 '-는데'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것이므로 '드는데도'와 같이 붙여 쓴다.
813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자기의 존재를 <u>인정 받기</u> 위하여 남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	자기의 존재를 <u>인정받기</u> 위하여 남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	'인정받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814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자신감은 '나는 주어진 일을 <u>잘해낼</u>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자신감은 '나는 주어진 일을 <u>잘 해낼</u>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다.	'잘 해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잘'은 '해내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15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할 때도 대부분 더 잘 이겨내고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할 때도 대부분 더 잘 이겨 내고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겨 내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내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이겨 내고'로 수정한다. 다른 예) 주로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것을 걸러 낼 때 많이 쓰인다. (53쪽 3행)
816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222	절제의 자세는 한 번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의 자세는 한 번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어미의 사용이 어색하다. 각 절의 의미와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아니기 때문에'로 수정한다.
817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카네기가 한 일은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것뿐이었다.	카네기가 한 일은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준 것뿐이었다.	'들어 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원문의 '들어 준'은 합성어 '들어 주다'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주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들어 준'으로 수정한다. 다른 예) 상호 존중의 태도는 곧 나와 타인이 상호 공존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줄 것이다. (105쪽 30행)
818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특히 우리는 주변에서 폭력 행동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주변에서 폭력 행동을 당해 힘들어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들어 주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원문의 '들어 주고'는 합성어 '들어 주다'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때의 '주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들어 주고'로 수정한다.
819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211	하나님 이 창조한 아담은 아내인 이브와 함께 에덴동산에 살았다.	하느님 이 창조한 아담은 아내인 이브와 함께 에덴동산에 살았다.	종교 용어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표준어는 '하느님'이다.
820	9	도덕	중학교	2	정확	1112	할만한 일이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할 만한 일이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할 만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하다'는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할 만한'으로 수정한다.
821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221	'헬싱키 선언'이 강조하듯이, 인체 실험은 인간의 건강 증진과 함께 피험자의 권익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헬싱키 선언'이 강조하듯이, 인체 실험을 할 때에는 인간의 건강 증진과 함께 피험자의 권익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문장 내에서 '인체 실험'과 서술어 '신경을 쓰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인체 실험은'을 '인체 실험을 할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822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문장 부호가 잘못 쓰였다. 해당 문장 앞에 큰따옴표가 쓰였으므로 문장 끝에도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823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에 갔는데, 편의점 주인이 얼굴을 보자마자 ' 미안하다 안 되겠다.'라고 말해 하루 종일 불쾌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면접에 갔는데, 편의점 주인이 얼굴을 보자마자 ' 미안하다 . 안 되겠다.'라고 말해 하루 종일 불쾌했다."	적당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문장이 종결되었으므로 마침표(.)를 추가한다.
824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가수 겸 제작자 □□은 최근 표절을 했다가 2,000여만 원을 몰어주라 는 판결을 받았다.	가수 겸 제작자 □□은 최근 표절을 했다가 2,000여만 원을 몰어 주라 는 판결을 받았다.	'몰어 주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주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몰어 주라'으로 수정한다. 다른 예) 담론 윤리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43쪽 8행)
825	9	생활	고등학교		소통	2223	국민 권익 위원회 측은 "한국은 선진국 경제 임에도 제3세계 국가의 부패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민 권익 위원회 측은 "한국은 경제 선진국 임에도 제3세계 국가의 부패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선진국 경제'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혼동을 유발한다.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인 '경제 선진국'으로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26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그래도 1)'거짓말을 2)하지마라.'라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도 1)'거짓말을 2)하지 마라.'라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내포문에 마침표가 있고 '라는'이라는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인용한 문장인데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다. 큰따옴표로 수정한다.
827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그래도 1)'거짓말을 2)하지마라.'라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도 1)'거짓말을 2)하지 마라.'라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2) '하지 마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말다'는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지 마라'로 수정한다.
828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221	그런데 만약 사전에 환자가 자발적인 의사를 남겨 놓지 않았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전에 환자가 자발적인 의사를 남겨 놓지 않았고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일 수 있다.	'만약'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며, 주어부와 서술부 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선행절의 서술어에 '-다면'을 추가하고, 후행절의 '희생시킬'을 '희생시키는 것일'과 같이 수정한다.
829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그런데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라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라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	'인터넷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상'은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를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830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환자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까?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까?	'암 환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암'과 '환자'는 각각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831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다문화 가족들이 2세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고 한글 인지가 부족하여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채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가족들이 2세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고 한글 인지가 부족하여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 채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 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832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과도한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과도한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받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833	9	생활	고등학교		소통	2221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좀 더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가 필요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필요해.	'청정하다'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의 형용사로 바로 앞의 '깨끗하다'와 의미가 일부 중복된다. 문맥을 고려하여 '청정한'을 '안전한'으로 수정한다.
834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바보라고 놀림 받지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칸은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	바보라고 놀림받지만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칸은 동생이 있는 미국으로 간다.	'놀림받지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835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부부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단점을 감싸주며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부부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단점을 감싸 주며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감싸 주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주다'는 보조 동사로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감싸 주며'로 수정한다.
836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분배적 정의의 여러 기준이 지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분배적 정의의 여러 기준이 지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장단점'에 불필요한 문장 부호가 사용되었다. '장단점'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아울러 이르는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이 불필요하다.
837	9	생활	고등학교		소통	2222	사람들의 투표가 자신을 비롯한 개개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투표가 자신을 비롯한 개개인의 삶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지를 알지 못한다.	문장 전체의 주어가 생략되어 의미가 불분명하다. 해당 문장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대한 메타적인 서술이 아니며 '본인들이 하는 투표'라는 의미이므로 '사람들의'를 '사람들은'으로 수정하여 주어를 명시해 준다.
838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즉' 등의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쉼표를 쓰도록 하므로, 그 부분에 쉼표(·)를 추가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39	9	생활	고등학교		공공	3212	성매매는 여성인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는 당사자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쪽 성을 부각시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840	9	생활	고등학교		공공	3212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들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 결정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 은 대체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성매매 결정 자체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쪽 성을 부각시켜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한다.
841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더이상 투우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된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투우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된다.	'더 이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더'와 '이상'은 각각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842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아마 나를 이길 수 없을 걸!	아마 나를 이길 수 없을 걸!	'없을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을'은 화자의 추측이 상대편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없을'로 수정한다.
843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얼마 전에 휴대 전화기를 샀는데 금방 고장이 나버렸어 .	얼마 전에 휴대 전화기를 샀는데 금방 고장이 나 버렸어 .	'나 버렸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때의 '버리다'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지만, 동일 교재의 다른 부분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나 버렸어'로 수정한다.
844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이건 게임이라 그렇고, 난 캐릭터 별로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건 게임이라 그렇고, 난 캐릭터 별로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	'캐릭터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별'은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845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일주일 중 하루는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한다.	일주일 중 하루는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한다.	적절한 문장 부호가 누락되었다.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에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846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221	정보가 창의적 이 아니다.	정보가 창의적이지 않다.	주어와 보어, 서술어 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창의적'은 '정보'가 지닌 속성이되 그 자체로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색하므로 '창의적이지 않다'와 같이 수정한다.
847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3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장노년 , 농어민 등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약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장노년 , 농어민 등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워 경제적 약자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한 문장 부호가 생략되었다. 공통 성분을 줄여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을 추가한다.
848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해약 금지의 원칙은 밀의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무론자인 로스(Ross, W. D.)가 강조한 의무의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해약 금지의 원칙은 밀의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론자인 로스(Ross, W. D.)가 강조한 의무의 원칙들 중의 하나이다.	'있을 뿐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의존 명사인 '뿐'과 붙여 쓴다.
849	9	생활	고등학교		정확	1112	휴대 전화 번호를 바꿔도 알아내는 걸.	휴대 전화 번호를 바꿔도 알아내는 걸.	'알아내는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해당 문장에서의 '-는'은 현재 사실이 기대와 다를 때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알아내는걸'로 수정한다.
850	7	수학	초등학교	2	정확	1112	모양을 보고 썰기 나뭇로 똑같이 썰어 보시오.	모양을 보고 썰기 나뭇 로 똑같이 썰어 보시오.	사전 및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851	7	수학	초등학교	2	정확	1121	선생님께서 쌓은 모양을 보여 주신 다음, 가림판 으로 가리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쌓은 모양을 보여 주신 다음, 가림 막으로 가리셨습니다.	'가림막'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고, 가림판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만약 '가림판'으로 쓰더라도 '가림 판'으로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52	7	수학	초등학교	3	공공	3211	마음별 다문화 가정의 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편파성이 없는 다른 용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사가 가능한 여러 분야 가운데 굳이 다문화 가정의 수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낼 필요가 없을뿐더러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편파성을 띠고 있어 지양하는 것이 좋다.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해당 학습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도록 '안경 낀 사람들의 수'와 같이 다른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853	7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민호는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사전에 '놀이공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854	7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분수 1/10을 0.1이라 쓰고 영점 일이라고 읽습니다.	분수 1/10을 0.1이라 쓰고 영 점 일이라고 읽습니다.	'점'이 명사이며 사전에도 '영 점 일'이라는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855	7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쌀기나무를 이용하여 상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쌀기 나무를 이용하여 상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사전 및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856	7	수학	초등학교	3	소통	2213	예쁜 회전목마에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고속열차까지 영수는 무엇부터 탈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쁜 회전목마에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고속열차까지 영수는 무엇부터 탈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전목마에서 고속 열차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첨표를 넣어 수식 구조의 문제를 해결한다.
857	7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점판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2개 그려 보시오.	점 판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2개 그려 보시오.	'점판'은 금, 은, 구리 따위의 광구(鑛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점이 있는 판'이라는 뜻은 띄어 써야 한다.
858	7	수학	초등학교	4	정확	1112	분수 1/100을 소수로 0.01이라 쓰고 영점 영일이라고 읽습니다.	-	-
859	7	수학	초등학교	4	정확	1112	쌀기나무를 놓아 보고 규칙을 찾아 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쌀기 나무를 놓아 보고 규칙을 찾아 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사전 및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860	7	수학	초등학교	5	정확	1112	2할5푼	2할 5푼	'할'과 '푼'이 각각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861	7	수학	초등학교	5	정확	1112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서 한쪽면에 물감을 묻히고 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니	도화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서 한쪽 면에 물감을 묻히고 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펼치니	'한쪽면'은 합성어가 아니므로 '한쪽'과 '면'을 띄어 쓴다.
862	7	수학	초등학교	5	정확	1211	메시지의 암호를 푸는 방법은 문장 앞뒤에 있는 나눗셈의 몫을 구해 몫의 소수 끝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경우, 그 사이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여 쓰는 것입니다. 메시지 일부 예시: (16.24÷7)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1.44÷24) 빠르게 뛰어서 (하락)	메시지의 암호를 푸는 방법은 구절 앞뒤에 있는 나눗셈의 몫을 구해 몫의 소수 끝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경우,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을 연결하여 쓰는 것입니다. 메시지 일부 예시: (16.24÷7)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1.44÷24) 빠르게 뛰어서 (하락)	내용이 한 문장을 구분한 '구절'의 앞뒤에 있는 나눗셈을 풀이하는 것이므로 '문장'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는 뜻이다.
863	7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6학년 8개 반이 발야구 경기를 하는데 우승팀이 결정될 때까지 이긴 팀끼리만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승팀이 결정되려면 발야구 경기를 모두 몇 번 해야 하나?	6학년 8개 반이 발야구 경기를 하는데 우승 팀이 결정될 때까지 이긴 팀끼리만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승 팀이 결정되려면 발야구 경기를 모두 몇 번 해야 하나?	'우승팀'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사구 형식인 '우승 팀'으로 각기 띄어 쓴다.
864	7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가에 있는 쌀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시오.	가에 있는 쌀기 나무의 개수를 알아보시오.	사전 및 편수 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띄어 쓴다.
865	7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면(그림면, 숫자면)을 기록하여 보시오.	-	-
866	7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쇠 구슬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쇠구슬의 부피를 재기 위해서	'쇠구슬'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867	7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21	재미있는 장난감 큐빅	재미있는 장난감 루빅큐브	'큐빅'이 아니라 '루빅큐브(=Rubik's Cube)'가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다.
868	9	수학	초등학교	1	정확	1112	다운이만 나타나면 주위가 어수선해지고 어질어질 정리 정돈이 안돼요.	다운이만 나타나면 주위가 어수선해지고 어질어질 정리 정돈이 안 돼요.	'안 돼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안돼요'와 같이 붙여 쓰는 경우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일 때이다.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안 돼요'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69	9	수학	초등학교	1	정확	1112	해마의 수를 연결큐브 로 나타내면 10개씩 묶음과 날개는 각각 몇 개인지 써 보시오.	해마의 수를 연결 큐브 로 나타내면 10개씩 묶음과 날개는 각각 몇 개인지 써 보시오.	'연결 고리, 연결 관계'처럼 명사 두 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870	9	수학	초등학교	2	정확	1112	문을 열기 위해 쌓기나무 를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문을 열기 위해 쌓기 나무 를 어떻게 쌓으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쌓기나무'는 국어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871	9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각 모듬의 첫 번째 학생은 연결큐브 또는 우유갑 등을 들어 보고 무게를 어렵합니다.	각 모듬의 첫 번째 학생은 연결 큐브 또는 우유갑 등을 들어 보고 무게를 어렵합니다.	'연결 고리, 연결 관계'처럼 명사 두 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872	9	수학	초등학교	3	정확	1221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란다. -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적어 놓은 거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란다. -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을 적어 놓은 거지	열량의 정의를 선행 문장의 형식과 동일하게 수정한다.
873	9	수학	초등학교	4	소통	2111	TV, PC	텔레비전, 컴퓨터	'텔레비전'이라는 외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TV'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874	9	수학	초등학교	5	소통	2111	보경이는 빗절 을 꾸미기 위하여 한지를 접고 오려서 선대칭도형이 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빗절’에 대한 도움말이 필요함.)	'빗절'은 빗, 빗술, 빗치개와 같이 머리를 빗는 데 쓰는 물건을 넣어 두는 도구인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도움말이 필요하다.
875	9	수학	초등학교	5	정확	1222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 나의 다짐 ' 또는 ' 나의 계획 ' 둘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적고 규칙에 따라 붙여 보시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 나의 다짐 ' 또는 ' 나의 계획 ' 둘을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적고 규칙에 따라 붙여 보시오.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되어 '나의 다짐' 또는 '나의 계획'이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패널의 명칭으로 보인다.
876	9	수학	초등학교	5	정확	1112	연결큐브	연결 큐브	'연결 고리, 연결 관계'처럼 명사 두 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877	9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다양한 모양의 나무 블록과 쌓기나무 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나무 블록과 쌓기 나무 가 있었습니다.	'쌓기나무'는 국어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878	9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211	야영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고 반가웠지만 그 사진은 처음 사진의 각 변의 길이를 3/4 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야영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고 반가웠지만 그 사진은 처음 사진의 각 변의 길이를 3/4 배로 축소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3/4은 수의 개념이므로 '3/4배로 축소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879	9	수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연결큐브	연결 큐브	'연결 고리, 연결 관계'처럼 명사 두 개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880	7	수학	중학교	1	정확	1112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계급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의 인원 수 를 각각 구하고, 비교하여라.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계급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의 인원수 를 각각 구하고, 비교하여라.	'인원수'는 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다.
881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3	과일 케이크 1개를 만드는 데 건포도 4와 1/8컵이 필요하고, 건포도 400g들이 한 봉지를 어떤 컵으로 썰 때 2와 3/4컵이 된다.	과일 케이크 1개를 만드는 데 건포도 4와 1/8컵이 필요하고, 건포도 400g들이 한 봉지를 그 컵으로 썰 때 2와 3/4컵이 된다.	지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앞서 계량하는 데 사용해 온 컵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어떤 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컵'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882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2	길이가 각각 168cm, 210cm인 두 개의 끈을 잘라 길이가 같은 끈을 몇 개 만드는데 되도록 긴 끈을 만들고, 어느 쪽도 남는 것이 없게 한다. 이때, 끈의 개수와 한 개의 길이를 구하여라.	길이가 각각 168cm, 210cm인 두 개의 끈을 잘라 길이가 같은 끈을 몇 개 만드는데 되도록 긴 끈을 만들고, 어느 쪽도 남는 것이 없게 한다. 이때, 잘라서 만든 끈의 개수와 한 개의 길이를 구하여라.	해당 표현에 따르면 자르기도 전에 이미 끈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므로 문제 상황에 모순이 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잘라 만든(만들어진) 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내용을 수정한다.
883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1	다음은 우리나라의 2005년 연령별 인구 수 중에서 90세 미만에 대한 도수분포표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2005년 연령별 인구 중에서 90세 미만에 대한 도수분포표이다.	'인구'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수'라는 뜻으로 '수'의 뜻을 포함하므로 삭제한다.
884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2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쓰기 시작하면서 수학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조사하여라.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쓰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조사하여라.	'수학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다'의 주어가 명확하지 않고, 좌표평면이 수학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데카르트가 기여했는지 불분명하므로 수정한다.
885	7	수학	중학교	1	정확	1112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그 중 한 명이 10층에서 내렸고, 12층만큼 더 올라가서 남은 한 명이 내렸다.	두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그중 한 명이 10층에서 내렸고, 12층만큼 더 올라가서 남은 한 명이 내렸다.	'그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중'은 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886	7	수학	중학교	1	정확	1222	모든 소인수 를 곱으로 나타낸다.	모든 소인수 의 곱으로 나타낸다.	60을 모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다(참고로, 34쪽에도 "24를 1이 아닌 네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라는 표현이 등장함)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
887	7	수학	중학교	1	정확	1211	서로 마주 보는 두 수의 규칙 에 따라 ㉠, ㉡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보자.	서로 마주 보는 두 수의 관계 에 따라 ㉠, ㉡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 보자.	규칙보다는 두 수가 역수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888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2	어느 공장에서는 정비를 위하여 기계A를 20일째에, 기계B를 28일째에 가동하지 않는다.	어느 공장에서는 정비를 위하여 기계A를 가동 후 20일째에, 기계B를 가동 후 28일째에 가동하지 않는다.	20일째와 28일째의 기준이 되는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각 기계가 언제로부터 20일째, 28일째인지 표시할 필요가 있다.
889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13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이나 첨성대는 그 아름다운 물론 기하학적 구조가 너무나 영묘한 세계적인 우리의 자랑거리이다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이나 첨성대는 그 아름다운 물론 기하학적 구조가 너무나 영묘한 우리의 세계적인 자랑거리이다 .	'세계적인'이 수식하는 대상이 '우리'와 '자랑거리' 모두이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한다.
890	7	수학	중학교	1	정확	1222	이후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데카르트 는 음수를 수로 처음 인정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음수는 수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데카르트 가 음수를 수로 처음 인정하였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음수는 수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 등장하는 '데카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제를 나타내는 '는'보다는 격 조사 '가'가 더 자연스럽다.
891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11	지도에서 도시는 점으로 나타내고,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는 선으로 나타내며, 각 지방이나 나라들은 면으로 나타내어 우리가 모르는 장소를 가거나 항해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지도에서 도시는 점으로 나타내고,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는 선으로 나타내며, 각 지방이나 나라들은 면으로 나타내어 우리가 모르는 장소를 가거나 항해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	"우리가 ~ 볼 수 있게 된다."보다는 "우리가 ~ 볼 수 있게 한다."가 더 자연스러우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892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222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기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철로를 복선으로 설치하거나 단선인 경우에는 기차가 역에서 교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기차역에 보다 많은 선로를 설치한다.	해당 문장 내에 '지나가다'와 호응하는 주어가 없고, 이는 선행절의 주어와 일치하지도 않으므로 '기차가'라는 주어를 삽입한다.
893	7	수학	중학교	1	소통	2331	흔히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착시 현상처럼 우리의 감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학은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 간 논리적인 연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내용 기술이 필요함.)	문장 간 연결이 논리적이지 못하다. 앞 문단에서 "우리의 감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내용과 뒷 문단의 "이와 같이 수학은 오류를 줄여준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
894	7	수학	중학교	2	정확	1211	결국 나무의 건강 에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무의 생장 에 좋지 않을 것이다.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므로 식물에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895	7	수학	중학교	2	정확	1222	다음 그림은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와 각의 크기를 측량하여 1/1000 으로 축소한 것이다.	다음 그림은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와 각의 크기를 측량하여 1/1000 로 축소한 것이다.	'으로'를 '로'로 수정한다.
896	7	수학	중학교	2	정확	1211	어느 화물 트럭이 A 도시에서 320km 떨어진 B 도시까지 가는데 국도 를 3시간, 고속국도 를 2시간 달렸다. 고속국도 에서는 국도 에서보다 시속 30 km 더 빨리 달렸다고 할 때, 고속국도 에서의 속력을 구하여라.	어느 화물 트럭이 A 도시에서 320km 떨어진 B 도시까지 가는데 일반국도 를 3시간, 고속국도 를 2시간 달렸다. 고속국도 에서는 일반국도 에서보다 시속 30 km 더 빨리 달렸다고 할 때, 고속국도 에서의 속력을 구하여라.	국도는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로 나뉘므로 후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도'로 표기해야 한다.
897	7	수학	중학교	2	소통	2211	전체 물의 높이 y cm는 $y=2x+40$ 과 같이 x에 관한 일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	전체 물의 높이 y cm는 $y=2x+40$ 과 같이 x에 관한 일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물의 높이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능동 표현으로 수정한다.
898	7	수학	중학교	3	정확	1111	각 루 사이의 거리	각 노 사이의 거리	'루(露)'는 두음 법칙에 따라 '누'로 발음하고 적어야 한다.
899	7	수학	중학교	3	정확	1221	통계학이 학문으로 확립된 것은 17세기에 영국의 정치 산술학, 독일의 국세학 으로 보고 있다.	통계학이 학문으로 확립된 시기 는 영국의 정치 산술학, 독일의 국세학이 발달한 17세기로 보고 있다 .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새롭게 쓸 필요가 있으며, 주된 원인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00	7	수학	중학교	3	소통	2231	현재와 같은 이차방정식의 풀이법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와 같은 이차방정식의 풀이법은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가 고안한 것이라고 한다.	'~에 의하다'는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며, 해당 부분은 의미도 모호하다. 동사 '고안하다'를 사용하여 의미가 명확하게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901	9	수학	중학교	1	소통	2213	(단, 각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설탕, 우유의 성분의 비 는 같다.)	(단, 각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설탕, 우유의 성분비 는 같다.)	'성분비'라는 합성어가 존재하므로 합성어를 사용하는 것이 '의'를 두 번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다.
902	9	수학	중학교	1	정확	1222	"나에게 고정된 한 지점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에게 고정된 한 지점만 주어진다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한다.
903	9	수학	중학교	1	정확	1112	이와 같은 지구 기후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인 감소나,	이와 같은 지구 기후의 변화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감소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904	9	수학	중학교	2	정확	1211	(가)의 높이는 (나)의 높이의 2배 이고 (가)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나)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1/2일 때 , 눈금실린더 (나)의 부피는 눈금실린더 (가)의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여라.	(가)의 높이는 (나)의 높이의 2배 이고 (가)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나)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의 1/2배일 때 , 눈금실린더 (나)의 부피는 눈금실린더 (가)의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여라.	앞에서 '2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뒤에서도 '1/2배'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905	9	수학	중학교	2	정확	1221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자각루는 1434년 세종 대왕의 명으로 장영실 등이 만든 자동 물시계로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시 일정한 시차로 구슬과 인형을 건드리도록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자각루는 1434년 세종 대왕의 명으로 장영실 등이 만든 자동 물시계로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시 일정한 시차로 구슬과 인형을 건드리도록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주어가 '자각루'이므로 '설계한'을 '설계된'으로 고쳐야 한다.
906	9	수학	중학교	2	소통	2211	그리스 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탈레스는	그리스 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탈레스는	'부르다'의 피동사는 '불리다'이다. '불리다'에 또 접사 '-우-'가 결합된 '불리우다'는 '불리다'의 잘못된이다.
907	9	수학	중학교	2	소통	2211	일차방정식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을 등호의 왼쪽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일차식)=0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방정식이다.	일차방정식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을 등호의 왼쪽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일차식)=0의 꼴로 나타나는 방정식이다.	'나타내어지다'는 '나타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인데 '나타나다'로도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908	9	수학	중학교	3	소통	2211	바이올린은 줄을 활로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현악기이다.	바이올린은 줄을 활로 마찰하여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현악기이다.	마찰하다'는 '두 물체가 서로 닿아 비벼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수정한다.
909	9	수학	중학교	3	정확	1112	세 종류의 사각형 모양의 수막대 가 모두 6개 있다.	세 종류의 사각형 모양의 수 막대 가 모두 6개 있다.	합성어로 보면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라야 하지만,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구로 보아 띄어 쓴다.
910	9	수학	중학교	3	소통	2223	오디세우스는 배에서 가져온 좋은 포도주를 거인에게 선물로 주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거인의 외눈을 못 보게 만들었다 .	오디세우스는 배에서 가져온 좋은 포도주를 거인에게 선물로 주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거인의 외눈을 설명시켰다 .	표현이 중의적이다. "외눈을 못 보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설명시켰다는 뜻과 '외눈'이라는 대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맥을 고려하여 설명시켰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수정한다.
911	9	수학	중학교	3	소통	2211	힘차게 뛰어오르는 돌고래나 비치 발리볼 선수가 받아 올린 공 등의 물체가 그리는 매끄러운 곡선을 이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의 그래프이다.	힘차게 뛰어오르는 돌고래나 비치 발리볼 선수가 받아 올린 공 등의 물체가 그리는 매끄러운 곡선을 이차식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이다.	'나타내어지다'는 어색한 피동 표현이고, 의미상 사동 표현이 자연스러우므로 '나타나다'의 사동 표현인 '나타내다'로 수정한다.
912	7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22	그런데 에펠은 이 탑을 세울 당시 탑이 너무 높아서 바람의 영향이 매우 심할 것을 크게 우려하여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직접 꼭대기에 올라가 확인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에펠은 이 탑을 세울 당시 탑이 너무 높아서 바람의 영향이 매우 심할 것을 크게 우려하여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직접 꼭대기에 올라가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확인' 앞에 확인의 대상이 되는 '안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므로 '(안전을) 확인을 했다'는 형태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 ~확인'을 하다'보다는 자연스러운 '안전을 확인하다'로 수정한다.
913	7	수학	고등학교	1	공공	3212	나노는 1/10 ⁹ 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나쟁이 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스에서 유래하였다.	나노는 1/10 ⁹ 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키가 작은 사람 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어인 나노스에서 유래하였다.	'나쟁이'의 뜻이 "기형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순화가 필요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14	7	수학	고등학교	1	정확	1211	도미노는 최초의 말을 쓰러뜨리면 주변의 다른 말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진다 는 뜻이다.	도미노는 최초의 말을 쓰러뜨리면 주변의 다른 말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놀이다.	도미노는 놀이의 일종으로 "서양 골패의 하나"라는 뜻이다.
915	7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11	따라서 연립방정식 ①을 푸는 것은 행렬로 나타내어진 등식 ②를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연립방정식 ①을 푸는 것은 행렬로 나타난 등식 ②를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는 것과 같다.	'나타내어지다'는 '나타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인데 '나타나다'로도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916	7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11	연결 관계가 오른쪽 행렬로 나타내어지는 그래프를 그려라.	연결 관계가 오른쪽 행렬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려라.	'나타내어지다'는 '나타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인데 '나타나다'로도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므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917	7	수학	고등학교	1	정확	1112	이때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항, 둘째항, 셋째항,	이때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첫째항'은 사전에 '첫째^항'과 같이 띄는 것이 원칙으로 실려 있다. 또한 '둘째항'부터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둘째항', '셋째 항'과 같이 띄어 써야 하며, 그렇다면 '첫째 항'도 원칙 및 통일성 측면에서 '첫째 항'으로 띄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918	7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113	이런 점에서 일본 장기는 서양장기(chess)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체스 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이런 점에서 일본 장기는 체스(chess) 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체스 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체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체스'가 '서양 장기'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므로 '체스'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919	7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31	이와 같이 같은 골의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와 B의 대응하는 성분의 합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와 B의 합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같은 골의 두 행렬 A, B가 있을 때 , A와 B의 대응하는 성분의 합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A와 B의 합이라고 하며,	'~에 대하여'라는 일어식 또는 영어식 번역투 표현을 쓰지 않고 '있을 때'로 수정한다.
920	9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22	19세기에 노르웨이에 아벨과 프랑스의 갈루아는 사칙연산과 근호만을 사용한 일반적인 해법 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19세기에 노르웨이에 아벨과 프랑스의 갈루아는 사칙연산과 근호만을 사용한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방정식 해법 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교과서의 전후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삽입해 주어야 한다. 무엇에 대한 해법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5차 이상의 방정식'과 관련한 해법임을 명시하여 수정한다.
921	9	수학	고등학교	1	정확	1112	부등식은 등식에 비해 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듯 하지만 ,	부등식은 등식에 비해 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듯하지만 ,	'듯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922	9	수학	고등학교	1	정확	1211	특히, 경사도가 45도인 물매를 되물매, 경사도가 그 이상인 물매를 된물매라고 한다.	특히, 경사도가 45도인 물매를 되물매, 경사도가 그것을 넘는 물매를 된물매라고 한다.	'이상'은 그 수량을 포함하므로 되물매와 된물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923	9	수학	고등학교	1	소통	2211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사이므로 불필요하게 '-어지다'를 더 결합하지 않는다.
924	9	수학	고등학교	2	정확	1112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항, 둘째항, 셋째항2), ..., n째항,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2) ... n째 항,	1) '첫째항'은 '첫째^항'과 같이 띄어 씀이 원칙으로 사전 등재어이며 그 이후의 항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모두 띄어 쓴다.
925	9	수학	고등학교	2	정확	1113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항, 둘째항, 셋째항2), ..., n째항,	앞에서부터 차례로 1)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2) ... n째 항,	2)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의 줄임표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면, 할 말을 줄였을 때에는 줄임표 뒤에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에는 줄임표의 앞뒤에 쉼표나 마침표 따위를 쓰지 않는다. 관련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육십갑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신유, 임술, 계해"를 참고하면, 원문의 줄임표 앞뒤에 있는 쉼표를 삭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926	9	수학	고등학교	2	소통	2211	천문학자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켰다 .	천문학자의 수명을 2배로 연장하였다 .	'연장하다'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므로 '연장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다.
927	7	과학	초등학교	3	소통	2113	그림자의 밝기 를 두 단계로 나타낸 경우 / 그림자의 어둠기 를 여러 단계로 나타낸 경우	그림자의 밝기 를 두 단계로 나타낸 경우 / 그림자의 밝기 를 여러 단계로 나타낸 경우	'밝기'가 표제어이기 때문에 어휘의 일관성을 위해 '어둠기'보다는 '밝기'를 사용한다.
928	7	과학	초등학교	3	소통	2222	이 물체의 쓰임에 맞는 적당한 물질을 생각하며,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이 물체의 쓰임에 맞는 적당한 물질을 생각하며, 물체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주어진 문맥에 알맞은 목적어를 추가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29	7	과학	초등학교	3	소통	2213	작은 손전등의 불빛조차 무척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손전등의 작은 불빛조차 무척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작은'이 수식하는 대상이 '손전등'인지 '불빛'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식어를 피수식어의 앞으로 옮긴다.
930	7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112	가족 여행 중에 숲 속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 중에 숲속을 걷게 되었습니다.	'숲의 안쪽'을 의미하는 '숲속'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31	7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222	기계 장치에도 용수철이 없다면 빨리 닳아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기계 장치도 용수철이 없다면 빨리 닳아서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에도'를 사용하면 '쓸모없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장치'가 '쓸모없다'의 주어가 되도록 수정한다.
932	7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221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은 날짜를 팻말에 표시합니다.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은 날짜를 팻말에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가 자연스러우므로 호응 관계에 맞게 수정한다.
933	7	과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빛에너지	빛 에너지	사전 등재어가 아니므로 명사구로 보아 띄어 써야 한다. 다만, 07 개정, 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용 편수 자료에서는 '빛에너지'를 편수 용어로 등재하고 있다.
934	9	과학	초등학교	3	정확	1211	동물의 알에서 애벌레나 새끼가 알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해요.	동물의 알에서 애벌레나 새끼가 알껍데기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해요.	'껍질'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므로,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의미하는 '껍데기'로 수정한다. 사전의 '부화'에서도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옴"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알껍데기'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35	9	과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등 쪽이 갈라지고 머리가 보입니다.	등 쪽이 갈라지고 머리가 보입니다.	'등 쪽'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각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936	9	과학	초등학교	3	정확	1112	숲 속을 지나가게	숲속을 지나가게	'숲의 안쪽'을 의미하는 '숲속'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37	9	과학	초등학교	3	정확	1131	스타이로폼	-	-
938	9	과학	초등학교	3	소통	2211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시킵니다.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합니다.	'고정하다'가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라는 뜻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수정한다.
939	9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112	쇠 구슬 여섯 개	쇠구슬 여섯 개	'쇠로 만든 구슬'을 의미하는 '쇠구슬'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0	9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131	스타이로폼 상자	-	-
941	9	과학	초등학교	4	정확	1112	야호! 신 나요.	야호! 신나요.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를 의미하는 '신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2	9	과학	초등학교	5	정확	1112	뿌리의 끝 부분에는	뿌리의 끝부분에는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끝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3	9	과학	초등학교	5	정확	1131	스타이로폼	-	-
944	9	과학	초등학교	5	소통	2211	우리는 빵과 같은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빵과 같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화하다'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다."라는 뜻이므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45	9	과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못의 머리 부분부터 <u>끝 부분</u> 까지 자석의 한쪽 극으로	못의 머리 부분부터 <u>끝부분</u> 까지 자석의 한쪽 극으로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끝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6	9	과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u>숲 속</u> 에는 토끼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u>숲속</u> 에는 토끼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숲의 안쪽'을 의미하는 '숲속'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7	9	과학	초등학교	6	정확	1131	<u>스타이로폼</u>	-	-
948	9	과학	초등학교	6	정확	1112	전선을 고정할 때에 친구와 <u>함께 하면</u> 쉬워요.	전선을 고정할 때에 친구와 <u>함께하면</u> 쉬워요.	'어떤 뜻이나 행동 또는 때 따위를 서로 동일하게 취하다'라는 의미의 '함께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949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1	<u>1)2)후추통</u>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u>1)2)후추통</u>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1) '후춧통'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로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다. '후추통'이 사전 미등재어이지만 '후추 통'으로 띄어 써 구로 보게 함도 문제이므로 '휴지통, 가스통, 물통'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추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950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1)2)후추통</u>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u>1)2)후추통</u> 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2) '후춧통'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을 뜻하는 '통(桶)'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쌀통, 가스통, 물통'이 등재된 것을 근거로 합성어 '후추통'으로 붙여 쓰고 사전에도 올릴 필요가 있다.
951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1)그후</u> 대륙 이동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대륙 이동설은 확실한 이론으로 <u>2)자리잡게</u> 되었다.	<u>1)그 후</u> 대륙 이동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대륙 이동설은 확실한 이론으로 <u>2)자리 잡게</u> 되었다.	1) '그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뒤나 다음을 뜻하는 '후(後)'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952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1)그후</u> 대륙 이동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대륙 이동설은 확실한 이론으로 <u>2)자리잡게</u> 되었다.	<u>1)그 후</u> 대륙 이동설을 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대륙 이동설은 확실한 이론으로 <u>2)자리 잡게</u> 되었다.	2) '자리잡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자리잡다'는 합성 동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953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1) '앞발가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앞발가락'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앞발'이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앞발가락'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해야 한다.
954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1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2) '뒷발가락'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뒷발'이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뒷발가락'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해야 한다.
955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u>1)앞발가락</u> 은 4개, <u>2)3)뒷발가락</u> 은 5개이다.	3) '뒷발가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뒷발가락'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뒷발'이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뒷발가락'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사전에도 등재해야 한다.
956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같은 수의 잎이 달린 봉숭아 3개를 준비하고 20ml의 물이 담긴 <u>눈금 실린더</u> 에 꽂는다. 각 <u>눈금 실린더</u> 에 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숨으로 막는다.	-	-
957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u>고무 찰흙</u> 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닥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눌러 보자.	<u>고무찰흙</u> 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닥에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눌러 보자.	'고무 찰흙'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폴리염화 비닐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합성수지 공예 재료'를 뜻하는 '고무찰흙'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58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고무줄의 한 쪽	고무줄의 한쪽	'한 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뜻하는 '한쪽'은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959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구멍 뚫린 고무마개에 온도계를 꽂은 후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는다. 이때 온도계의 끝 부분 이 에탄올에 잠기게 한다.	구멍 뚫린 고무마개에 온도계를 꽂은 후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입구를 막는다. 이때 온도계의 끝부분 이 에탄올에 잠기게 한다.	'끝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끝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0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국내 여행시 탈것 가이드북 만들기	국내 여행 시 탈것 가이드북 만들기	'여행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時)'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961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놀이 공원 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 기구를 탈 수 있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놀이공원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 기구를 탈 수 있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놀이 공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돌아다니며 구경하거나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놀이 기구를 갖추어 놓은 곳'을 뜻하는 '놀이공원'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2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다양한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리짓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	다양한 생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무리 짓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	'무리짓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데 모여 줄이나 대열 따위를 이루다'라는 뜻의 '짓다'는 동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963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딱 1)들어 맞2)는 군.	딱 1)2)들어맞는 군.	1) '들어 맞는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정확히 맞다"라는 뜻의 '들어맞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4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딱 1)들어 맞2)는 군.	딱 1)2)들어맞는 군.	2) '는 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는 군'은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5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마찰 전기처럼 한 곳 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	마찰 전기처럼 한곳 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	'한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하는 '한곳'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6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반대 쪽 에 두 가닥의 실을 묶어	반대쪽에 두 가닥의 실을 묶어	'반대 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반대되는 쪽'을 가리키는 '반대쪽'은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967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반원형 PVC관(길이 1m 이상), 세기가 조절되는 헤어 드라이어 , 작은 공	반원형 PVC관(길이 1m 이상), 세기가 조절되는 헤어드라이어 , 작은 공	'헤어 드라이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젖은 머리를 말라는 기구'를 가리키는 '헤어드라이어'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8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방해석도 그 중 의 하나이다.	방해석도 그중 의 하나이다.	'그 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그중'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69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사고 발생시 안전 장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고 발생 시 안전 장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생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時)'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970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31	사진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스타이로폼 공과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만든 모형이다.	-	-
971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석영이는 어제 저녁 물을 가득 채운 물병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석영이는 어제저녁 물을 가득 채운 물병을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어제 저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제저녁'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72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222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주도 자연 유산은 그 자체가 전문가도 놀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어 심미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에 관한 지질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주도 자연 유산은 그 자체가 전문가도 놀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어 심미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에 관한 지질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라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며'의 준말은 '며'가 아닌 '라며'이다.
973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실험대 위에 종이를 깔고 누름뒹 을 0점에 고정한다.	실험대 위에 종이를 깔고 누름 뒹 을 0점에 고정한다.	'누름뒹'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압정의 순화어인 '누름 뒹'은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74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안전 사고 예방과 안전 장구 착용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사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또는 부주의 따위로 일어나는 사고'를 뜻하는 '안전사고'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75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시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가서 매우 위험하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충돌시 몸이 앞으로 튀어 나가서 매우 위험하다.	'충돌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時)'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이때의 '시(時)'를 시간 기능 접미사로 보면 붙일 수도 있다.
976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21	에 아니오	에 아니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에'에 대한 상대어가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임을 밝히고 있다. 주어진 문맥에서는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인 '아니'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된 감탄사 '아니요'를 써야 한다.
977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알아보자.	-	-
978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이 곳에서 8명의 지원자가 생활하였다.	이곳에서 8명의 지원자가 생활하였다.	'이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이곳'은 붙여 써야 한다.
979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지구상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 상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식물이 수없이 많다.	'지구상'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상(上)'은 명사이므로 '지구 상'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980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지진이 일어나면 수도꼭지와 가스 안전 밸브를 잠근다.	지진이 일어나면 수도꼭지와 가스 안전밸브를 잠근다.	'안전 밸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안전판을 뜻하는 '안전밸브'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81	7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허가 받지 않은 실험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허가받지 않은 실험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허가 받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982	7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그 중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중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 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그중'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83	7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금연을 자랑스러워하며 '금연 며칠째'임을 자주 상기시켜 준다.	금연을 자랑스러워하며 '금연 며칠째'임을 자주 상기시켜 준다.	'며칠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째'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984	7	과학	중학교	2	공공	3311	먹은 음식물과 똥을 비교해 보면 색깔이 다르고 그 양도 차이가 난다.	먹은 음식물과 대변을 비교해 보면 색깔이 다르고 그 양도 차이가 난다.	교과서 언어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똥'을 점잖게 이르는 말인 '대변'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985	7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반투막 튜브 2개를 준비하여 한 쪽 끝을 실로 묶자.	반투막 튜브 2개를 준비하여 한쪽 끝을 실로 묶자.	'한 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뜻하는 '한쪽'은 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986	7	과학	중학교	2	정확	1131	열량계의 스타이로폼 통을 구리 통으로 바꿀 때 크게 생기자.	-	-
987	7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이러한 사실로 보아 눈에 보이는 크기 만으로 물체의 실제 크기를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눈에 보이는 크기만으로 물체의 실제 크기를 알 수는 없다.	'크기 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만'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988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222	"모든 사람은 살 권리가 있는데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기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건은 법적으로 번지게 됐다.	"모든 사람은 살 권리가 있는데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기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건은 법적으로 번지게 됐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는'의 준말은 '느'이 아닌 '라는'이다.
989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2009 년 3 월 BBC 방송은 30 년간 시력을 잃었던 70 대 노인이 인공 눈을 시술 받아 빛을 보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2009 년 3 월 영국의 BBC 방송은 30 년간 시력을 잃었던 70 대 노인이 인공 눈을 시술받아 빛을 보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술 받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받다'는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990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1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21.4℃에서 2와 1의 자릿수는 틀림없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릿수인 4는 오차가 포함된 자릿수이며,	'소수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이다.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의거하여 '소수점'으로 표기한다.
991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가름이 심해 기상 조절을 할 때 그룹에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화 은 가루 를 뿌리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가름이 심해 기상 조절을 할 때 그룹에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화 은가루 를 뿌리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은 가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은가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92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거름종이의 중앙에 동전만한 원을 그리고,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사인펜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을 찍자.	거름종이의 중앙에 동전만 한 원을 그리고,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사인펜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을 찍자.	'동전만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조사 '만'에 동사 '하다'가 이어지는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993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222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 이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 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 가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 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1) '뇌줄기'에 결합하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뇌줄기'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조사 '가'가 결합하므로, '이'를 '가'로 수정한다.
994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 이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 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겉보기엔 뇌사 상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1)뇌줄기(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간뇌, 연수 중간뇌) 가 살아 있어, 반사 기능이 있고 스스로 2)숨 쉴 수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회복할 수도 있어, 뇌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2) '숨 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숨쉬다'는 합성 동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995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교감 신경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 부교감 신경은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	교감 신경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이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 부교감 신경은 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	'만들어 주고'와 같은 분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들어 주고'와 같이 수정한다.
996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그리하여 난소에 가까운 수관관의 끝 부분 에서 정자는 난자와 만나게 된다.	그리하여 난소에 가까운 수관관의 끝부분 에서 정자는 난자와 만나게 된다.	'끝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끝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97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31	진 축삭 돌기 를 통해 인접한 뉴런으로 전달된다.	-	-
998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날씨를 변화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의 하나가 기단이다.	날씨를 변화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의 하나가 기단이다.	'그 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라는 뜻의 '그중'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999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31	동전, 큰 돌맹이, 율통불통한 스타이로폼 조각	-	-
1000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222	두 사람이 짝이 이루어 한 사람은 흰 종이를 가진 손전등을 짝의 눈 가까이로 가져가면서 짝의 동공 크기를 관찰하자.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흰 종이를 가진 손전등을 짝의 눈 가까이로 가져가면서 짝의 동공 크기를 관찰하자.	'짝'에 결합하는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이루다'는 타동사이므로, '짝이'의 '이'를 목적격 조사 '을'로 바꾸어 해당 성분이 목적어임이 드러나도록 수정한다.
1001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 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물과 이산화 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높은 압력하 에서 냉각하면 액체 공기가 얻어지며, 이 액체 공기를 가열하여 질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압력 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02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22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은 () 성질이라고 하며,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의 ()가(이) 된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질은 () 성질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질은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의 ()가(이) 된다.	'다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생략된 주어 '이러한 성질은'을 추가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1003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뮤지컬 공연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된다.	뮤지컬 공연 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아무 것'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를 가리키는 '아무것'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04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분만 시기에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 입구 쪽인 아래쪽으로 향하면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한다.만약 거꾸로 자리를 잡게 되면 출산 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분만 시기에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 입구 쪽인 아래쪽으로 향하면 제대로 된 자세라고 한다.만약 거꾸로 자리를 잡게 되면 출산 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한다.만약'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1005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22	생식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 생식 세포 분열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말해 보자.	생식 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 각각이 생식 세포 분열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말해 보자.	'해당하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생략된 주어 '각각이'를 추가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1006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으면 거인증 뿐만 아니라 신체의 말단 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고,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난다.	생장 호르몬의 분비가 많으면 거인증뿐만 아니라 신체의 말단 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고,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난다.	'거인증 뿐만 아니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07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설탕과 물의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 질 거야.	설탕과 물의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질 거야.	'만들어 질 거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지다'는 보조 동사이지만 '-어지다'의 형태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008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211	수분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이 알맞게 되면 증자는 싹이 트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배는 배젖이나 맥잎에 저장된 양분을 이용하여 잎, 줄기, 뿌리를 가지는 어린 식물체로 자란다.	수분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이 알맞게 되면 증자는 싹이 트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배는 배젖이나 맥잎에 저장된 양분을 이용하여 잎, 줄기, 뿌리를 가지는 어린 식물체로 자란다.	'고 나다'에 결합하는 어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고 나다'는 '그리다'의 어간 '그리-'가 아닌 '그러다'의 어간 '그려-'가 결합해야 한다.
1009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들어 온 이미지 정보가 안경테에 들어 있는 비디오 프로세서로 전송된다.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 정보가 안경테에 들어 있는 비디오 프로세서로 전송된다.	'들어 온'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들어오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10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31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 이 분비되면 가슴이 커지고 몸의 굴곡이 나타난다.	-	-
1011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22	용매의 양에 따라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분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전학 온 학생 주변에 우리 반 학생들이 많으므로 1)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2)받게 된다.	용매의 양에 따라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분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전학 온 학생 주변에 우리 반 학생들이 많으므로 1)전학 온 학생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2)받게 되기 때문이다.	1)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생략된 주어 '전학 온 학생이'를 추가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1012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221	용매의 양에 따라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분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전학 온 학생 주변에 우리 반 학생들이 많으므로 1)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2)받게 된다.	용매의 양에 따라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분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전학 온 학생 주변에 우리 반 학생들이 많으므로 1)전학 온 학생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2)받게 되기 때문이다.	2) 주어진 '달라지는 까닭은'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받게 된다'로 되어 있어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서술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로 수정한다.
1013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우리 꼭 붙어 있자. 나는 기름! 그럴 순 없지. 우리 힘이 더 세니까. 이리 와! 안되네.	우리 꼭 붙어 있자. 나는 기름! 그럴 순 없지. 우리 힘이 더 세니까. 이리 와! 안 되네.	'안되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주어진 맥락상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이므로 '안 되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014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22	유전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세워본다.	유전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세워 본다.	1) '가능하다면'과 같은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이는 명사 '한'을 쓴다. '가능한 한'으로 수정한다.
1015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유전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세워본다.	유전 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1)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세워 본다.	2) '세워본다'와 같이 분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워 본다'와 같이 수정한다.
1016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14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왜 필요하며,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이 글을 읽고 전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전기 요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선행절과 후행절이 명사구로 대등하게 이어지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선·후행절을 모두 명사구의 형식으로 만들어 접속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17	7	과학	중학교	3	소통	2222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과 마친 후에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각각 써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	1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과 마친 후에 물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각각 써 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 2안)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과 마친 후에 물음에 대한 답을 각각 써 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자.	'달라지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생략된 주어 '생각이'를 추가하여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1018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이 사람은 몇 번을 뛰어오르다가 멈추는데, 이 현상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변지점프하는 사람의 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사람은 몇 번을 뛰어 오르다가 멈추는데, 이 현상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변지점프하는 사람의 운동은 어떻게 달라질까?	'뛰어오르다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뛰어 오르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19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21	이때 발앞꿈치 쪽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이때 발끝 의 축이 되는 부분이 받침점이 되고, 발뒤꿈치 근육과 발이 만나는 지점이 힘점, 다리와 발이 만나는 지점이 작용점이 된다.	'발앞꿈치'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다. '발꿈치'는 '발의 뒤쪽 발바닥과 발목 사이의 볼록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발의 앞 끝'을 의미하는 '발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1020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잔뜩 부푼 고무풍선의 입구에서 새찬 바람이 불어나오는 것은 고무풍선 안과 밖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잔뜩 부푼 고무풍선의 입구에서 새찬 바람이 불어 나오는 것은 고무풍선 안과 밖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불어나오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불어 나오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21	7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주변에 다른 육식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지 좌우, 심지어 후방으로까지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변에 다른 육식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는지 좌우, 심지어 후방으로까지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후방으로까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어 써야 한다.
1022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그 중 하나	그중 하나	'그 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라는 뜻의 '그중'은 명사이므로 붙어 써야 한다.
1023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31	그림은 물에 스타이로폼 조각을 띄우고, 그 위에 자석을 올려놓은 간 이 나침반의 모습이다.	-	-
1024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기린이 긴 혀를 이용해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다.	기린이 긴 혀를 이용해 나뭇잎을 뜯어 먹고 있다.	'뜯어먹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원문의 맥락은 합성어 '뜯어먹다'와 의미가 다르며, '뜯어 먹다'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25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31	다음 그림은 지난 2010 년 4 월에 폭발한 에이아프얄라요 화산의 모습과 화산재의 이동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은 지난 2010 년 4 월에 폭발한 에이아파들라이외퀴들 화산의 모습과 화산재의 이동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에이아프얄라요'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에이아파들라이외퀴들'로 적어야 한다.
1026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물만 주는 데도 속속 자라는 잔디 인형을 본 적 있는가?	물만 주는데도 속속 자라는 잔디 인형을 본 적 있는가?	'주는 데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어 써야 한다.
1027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반면 난방기는 대부분 집안 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 난방기는 대부분 집 안 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	'집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곳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뜻하는 '안'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28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식물의 잎은 헬리오스의 태양 전지판 처럼 알고 넓으며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식물의 잎은 헬리오스의 태양 전지판 처럼 알고 넓으며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구조로 배열되어 있다.	'널빤지'를 뜻하는 '판(板)'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합성어로 처리하고 붙여 쓰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1029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 밑 부분 에서 약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는 폭포 밑부분 에서 약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진다.	'밑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전체 가운데 밑에 해당하는 범위'를 뜻하는 '밑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어 써야 한다.
1030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양념통 의 양념 뿌리기	양념통 의 양념 뿌리기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을 뜻하는 '통(桶)'은 명사이므로 '양념 통'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쌀통, 가스통, 물통' 등에 따라 붙어 쓰고 사전에도 올라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31	9	과학	중학교	1	소통	2211	위에서 정리한 화산 폭발의 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에 대해 과거 화산 폭발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위에서 정리한 화산 폭발의 피해 이외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에 대해 과거 화산 폭발에 관한 기사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시제 표현이 맥락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주어진 맥락에서 가리키는 화산 폭발은 '조선 시대 백두산 폭발'이며, 발문에서도 '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있는지'를 '있었는지'로 수정하여 과거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1032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이같은 원리를 알아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 같은 원리를 알아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을 자세히 관찰하고 반복된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같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같다'의 활용형인 '같은'은 형용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33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이중 에서 해수는 짜고 빙하는 얼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중 에서 해수는 짜고 빙하는 얼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럿의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34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222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주로 자연 그대로의 암석을 사용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석을 용도에 맞게 다듬어 사용하고, 나아가 암석에서 인간에서 유용한 광물을 분리하여 필요한 곳에 이용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주로 자연 그대로의 암석을 사용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석을 용도에 맞게 다듬어 사용하고, 나아가 암석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광물을 분리하여 필요한 곳에 이용하게 되었다.	'인간'에 결함한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유용하다'는 '무엇에' 혹은 '무엇에게'와 같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인간에서'를 '인간에게'로 수정한다.
1035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중간 중간 에 약한 부분이 녹으면서 여러 개의 얼음 조각으로 나뉘어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지면서 흘러간다.	중간중간 에 약한 부분이 녹으면서 여러 개의 얼음 조각으로 나뉘어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지면서 흘러간다.	'중간 중간'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장소나 사물, 행위, 사건 따위의 틈과 틈 사이'를 뜻하는 '중간중간(中間中間)'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36	9	과학	중학교	1	정확	1112	코순이의 오줌 향이 좋아졌네.	코순이의 오줌 향 이 좋아졌네.	'오줌향'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향기를 뜻하는 '향'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37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1)로마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뱃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1)로마 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배 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1) '로마시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을 뜻하는 '시대(時代)'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38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3	1)로마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뱃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1)로마 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배 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2) 기록을 직접 인용한 것이므로 큰따옴표를 써야 한다.
1039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211	1)로마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뱃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1)로마 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배 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3) '뱃속'이라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다. '뱃속'은 '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므로, 배의 안쪽을 가리키는 말인 '배 속'으로 써야 한다.
1040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1)로마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뱃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1)로마 시대 의 기록 중에는 당뇨병에 대해 2)이 병은 매우 이상한 병으로 환자는 소변을 자주 본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고 불덩어리가 3)4)배 속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	4) '뱃속'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합성어인 '뱃속'의 의미가 아니므로, '배 속'과 같이 띄어 쓴다.
1041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가로 선 은 평행일까?	가로선 은 평행일까?	'가로 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가로줄'을 뜻하는 '가로선'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42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그러나 관련학과 에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화학 지식을 쌓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학과 에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화학 지식을 쌓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관련학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관련학과'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43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21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우면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뿜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라는 뜻의 동사는 '피우다'이며, '피다'는 '피우다'의 준말이 아니다. '피면'을 '피우면'으로 수정한다.
1044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모세 혈관의 혈관벽은 한 겹의 세포 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모세 혈관의 혈관벽은 한 겹의 세포층 으로 이루어져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알맞다.	'세포 층'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층'은 '커져서 쌓인 상태 또는 그중 한 겹'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45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목의 끝 부분 관절이 지레의 받침점 역할을 하여 목 뒤의 근육이 힘을 주면 머리를 숙이거나 젖힐 수 있다.	목의 끝부분 관절이 지레의 받침점 역할을 하여 목 뒤의 근육이 힘을 주면 머리를 숙이거나 젖힐 수 있다.	'끝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끝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46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222	보일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주장하였다.	보일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결합한다.
1047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볼링공을 굴리면 빠르게 이동하여 볼링핀 을 쓰러뜨린다.	볼링공을 굴리면 빠르게 이동하여 볼링 핀 을 쓰러뜨린다.	'볼링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볼링에서, 공으로 쓰러뜨리는 병모양의 물체'를 가리키는 '핀'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48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비눗방울을 계속 1)불다보면 2)비누막 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진다.	비눗방울을 계속 1)불다 보면 2)비누 막 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진다.	1) '불다보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보조 동사 '보다'는 동사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알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상태로 '뒀'을 나타내는 말이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되나, 한 책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다 보면'으로 수정한다.
1049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비눗방울을 계속 1)불다보면 2)비누막 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진다.	비눗방울을 계속 1)불다 보면 2)비누 막 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진다.	2) '비누막'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물질'을 뜻하는 '막(膜)'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50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31	사각 수조, 나무 막대, 스타이로폼 구, 물	-	-
1051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색소는 잉크 제조회사 에 따라 다르며, 같은 펜으로 쓴 잉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한다.	색소는 잉크 제조 회사 에 따라 다르며, 같은 펜으로 쓴 잉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한다.	'제조회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제조회사'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52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세로 선 은 서로 나란할까?	세로선 은 서로 나란할까?	'세로 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세로줄'을 뜻하는 '세로선'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53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쇠 구슬 을 떨어뜨렸을 때 찰흙이 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쇠구슬 을 떨어뜨렸을 때 찰흙이 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쇠 구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쇠로 만든 구슬'을 가리키는 '쇠구슬'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54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숲 속 의 길을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햇빛이 곧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숲속 의 길을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햇빛이 곧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숲 속'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숲의 안쪽'을 뜻하는 '숲속'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55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숨에서 느껴지는 상쾌한 물내음 !	숨에서 느껴지는 상쾌한 물 내음 !	'물내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코로 맡을 수 있는 나뭇잎 없거나 향기로운 기운'을 뜻하는 '내음'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56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영양사는 4만 7,000명(2009년 기준) 정도로 산업체, 병원, 학교 뿐만 아니라 급식 산업, 보건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영양사는 4만 7,000명(2009년 기준) 정도로 산업체, 병원, 학교뿐만 아니라 급식 산업, 보건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학교 뿐만 아니라'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57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21	음료수 캔에 붙어 있는 캔따개 를 사용하면 쉽게 음료수 캔을 딸 수 있다.	(pull tab에 대응하는 단어를 제시해야 함.)	-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58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이러한 기능은 소화계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으며, <u>그밖</u> 에도 다른 기관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소화계의 기능에 비유할 수 있으며, <u>그밖</u> 에도 다른 기관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들이 있다.	'그밖'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뜻하는 '밖'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59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u>쿵쿵딱딱!</u> 여기는 공연장.	<u>쿵쿵! 딱딱!</u> 여기는 공연장.	'쿵쿵딱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쿵쿵'과 '딱딱'은 각각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0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한 사람이 빨간색 고무공 10개를 실험 장치의 <u>1)윗 부분</u> 구멍을 통해 떨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플라스틱 컵을 움직여 실험 장치 <u>2)아랫 부분</u> 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다.	한 사람이 빨간색 고무공 10개를 실험 장치의 <u>1)윗부분</u> 구멍을 통해 떨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플라스틱 컵을 움직여 실험 장치 <u>2)아랫부분</u> 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다.	1) '윗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전체 가운데 위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윗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61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한 사람이 빨간색 고무공 10개를 실험 장치의 <u>1)윗 부분</u> 구멍을 통해 떨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플라스틱 컵을 움직여 실험 장치 <u>2)아랫 부분</u> 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다.	한 사람이 빨간색 고무공 10개를 실험 장치의 <u>1)윗부분</u> 구멍을 통해 떨어뜨리고, 다른 한 사람은 플라스틱 컵을 움직여 실험 장치 <u>2)아랫부분</u> 으로 떨어지는 공을 받는다.	2) '아랫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전체 가운데 아래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아랫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62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222	흔히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분하지 못하여 "뇌사 상태의 환자가 10년 만에 깨어났다."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뇌사와 식물인간은 큰 차이가 있다.	흔히 뇌사와 식물인간을 구분하지 못하여 "뇌사 상태의 환자가 10년 만에 깨어났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뇌사와 식물인간은 큰 차이가 있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는'의 준말은 '느'이 아닌 '-라는'이다.
1063	9	과학	중학교	2	정확	1112	<u>흡착고무</u> 를 눌러 안쪽의 공기를 빼내면 유리나 매끈한 벽면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u>흡착 고무</u> 를 눌러 안쪽의 공기를 빼내면 유리나 매끈한 벽면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흡착고무'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흡착 고무'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4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u>나온지</u> 오래될수록 두 생물종의 유전적 차이가 커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도 달라질 것이다.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u>나온 지</u> 오래될수록 두 생물종의 유전적 차이가 커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도 달라질 것이다.	'나온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는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5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관찰한 결과를 참고하여 생식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u>다른점</u> 을 써 보자.	관찰한 결과를 참고하여 생식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u>다른 점</u> 을 써 보자.	'다른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러 속성 가운데 어느 부분이나 요소'를 뜻하는 '점(點)'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6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u>그후</u> 1800년대 초,	<u>그 후</u> 1800년대 초,	'그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뒤나 다음을 뜻하는 '후(後)'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7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별의 색깔과 <u>표면온도</u>	별의 색깔과 <u>표면 온도</u>	'표면온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표면온도'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68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북두칠성의 <u>끝 부분</u> 을 이어서 5배 정도 연장한 곳에는 북극성이 있다.	북두칠성의 <u>끝부분</u> 을 이어서 5배 정도 연장한 곳에는 북극성이 있다.	'끝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끝부분'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69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u>불빛축제</u> 는 여러 가지 색깔의 전구를 이용한 축제이다.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u>불빛 축제</u> 는 여러 가지 색깔의 전구를 이용한 축제이다.	'불빛축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불빛축제'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70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생선회를 먹을 때 <u>레몬즙</u> 을 뿌려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킨다.	생선회를 먹을 때 <u>레몬즙</u> 을 뿌려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염기성 물질을 중화시킨다.	'레몬즙'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농축액'을 나타내는 말인 '즙(ju)'은 먹을 것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 뒤에 붙여 쓴다.
1071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아, <u>신난다</u> . 여행을 가야지.	아, <u>신난다</u> . 여행을 가야지.	'신 난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72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 한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복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 한 지 8년 만인 1887년 3월, 경복궁의 건청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졌다.	'발명'한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인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73	9	과학	중학교	3	소통	2111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기작 을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발전된 유전학 지식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자연 선택, 격리 등의 작용 원리 를 종합하여 진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기작'은 독자 수준에 적합한 단어로 보기 어렵다. 도움말을 통해 '기작'의 의미를 설명(뜻풀이)해 주거나, 개선탄과 같이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한다.
1074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이같은 원리를 모방하여 물을 뿌리면 먼지가 깨끗하게 떨어지는 페인트, 물이 쏟아져도 젖지 않는 기능성 섬유 등이 개발되었다.	이 같은 원리를 모방하여 물을 뿌리면 먼지가 깨끗하게 떨어지는 페인트, 물이 쏟아져도 젖지 않는 기능성 섬유 등이 개발되었다.	'이같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같다'의 활용형인 '같은'은 형용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75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천연 가스 버스가 지나간다.	천연가스 버스가 지나간다.	'천연 가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천연가스'는 합성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76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3	첨단 과학 기술이 사회와 문화예술 , 환경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사회와 문화·예술 , 환경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가운뎃점이나 특정 분야를 열거할 때 사용하는 쉼표를 쓸 수 있다.
1077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청정연료 를 사용한다.	청정 연료 를 사용한다.	'청정연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청정연료'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78	9	과학	중학교	3	정확	1112	휴전선에 전시된 기관차는 표면에 왁스칠 을 여러 번 하여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게 처리한 것이다.	휴전선에 전시된 기관차는 표면에 왁스 칠 을 여러 번 하여 더 이상 녹이 슬지 않게 처리한 것이다.	'왁스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면이 있는 사물에 기름이나 액체, 물감 따위를 바를, 또는 그런 물질'이라는 의미의 '칠(漆)'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79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222	"자신의 신념을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 는 물림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자신의 신념을 솔직히 말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 라는 물림의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는'의 준말은 '는'이 아닌 '라는'이다.
1080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3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있다(그림 1-1) .	1안)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있 다(그림 1-1) 2안) 1999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4.24광년 거리에 있 다(그림 1-1) .	마침표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소괄호 다음의 마침표는 해당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마침표가 두 개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1안)과 같이 괄호 앞에 마침표를 찍거나, 2안)과 같이 괄호 안의 내용이 문장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아 괄호 뒤에 찍도록 수정한다.
1081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DNA의 골격을 만드는데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에 지구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DNA의 골격을 만드는 데 인 대신 비소를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외계에 지구와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드는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82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드라이아이스, 전자저울, 높음 실린더 , 물, 100mL 정도 부피의 플라스틱 통, 악순가락, 망치, 면장갑	-	-
1083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또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게 되면, 그 중 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도 있을 수 있다.	또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게 되면, 그중 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도 있을 수 있다.	'그 중'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그중'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84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222	미국의 물리학자 파인만(Feynman, R. P. 1918~1988)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파괴되고 단 한 가지만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택하겠다." 고 말하였다.	미국의 물리학자 파인만(Feynman, R. P. 1918~1988)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파괴되고 단 한 가지만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택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085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상당 수의 의약품들은 식물과 동물 또는 광물질로부터 얻은 것이다.	상당수의 의약품들은 식물과 동물 또는 광물질로부터 얻은 것이다.	'상당 수'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어지간히 많은 수'를 뜻하는 '상당수'는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86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3	어떤 행성에 대하여 가벼운 분자일수록, 높은 온도일수록 탈출하기가 쉽다.	어떤 행성에 대하여 가벼운 분자일수록, 높은 온도일수록 탈출하기가 쉽다.	문장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1087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우리 은하	-	-
1088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유성펜	유성 펜	'유성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유성펜'은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89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222	이어 "냉전 공포가 세계를 핵무기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핵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어 "냉전 공포가 세계를 핵무기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반핵 운동에 뛰어들었다.	인용격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 다음에는 '라고'와 같은 인용격 조사가 결합한다. 또한 '라고 하며'의 준말은 '며'가 아닌 '라며'이다.
1090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3	처음에는 이 별이 신성(nova)인 줄 알았다가 변광성(variable)인 것을 알고 수정을 하였다.	처음에는 이 별이 신성(nova)인 줄 알았다가 변광성(variable)인 것을 알고 수정을 하였다.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1091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커피컵	커피 컵	'커피컵'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커피컵'은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92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고 때의 지각 변동으로 식물이 흙과 모래더미와 함께 물 밑에 가라앉아 그 위에 다시 퇴적층이 이루어졌다.	태고 때의 지각 변동으로 식물이 흙과 모래 더미와 함께 물 밑에 가라앉아 그 위에 다시 퇴적층이 이루어졌다.	'모래더미'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를 뜻하는 '더미'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93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등, 2)산 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 등, 2)산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 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1) '경고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경고등'은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94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등, 2)산 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 등, 2)산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 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2) '산 속'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산속'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095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등, 2)산 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태양 전지는 가로등, 1)경고 등, 2)산속의 무선 장치 전원, 비상등, 항로 표지 전원, 3)산불 감시 시스템용 전원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3) '산불감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산불감시'는 합성 명사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096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 전지판	태양 전지판	널빤지를 뜻하는 '판(板)'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합성어로 처리하고 붙여 쓰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1097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 집열판	태양 집열판	널빤지를 뜻하는 '판(板)'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합성어로 처리하고 붙여 쓰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1098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태양광 전지의 광전판이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킨다(그림 6-2).	태양광 전지의 광전판이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킨다(그림 6-2).	널빤지를 뜻하는 '판(板)'은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합성어로 처리하고 붙여 쓰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1099	9	과학	고등학교		소통	2322	태초의 바다에서 일어난 최초의 광합성은 이산화 탄소가 물에 녹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탄산수의 발명은 광합성과 산소의 발견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어진 문맥에 맞게 문장을 골맞아야 함.)	문단 내의 마지막 문장이 골맞아지지 않아 문단 내 의미 결속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00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 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퇴적 광상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는 과정에서 광물이 한곳 에 집중되어 형성된 광상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토 사금, 암염, 석고, 석탄, 석유 등이 산출된다.	'한 곳'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하는 '한곳'은 명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101	9	과학	고등학교		정확	1112	활동 대사량은 밥 먹기, 책 읽기 , 걷기, 대화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양으로 개인이 활동하는 강도와 시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활동 대사량은 밥 먹기, 책 읽기 , 걷기, 대화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양으로 개인이 활동하는 강도와 시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책읽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책읽기'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1102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게임을 그만 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만두기가 어렵다.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만두기가 어렵다.	'하던 일을 그만 멈추다'의 의미인 '그만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03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마요네즈 4큰술	마요네즈 4큰술	'음식물을 숟가락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큰술'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04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1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예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예요!	'이에요'는 '이다'의 어간 뒤에 어미 '-예요'가 붙은 표현으로, 앞의 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에요'를 줄여 '예요'로 쓴다. 어미 '-예요'가 곧장 체언 뒤에 붙는 경우는 없다.
1105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바늘귀의 끝 부분 을 잡고	바늘귀의 끝부분 을 잡고	'물체의 끝 쪽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 '끝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06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분실이나 고장에 주의 합니다.	분실이나 고장에 주의합니다.	'마음에 새겨 두고 조심하다'의 뜻을 지닌 '주의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07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1	사포에는 굵고 거칠은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포에는 굵고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형용사 '거칠다'는 여간 '거칠-'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니'이 결합한 '거친'으로 활용된다. '거칠은'은 잘못된 표기이다.
1108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세탁이 필요한 옷은 한 곳 에 모아요.	세탁이 필요한 옷은 한곳 에 모아요.	'일정한 곳, 또는 같은 곳'을 뜻하는 '한곳'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09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숯 속 을 건다 보면	숯속 을 건다 보면	'숯의 안쪽'을 의미하는 '숯속'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10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여러 가지 촬영 모드가 있는데 그 중 에서 원하는 모드로	여러 가지 촬영 모드가 있는데 그중 에서 원하는 모드로	'범위가 정해진 여러 가운데'라는 뜻의 '그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11	7	실과	초등학교	5	소통	2211	접힌 부분을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고 스테이플이 보이지 않도록	접힌 부분을 스테이플러로 고정하고 스테이플이 보이지 않도록	동사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여 있거나 붙여 있게 하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고'를 통해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1112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정보 기기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로서	정보 기기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로서	'되다'의 부정으로 '안 되다'를 쓸 경우에는 부사 '안'과 동사 '되다'를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13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 잘되고	'농사가 잘되다/공부가 잘되다/훈린이 잘된 군인'과 같이,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잘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14	7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목제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목제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밖에'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15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3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의 표지가 포함된 표현과 함께 속담을 직접 인용한 것이므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쓴다.
1116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민우도 한 번 만들어 보겠니?	민우도 한번 만들어 보겠니?	해당 문맥에서는 횟수로 '1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험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인 부사 '한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부사 '한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17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	보관이 잘되어 있는 것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잘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18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211	빠약빠약, 우리들은 부화기 안에서 21일 정도 지나면 껍질 을 깨고 나옵니다.	빠약빠약, 우리들은 부화기 안에서 21일 정도 지나면 껍데기 를 깨고 나옵니다.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은 '껍질'로,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은 '껍데기'로 쓴다. 여기에서는 달걀의 겉 부분을 의미하므로 '껍데기'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19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생활에 필요한 의생활용품 을 만들어	생활에 필요한 의생활용품 을 만들어	'-용'과 '-품'은 각각 접사로, '사무용품', '유아용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는 앞말과 '-용', '-품'을 모두 붙여 쓴다. 밑줄 친 부분은 '의생활'이라는 명사에 '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용'과 '물품', 또는 '작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품'이 붙은 구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의생활용품'으로 붙여 쓴다.
1120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오른쪽 첫번째 코에	오른쪽 첫 번째 코에	관형사 '첫'과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번째'는, 각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과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2항 규정에 따라 '첫 번째'와 같이 쓴다.
1121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21	우와 , 직접 컵 받침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아 , 직접 컵 받침을 만든단 말이에요?	감탄사의 특성상 여러 형태로 쓰일 수 있지만, 사전에 실려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쓴다면, '우아'의 형태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22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지난 달 에 남은 돈	지난달 에 남은 돈	'이달'의 바로 앞의 '달'을 의미하는 '지난달'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23	7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포메 라니안	포메라니안	개의 품종 중 하나인 '포메라니안(Pomeranian)'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24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3	(표 안에 들어 있는 각 항목임.)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부족함 . 매우 부족함 .	(표 안에 들어 있는 각 항목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함 매우 부족함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찍는 문장 부호로,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명사 '보통'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나머지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에만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의 표이므로 모두 통일되게 마침표를 찍거나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매우 잘함', '잘함' 등을 해당 표에서 각 열의 제목으로 본다면 마침표를 모두 찍지 않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1125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마요네즈 2큰 술	마요네즈 2큰술	'음식물을 숟가락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큰술'은 의존 명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1126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마음에 걸려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려 공부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잘되다/공부가 잘되다/훈련이 잘된 군인'과 같이,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잘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27	9	실과	초등학교	5	소통	2211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소리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소리 파일을 포함합니다.	동사 '포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거나 함께 넣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는 굳이 '-시키다'를 통하여 사동 표현으로 만들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표현된다.
1128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설탕 1작은 술	설탕 1작은술	'음식물을 손가락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운데 하나'인 '작은 술'은 의존 명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한 단어이다. 따라서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
1129	9	실과	초등학교	5	소통	2211	슬라이드 쇼 메뉴를 실행시킵니다.	슬라이드 쇼 메뉴를 실행합니다.	동사 '실행하다'는 '컴퓨터를 명령어에 따라서 작동시키다'의 뜻으로, 해당 맥락에서 굳이 접사 '-시키다'를 통해 사동 표현으로 만들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표현된다.
1130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엄마를 보면 잘 안됩니다.	엄마를 보면 잘 안 됩니다.	'되다'의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안 되다'와 같이 띄어 표기하고,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를 의미할 때는 '안되다'로 붙여 표기한다. 여기에서는 '잘되다'의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잘 안 되다'로 띄어 표기한다.
1131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동물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실험실에서 희생되는 동물이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 '한'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해'는 서로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1132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특허에 의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받다'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1133	9	실과	초등학교	5	정확	1112	항공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항공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음'을 뜻하는 '관련'은 하나의 명사로, '항공'과 '관련'은 각기 다른 단어이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34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8백여 만 대	8백여만 대	한글 맞춤법 44항에 따라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1135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니 보람도 있고 오히려 더 즐거운 걸요.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니 보람도 있고 오히려 더 즐거운걸요.	밑줄 친 부분은 형용사 '즐겁다'에,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가바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은걸'이 붙어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형용사 어간에 어미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붙여 쓴다.
1136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밥은 흰 쌀밥 보다 잡곡밥을 이용하면	밥은 흰쌀밥 보다 잡곡밥을 이용하면	'희게 삶은 맵쌀로 지은 밥'인 '흰쌀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37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211	빵 조각이나 밥풀은 절대 주지 않아요.	빵 조각이나 밥풀은 절대 주지 마세요.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경우 '안' 부정문 대신 '않다'의 보충법 형태인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말다'가 아닌 '말다'가 쓰여 "절대 주지 마세요."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38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변해요.	소화가 잘되는 상태로 변해요.	'농사가 잘되다/공부가 잘되다/훈련이 잘된 군인'과 같이,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의미하는 동사 '잘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39	9	실과	초등학교	6	소통	2211	아버지 가 어떤 일을 하시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셔서 보람을 느끼시고, 덕분에 우리도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그 이상 최고의 직업은 없겠지요.	아버지 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셔서 보람을 느끼시고, 덕분에 우리도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그 이상 최고의 직업은 없겠지요.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주어진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높이는 대상인 주어 뒤에 쓰이는 격 조사는 높임의 뜻을 지닌 '께서'를 사용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40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211	어항에 금붕어를 너무 많이 넣지 <u>않아요</u> .	어항에 금붕어를 너무 많이 넣지 <u>마세요</u> .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부정할 경우 '안' 부정문 대신 '않다'의 보충법 형태인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않다'가 아닌 '말다'가 쓰여 "많이 넣지 마세요."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41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221	이런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u>정서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줍니다</u> .	이런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u>정서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얻습니다</u> .	밑줄 친 부분의 선행절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과 문장 구성을 통해 주어를 추측해 보건대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의 생략된 주어는 '웃음 치료'이다. 이렇게 각 절에서 생략된 주어가 서로 달라 문장이 어색해졌다. 주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절의 서술어를 조정한다.
1142	9	실과	초등학교	6	소통	2221	전기 신호를 <u>크게 증폭한다</u> .	전기 신호를 <u>증폭한다</u> .	동사 '증폭하다'는 '사물의 범위를 넓혀 크게 하다'의 뜻을 지녔다. 따라서 밑줄 친 '크게 증폭하다'는 '역전 앞'과 같이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증폭하다' 하나로만도 '크게 하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앞의 '크게'라는 부사어는 삭제한다.
1143	9	실과	초등학교	6	소통	2222	<u>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얘기만 듣고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비교해 놓으니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u>	1)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얘기만 듣고는 <u>지구 온난화가</u>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비교해 놓으니 <u>이를</u>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u>것은</u> 얘기만 들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비교해 놓으니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감나다'의 대상 즉 목적어가 문장 내에 생략되어 있다. 필수 성분(목적어)을 갖추어 의미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법적으로도 어색하지 않도록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44	9	실과	초등학교	6	소통	2332	생리적인 적응력의 발전 1. 생활 속 형감 용품 만들기 ◎ 기초 손바느질 · 홉질 · 박음질 · 시침질 · 감침질 ◎ 손바느질을 이용한 형감 용품 · 주머니, 덧소매, 컵 받침 등 ◎ 형감 용품을 만드는 과정 · 구상하기-치수 정하기-재료 및 용구 준비하기-본뜨기-마름질하기-바느질하기-마무리하기 2. 환경과 나눔의 생활용품 만들기 ◎ 다양한 바느질 도구 · 대바늘, 코바늘, 십자수 바늘, 재봉틀 등 · <u>한이정이 생활용품을 만드는 나눔을 실천한다</u>	생리적인 적응력의 발전 1. 생활 속 형감 용품 만들기 ◎ 기초 손바느질 · 홉질 · 박음질 · 시침질 · 감침질 ◎ 손바느질을 이용한 형감 용품 · 주머니, 덧소매, 컵 받침 등 ◎ 형감 용품을 만드는 과정 · 구상하기-치수 정하기-재료 및 용구 준비하기-본뜨기-마름질하기-바느질하기-마무리하기 2. 환경과 나눔의 생활용품 만들기 ◎ 다양한 바느질 도구 · 대바늘, 코바늘, 십자수 바늘, 재봉틀 등	단원의 마무리에서 '정리해 보아요'라는 제목 아래 해당 단원을 요약한 부분이다. '2. 환경과 나눔의 생활용품 만들기' 하위 항목으로 제시된 '다양한 바느질 도구'라는 소재목 아래, 제목과는 상관없는 '창의적인 생활용품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한다.'가 들어 있어 어색할뿐더러 단원의 내용을 알맞게 요약하여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과 소재목의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
1145	9	실과	초등학교	6	정확	1112	<u>촉구 하기</u>	<u>촉구하기</u>	접사 '-하다'는 동작성 명사 뒤에 붙어 '공부하다, 이야기하다'와 같이 동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명사 '촉구'는 '경기, 운동'의 뜻을 지닌 동작성 명사이므로, '촉구하다'는 명사 '촉구' 뒤에 접사 '-하다'가 붙은 한 단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46	9	실과	초등학교	6	소통	2321	뒷밭은 학교 안의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수도가 가까워 물을 주기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물과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는 것을 해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인장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뿌리가 썩어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뒷밭은 학교 안의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수도가 가까워 물을 주기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는 것을 해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인장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뿌리가 썩어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락의 앞뒤 어느 부분에도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 물 주기 가까운 장소에 뒷밭을 마련하였지만, 밀줄 친 절이 포함된 단락은 이전에 물을 많이 줬 선인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해당 학생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야기 흐름 안에 '비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또한 해당 소단원을 배우는 내에도 물의 양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나, 비료에 대한 내용이나 이를 많이 주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구절의 등장은 상당히 생뚱맞거나 어색해 보이므로 삭제한다.
1147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1	1)밀납 봉에 2)나무가지 형태로 붙인다.	1)밀랍 봉에 2)나무가지 형태로 붙인다.	1)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을 뜻하는 말은 '밀랍'이다.
1148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1	1)밀납 봉에 2)나무가지 형태로 붙인다.	1)밀랍 봉에 2)나무가지 형태로 붙인다.	2) '나무가지'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어긋난 표기이다.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 나는 가지'를 뜻하는 말은 '나뭇가지'와 같이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1149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거식증은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중단되게 하며	거식증은 성장을 지연하거나 중단되게 하며	'지연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추다'의 의미로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쓰지 않아도 된다.
1150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건설증인 최고의 건물	건설 증인 최고의 건물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중'은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1151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구매한 물품에 대해 만족(재구매)했는지 불만족(교환·환불)한지 를 평가하고 다음 구매 의사 결정에 참고한다.	구매한 물품에 대해 만족(재구매)했는지 불만족(교환·환불)했는지 를 평가하고 다음 구매 의사 결정에 참고한다.	'만족하다'와 '불만족하다'의 두 선택항을 비교하는 구문인데, '만족하다'에는 과거형 '만족했는지'를 쓰고 '불만족하다'에는 과거형 없이 '불만족한지'를 쓴 채, 이 둘을 잇고 있어 어색하다. '만족했는지 또는 불만족했는지'와 같이 시제를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
1152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31	굴삭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착기 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할 때	'굴삭기'는 '굴착기(掘鑿機)'의 '鑿을 착(鑿)'이라는 한자가 어려워 일본 사람들이 '꺾을 삭(削)'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로, 일본식 어투이므로 원래의 '굴착기'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권고되는 바이다.
1153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밀줄 친 부분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54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1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예요 .	난 최고의 항공기 정비사가 될 거예요 .	밀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예요'가 결합된 구조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와 종결 어미 '-예요'의 결합형인 '이에요'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예요'로 줄여 쓴다. 따라서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가 바른 표기이다.
1155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 받는다 .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받는다 .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다'의 의미인 '주고받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56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21	마우스와 키보드에서 선을 제거하여 선 없는 무선 마우스 와 키보드를 만들어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우스와 키보드에서 선을 제거하여 무선 마우스 와 키보드를 만들어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통신이나 방송을 전선(電線) 없이 전파로 함'을 뜻하는 '무선'에 이미 '선 없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 없는'은 삭제한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57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발과 신발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켜 발을 보호하며	발과 신발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 발을 보호하며	'완화하다'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다, 병의 증상을 줄어들게 하거나 누그러지게 하다"의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1158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21	버려진 폐품 을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다.	폐품 을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다.	'폐품'은 '못 쓰게 되어 버린 물품'을 뜻하는 말로, 이미 '버려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버려진 폐품'이라는 말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므로, 간결히 한다.
1159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별 다른 생각 없이 최신 영화를 몇 편 보았는데	별다른 생각 없이 최신 영화를 몇 편 보았는데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다른 것과 특별히 다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별다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60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31	사카토 켄지	사카토 켄지	외래어 표기법 일본어 표기 규정에 의하면 'ヶ'의 경우 어중에서는 '게'로, 어두에서는 '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161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향상하다'는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1162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식물성 기름이 고체화 될 때 만들어짐.	식물성 기름이 고체화될 때 만들어짐.	"액체 상태의 물질이 고체로 변하다"라는 의미인 '고체화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63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양성 평등	양성평등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양성평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64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영양 뿐 아니라	영양뿐 아니라	체언 뒤에 붙은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165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21	오래 사용하면 바퀴가 움푹 패이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	오래 사용하면 바퀴가 움푹 파이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된다.	동사 '파다'의 피동사는 '파이다'이며 이를 줄인 말이 '패다'이다. '패이다'는 '패다'의 잘못된 형태이다.
1166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외부에 신체 노출이 안되도록 함.	외부에 신체 노출이 안 되도록 함.	'신체 노출이 되다'의 부정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부정 부사 '안'과 동사 '되다'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부정 부사 '안'과 동사 '되다'는 서로 다른 단어이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67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우선 순위를 정해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의미하는 '우선순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68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이상을 향해 의지를 굳게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을 향해 의지를 굳게 단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와 같은 뜻을 지닌 '단련하다'는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1169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인간은 1시간 후 반을 잊어버림	인간은 1시간 후 반을 잊어버림	'뒤나 다음'을 뜻하는 '후'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70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작년에 전학 간 기육이와	작년에 전학 간 기육이와	'전학 가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71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222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의 홈을 파서 접합하였다.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에 홈을 파서 접합하였다.	홈을 파는 대상이 '목재'이므로, '목재' 뒤에는 관형격 조사 '의'보다는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가 더 적절하다.
1172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치료 받도록 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치료받도록 한다.	이때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173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지상의 풍경을 가장 멀리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풍경을 가장 멀리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보다'라는 의미인 '내려다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74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청소년기의 1)자기 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의 하나로 서,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2)좀 더 성숙한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1)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의 하나로 서,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2)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좀 더 성숙한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1) '남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이란 뜻의 '자기중심적'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1175	7	기가	중학교	1	소통	2222	청소년기의 1)자기 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의 하나로 서,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2)좀 더 성숙한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1)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특징의 하나로 서,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라지고, 2)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좀 더 성숙한 수준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2) 맨 앞의 절과 중간 절의 주어는 '자기중심적 사고'이고, 맨 마지막 절의 주어는 '청소년'이다. 이렇게 서로 주어가 다른데 맨 마지막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문장이 어색하므로, 맨 마지막 절에서 필수 성분인 주어를 밝혀 적어 줄 필요가 있다.
1176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청소년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청소년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여기서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177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카메라는 뽀니뽀니해도 '코리'사가 최고지!	카메라는 뽀니 뽀니 해도 '코리'사가 최고지!	'뽀니'는 대명사 '무어'의 준말 '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고, '이다'의 어간에 어미 '-니'가 결합하여 다시 줄어든 형태이다. 각각의 단어는 띄어 쓰므로, 이들은 '뽀니 뽀니 해도'로 띄어 쓴다.
1178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특허가 국방 상 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특허가 국방상 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물 '위'가 아닌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경우의 '-상'은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179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필립은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하던 중	필립은 고장 난 라디오를 수리하던 중	'고장 나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80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형제 자매와의 관계	형제자매 와의 관계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형제자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81	7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화장실이 고장났 ?	화장실이 고장 났 ?	'-나다'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런 성질이 있음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 때이다. 밑줄 친 부분은 이런 경우가 아니며, '변화가 생기거나 작용에 이상이 일어나다'의 의미인 동사 '나다'이므로 각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82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가족들의 불편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가족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하다'는 '가장 적게 하다'의 의미로, 접사 '-시키다'를 통해 사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1183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해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따라서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84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개인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며	개인과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하여 주며	동사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 굳이 '-시키다'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185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거실, 부엌, 현관 등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는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	거실, 부엌, 현관 등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	'분리하다'는 '서로 나누어 멀어지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 없이도 해당 문맥에서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186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거실, 식사실, 부엌 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된 형태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수선했다.	거실, 식사실, 부엌 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형태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수선했다.	'통합되다'는 자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목적어를 갖추어 쓰는 동사 '통합하다'를 서술어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1187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시켜야 옷이 변형되지 않는다.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해야 옷이 변형되지 않는다.	동사 '건조하다'는 "물이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를 뜻하므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188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그밖에 스파게티를 먹을 때에는 포크를 오른손에 들고	그 밖에 스파게티를 먹을 때에는 포크를 오른손에 들고	"그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것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 밖에'는, '그'가 '밖'을 수식하는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은 말임으로 조사를 제외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189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나도 지금 고민중이야.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중'은 의존 명사로 앞 단어와 띄어 쓴다.
1190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다림질 할 수 있음	다림질 할 수 있음	'다림질하다'의 준말인 '다림질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91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의 '-드리다'는 '말씀드리다, 기도드리다와 같이,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공손한 행위'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192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마늘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살균 작용을 한다.	마늘은 식욕을 증진하고 살균 작용을 한다.	'증진하다'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1193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4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식을 참고하여 대화 와 타협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보자.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식을 참고하여 대화하거나 타협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보자.	명사 '대화'와 동사의 관형형 '타협할 수 있는'과 같이 대응하지 않은 성분 간 접속이 이루어져 문장이 어색하다. '대화'와 '타협의 전략' 또는 '대화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전략' 등과 같이 대등한 성분이 연결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94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방음이 잘 되어 있다.	방음이 잘되어 있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95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여쭙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여쭙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할까 봐'는 어간 '하'-에 종결 어미 '-ㄹ까'와 보조 형용사 '보다'가 이어진 구조이므로 '할까 봐'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1196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옷장, 신발장 등에 제습제를 넣어 곰팡이 발생을 막고 가끔씩 통풍시켜 주며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옷장, 신발장 등에 제습제를 넣어 곰팡이 발생을 막고 가끔씩 통풍해 주며	'통풍하다'는 '바람을 통하게 하다'의 뜻으로, 사동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197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식사 계획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므로	식사 계획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므로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의 뜻으로, 굳이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1198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어, 잘 됐잖아? 그럼 옷도 만들 수 있을까?	어, 잘됐잖아? 그럼 옷도 만들 수 있을까?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99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연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연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짧게 줄이다'의 의미로, 이미 단어 자체에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1200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할	동사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를 뜻하므로, 해당 맥락에서 굳이 접사 '-시키다'를 사용해 사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201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원손으로는 그릇을 고정시킨다 .	원손으로는 그릇을 고정한다 .	'고정하다'는 '함곳에 꼭 붙여 있거나 붙여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하다.
1202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우리 집은 모든 일을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걸 .	우리 집은 모든 일을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시는걸 .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는 뜻의 '-는걸'은 동사 어간 또는 선언어미 '-시-' 뒤에 붙여 쓴다.
1203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진하다'는 '기온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1204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의사소통이 잘 된다 .	의사소통이 잘된다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뜻을 지닌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1205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이때 맞춤법 및 대화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이때 맞춤법 및 대화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바로 지금의 때. 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이나 부분'이라는 의미의 '이때'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06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4	자신을 표현하는 의복에는 개성 표현, 직업과 역할 그리고 예의를 표시하는 의복이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의복에는 개성, 직업과 역할 그리고 예의를 표시하는 의복이 있다.	'개성 표현'과 '직업, 역할, 예의를 표시하는'이 연결된 구조여서 어색하다. 대등한 항목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1207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211	조개류는 지방이 적고 무기질의 함량이 많다. 또한, 폐기율이 높아 껍질을 빼면 먹을 수 있는 부위는 30% 정도이다.	조개류는 지방이 적고 무기질의 함량이 많다. 또한, 폐기율이 높아 껍데기를 빼면 먹을 수 있는 부위는 30% 정도이다.	'껍질'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을 뜻하고,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은 '껍데기'이다.
1208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창을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창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환기하다'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사동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하다.
1209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첨부 파일은 실행시키지 말고 삭제한다.	첨부 파일은 실행하지 말고 삭제한다.	'실행하다'는 '컴퓨터를 명령어에 따라서 작동시키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210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체내에 비타민 D를 생성시키기도 한다.	체내에 비타민 D를 생성하기도 한다.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하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11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클럼프 등으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클럼프 등으로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여 있거나 붙여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하다.
1212	7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한다.	통풍이 잘되는 상온에 보관한다.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13	7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주거가 등장하고 있는데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주거가 등장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다'는 '가장 적게 하다'의 뜻으로, 사동 접사 '-시키다' 없이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1214	7	기가	중학교	3	소통	2211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별 복지 요구 사항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별 복지 요구 사항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1215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11	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보육 시설에 공공 재원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 보육 시설에 공공 재원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을 '공'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공공'으로 수정한다.
1216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12	모동별 협동이 잘 되었는가?	모동별 협동이 잘되었는가?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17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222	미끄럽지 않는 바닥 마감재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여기에서 '않다'는 형용사 '미끄럽다'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말이므로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않다' 뒤에는 형용사의 현재 관형형 어미 '-은'이 붙는 것이 적절하다.
1218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12	발광 다이오드 한 쪽 에 저항기를 꽂아 고정한다.	발광 다이오드 한쪽 에 저항기를 꽂아 고정한다.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을 의미하는 '한쪽'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19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12	부모됨 에 적응하기	부모됨 에 적응하기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되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에 붙는다. '부모'는 그렇지 않으므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220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21	손자녀 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기 2안) 손주 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기	1안) 손자, 손녀 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기 2안) 손주 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하기	'손자녀'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1안과 같이 '손자, 손녀'로 분리하거나, 2안과 같이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손주'로 수정한다.
1221	7	기가	중학교	3	소통	2211	육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구를 충족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1222	7	기가	중학교	3	소통	2231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 있어서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에 있어서'는 일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한다.
1223	7	기가	중학교	3	정확	1112	희전이 잘 되도록 하는	희전이 잘되도록 하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24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3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따옴표를 쓴다. 작은따옴표는 이미 인용한 말 안에 인용하는 문장이 또 포함되어 있을 때에나, 마음속 생각을 쓸 때 사용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25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각종 의약품의 개발로 인류의 건강을 1)증진시키고 수명을 2)연장시켰다.	각종 의약품의 개발로 인류의 건강을 1)증진하고 수명을 2)연장했다.	1) '증진하다'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26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각종 의약품의 개발로 인류의 건강을 1)증진시키고 수명을 2)연장시켰다.	각종 의약품의 개발로 인류의 건강을 1)증진하고 수명을 2)연장했다.	2) '연장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27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각종 재료를 규격화하여 설계나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각종 재료를 규격화하여 설계나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증대하다'는 "양이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지다. 또는 양을 늘리거나 규모를 크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가 필요 없다.
1228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게임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하다'의 의미인 '그만두다'는 하나의 단어임으로 붙여 쓴다.
1229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게임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난다.	게임을 못 하게 되면 화가 난다.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고자 한다면 '노래를 못하다'와 같이 '못하다'를 붙여 쓰고,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할 수 없거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으로 쓰고자 한다면 '노래를 못 하다'와 같이 '못 하다'를 띄어 쓴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능력이나 수준이 안 되어 게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못 하다'와 같이 띄어 쓴다.
1230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4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녹색 생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녹색 생활에 대한 관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등 통칭하게 나열된 다른 명사구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의 구들인 반면, '녹색 생활'만 특정한 어떤 정적 상태를 지칭하는 명사구기에 대등한 나열이 어색하다. 특히, 교과 내용을 볼 때에도 '녹색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녹색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며 그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짜여 있기에, 단순히 '녹색 생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가 아니라 '녹색 생활에 대한 관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로 서술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도 적절하다.
1231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그만 두기 가 어렵다.	그만두기 가 어렵다.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하다'의 의미인 '그만두다'는 하나의 단어임으로 붙여 쓴다.
1232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능력을 극대화한다.	'극대화하다'는 "아주 커지다. 또는 아주 크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33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단추로 안자락을 고정시킨 다음, 아래와 같이 고름을 맨다.	단추로 안자락을 고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고름을 맨다.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여 있거나 붙여 있게 하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34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222	사회성에 바탕한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바탕(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기초/타고난 성질이나 재질. 또는 체질.)을 하는 것'이 의미상 불가능하기에, 명사 '바탕'에 접사 '하다'가 붙은 '바탕하다'는 어색한 말이다. '바탕으로 하다, 바탕에 두다' 정도의 표현이 자연스럽다.
1235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동의 접사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36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u>소외 받기</u>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u>소외받기</u>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여기에서의 ‘받다’는 서술성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237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아침 식사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두뇌 활동을 <u>1)촉진시켜</u> 학습 효과를 <u>2)향상시킨다</u> .	아침 식사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두뇌 활동을 <u>1)촉진해</u> 학습 효과를 <u>2)향상한다</u> .	1) ‘촉진하다’는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38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아침 식사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두뇌 활동을 <u>1)촉진시켜</u> 학습 효과를 <u>2)향상시킨다</u> .	아침 식사는 뇌에 포도당을 공급하여 두뇌 활동을 <u>1)촉진해</u> 학습 효과를 <u>2)향상한다</u> .	2) ‘향상하다’는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다. 또는 나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39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안고름이나 스ně으로 안자락을 <u>고정시킨다</u> .	안고름이나 스ně으로 안자락을 <u>고정한다</u> .	‘고정하다’는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40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22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의 장노출로 찍는 동안 손전등으로 카메라를 향해서 <u>글자를 허공에 쓰면 사진에 찍힌다</u> .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의 장노출로 찍는 동안 손전등으로 카메라를 향해서 <u>글자를 허공에 쓰면 글자가 사진에 찍힌다</u> .	앞서 ‘글자’는 서술어 ‘쓰다’의 목적어로 쓰였고, 뒤이어 ‘찍히다’의 주어로 쓰였다. 비록 앞에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문장 성분이 동일하지 않기에 생략되면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문장 내 성분 간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찍히다’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적는 것이 적절하다.
1241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31	<u>어플리케이션</u>	<u>애플리케이션</u>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용례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application’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과서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혼용하여 쓰고 있어 통일이 필요하다.
1242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우리 모두 팔을 <u>건어 붙여야</u> 합니다.	우리 모두 팔을 <u>건어붙여야</u> 합니다.	‘소매나 바짓가랑이 따위를 말아 올리다’라는 의미의 ‘건어붙이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43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음식물 쓰레기를 <u>건조시켜</u>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u>건조하여</u>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조하다’는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애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44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u>의사 소통</u> 능력도 필요합니다.	<u>의사소통</u> 능력도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45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221	<u>이 교과서가</u> 현대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 <u>살</u> 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생활의 <u>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u> 갈 수 있기를 바란다.	<u>이 교과서가</u> 현대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 <u>살</u> 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생활의 <u>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u>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어가 ‘이 교과서’가 인데, 서술어는 ‘실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여서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이 교과서가 (학습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도로 주술 호응이 맞도록 수정한다.
1246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이 어명을 잘 전해야 <u>할텐데</u> .	이 어명을 잘 전해야 <u>할 텐데</u> .	‘텐데’는 ‘터인데’의 준말이다. ‘터인데’에서 ‘터’는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247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인간의 능력을 <u>축소시킨다</u> .	인간의 능력을 <u>축소한다</u> .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하다’를 뜻하는 ‘축소하다’는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가 필요 없다.
1248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인수가 입는 교복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u>집안</u> 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수가 입는 교복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u>집 안</u> 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명사 ‘집안’은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 또는 가까운 일가’라는 의미이다. 밑줄 친 ‘집 안’은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집의 안쪽’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49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222	청소년기가 되면 독립을 생각하면서 '자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독립을 생각하면서 '자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은 사람으로 무정 명사에 쓰이는 '예'보다는 유정 명사에 쓰이는 '예게'가 자연스럽다.
1250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집단과의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인간관계'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51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변환하다'는 '달라져서 바뀌다. 또는 다르게 하여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52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표지에 책임, 지은이, 출판사 등을 써서 완성시킨다.	표지에 책임, 지은이, 출판사 등을 써서 완성한다.	'완성하다'는 '완전히 다 이루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아도 해당 문맥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1253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제시한 것이 식사 구성안이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제시한 것이 식사 구성안이다.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의 의미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54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학생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다'는 '상대편이 이쪽 편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다'의 의미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동사 '설득하다'의 표준국어대사전 속 용례를 살펴보면, "경찰이 가솔한 아이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와 같이 쓰고 있다.
1255	9	기가	중학교	1	정확	1112	한 글자를 허공에 쓰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한 글자를 허공에 쓰는 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밑줄 친 부분에서의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1256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혹독한 추위를 완화시키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혹독한 추위를 완화하는 단열재 역할을 한다.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다'의 뜻을 지닌 '완화하다'는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57	9	기가	중학교	1	소통	2211	효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시켜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효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해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분해하다'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날날으로 나누다'의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258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22	()는(은)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발생시키는 기술이며, 동물 복제에 주로 이용된다.	()는(은)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무엇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며, 동물 복제에 주로 이용된다.	'무엇을' 발생시키는지 '발생시키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문장 구성도 어색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발생시키는 것이 해당 기술인지 밝혀 적어 줄 필요가 있다.
1259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2	"RFID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4개 분야 이외에도 (중략) 기술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FID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4개 분야 이외에도 (중략) 기술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는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간접 인용 시에 사용하는 조사이다. 큰따옴표와 함께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쓴다.
1260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3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1)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작은따옴표를, 뒷부분에서는 큰따옴표를 쓰고 있어, 문장 부호를 통일되게 할 필요가 있다.
1261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1)세탁?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2)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 기에는 잘못된 세탁 방법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2) 인용 시에 사용하는 '하다'는 동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62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3	1)2)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	1)2)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	1) '형제자매'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이므로 굳이 붙임표를 붙여 쓸 필요가 없다. 붙임표를 삭제한다.
1263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1)2)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	1)2)형제자매 간의 경쟁의식	2) '사이'를 의미하는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264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115대1	115 대 1	한글 맞춤법 제45항에서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대'와 같은 말들을 띄어 쓴다고 언급하고, 그 해설에서 '5 대 3'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15 대 1'로 수정한다.
1265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가마는 안에 사람이 앉고, 앞뒤에서 둘 또는 네 사람이 아래쪽에 붙은 가마 채 를 손으로 들거나 끈으로 매어 운반하는 수송 수단이다.	가마는 안에 사람이 앉고, 앞뒤에서 둘 또는 네 사람이 아래쪽에 붙은 가마채 를 손으로 들거나 끈으로 매어 운반하는 수송 수단이다.	'가마 밑 양편에 앞뒤로 나오게 세로로 지르는 기다란 나무'를 뜻하는 '가마채'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66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311	가족은 사회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가족은 성적 기능, 자녀 출산의 기능, 생산과 소비의 기능, 애정의 기능,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 오락의 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녀의 출산은 가족만이 담당하는 고유한 기능이고,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은 현대 사회가 삭막해져 수록 더욱 강조되는 기능이다.	가족은 사회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가족은 성적 기능, 자녀 출산의 기능, 생산과 소비의 기능, 애정의 기능,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 오락의 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가족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자녀의 출산은 가족만이 담당하는 고유한 기능이고,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의 기능은 현대 사회가 삭막해져 수록 더욱 강조되는 기능이다.	반복된 역접의 접속 부사(하지만, 그러나)로 인해, 문장 간 구성이 어색해 보인다. 모든 문장을 접속 부사 등을 이용해 연결하는 것보다 적절히 생략하는 것이 문장 간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기에, 지나친 접속 부사 사용을 지양하고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나'로 이어진 문장은 '~하더라도'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나'가 생략되어도 전혀의의상 문제가 없기에 '그러나'는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267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가족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성적이었는지 되돌아 본다 .	가족의 문제 해결 방법이 이성적이었는지 되돌아본다 .	'되돌아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68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개인을 성장하고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개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하게 한다.	동사 '성장하다'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다'의 뜻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어로 쓰인 '개인'이 사실은 동사 '성장하다'의 주어여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된다. 따라서 '개인'을 목적어로 두고 문장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명사 '성장'에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시키다'를 붙여 '개인을 성장시키고'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적절하다.
1269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다.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낼 때의 '지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1270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교류 발전기는 고정자의 안쪽에서 회전자가 회전하면 전자 유도 작용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하는 장치이다.	교류 발전기는 고정자의 안쪽에서 회전자가 회전하면 전자 유도 작용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장치이다.	'발생하다'는 자동사이고 의미상으로는 문법적으로 '전기'는 동사 '발생하다'의 주어이지 목적어가 아니다. 따라서 문장 내의 호응을 고려하여 밑줄 친 부분에는 동사 '만들다' 정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71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을 연계 시켜 소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할 내용을 연계하여 소개하였다.	동사 '연계하다'는 '잇따라 매다'의 의미이기에 굳이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상 무리가 없다.
1272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끝 부분 에 맞추어	끝부분 에 맞추어	'끝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73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난 우리 선생님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난 우리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명사 '선생님'과 형용사 '같다',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74	9	기가	중학교	2	공공	3111	다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에 v표를 해 보고, 다른 가족원의 생각과 비교해 보자. (중략) v표가 많을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요. (중략) <사회> 0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찬성한다. 0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늘려야 한다. 0 남자가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여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 데 찬성한다.	(시대에 맞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해당 활동은 가정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학교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사회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회 내에서의 인식 관련 질문 3개 중 2개가 밑줄 친 문항이다. 여자들의 정치 참여권 인정은 100년이 지난 일이며, 자녀를 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재 사회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애 이러한 질문은 '양성평등 의식' 확인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쳐져 있을뿐더러,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남성 중심적으로 보인다.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75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다진 파 2작은 술	다진 파 2작은 술	'작은술'은 음식물을 손가락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운데 하나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76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동력 기관은 에너지를 변환하여 동력을 발생 하는 기계 장치로	동력 기관은 에너지를 변환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 장치로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로 자동사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어로 쓰인 '동력'이 문법적으로는 사실 동사 '발생하다'의 주어가 되어야 적절하다. '동력'을 목적어로 구성하고 싶다면, '발생하다'보다는 '발생시키다'를 써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적절하다.
1277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11	떡 케이크: 시루에 찌는 떡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서양 음식인 케이크의 모양으로 혼합 한 퓨전 음식	떡 케이크: 시루에 찌는 떡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서양 음식인 케이크의 모양으로 만든 퓨전 음식	'혼합하다'는 '무엇과 무엇을 혼합하다'와 같이 사용되므로, "우리 전통과 서양식 방법을 혼합한 퓨전 음식"과 같은 문장은 성립하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무엇과 무엇으로 혼합하다'로 쓰이는 것은 어색하다. 여기에서는 '만들다'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나 문장 구성의 측면에서 적절하다.
1278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2	또한, 근린 지역의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과 동시에 지역 사회 이웃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근린 지역에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과 동시에 지역 사회 이웃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처소가 '근린 지역'이므로, '근린 지역' 뒤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279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바느질 법	바느질법	'바느질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80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발효란 미생물이나 균류를 이용하여 동물이나 식물을 분해 시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발효란 미생물이나 균류를 이용하여 동물이나 식물을 분해해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분해'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날날로 나눔'의 뜻으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하다.
1281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보모원 에 대한 준비	보모 원 에 대한 준비	'되다'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붙어 파동의 뜻을 더하는 경우이므로, 밑줄 친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282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부 사이'를 뜻하는 '부부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83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부부관계 ,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 관계 ,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관계'는 한 단어가 아닐뿐더러, 앞에서도 계속해 띄어 쓰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84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빛이 아래로 직접 비추기 때문에 조명의 효과가 높으나 빛이 강하여 눈이 부시고, 눈에 피로를 준다.	빛이 아래를 직접 비추기 때문에 조명의 효과가 높으나 빛이 강하여 눈이 부시고, 눈에 피로를 준다.	동사 '비추다'는 타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해당 동사의 필수 성분이 갖추어지도록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285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산소를 줄 테니 이산화탄소를 달라!	산소를 줄 테니 이산화탄소를 달라!	'테니'는 '티이니'의 준말이다. '티이니'에서 '티'는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286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세 살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빠	세 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빠	관형사 '세', 의존 명사 '살', 동사 '되다',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287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의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가 불필요하다.
1288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의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가 불필요하다.
1289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신 난다.	신난다.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아지다'라는 뜻의 '신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90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애정과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애정과 결속력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증진하다'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 가고 나아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굳이 붙이지 않고, '증진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간결하다.
1291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22	열차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 선로와 열차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면서 양쪽의 다른 극이 잡아당긴다.	열차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 선로와 열차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면서 양쪽의 다른 극이 열차를 잡아당긴다.	동사 '잡아당기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어색하다. 무엇을 잡아당기는지 목적어를 밝혀 적으면, 문장 구성도 자연스럽게 되고 의미도 분명하게 된다.
1292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3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에 "반기를 나누어 도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작은따옴표는 인용할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여기에서는 속담을 인용한 경우이므로,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큰따옴표를 쓴다.
1293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 양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우주 왕복선의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양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주어가 '개발이'이고 선행절의 서술어는 '계속되다'이므로, 후행절에서도 주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앞선 주어와 동일할 터이니 서술어 역시 '중지하다'보다는 '중지되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1294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이러한 원리는 음성 신호를 증폭시키 는 앰프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원리는 음성 신호를 증폭하는 앰프 등에 사용된다.	'증폭'엔 '사물의 범위를 넓혀 크게 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295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이밖에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이 밖에 관심이 있는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직업을 찾아서 조사해 보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와,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을 이르는 '밖'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이 밖에'로 수정한다.
1296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일과 가정, 함께 할 수 있어요.	일과 가정, 함께할 수 있어요.	'함께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297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중에서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알추키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중에서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알추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추'는 '일정한 범위나 테두리를 줄임'의 뜻으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이지 않고 '알추하다'를 사용하여도 여기에서 의미가 충분하다.
1298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작동 하라!	작동하라!	'작동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299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조금 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밑줄 친 부분의 '만'은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00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21	조부모와 손자녀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1안)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2안) 조부모와 손주 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손자녀'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1안과 같이 '손자, 손녀'로 분리하거나, 2안과 같이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손주'로 수정한다.
1301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23	지구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이 중에는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환경을 정화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등 우리에게 이로운움을 주는 생명체가 많이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단순히 번식하거나 이용하는 정도였으나 , 오늘날에는 생명체의 구조와 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해야 함.)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 '과거에는 이들을 단순히 번식시켜 이용하는 정도였으나' 정도와 같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02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집적 회로는 여러 개의 전자 부품을 작은 반도체 판에 분리할 수 없도록 부착시킨 것으로	집적 회로는 여러 개의 전자 부품을 작은 반도체 판에 분리할 수 없도록 부착한 것으로	'부착'은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닮."이라는 의미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03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4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녹색생활 등이 부각되면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양육을 통한 돌봄 능력의 확대, 전 생애 설계를 통한 생활의 자립, 다문화적 가치의 이해와 의·식·주생활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 녹색 의·식·주생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등에 관한 이해와 체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녹색생활에 대한 필요 등이 부각되면서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양육을 통한 돌봄 능력의 확대, 전 생애 설계를 통한 생활의 자립, 다문화적 가치의 이해와 의·식·주생활을 통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 녹색 의·식·주생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등에 관한 이해와 체험이 중요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의 도래', '녹색생활'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앞서 두 가지는 문제 상황 또는 현재의 상황적 변화이고 마지막 '녹색생활'은 현재 문제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 또는 추구해야 할 바기에 대등하게 연결하기에는 층위가 맞지 않는다. 특히, 후행절에서 앞의 문제적 상황들에 따른 해결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더 어색해 보인다. '녹색생활에 대한 필요' 또는 '무분별한 소비와 발전' 정도와 같이 '녹색생활'이 추구되어야 하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이나 변화에 해당하는 말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304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추진력을 발생 하는 기관	추진력을 얻는 기관	'발생하다'는 자동사로 현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 '추진력'이 동사 '발생하다'의 주어이다. 여기에서는 타동사 '얻다' 정도를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적합하다.
1305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큰 뜻을 이용하여 면 바다 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뜻을 이용하여 면바다 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의미하는 '면바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306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발생 하는 기관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기관으로	'발생하다'는 자동사로 현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 '동력'이 동사 '발생하다'의 주어이다. 여기에서는 타동사 '얻다' 정도를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적합하다.
1307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교대로 접합시켜 만든 것으로, 접합 순서에 따라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다.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교대로 접합해 만든 것으로, 접합 순서에 따라 pnp형 트랜지스터와 npn형 트랜지스터가 있다.	'접합'은 '한데 대어 붙임'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08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22	특히 준수가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아빠를 데면데면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준수가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아빠를 데면데면해 충격을 받았다.	형용사 '데면데면하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준수가 아빠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이므로,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하다'가 있어야 한다. 생략된 '하다'를 붙여, '데면데면해하다'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1309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11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를 넣어 강화시킨 것이다.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를 넣어 강화한 것이다.	'강화'는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의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1310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112	한창 일할 나이인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네요.	여기서의 '데'는 어미가 아닌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이기에, 앞말과 띄어 쓴다.
1311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22	핵 치환은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발생시키는 기술로 ,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과 유전적으로 같은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다.	핵 치환은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무엇을) 발생시키는 기술로 ,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과 유전적으로 같은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다.	'무엇을' 발생시키는 지 '발생시키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 문장 구성도 어색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발생시키는 것이 '핵치환' 기술인지 밝혀 적어 줄 필요가 있다.
1312	9	기가	중학교	2	소통	2231	현재 전국적으로 360 개소 이상의 푸드 뱅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60 군데 이상의 푸드 뱅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개소(個所)'는 일역시 번역투 표현이므로 '군데'로 순화하여 쓴다.
1313	9	기가	중학교	2	정확	1221	회전 동력을 발생 하는 기관이다.	회전 동력이 발생 하는 기관이다.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자동사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으로 쓰인 '동력'이 동사 '발생하다'의 주어가 되어야 의미적으로나 문장 구성상 적절하다.
1314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3	'네, 아빠 .'라고 하는데요.	'네, 아빠 .'라고 하는데요.	작음따옴표는 '강조'를,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를 사용하였으므로 큰따옴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15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게다가 모노레일처럼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탈선할 위험도 없다." 고 말했다.	"게다가 모노레일처럼 레일 위에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탈선할 위험도 없다." 라고 말했다.	큰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를 쓴다. 조사 '고'는 간접 인용 시 사용한다.
1316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산모의 출혈량이 자연 분만의 2배가 되고 배를 절개하기 때문에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이 커진다." 고 말하였다.	"산모의 출혈량이 자연 분만의 2배가 되고 배를 절개하기 때문에 감염 등 합병증의 위험이 커진다." 라고 말하였다.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 시에는 조사 '고'를 쓴다. 여기에서는 큰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이기에 조사 '라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17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온라인 전기차는 도로 밑의 충전 인프라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전달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미리 충전할 필요가 없다." 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기차는 도로 밑의 충전 인프라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전달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미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설명했다.	큰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를 쓴다. 조사 '고'는 간접 인용 시 사용한다.
1318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제왕 절개는 이런 과정이 생략돼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제왕 절개는 이런 과정이 생략돼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 시에는 조사 '고'를 쓴다. 여기에서는 큰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이기에 조사 '라고'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319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행복이 물질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학계의 통설과도 일치한다." 고 설명했다.	"행복이 물질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학계의 통설과도 일치한다." 라고 설명했다.	큰따옴표를 이용한 직접 인용 시에는 조사 '라고'를 쓴다. 조사 '고'는 간접 인용 시 사용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20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 - 직장 이동 횟수가 늘어남 - 고용 형태가 달라짐 - 직종 구조의 변화가 빨라짐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산업과 직업의 발달 - 여가 산업 관련 직종 증가 - 신성장 동력 사업 관련 직업 종사자 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 - 직장 이동 횟수가 늘어남 - 고용 형태가 달라짐 - 직종 구조의 변화가 빨라짐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산업과 직업의 발달 - 여가 산업 관련 직종 증가 - 신성장 동력 사업 관련 직업 종사자 수 증가 	한글 맞춤법에서는 마침표와 관련하여,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라고 해서 마침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므로, 마침표 사용을 통일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전체를 마침표를 찍거나, 그것이 모든 내용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것이어서 어색하다면 전체를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1321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 자녀 양육 방식: 수용적 양육 태도, 거부적 양육 태도, 과잉보호적 양육 태도, 지배적 양육 태도, 과잉기대적 양육 태도 <u>없</u> .	· 자녀 양육 방식: 수용적 양육 태도, 거부적 양육 태도, 과잉보호적 양육 태도, 지배적 양육 태도, 과잉기대적 양육 태도 <u>가 있음</u> .	해당 부분은 '자녀 양육 방식'의 종류를 정리하여 나열한 것이다. 나열된 자녀 양육 방식 뒤에 '이다'가 붙는 것은 의미상 어색하다. '자녀 양육 방식'에는 '나열된 종류의 양육 태도' 등이 속해 있는 것이므로 서술어를 굳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있다' 정도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22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u>1)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는</u>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이 자유로우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몰두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u>2)못 하며</u> 고독감이 커질 수 있다.	<u>1)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u>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이 자유로우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몰두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u>2)못하며</u> 고독감이 커질 수 있다.	1) 독신 가족 형태는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족 형태이다. 따라서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는'보다,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은'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상 자연스럽다.
1323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u>1)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는</u>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이 자유로우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몰두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u>2)못 하며</u> 고독감이 커질 수 있다.	<u>1)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u> 독신 가족은 개인 생활이 자유로우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구속감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에 몰두할 수 있지만 가정생활이 주는 안정과 행복을 느끼지 <u>2)못하며</u> 고독감이 커질 수 있다.	2)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이는 '못하다'는 보조 용언으로, 한 단어이므로 띄지 않고 붙여 쓴다.
1324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가족 중에서 <u>힘들어 하는</u> 사람이 있는지	가족 중에서 <u>힘들어하는</u> 사람이 있는지	형용사 뒤에서 '-어하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짐'을 나타내는 경우의 '하다'는 앞말에 붙여 쓴다.
1325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생활의 기본 집단이며, 인간의 삶의 의미이기도 <u>한다</u> .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생활의 기본 집단이며, 인간의 삶의 의미이기도 <u>하다</u> .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나 하다' 따위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일단 긍정하거나 강조함을 나타내는 말인 '하다'의 경우, '-기는, -기도, -기나'에서 '-기' 앞에 형용사가 쓰이면 보조 형용사, '-기' 앞에 동사가 쓰이면 보조 동사가 된다. '이다'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나, 학자에 따라서는 '형용사'로 분류하는 등 그 성격이 형용사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도 보조 형용사 '하다'와 같이, 현재 시제일 경우 '명사+이기도 하다'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다'는 동사 어간에 붙는 현재 시제 어미이다.
1326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u>1)역할 분담은</u> , 가족 구성원 간의 <u>2)위계 질서를</u>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u>분담하기보다는</u>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u>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u> .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u>1)역할은</u> , 가족 구성원 간의 <u>2)위계질서</u> 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u>분담하기보다는</u>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u>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u> .	1) '분담하기보다는', '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의 주어가 '역할 분담'으로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를 서술어에 맞게 '역할'로 수정한다.
1327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u>1)역할 분담은</u> , 가족 구성원 간의 <u>2)위계 질서를</u>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u>분담하기보다는</u>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u>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u> .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가정 내 <u>1)역할은</u> , 가족 구성원 간의 <u>2)위계질서</u> 를 존중하되, 성별에 따라 <u>분담하기보다는</u> 건강과 능력, 취업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u>분담하고 재조정해야 한다</u> .	2) '관등(官等)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차례와 순서'를 나타내는 '위계질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28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기관의 마찰과 소음을 줄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관의 마찰과 소음을 줄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장치로	동사 '연장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의 의미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접사 '-시키다'를 통해 사동의 의미를 더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한다.
1329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낮잠 잘 거야.	낮잠 잘 거야.	의존 명사 '거'는 '잘 거야'와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1330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당신말 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당신 말 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당신'과 '말'은 각각 다른 단어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331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111	대문: 도로에서부터 현관까지 불필요한 단차 는 없는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해야 함.)	해당 내용은,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 내 점점 사향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대문'과 관련한 점점 사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단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거나 추론할 수 없을뿐더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해당 문맥에 맞는 '단차'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고등학생이 독자이므로, 독자의 이해 수준에 알맞은 용어나 표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32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뒤처리가 안됨 .	뒤처리가 안 됨 .	'뒤처리가 되다'의 부정으로 쓰인 경우, 부정의 부사 '안'과 동사 '되다'는 서로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1333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배우자 선택, 결혼, 부모됨 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 선택, 결혼, 부모 됨 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되다'는 일부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사로써, 모든 단어에 붙는 것은 아니다. '부모 되다'의 경우, '사용되다, 형성되다'와 같이 피동의 뜻을 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접사 '-되다'가 붙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 되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므로, 각 단어별로 띄어 쓴다.
1334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2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 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1)헌신하려는 마음을 2)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 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1)서로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을 2)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동사 '헌신하다'의 경우 '예/에게' 또는 '을 위하여'와 같은 부사어를 논항으로 갖는다. 따라서 앞선 목적어 '서로를'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헌신하려는'과 같이 '헌신하다'에 알맞은 논항을 갖추어 쓸 필요가 있다.
1335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 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1)헌신하려는 마음을 2)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 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아껴주고 1)서로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을 2)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현 문장 전체의 주어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술어로 '확인해야 한다'가 쓰이고 있어 서로 호응이 되지 않고 있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시하는 기준은~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336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3	사리는 바느질이 안 된 긴 천의 형태로, 여자들이 착용하는 사리(sari)와 남자들이 입는 도티(dhoti)가 있다. 여성은 사리를 몸에 둘러 입고 천의 끝 부분은 어깨 뒤로 넘기거나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였다. 도티는 사리처럼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가 짧으며 대부분 흰색이다.	인도의 전통 의상은 바느질이 안 된 긴 천을 주로 활용하며, 여자들이 착용하는 사리(sari)와 남자들이 입는 도티(dhoti)가 있다. 여성은 사리를 몸에 둘러 입고 천의 끝 부분은 어깨 뒤로 넘기거나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였다. 도티는 사리처럼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가 짧으며 대부분 흰색이다.	해당 단락 전체에서 '사리'는 여성이 입는 옷, '도티'는 남성이 입는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문맥에서 '사리는 바느질이 안 된 긴 천의 형태로, 여자들이 착용하는 사리(sari)와 남자들이 입는 도티(dhoti)가 있다.'라고 한 맨 첫 문장은, 상응어가 '사리'이고 그 하위에 '사리'와 '도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여 '사리'의 개념 및 지칭하고 있는 범위가 혼란스럽다. '사리'가 혹은 동음이의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이 쓴다면 내용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동음이의어 노출을 피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1337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여건이 못돼 차선책으로	여건이 못 돼 차선책으로	'되다'의 부정 즉, '되지 못하다'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부사 '못'과 동사 '되다'이므로 단어별로 각각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38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올바른 가족 가치관 형성과 가족 간에 협력하여 서로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안) 올바른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족 간에 협력하여 서로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2안) 올바른 가족 가치관 형성을 돕고 가족 간에 협력하여 서로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 가치관 형성'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기에 '가족 가치관 형성'과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이 동일한 층위에서 연결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가족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는 '가족 가치관 형성을 돕고'와 같이 '가족 가치관'과 관련한 서술어를 명기하여 대등한 구조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한다.
1339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우주 공간에까지 이르게되었다.	우주 공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동사 '이르다'와 '되다'는 각기 다른 단어로, 단어별로 띄어 쓴다.
1340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이러한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 교과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충족해 주기 위하여 이 교과서는	동사 '충족하다'는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하다'의 뜻으로, "국민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다."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 접사 '-시키다'를 통해 사동의 뜻을 더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가 충분히 성립된다.
1341	7	기가	고등학교		공공	3111	이성 교제: 1)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이성 교제: 1)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을 높이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1) 해당 문장은 '이성 교제'와 관련한 소단원의 본문 낱개에서 '이성 교제'의 뜻풀이를 제시한 문장이다. 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이지만 '이성 교제'가 '청소년기에 이성을 사귀는 일'에만 한정되어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에 뜻풀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 '이성 교제는 가족, 친구, 종매인의 소개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 학교, 직장, 종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귀거나'와 같은 내용도 다루고 있는 등 일반적인 모든 시기에 해당하는 '이성 교제'를 다루고 있기에 현 문장과 같이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로' 이성 교제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내용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에서 시기를 나타내는 부사어 '청소년기에'는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42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이성 교제: 1) 청소년기에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이성 교제: 1)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이성을 사귀는 일'을 말한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2)가능성을 높이고 결혼 후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게 작용함.	2) 문맥상 그리고 후행절의 서술어 '중요하게 작용함'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문장의 주어는 '이성 교제'이다. 그렇다면 해당 문장의 선행절 주어가 두 개 등장하는 것이 되므로, 주어를 '이성 교제'로 설정하고 목적어를 '가능성'으로, 그리고 서술어는 이들과 호응할 수 있도록 '높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343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이성 교제하는 동안	1안) 이성 교제 하는 동안 2안) 이성과 교제하는 동안	접사 '-하다'는 일부 명사나 의성어, 의태어, 어근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명사가 아닌 '이성 교제'라는 구 구성에 붙어 어색하다. 1안) '이성 교제를 하는 동안'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것으로 보거나, 2안) '교제'라는 명사에 접사 '-하다'가 붙어 생성된 동사 '교제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344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전 잘 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할래요.	전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할래요.	'사람의 얼굴이나 풍채가 흰하여 홀륭하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 '잘생기다'는 한 단어이다.
1345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전문의가 아닌 곳에서 시술 받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의가 아닌 곳에서 시술받을 가능성이 있음.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경우의 '-받다'는 접사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46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좀 더 잘해 드릴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쳐서	좀 더 잘해 드릴걸 하는 후회가 가슴을 쳐서	밑줄 친 부분은 동사 '드리다'에, 혼잣말에 쓰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나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 가버운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ㄴ걸'이 결합된 것이므로 '드릴걸'과 같이 붙여 쓴다.
1347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직업을 단지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직업을 단지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의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쓴다.
1348	7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31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어 번역투인 '~에 있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번역투 표현을 지양하고 좀 더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한다.
1349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채광과 환기가 잘되도록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의 뜻을 의미하는 '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350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CH ₄) 가스로 구성되어 연소성이 좋고, 액화 과정에서 분진이나 황, 질소 등이 제거되어 연소 시 공해 물질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연료이다.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CH ₄) 가스로 구성되어 연소성이 좋고, 액화 과정에서 분진이나 황, 질소 등이 제거되어 연소 시 공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연료이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동사 '발생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일뿐더러, 의미상 '발생하다'의 주어가 '공해 물질'이기에, '공해 물질' 뒤에는 주격 조사 '이'가 붙는 것이 적절하다.
1351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커피값	커피값	'값'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므로, '커피값, 우윳값'과 같이 붙여 쓴다.
1352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풍차와 물레방아 는 오래전부터 자연에너지를 생활에 필요한 동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사용하였다 .	풍차와 물레방아 는 오래전부터 자연에너지를 생활에 필요한 동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	여기에서는 '풍차와 물레방아'가 주어이므로 서술어로 '사용되었다'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혹, '풍차와 물레방아'가 목적어로 쓰이고 주어진 '사람들은'이 생략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풍차와 물레방아' 뒤에 보조사 '은/는'보다 목적격 조사 '를'이 오는 것이 문장 구성상 적절하다.
1353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해수 온도차 를 이용한	해수 온도 차 를 이용한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었을 때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수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차'는 하나의 단어로, 접사처럼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단어별로 '온도 차'와 같이 띄어 쓴다.
1354	7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11	회전 날개를 경사시킴 으로써 양력과 동시에 비행 방향으로의 분력(分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진은 물론 후퇴나 좌우 비행 또는 공중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의미에 맞는 단어로 표현)	'경사시키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혹, '비스듬히 기울게 하다'의 의미로 '경사시키다'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어색한 표현이므로, '회전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게 하여' 또는 '회전 날개를 경사지게 하여'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355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3	'슬관이 인생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실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한다.	"슬관이 인생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실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한다.	작은따옴표는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큰따옴표를 쓰므로, 여기에서는 큰따옴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56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큰 유리창을 통해서 언제나 행성 '지구'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하겠다." 고 전했다.	"큰 유리창을 통해서 언제나 행성 '지구'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전했다.	조사 '고'는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간접 인용에 사용하며, 큰따옴표와 함께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라고'를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57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 정보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등장할 맥락이 아니어서,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색하다. 문맥상 '개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58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각 국가가 부여 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밑줄 친 부분의 '·받다'는 서술성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59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각종 요리를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제공 받는다 .	각종 요리를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제공받는다 .	밑줄 친 부분에서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60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21	건강한 식의주 문화 등이 필요하다.	건강한 의식주 문화 등이 필요하다.	'식의주'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사전에 등재된 '의식주'라는 단어로 대체하거나, 단어의 구성 차례에 맞추어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가운뎃점을 활용하여 '식·의·주'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361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4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밑줄 친 부분은 "자원의 절약"이라는 명사구와 "환경을 보존하는"이라는 동사의 관형형이 대등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서로 대등한 문법적 지위를 지닌 항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1362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독점권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독점권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밑줄 친 부분에서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63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31	무선 메쉬 네트워크	무선 메시 네트워크	'Mesh Network'에서 'mesh'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 '메시'로 표기한다. 또한 이는 '그물망' 정도로 순화하여 쓸 수도 있다.
1364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쓰레기를 줄여	물건의 수명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줄여	'연장'은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의 의미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1365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본문 중에 용어 설명이나 보조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제시하여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본문 중에 용어 설명이나 보조 내용이 필요한 경우 제시하여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동사 '확장하다'는 '범위, 규모, 세력 따위를 늘려서 넓히다'의 뜻으로, 해당 문맥에서 굳이 접사 '-시키다'를 붙이지 않아도 의미가 충분히 통한다. 따라서 '확장시키다'보다는 '확장하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1366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사람이 1)한번 에 많은 작업을 하지 2)못 한다 는 문제	사람이 1)한 번 에 많은 작업을 하지 2)못한다 는 문제	1)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으로 띄어 쓴다.
1367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사람이 1)한번 에 많은 작업을 하지 2)못 한다 는 문제	사람이 1)한 번 에 많은 작업을 하지 2)못한다 는 문제	2)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부정을 뜻하는 보조 동사 '못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368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생각해 불만한 글귀를 제시하였으며	생각해 불 만한 글귀를 제시하였으며	용언 뒤에서 '-을 만하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대상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정도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만하다'는 보조 형용사로, 동사 '보다'의 관형형 '불'과 보조 형용사 '만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연번	교육 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69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세탁 후 완전히 건조시키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며	세탁 후 완전히 건조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며	'건조'는 "물이나 습기가 말라서 없어짐. 또는 물이나 습기를 말라서 없앴"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접사 '-하다'를 붙여 동사를 만든다. 실제로 동사 '건조하다'는 '물이나 습기를 말라서 없애다'의 의미이다.
1370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원격 제어 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원격 제어를 한다.	목적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서술어 '한다'와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목적어와 호응되는 서술어를 밝혀 적는다.
1371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네.	밀줄 친 부분에서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72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2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부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신이 사 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 팔기 때문에 붙여졌다.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트렁크를 '부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신이 사 용하던 물건들을 가져와 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서술어 '붙여졌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문장이 어색하다. 주어를 밝혀 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하고 정보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1373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3	예린이네 가정 헌법 목적: 화목하고 행복한 예린이네 가정을 위해 행복 헌법을 제정한다. (중략) 제4조. 좋은 말은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	예린이네 가정 헌법 목적: 화목하고 행복한 예린이네 가정을 위해 행복 헌법을 제정한다. (중략) 제4조. 좋은 말은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을 텐데, '좋은 말' 뒤에 보조사 '은'이 붙어 '하루에 한 번'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한정하는 의미로 읽히기에 전체 문맥상 어색하다. "좋은 말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와 같이 한정어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좀 더 의미를 살려 "좋은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와 같이 문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374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함. 또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함."이라는 의미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접사 '-시키다'를 붙일 필요가 없다.
1375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인공 장기 전문가 등이 각광을 받고 우대 받 을 것이다.	인공 장기 전문가 등이 각광을 받고 우대받을 것이다.	밀줄 친 부분에서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76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자녀에게는 절약 정신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교육시키며	자녀에게는 절약 정신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교육하며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의 뜻으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일 필요가 없다.
1377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자신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버록시장에 파는데, 버록시장은 중고품을 파는 프랑스의 노천 시장이다.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버록시장에 파는데, 버록시장은 중고품을 파는 프랑스의 노천 시장이다.	형용사 뒤에서 '-지 않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않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로 '-는'이 아닌 '-은'을 쓴다.
1378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재료와 공구 등의 뒷정리를 잘 하였는가?	재료와 공구 등의 뒷정리를 잘하였는가?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잘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379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제도를 잘 하려면 제도 용구의 명칭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제도를 잘하려면 제도 용구의 명칭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옳고 바르게 하다, 좋고 훌륭하게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잘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380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주민들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주민들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동사 '개선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굳이 사동의 접사가 필요하지 않다.
1381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진로여행	진로 여행	'진로여행'은 한 단어가 아니기에, 단어별로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82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교통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교통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접목'은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조화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미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383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22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등 사람이 일생 동안 신분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할 때, 평안을 보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의 이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성장 과정과 함께 행하는 의식이다.	출생, 성년, 결혼, 사망 등 사람이 일생 동안 신분 변화를 겪고 새로운 역할을 획득할 때, 평안을 보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의 이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성장 과정과 함께 행하는 의식이다.	'신분 변화'와 '새로운 역할' 모두에 서술어 '획득하다'를 쓰는 것은 의미상 어색하다. '신분 변화'에 호응되는 서술어가 따로 필요하다.
1384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적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의 의미로,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굳이 사동의 접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1385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112	폐기를 에너지화 연구원 등이 촉망 받는 직업이 될 전망이다.	폐기를 에너지화 연구원 등이 촉망받는 직업이 될 전망이다.	말줄 친 부분에서의 '받다'는 서술성이 있는 명사 뒤에 쓰여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1386	9	기가	고등학교		소통	2211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비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필요를 충족하는 소비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의 뜻으로, 사동의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동 접사 '-시키다'를 붙일 필요가 없이 '-하다'만으로 충분하다.
1387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2	현재 우리 가족 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 가족 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쓰여, '가족'이라는 사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명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다. 이때는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며 유정 명사에 쓰이는 '에게'가 자연스럽다.
1388	9	기가	고등학교		정확	1221	현재의 기술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술 세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기술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술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어가 '현재의 기술'이며 미래의 대상 또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 미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사어 '전혀 다른 기술 세상으로'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기술 세상'이 아닌 '기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389	7	음악	초등학교	5	정확	1112	1)숲 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노랫 소리 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숲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노랫소리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 '숲 속'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숲속'은 한 단어이므로 '숲속'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1390	7	음악	초등학교	5	정확	1112	1)숲 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노랫 소리 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숲속 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2)노랫소리를 듣고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2) '노랫 소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노랫소리'는 한 단어이므로 '노랫소리'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1391	7	음악	초등학교	6	소통	2112	TV 광고, 드라마 음악	텔레비전 광고, 드라마 음악	'텔레비전'이라는 외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TV'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1392	7	음악	초등학교	6	정확	1111	구성음의 갯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구성음의 개수 와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지요.	'갯수'를 '갯수'로 잘못 표기하였다. '갯수(個數)'는 [개·수]와 같이 발음되지만,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1393	7	음악	초등학교	6	정확	1112	김기영의 '비단 줄' 뒷부분에 나타난 노랫소리의 시김새(떨거나 꺾는 소리)와 악기 소리의 흐름을 여러 가지 색의 줄로 그려 봅시다.	김기영의 '비단 줄' 뒷부분에 나타난 노랫소리의 시김새(떨거나 꺾는 소리)와 악기 소리의 흐름을 여러 가지 색의 줄로 그려 봅시다.	'떨는소리'와 '꺾는소리'는 각각 한 단어이지만 '떨거나 꺾는소리'에서 '소리'는 '떨거나 꺾는'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떨거나 꺾는 소리'와 같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394	7	음악	초등학교	6	정확	1112	색점선대로 악보를 접고 3박자 지휘와 리듬 반주에 맞추어 게이름으로 노래해 봅시다.	색 점선대로 악보를 접고 3박자 지휘와 리듬 반주에 맞추어 게이름으로 노래해 봅시다.	'색점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색'과 '점선'은 각각 한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1395	7	음악	초등학교	6	정확	1112	얹 손 으로 무릎을칩니다.	얹손 으로 무릎을칩니다.	'얹 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얹손'은 '얹쪽 손'을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96	7	음악	초등학교	6	소통	2231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 이 활동의 큰 방향을 안내합니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통해 활동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이 안내의 주체인 것처럼 기술된 영어식 번역투 표현이다. '중단원의 주제 및 설명'을 목적으로 수정하여 학습자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1397	7	음악	초등학교	6	소통	2112	휴대 전화 광고 음악, 드라마 OST 등	휴대 전화 광고 음악, 드라마 삽입 음악 등	교과서에서 'OST'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2002)에 따라 '삽입 음악'으로 표기한다.
1398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교과서를 크게 '즐거운 음악'과 ' 신 나는 음악'으로 구분하였고, 즐겁고 신 나는 음악을 8개의 작은 단원으로 나누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를 크게 '즐거운 음악'과 ' 신나는 음악'으로 구분하였고, 즐겁고 신나는 음악을 8개의 작은 단원으로 나누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신 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는'으로 붙여 써야 한다.
1399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신 난다	신난다	'신 난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난다'로 붙여 써야 한다.
1400	9	음악	초등학교	3, 4	소통	2221	신라 시대 때부터 전해 오는 신비한 피리(대금)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전해 오는 신비한 피리(대금) 이야기를 가사로 만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시대'와 '때'의 의미가 일정 부분 중복된다. '때'를 삭제하고 조사 '부터'를 '신라 시대' 뒤에 바로 붙여 쓴다.
1401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어떻게 누나가 연주하는 걸 한번 듣고 따라 할 수 있지?	어떻게 누나가 연주하는 걸 한 번 듣고 따라 할 수 있지?	'한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 '한 번'과 같이 띄어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번'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402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연습은 한거냐?	연습은 한 거냐?	'한거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거'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한'과 띄어 써야 한다.
1403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음악을 즐겁고 신 나게 배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음악을 즐겁고 신나게 배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신 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게'로 붙여 써야 한다.
1404	9	음악	초등학교	3, 4	소통	2213	청어는 등은 푸르고 배는 은백색 의 물고기입니다.	청어는 등은 푸르고 배는 은백색인 물고기입니다.	'은백색의 물고기'는 자연스럽지만, '~배는 은백색의 물고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사용하여 '~배는 은백색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05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친구들과 함께 메기고받으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1안) 친구들과 함께 메기고받으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2안) 친구들과 함께 메기고받으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초음5-6(지학사, 46, 89쪽)에서는 '메기고 받으며'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교과서 편수 자료에서는 '메기고받느소리', '메기는소리'를 국악 분야의 용어로 제시하고 있으나 '메기고 받다'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메기고받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1406	9	음악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친구와 함께하는 등·하굣길이 신 나고 즐겁다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등·하굣길이 신나고 즐겁다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신 나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고'로 붙여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07	9	음악	초등학교	3, 4	소통	2213	힘박는 내리는 모습과 여기저기 쌓여 있는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곡입니다.	힘박는 내리는 모습과 여기저기 눈이 쌓여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곡입니다.	'여기저기 쌓여 있는'이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수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눈이 쌓인 것이지 풍경이 쌓인 것은 아니므로 수식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풍경이 쌓인 것이 아니라 눈이 쌓인 풍경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수식 구조를 조정한다.
1408	9	음악	초등학교	5, 6	정확	1112	가락선 을 그리며 노래를 불러 봅시다.	(‘가락선’, ‘가락 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과서별로 일관되게 표기해야 함.)	초등학교 음악 3-4학년 교과서(동아출판, 39쪽)에서는 ‘가락 선’으로 표기하고 있어, 띄어쓰기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가락선’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 편수 자료(2011년 발간)의 편수 용어에도 제시된 바 없다.
1409	9	음악	초등학교	5, 6	정확	1112	일본의 도쿠시마현 에서 열리는 축제	일본의 도쿠시마 현 에서 열리는 축제	‘도쿠시마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편수 자료에서는 산맥, 산, 강, 사막, 운하 등이 외래어 지명에 붙을 때는 띄어 쓰고 고유어·한자어 지명에 붙을 때는 붙여 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시아바라현 → 시아바라 현’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도쿠시마’가 외래어이므로 ‘현’과 띄어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1410	9	음악	초등학교	5, 6	정확	1112	축제에서 음악은 흥을 돋우고, 신 나는 분위기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축제에서 음악은 흥을 돋우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신 나는’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다’으로 붙여 써야 한다.
1411	9	음악	초등학교	5, 6	소통	2111	피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로, 취구에 서 를 꽂아 연주합니다.	(‘서’에 대한 뜻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서’는 음악 분야 전문어로 ‘관악기의 발음원이 되는 얇은 진동판’을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므로 뜻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1412	7	음악	중학교	1	소통	2213	1)사람들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작곡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노래로 표현되며 악기로 연주되는지 지금부터 2)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보자.	1)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작곡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노래로 표현되며 악기로 연주되는지 지금부터 2)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보자.	1) “사람들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과 같은 표현은 수식 구조의 반복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수정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1413	7	음악	중학교	1	정확	1112	1)사람들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이 작곡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노래로 표현되며 악기로 연주되는지 지금부터 2)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보자.	1)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작곡가들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노래로 표현되며 악기로 연주되는지 지금부터 2)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보자.	2) ‘이야기 보따리’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이야기보따리’는 ‘이야기주머니’를 뜻하는 한 단어이다.
1414	7	음악	중학교	1	소통	2112	1비트(beat)의 다운(down)이 정확하게 맞도록 왼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 손바닥을 다운(down)시켜 박수를 치는 동작을 연습하자.	1비트(beat) 내리기가 정확하게 맞도록 왼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 손바닥을 내려 박수를 치는 동작을 연습하자.	‘내리기’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운(down)’과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운’은 ‘내리기’로, ‘다운시켜’는 ‘내려’로 수정한다.
1415	7	음악	중학교	1	정확	1112	왼손은 그대로 잡은채	왼손은 그대로 잡은 채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잡은채’와 같이 앞말에 붙여 쓰면 안 된다. ‘잡은 채’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416	7	음악	중학교	2	소통	2111	가락이 상행하였다가 하행한다 .	가락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	가락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상행’과 ‘하행’이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행하였다가 하행한다’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로 수정한다.
1417	7	음악	중학교	2	정확	1211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달라 .	같은 평조, 계면조라도 지역이나 음악의 형태에 따라 연주 방법이 달라 .	‘틀리다’를 ‘갈지 않다’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틀러’를 ‘달라’로 수정한다.
1418	9	음악	중학교		정확	1112	3화음: 어떤 음을 밑음으로 하여 그 위에 3도와 5도의 음을 쌓아올린 화음을 말한다.	3화음: 어떤 음을 밑음으로 하여 그 위에 3도와 5도의 음을 쌓아 올린 화음을 말한다.	‘쌓아올리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쌓다’와 ‘올리다’는 각각 한 단어이고, ‘쌓아올리다’라는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쌓아 올리다’와 같이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19	9	음악	중학교		소통	2112	SNS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민요를 세계인에게 알려 보자.	누리소통망(SNS)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민요를 세계인에게 알려 보자.	교과서에서 'SNS'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한글 표기와 섞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인 '누리소통망'으로 수정한다.
1420	9	음악	중학교		정확	1112	스마트 폰 으로 연주하는 타악 합주	스마트폰 으로 연주하는 타악 합주	'스마트 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스마트폰'은 한 단어이므로 '스마트폰'과 같이 쓴다.
1421	9	음악	중학교		정확	1221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을 노래 부를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악곡'은 '음악의 곡조'나 '곡조를 나타낸 부호'이다. 따라서 '악곡을 노래 부르다'와 같은 표현은 어색하다.
1422	9	음악	중학교		정확	1221	타악기를 주된 악기로 사용하며 춤과 노래를 동시에 연주하는 음악이 많다.	타악기를 주된 악기로 사용하며 춤을 추고 동시에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는 음악이 많다.	'연주하다'는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다'의 의미로 '악기를 연주하다', '음악을 연주하다'와 같이 사용된다. '춤을 연주하다'는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춤을 추다'로 수정한다.
1423	7	음악	고등학교		소통	2213	1)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로 고구려는 2)중국과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고구려는 1)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2)중국 및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1) '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24	7	음악	고등학교		정확	1222	1)북방과 밀접한 지리적 관계로 고구려는 2)중국과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고구려는 1)북방과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2)중국 및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2) '중국과 서역과'와 같이 '과'를 두 번 사용하기보다는 '및'을 사용하여 '중국 및 서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425	7	음악	고등학교		소통	2213	각운을 이루는 단어에 일상생활의 이야기나 느낌, 생각 을 담아 리듬에 맞춰 부르는 랩은 힙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각운을 이루는 단어에 일상생활의 이야기나 느낌, 생각 을 담아 리듬에 맞춰 부르는 랩은 힙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느낌 생각'이 지시하는 바가 모호하다. 문맥상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여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1426	7	음악	고등학교		소통	2223	또 이 음악을 연주한 후 느낌을 모아 제목을 붙여 보자.	또 이 음악을 연주한 후 연주 시의 느낌을 고려하여 제목을 붙여 보자.	'연주한 후 느낌을 모아'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연주할 때의 느낌을 고려하라는 뜻일 경우 '연주 시의 느낌을 고려하여' 정도로 수정한다.
1427	7	음악	고등학교		소통	2222	반주 음악: 극 중의 분위기와 인물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은 경극의 반주에서 시작된다. 모든 동작은 반주와 일치되며, 극의 줄거리를 인도하며 이에 따라 배우가 오른다.	반주 음악: 극 중의 분위기와 인물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은 경극의 반주에서 시작된다. 모든 동작은 반주와 일치되며, 반주는 극의 줄거리를 인도하며 이에 따라 배우가 오른다.	후행절의 주어는 '반주는' 정도인데 선행절의 주어인 '모든 동작은'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후행절에 주어인 '반주는'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1428	7	음악	고등학교		정확	1112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 밖에 살지 않는 2)미지의 땅 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밖에 살지 않는 2)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1) '10% 밖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밖에'는 조사이므로 '10%밖에'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429	7	음악	고등학교		공공	3211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 밖에 살지 않는 2)미지의 땅 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10%밖에 살지 않는 2)아프리카 는 인구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고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의 땅이다.	2) 세계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인구의 10%밖에 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아프리카를 '미지의 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지의 땅'이라는 표현은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30	7	음악	고등학교		소통	2112	영화나 드라마, TV 광고 등을 녹화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면을 골라 동영상 파일을 만든다.	영화나 드라마, 텔레비전 광고 등을 녹화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면을 골라 동영상 파일을 만든다.	'텔레비전'이라는 외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TV'와 같은 영어 알파벳 표기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텔레비전'으로 표기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31	7	미술	초등학교	3, 4	소통	2111	자연에서 질감, 양감, 동세 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느껴 봄시다.	1안) 뜻풀이 제시 2안) 괄호에 '운동감' 병기	'동세(動勢)'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운동감'을 뜻하는 말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쉽 지 않은 단어이다. 2007개정 초등학교 미술 5-6학년 교과서(천재교육, 6쪽)에서는 학습 용어로 '동세'를 제시하면서 괄호에 '운동감'을 병기했다. 따라서 '운동감'을 병기하거나 '동세'에 대한 뜻을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32	7	미술	초등학교	5, 6	소통	2213	1)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2)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3)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2)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3)느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우리 사회"라는 표현은 수식 구조의 문제로 부자연스럽다. 표현 의도에 따라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혹은 '급격한 산업화로 변화를 겪은 우리 사회' 정도로 수정한다.
1433	7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221	1)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2)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3)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2)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3)느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는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1434	7	미술	초등학교	5, 6	소통	2214	1)급격한 현대 산업화로 변하는 2)우리 사회의 현상을 겪으면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3)느끼고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2)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3)느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 친환경 미술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 계기, 이유이므로 '느끼고'를 '느껴'로 수정한다.
1435	7	미술	초등학교	5, 6	소통	2213	사건의 인물 과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합니다.	사건 속 인물 과 같은 표정과 몸짓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합니다.	'사건의 인물'에서 '의'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뜻이 모호한 표현이 되었다. '사건 속 인물'과 같이 표현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1436	7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221	친구의 작품에서 원근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의 작품에서 원근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원근감을 표현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했는지'와 같은 능동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친구의 작품에서'라는 부사어를 고려할 때 '표현되었는지'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37	7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221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을 상상의 세계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중 상상의 세계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문맥을 고려할 때 '일을'을 '일 중'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38	9	미술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소마트로프는 실을 감은 후 당기면 빠른 속도로 돌아 앞뒀면 의 그림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예요.	-	-
1439	9	미술	초등학교	3, 4	정확	1222	우리는 미술을 공부를 통하여 사물을 잘 관찰하고, 생각과 느낌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 공부를 통하여 사물을 잘 관찰하고, 생각과 느낌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공부를 통하여'에서 '를'이 중복 사용되었다. '미술을'의 '을'을 삭제하면 '공부'의 '를'이 '미술 공부'와 결합한 것이 되어 자연스럽다.
1440	9	미술	초등학교	3, 4	정확	1113	이와 함께 아름다움의 원리와 빛과 색을 탐구하여 미술의 즐거움을 한층 더 익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른 나라의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움의 원리와 빛과 색을 탐구하여 미술의 즐거움을 한층 더 익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 미술과 다른 나라의 새로운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로 한 문장이 종결되므로 원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41	9	미술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책표지	책 표지	'책표지'를 구로 보아 띄어 쓴다. 만일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쓴다면 사전에도 올려야 한다.
1442	9	미술	초등학교	3, 4	정확	1112	휴지심 에 과일 포장지를 붙여 날개를 만듭니다.	휴지 심 에 과일 포장지를 붙여 날개를 만듭니다.	'심'은 '속에 있는 물건'을 뜻하는 명사이므로 '휴지 심'과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43	9	미술	초등학교	5, 6	소통	2213	'고'와 '가'의 'ㄱ'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생각하며 쓴다.	'고'와 '가'에서 'ㄱ'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생각하며 쓴다.	"고'와 '가'의 'ㄱ'의 모양과 크기의"에서 '의'가 반복되면서 수식 구조가 중층적이 되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았다. 첫 번째 '의'를 '에'로 고치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
1444	9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112	우리 마을은 전라남도를 다스리는 관아가 천년 이상 있었던 목사 고을로 전통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 마을은 전라남도를 다스리는 관아가 천 년 이상 있었던 목사 고을로 전통 있는 고장입니다.	'천년'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천년'이 '오랜 세월'을 뜻할 경우 한 단어로 보아 붙여 쓰지만, 이 경우에는 문맥상 수 관형사인 '천'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천 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445	9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112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대로 잘 움직이나요?	움직이는 조형물이 계획한 대로 잘 움직이나요?	'계획한대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여기서 '대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446	9	미술	초등학교	5, 6	정확	1221	제품의 보호와 운반의 편리함을 살려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제품을 보호하고 운반을 편리하게 하여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목적어인 '제품의 보호'와 서술어인 '살려'가 호응하지 않아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에 문제가 없도록 '제품을 보호하고' 정도로 수정한다.
1447	9	미술	초등학교	5, 6	소통	2112	페이스 페인팅 으로 또 다른 나의 얼굴을 만들어 봅시다.	얼굴 그림 으로 또 다른 나의 얼굴을 만들어 봅시다.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외국어의 남용에 해당한다. '페이스 페인팅' 대신 '얼굴 그림'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한다.(국어순화자료집, 2002 참조.)
1448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그 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비례와 동적이고 사실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힘썼으며, 특히 조각에서는 인체의 비례를 중요시했다.	그 결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비례와 동적이고 사실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데 힘썼으며, 특히 조각에서는 인체의 비례를 중요시했다.	'나타내는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1449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색상환에서 마주 보고 있는 색은 보색 관계로 서로 반대색이며, 가까이 있는 색은 유사색 이다.	-	-
1450	7	미술	중학교		소통	2214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오늘날 디자인의 특징'과 '앞으로 디자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뒷부분을 앞부분과 문법적으로 대등한 명사구인 '앞으로의 발달 방향' 정도로 수정하고 '에 대해'를 붙인다.
1451	7	미술	중학교		정확	1222	위 왼쪽 그림의 가운데 있는 점을 한참 보다가 오른쪽의 점으로 눈을 돌리면 왼쪽 모양의 보색 잔상(보라가 노랑, 빨강이 청록, 파랑이 주황)이 떠오른다.	위의 왼쪽 그림 가운데 있는 점을 한참 보다가 오른쪽의 점으로 눈을 돌리면 왼쪽 모양의 보색 잔상(보라가 노랑, 빨강이 청록, 파랑이 주황)이 떠오른다.	'위 왼쪽'이라는 표현은 '위'와 '왼쪽'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어색하다.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위의 왼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52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우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 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1) '장식 용품'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용품'에 대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을 때는 앞의 말과 띄어 쓰고, '사무용품', '유아용품'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접사가 연속적으로 붙은 구조에서는 붙여 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테리어'의 정의에서 "... 또는 실내 장식용품"이라 표기하였다. 따라서 '장식용품'으로 수정한다.
1453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우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 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 공예는 생활용품, 1)장식용품 ,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 등을 2)만드는 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 '만드는 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1454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인류는 오래전부터 편리한 이동 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편리한 이동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연구하는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55	7	미술	중학교		정확	1222	조각가는 이집트어로 생명을 지속시키는 사람이라는 는 뜻을 가진다.	조각가는 이집트어로 생명을 지속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	'사람이라는 는'에서 조사 '는'이 중복 사용되었다. '는'을 삭제하여 '사람이라는'으로 수정한다.
1456	7	미술	중학교		소통	2214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뿐 아니라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라는 명사구와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색하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가질' 정도로 수정하여 대등한 문법 층위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1457	7	미술	중학교		소통	2112	페이스 페인팅 은 먼저 주제를 정하여 종이에 스케치를 한 후 그리는 순서를 정한 다음, 팔이나 손에 가볍게 연습을 해 보고 얼굴에 그린다.	얼굴 그림 은 먼저 주제를 정하여 종이에 스케치를 한 후 그리는 순서를 정한 다음, 팔이나 손에 가볍게 연습을 해 보고 얼굴에 그린다.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외국어의 남용에 해당한다. '페이스 페인팅' 대신 '얼굴 그림'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한다.(국어순화자료집, 2002 참조.)
1458	7	미술	중학교		소통	2112	페이스 페인팅 은 오래전부터 신분, 종족,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 행해졌다.	얼굴 그림 은 오래전부터 신분, 종족,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 행해졌다.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은 외국어의 남용에 해당한다. '페이스 페인팅' 대신 '얼굴 그림'이라는 순화어를 사용한다.(국어순화자료집, 2002 참조.)
1459	7	미술	중학교		정확	1222	화각 공예는 식물을 종이처럼 얇게 오려 반투명의 종잇장과 같이 만든 다음, 그 위에 단청 물감으로 채색하여 나무로 만든 함, 장, 농 등의 표면에 붙여서 제작하는 공예이다.	화각 공예는 식물을 종이처럼 얇게 오려 반투명의 종잇장과 같이 만든 다음, 그 위를 단청 물감으로 채색하여 나무로 만든 함, 장, 농 등의 표면에 붙여서 제작하는 공예이다.	'그 위'가 단청 물감으로 채색되는 공간이므로, 조사 '에'를 '를'로 수정한다.
1460	7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물 등을 포함한 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물 들을 포함한 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등'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을'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461	9	미술	중학교		공공	3212	분홍색 옷차림을 한 여자아이를 보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분홍색 정장과 구두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성인 남성을 거리에서 만난다면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남성이 분홍색 옷을 입는 것이 이상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1462	9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연필을 얇혀 사용하면 부드러운 명암 표현이가능하며 , 넓은 면을 다룰 때 주로 사용한다.	연필을 얇혀 사용하면 부드러운 명암 표현이 가능하며 , 넓은 면을 다룰 때 주로 사용한다.	'표현이가능하며'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표현이'와 '가능하며'는 띄어 써야 한다.
1463	9	미술	중학교		정확	1112	이탈리아어로 '2년 마다' 라는 뜻으로, 2년 주기로 열리는 미술 관련 국제 전시회.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 라는 뜻으로, 2년 주기로 열리는 미술 관련 국제 전시회.	'2년 마다'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마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1464	9	미술	중학교		소통	2214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품에 그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도 한다.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작품에 그 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조가 달라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선행절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로, '소재로 삼기도'를 '소재가 되기도'로 수정한다.
1465	7	미술	고등학교		소통	2213	20세기 현대 미술의 하나인 추상화는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 과 주관적인 감흥을 우연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20세기 현대 미술의 하나인 추상화는 대상을 기하학적 입체로 환원하여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 과 주관적인 감흥을 우연적이며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은 수식 구조가 부자연스럽다. '기하학적 입체로의 환원으로'를 '기하학적 입체로 환원하여' 정도로 수정한다.
1466	7	미술	고등학교		정확	1112	감상 활동지로 감상하기: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을 관람 할 때, 감상용 자료인 감상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감상하는 방법이다.	감상 활동지로 감상하기: 전시장, 미술관, 박물관을 관람할 때, 감상용 자료인 감상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감상하는 방법이다.	'관람 할'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관람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관람'과 '할'을 붙여 쓴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67	7	미술	고등학교		소통	2221	광고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함축된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광고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함축된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상품 홍보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위한~위하여'와 같이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어 부자연스럽다. '상품을 알리기 위한'의 뜻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상품 홍보에' 정도로 수정한다.
1468	7	미술	고등학교		정확	1211	때문에 미술품을 시대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가 미술에 미치는 1) 역할과 2)종교 및 사상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미술품을 시대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가 미술에 미치는 1) 영향과 2)미술이 종교 및 사상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1) '미치는 역할'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 '역할'을 '영향'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469	7	미술	고등학교		소통	2222	때문에 미술품을 시대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가 미술에 미치는 1) 역할과 2)종교 및 사상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미술품을 시대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화가 미술에 미치는 1) 영향과 2)미술이 종교 및 사상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2) '종교 및 사상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무엇이 종교 및 사상과 영향을 주고받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종교 및 사상과도' 앞에 '미술이'를 넣어 주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한다.
1470	7	미술	고등학교		정확	1221	우리는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계승하며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 미술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가치를 드높인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계승하며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 미술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통 미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미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전통 미술은~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미적 가치를 드높인다'는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다. 주술 호응을 고려하여 문장을 수정한다.
1471	7	미술	고등학교		정확	1131	전통적으로 모란이 상징했던 부귀영화에 대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물질 만능에 대한 각성의 메세지 를 전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모란이 상징했던 부귀영화에 대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물질 만능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 를 전달하고 있다.	'message'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메세지'가 아니라 '메시지'로 표기한다.
1472	7	미술	고등학교		소통	2213	조선 시대에는 백자와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대중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활발한 차원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조선 시대에는 백자와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대중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활발히 도자기가 만들어졌다.	'활발한 차원'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 '활발히'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1473	7	미술	고등학교		정확	1211	초기에는 주로 다른 그림의 배경으로 활용되던 풍경화는 점차 독립적인 위치가 되어 그려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다른 그림의 배경으로 활용되던 풍경화는 점차 독립적인 위상을 지니며 그려지게 되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위치'보다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하는 '위상'이 더 적절하다.
1474	7	체육	초등학교	3	정확	1221	건강과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건강'을 향상한다는 표현은 부자연스럽다. 문맥을 고려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정도로 수정한다.
1475	7	체육	초등학교	4	소통	2221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에 '미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를 삭제한다.
1476	7	체육	초등학교	5	소통	2222	3. 발구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몸이 가로대보다 안쪽의 땅에 닿으면 무효가 됩니다. 4. 무효도 한 번의 기회로 칩니다.	3. 발구르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몸이 가로대보다 안쪽의 땅에 닿으면 무효가 됩니다. 4. 무효도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칩니다.	무효도 한 번의 기회로 친다는 것은 무효가 된 것도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1477	7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112	왜 일 주일에 3번 이상 해야 할까요?	왜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야 할까요?	'일주일'은 한 단어이므로 '일'과 '주일'을 붙여 써야 한다.
1478	7	체육	초등학교	6	정확	1222	깃털의 가벼운 움직임과 공의 무거운 움직임처럼 움직임에도 힘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깃털의 가벼운 움직임과 공의 무거운 움직임처럼 움직임도 힘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움직임'은 주어이지 부사어가 아니므로 '에'가 삭제되어야 한다. '움직임에도'를 '움직임도'로 수정한다.
1479	7	체육	초등학교	6	소통	2111	나의 협응성 을 측정해 보고, 협응성 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평가해 봅시다.	(초등학교 수준을 고려하여 '협응성'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고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협응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
1480	7	체육	초등학교	6	정확	1221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운동을 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운동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했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주술 호응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81	9	체육	초등학교	3	소통	2213	친구들과 함께 움직임을 연결하고 발표하면서 느꼈던 재미있었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친구들과 함께 움직임을 연결하여 발표해 보고 , 재미있었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연결하면서 느꼈던 점인지, 발표하면서 느꼈던 점인지, 아니면 연결과 발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지가 불분명하다. 움직임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므로, '연결하고 발표하면서 느꼈던'을 '연결하여 발표해 보고'로 수정한다.
1482	9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121	등하교할 때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봅시다.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봅시다.	'등하교', '등하교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등하교'를 '등·하교'로 수정하거나, '등하교할 때'를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와 같이 풀어써 쓴다.
1483	9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222	민속 표현이란: 한 민족이나 국가 서민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전통적이고 고유한 춤을 말합니다.	민속 표현이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서민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전통적이고 고유한 춤을 말합니다.	'국가 서민들'이라는 표현은 '국가'와 '서민들'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어색하다. 관형격 조사 '의'를 넣어 '국가의 서민들'로 수정한다.
1484	9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222	부록에 있는 벽불이사진 을 활용해 봅시다.	부록에 있는 벽불이사진 을 활용해 봅시다.	조사 '를'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인다. 따라서 '벽불이사진' 뒤에는 '를'이 아니라 '을'을 써야 한다.
1485	9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112	신 나게 주먹 야구형 게임을 해 봅시다.	신나게 주먹 야구형 게임을 해 봅시다.	'신 나게'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신나다'는 2014년 3/4분기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나게'로 붙여 써야 한다.
1486	9	체육	초등학교	5	소통	2214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연성: 통증 없이 관절을 부드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많이'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부드럽고'를 '부드럽게'로 수정하여 접속 구조가 아니라 수식 구조가 되게 한다.
1487	9	체육	초등학교	5	정확	1221	체중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면서 허리와 팔을 이용해 방망이를 끝까지 힘차게 휘두릅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이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체중이~오면서'보다는 '체중을~옮기면서'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488	7	체육	중학교	1	소통	2231	건강 활동: 건강과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	건강 활동: 건강과 체력의 중요성을 알고 ,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활동	'~에 대한 중요성'에서 '~에 대한'은 불필요한 번역투 표현이다. '의'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1489	7	체육	중학교	1	정확	1221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라인 롤러보다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연습과 자기 수준에 맞는 장�물 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인라인 롤러보다 부상의 위험이 크므로 자기 수준에 맞는 장�물 을 선택하여 충분히 연습 해야 한다.	'충분한 연습'과 '선택해야 한다'가 호응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다.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와 같이 수정한다.
1490	7	체육	중학교	1	정확	1211	따라서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 술을 권유하면 거절하는 태도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 술을 권유하면 거절하는 태도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뜻하므로 '지식을 알고'는 부자연스럽다. '지식을 갖고'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1491	7	체육	중학교	2	정확	1211	따라서 추진력이 클수록 사거리 는 멀어진다.	따라서 추진력이 클수록 사거리 는 길어진다.	'멀다'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므로 사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어진다고 표현해야 한다.
1492	7	체육	중학교	2	정확	1112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 될 .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는 절대 안 될 .	'안된다'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에는 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과 '될'을 띄어 써야 한다.
1493	7	체육	중학교	2	공공	3212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삭제.)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의 노출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494	7	체육	중학교	2	정확	1112	이러한 신체 활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배트와 공을 이용한 놀이도 이중 하나이다.	이러한 신체 활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배트와 공을 이용한 놀이도 이중 하나이다.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그중'은 있지만 '이중'은 없다. 따라서 '이'와 '중'을 띄어서 '이 중'과 같이 써야 한다.
1495	7	체육	중학교	2	정확	1112	철수는 비만이고 체력도 너무 약한 걸 .	철수는 비만이고 체력도 너무 약한걸 .	'-ㄴ 걸'은 어미이므로 '약한 걸'과 같이 띄어 쓰지 않는다. '약한걸'과 같이 붙여 쓴다.
1496	7	체육	중학교	2	소통	2222	청소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성적인 욕구가 증가하여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을 배우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성적인 욕구가 증가하여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 지식을 배우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성적 욕구 를 해소하려는 경우가 있다.	해소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소하려는' 앞에 '성적 욕구'와 같은 해소의 대상을 제시한다.
1497	7	체육	중학교	2	정확	1112	특히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인 패스트 푸드 는 피한다.	특히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인 패스트푸드 는 피한다.	'패스트푸드'는 한 단어이므로 '패스트'와 '푸드'를 붙여 써야 한다.
1498	7	체육	중학교	3	소통	2213	게임 중에 공이 네트나 모서리에 맞았을 때 미안하다는 예의를 표시했는가?	게임 중에 공이 네트나 모서리에 맞았을 때 미안함을 표시했는가?	'미안하다는 예의'는 '미안하다는'이 '예의'를 수식하는 구조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미안함을 표시했는가' 정도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임을 설명한다.
1499	7	체육	중학교	3	소통	2112	요즘에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구나 규칙을 변형한 뉴 스포츠 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구나 규칙을 변형한 새로운 스포츠 가 확산되고 있다.	'뉴 스포츠'는 '새로운 스포츠/새 스포츠'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1500	7	체육	중학교	3	정확	1221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는 등 현재까지 배드민턴 강국임을 유지하고 있다 .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는 등 현재까지 배드민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강국임을 유지하다'는 유지하는 대상이 '강국임'이 되어 부자연스럽다. '지위를 유지하다'로 수정한다.
1501	7	체육	중학교	3	소통	2321	이처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달리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스포츠이지만 함께 경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되는 스포츠이다. 서비스를 하라고 상대방에게 공이나 물체를 네트 너머로 넘겨줄 때에도 정중하게 넘겨주어야 하며,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들어가 점수를 얻게 되면 예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할 때에는 같은 팀 동료가 더욱 ভাল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함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감과 팀워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	이처럼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영역형 경쟁 스포츠와 달리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스포츠이지만 함께 경기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되는 스포츠이다. 서비스를 하라고 상대방에게 공이나 물체를 네트 너머로 넘겨줄 때에도 정중하게 넘겨주어야 하며, 운 좋게 네트를 맞고 들어가 점수를 얻게 되면 예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할 때에는 같은 팀 동료가 더욱 ভাল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감과 팀워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요구된다는 점이 문단의 주제이다. 문단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네트형 경쟁 스포츠의 효과는 문단을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다.
1502	9	체육	중학교		소통	2112	과격한 신체 접촉을 줄인 뉴스포츠 종목 세 가지를 찾아서 소개해 보자.	과격한 신체 접촉을 줄인 새로운 스포츠 종목 세 가지를 찾아서 소개해 보자.	'뉴 스포츠'는 '새로운 스포츠/새 스포츠'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1503	9	체육	중학교		소통	2211	그 후 이들에게 사사받으 진수방, 김민자, 장추하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이들에게 사사한 진수방, 김민자, 장추하 등이 현대 무용의 정립을 위하여 힘썼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사사(師事)하다'는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사받으'가 아니라 '사사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1504	9	체육	중학교		소통	2112	페넬티 킥을 할 때 키커 는 누구나 긴장하게 된다.	페넬티 킥을 할 때 차는 선수 는 누구나 긴장하게 된다.	'키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이다. 국립국어원의 '다툼은 말(순화어)'에 따라 '차는 선수'로 수정한다.
1505	9	체육	중학교		정확	1211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맥을 고려할 때,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하는' 뜻을 지닌 '필수적'보다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의 뜻을 가진 '필연적'이 더 적절하다.

연번	교육과정	교과	학교급	학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원문	개선안	근거
1506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221	사람의 무게 중심은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릎을 구부려서 앉을수록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것이나 머리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사람의 무게 중심은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릎을 구부려서 앉을수록 무게 중심이 낮아지고 , 머리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것' 등이 그것이다'에서 '것'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럽다. '것'을 빼고 '낮아지고', '이동한다'로 간결히 표현한다.
1507	7	체육	고등학교		공공	3212	성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 - 여성: 남자 친구와 단둘이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 있다는 것은 남자에게 어떤 행동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됨을 안다.	(해당 내용 삭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의미로 오히려 우려가 있고, 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줄 가능성도 있다.
1508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211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한다면 자신이 몇 달 후에 어느 수준의 코스를 정복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여 준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한다면 자신이 몇 달 후에 어느 수준의 코스를 정복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동주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높여 준다'와 같은 사동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높여 준다'를 '높아진다'로 수정한다.
1509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311	이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큰 병원이 아니면 치료가 곤란한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큰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큰 병원이 아니면 치료가 곤란한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므로 '이런 때에는'보다는 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로 인해'가 더 적절하다.
1510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112	주심 중 한 명은 동전을 토스하여 공격 팀과 수비 팀의 순서를 결정한다.	주심 중 한 명은 동전을 던져 공격 팀과 수비 팀의 순서를 결정한다.	'토스'가 동전 던지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전을 토스하여'는 '동전을 던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2001)에서도 '토스'에 대한 순화어로 '동전 던지기'를 제시하고 있다.
1511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112	직접·간접 프리킥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에 공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퍼 는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공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직접·간접 프리킥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에 공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차는 선수 는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공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키퍼'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이다.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순화어)'에 따라 '차는 선수'로 수정한다.
1512	7	체육	고등학교		정확	1222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의 위치 에 있어야 한다.	타자에게 투구할 때 정규 위치 에 있어야 한다.	'정규의 위치'는 '정규 위치'를 뜻하는데,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부자연스러워졌다. 사전에서도 '정규 방송, 정규 직원' 등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정규 위치'가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1513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221	티볼의 경기 기능은 야구의 경기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야구 경기 기능인 받기, 던지기, 타격 등의 경기 기능을 익혀서 티볼 경기에 적용해야 한다.	티볼의 경기 기능은 야구의 경기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야구 경기의 받기, 던지기, 타격 등과 같은 기능을 익혀서 티볼 경기에 적용해야 한다.	'기능'과 '경기'가 반복되어 부자연스럽다. '야구 경기 기능인'을 '야구 경기의'로, '경기 기능을'을 '기능을'로 수정한다.
1514	7	체육	고등학교		소통	2111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를 조사하고 가검물 을 채취하며, 설문 조사도 실시한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를 조사하고 검사물 을 채취하며, 설문 조사도 실시한다.	'가검물(可檢物)'은 '병군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두는 물질'을 뜻하는 단어로, 고등학교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검사물'로 수정한다.
1515	9	통합	초등학교	1	공공	3212	던져 올린 공깃돌을 받는 게 어려우니까 바보 공깃놀이 하자.	(장애 차별적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바보 공깃놀이'는 특정 유형의 놀이를 '장애'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장애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차별성을 담고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1516	9	통합	초등학교	2	소통	2222	몸의 이름 을 써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요.	몸의 각 부분의 이름 을 써 본 후 이야기를 나누어요.	제시된 활동이 몸의 각 부분의 이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각 부분'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수정해야 한다.